



6·25한국전쟁 시기
양양군민이
겪은 이야기 II

양양문화원

6·25한국전쟁 시기
양양군민이 겪은 이야기 Ⅱ



발간사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무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유년은 국정농단과, 대통령선거 등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원에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향토사를 바로잡고 잊혀져가고 소멸해가는 향토 사료를 발굴 보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복이후 38° 선을 경계로 남·북 분단지역은 민간왕래가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6·25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강원도에 7개 군과, 경기도 2개 군이 수복 지역이 되었지만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으로 원주민 모두를 강제 소개(疎開)시켰고 일반 민간인의 접근도 일체금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대표인 미군은 유독 양양지역에 한해 예외로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면서 미군정통치(美軍政統治)가 실시되어 군민들에게는 새로운 국면전환(局面轉換)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은 군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몸소 겪은 애환을 양양지역을 한정적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2015년에 『한국전쟁시기 양양군의 군정 통치에 대한 고찰』 I 집을 편찬하였고, 이번에는 양양군민들이 겪은 한 많은 피란살이를 중심으로 『6·25한국전쟁 시기 양양군민이 겪은 이야기』 II 집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집필과정에서 느낀 점은 그 당시에 몸소 겪으신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으로 노쇠 되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과, 38°선에 의하여 한 마을이 남북으로 갈라진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 같은 마을 사람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면서 본의 아니게 적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련 자료조사와 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과 당시의 생활상을 스스로없이 증언하여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는 분단국가에서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여 굳건한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여야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양양문화원장 윤 여 준

서 문

올해가 민족상잔(民族相殘)의 비극이 발발한지 67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뜻 깊은 해를 보내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드나 양양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어르신과 재향군인을 한정적 조사대상으로 설정(設定)하고 6·25전쟁 때 겪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이 지난 2015년과 2017년 2년차에 걸쳐 현지답사를 통해 80여 명의 구술자료 수집을 마쳤다.

양양은 지정학적으로 변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한이 서린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거(典據)로는 고려 때 강릉도 존무사(江陵道存撫使)이었던 안축(安軸)선생은 양양은 전란(戰亂)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서 덕과 재주를 지닌 인물이 나지 않았다고 그의 문집인 근재집(謹齋集)의 양양신학기(襄陽新學記)에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이 역사시대 이래로 변란이 있을 때 마다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原動力)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양양인의 강인한 정신력이 뇌리에 면면히 이어온 까닭이라고 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국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5세기 중반 이후 신라와 고구려의 변방으로써 격전장이 되었으며,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고종 때는 몽골군이 침략하였을 때 양주의 부병과 부민이 결사 항쟁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양주성은 함락되었고, 부병과 부민은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군민들이 입은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아픔이 체 가시기도 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는 자유 민주 진영의 최전선인 남한과 공산 체제의 최전선인 북한으로 나누어 졌다. 이 때 양양군도 이남과 이북으로 나뉘면서 7개 읍면 중 현남면은 완전히 38°선 이남이었고 현북면이나 서면도 일부는 이남에 속해 있었다.

금번 면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6·25전쟁에 대한 체험담의 중심은 현재의 80대 이다. 그 이유는 지금의 70대는 당시에 10세 전후로 부모를 따라 다니기에 급급했었고, 90대 이상은 많은 체험은 하였으나 고령으로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노쇠현상으로 구술제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면담내용의 비중이 한(恨)많은 피란살이 보다는 대부분 전쟁수행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게 된 연유도 80대는 당시의 13세부터 20세를 전후한 나이 군(群)에 속해 있었음으로 피아(彼我)를 막론하고 전쟁 물자를 나르기 위해 강제로 끌려가 군번도 계급장도 없는 소위 지계꾼으로 활동하였거나, 당시 현역병으로 입대하였기 때문에 전쟁 체험담 일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글의 중심은 향토사의 기록을 사실대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그럼에도 제보자 중에는 두려움과 중압감 때문에 일부는 사실을 비껴 갈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

또한 자료내용도 독자를 위한 흥미위주 보다는 당시에 처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 한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면담자에 따라서는 어감(語感)차이로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6·25전쟁의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는지를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므로 문장구성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다고 본다. 그리고 면별로 면담자의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특정지역에 치우친 것이 아니며 당시 거주지를 감안하여 면담한바 현 거주별로 목록을 작성한 결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늦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여 제3집을 발간하는 것도 향토사 발굴과 보전에 하나의 방편이 될 것으로 사료한다.

끝으로 본 자료집이 출간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진하 군수님과 이기용 의장님 그리고 면담에 진솔하게 응해주신 각 마을의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2017. 12.

이 규 환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소장

일러두기

- 1/ 본인이 원치 않을 시 가명으로 기록하되 동의를 있으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실명으로 하였다.
 - 2/ 조사대상은 6·25전쟁 전부터 현재까지 양양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재향군인과 일부 주민으로 한정하였다.
 - 3/ 문헌자료는 2015년 12월에 양양문화원에서 기 발행한 한국전쟁시기 양양군의 군정 통치에 대한 고찰 책자를 참고토록 하였다.
 - 4/ 발화자(發話者)의 의중을 존중하여 표준어로 변환하지 않고 토속어(土俗語)를 그대로 옮겨 적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시만 일부 수정하였다.
 - 5/ 예외로 고인이 남긴 6·25전쟁과 관련된 수기 및 생존 시 체험담을 유가족이 정리하여 제공할 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포함하여 편집하였다.
-



6·25한국전쟁 시기
양양군민이 겪은 이야기 II

차례

● ● ● 양양읍 : 28명

청곡 1리	추두엽	• 11
서문리	최선권	• 16
연창리	김홍식	• 17
남문 3리	한재덕	• 20
남문 2리	신덕순	• 22
남문 2리	김동녀	• 24
조산리	최용희	• 24
성내리	원태수	• 25
조산리	최용술	• 28
조산리	김정숙	• 29
청곡 2리	김상환	• 30
남문 1리	양재억	• 33
성내리	박제철	• 37
남문 4리	김준기	• 38
청곡 1리	이상숙	• 41
구교리	노재춘	• 42
구교리	김옥자	• 45
서문리	한종성	• 46
성내리	이찬호	• 49
구교리	최종원	• 52
남문 3리	김남하	• 55
남문 4리	유승일	• 56
월리	김태동	• 60
성내리	노돈	• 65
연창리	김용희	• 67
군행리	김구	• 70
월리	김충호	• 109
구교리	김성영	• 120



6.25한국전쟁 시기
양양군민이 겪은 이야기 Ⅱ

● ● ●
차 례

● ● ● 서면 : 10명

서 선 리	이순형	• 123
송 천 리	탁홍영	• 126
서 림 리	김성제	• 129
서 림 리	손종관	• 133
장 승 리	강봉진	• 136
서 림 리	이춘우	• 144
수 상 리	조홍식	• 147
수 리	김종호	• 149
서 림 리	이대영	• 153
오 색 리	이정식	• 181

● ● ● 손양면 : 6명

금 강 리	이진형	• 187
학 포 리	박인동	• 191
수 여 리	이주희	• 193
동 호 리	홍성하	• 194
동 호 리	이흥만	• 200
수 여 리	이종우	• 203

● ● ● 현북면 : 12명

잔 교 리	박광표	• 213
잔 교 리	홍필녀	• 216
잔 교 리	윤옥남	• 221
하광정리	김용섭	• 222
장 리	김상연	• 225
어성전리	김용범	• 229
말 곡 리	김환기	• 234
하광정리	권오열	• 238
대 치 리	김희곤	• 242
명 지 리	윤춘애	• 247
원일전리	박상묵	• 249
원일전리	박상우	• 252



6·25한국전쟁 시기
양양군민이 겪은 이야기 Ⅱ

차례

● ● ● 현남면 : 10명

동 산 리	김규인	• 254
광 진 리	박도인	• 258
인 구 2리	김주호	• 262
인 구 2리	이기진	• 266
임호정리	임명식	• 268
북 분 리	전경찬	• 272
북 분 리	이연주	• 276
상월천리	전찬오	• 279
상월천리	조진구	• 283
견 불 리	조병제	• 285


● ● ● 강현면 : 15명

정 암 리	김충래	• 287
강 선 리	손인호	• 294
정 암 리	김근수	• 299
정 암 리	장용진	• 302
정 암 리	김금녀	• 309
정 암 리	이계영	• 313
물 치 리	노좌현	• 316
물 치 리	문동재	• 317
회 룡 리	이덕모	• 320
둔 전 리	추종삼	• 321
전 진 리	이진원	• 324
석 교 리	김주혁	• 327
정 암 리	김춘래	• 331
사 교 리	김광래	• 334
전 진 리	이철수	• 337

● ● ● 참가인원 : 81명



■ 추두엽 (남, 88세, 양양읍 청곡 1리)
■ 면담일 : 2017. 11. 14



◆ **낙동강 전선으로 내려간 형들은 한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

양양보통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되었고 북한 정치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농사일을 도왔다. 할아버지가 공산당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도 공산당을 싫어하게 되었다.

벼농사는 논이 빠지는 수렁논이라서 소로 갈지 못하고 쇠스랑으로 논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인민군이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이 적으니 싫어했다.

또 17세인 누나는 민청에서 밤을 세워가며 학습을 시키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다. 나는 15살로 조국보위 훈련을 한다고 목총을 가지고 총검술을 배웠는데,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섞이어 같이 훈련을 했다.

1950년 초엽에는 약 500여 명이나 되는 청년들을 조산국민학교에 모이게 한 다음 옛날 목욕탕 솔처럼 생긴 큼직한 솔을 걸어놓고 밥을 해 먹여 가며 각개전투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만 남았으니 남조선도 곧 해방을 시킬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전투에 나가자! 고 선동했다.

얼마 후 훈련 받은 500여 명의 청년들은 원산으로 올라가서 열차를 타고 낙동강 전선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서도 15명이나 갔지만 나는 어리다고 내년에 나가라고 하면서 집으로 보내주었고 그 때 낙동강 전선으로 내려간 형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

◆ 동호리 기차 굴속에 피란민들이 모여 있었다.

10월이 되자 국군이 양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청곡리 김기환과 함께 치안대에 입대하여 양양 감리교회 마당에서 약 5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제식훈련과 총검술을 받았다.

후에 대원들이 150여 명이 되자 소대를 편성하여 양양국민학교 교실에서 침식을 하다가 다시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6개월간 다니며 훈련을 받았다. 그 후 방위대에 편입되어 설악산에 파견되어 민가에 내려와 민간인들을 괴롭히는 공비들을 잡는 임무를 받았다.

그해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이 쳐내려오자 12월말 국군이 후퇴를 하면서 북에서 다시 내려오는 인민군이 들어가 사용한다고 집집마다 불을 싸 놓으면서 1·4후퇴가 시작되었다.

그때 어떤 부대 소령이 불을 놓으라고 해서 강현면 방아다리, 적은리, 방축리를 태우고 내일은 감곡리와 우리 마을을 태울 차례인데 우리 집은 남에 손에 맡기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태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하루전날 미리 태울까도 생각하였지만 이튿날 태우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생겨서인지 우리 마을은 태우지 않고 바로 후퇴하여 우리 집은 화재를 면하였는데, 그때 미리 태웠더라면 큰 일이 날 뻔 했다.

그러나 불을 태웠던 다른 집들은 논바닥에 터를 잡고 문쪽으로 가리고 생활을 하니 안타까웠지만 우리 집은 다행이라 했다. 1·4후퇴 당시 국군 부대는 우리에게 말도 없이 후퇴하여 우리 대원 7명은 나중에 후퇴하여 인구에 나가서 본대에 합류 할 수 있었고, 나는 이때 우리 부대 이름이 4863방위부대라는 걸 거기서 알았다.

우리 부대는 강릉까지 후퇴하였다가 전열을 갖추어 다시 북진 명령이 떨어

어졌다. 그때 피란민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우리 부대는 북쪽으로 진격해 갔다. 그러나 그해 눈이 많이 와서 바닷가 동호리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묶게 되었는데 북으로 들어오면서 보니 동호리 기차 굴속에 피란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 **국군으로 위장한 인민군의 기만술에 속아 대원들이 희생되었다.**

당시 대원들에게는 부대 소대장이 수류탄 2개와 M1소총과 탄알 40발을 부대원들에게 지급해주어 어깨에 메고 동료 6명(청곡리 추두엽과 임명우, 감곡리 김순웅, 송암 이기환, 상운리 윤상덕, 양혈리 김희중)과 북진을 하는데 눈이 많이 내려 힘들게 감곡리로 들어오니 눈은 가슴께까지 찼다.

대원들은 눈을 헤치고 감곡리를 지나 청곡 5반(당시 간동리)에 있는 남영이네 집과 무만이네 집에 나누어 들어가 묶고 있었는데 아침 절에 7명의 인민군들이 국군옷차림으로 위장하고 총에는 태극기를 꿸고 신발에는 설피를 신고 무만이네 집으로 들어 닥쳤다.

그때 우리대원들은 막 아침밥을 먹으려는 참이었으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들어! 하고 소리를 지르니 위험한데 총을 치워, 국군동무인데 총을 겨누지 마라! 우린 증명서 다 있어! 하는 그들의 기만술에 속아 넘어가 국군이 왔다면서 좋아했다.

그런데 순간 동무하는 소리를 듣고 임명우가 수류탄 핀을 뽑으려는데 그자들이 먼저 총을 쏘서 수류탄을 안고 앞으로 꼬꾸라져 죽었고, 윤상덕도 총에 맞아 죽었다. 그때 안방에 있던 무만이 작은 아버지는 남자의 낭심에 파편을 맞아 다치고 조키는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다친 조키는 나중에 닭을 두 마리나 잡아 절단 된 손가락에 생닭 살을 처매고 치료를 하였다.

그때 나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깊은 눈 속으로 파고 들어가 숨었지만 다른 한명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남영네 집에 있던 다른 대원 3명은 총으로 개를 잡아먹고 까마귀 등을 잡는데 총알을 다 쓰는 바람에 총알 3발 밖에 남지 않아 총을 제대로 쏘보지도 못하고 잡혀갔다.

인민군들은 대원3명을 끌고 가다가 감곡리 방면의 굴속에서 총으로 쏘

죽인 것을 나중에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국 인민군들의 위장술에 속아서 전부 몰살당하고 나만 눈 속에서 살아났다. 그때 내 나이 17세였다.

◆ **청대리에 침투하여 적정을 살피고 사람까지 데리고 나오라고 한다.**

사고 후 우리 대원이 당한 것을 알고 삼존리에 주둔하고 있던 김기환이 찾아와 상황 파악과 사고 경위를 조사한 다음 나와 같이 부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며칠 후 대장이 나를 보고 “너 이북에 한번 갔다 오라고 하면서 만약 못 간다고 하면 총살이다.” 라고 하며 상관의 권위로 명령을 하면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인지 호통을 친다.

그리고는 부대가 삼존리에서 금풍리로 이동하더니 나에게 민간인 복장을 하고 북한 증명서도 만들어 주고는 무기인 총과 대검은 주지 않고 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인민군이 어디에 몇 명 있는지, 포가 몇 문인지 알아 오고 사람까지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최전방은 속초 청대리였다.

나는 청대리에 가서 함석집을 찾아들어가 그 집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밥을 잘 해주면서 주인아주머니가 큰절을 하며 잘 대해 주어 그 집 아이는 못 데리고 가고 바로 그 옆집으로 가니 마침 14살짜리 남자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보고 “내가 길을 모르니 나를 안내해 달라” 고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집 엄마가 맨발로 산 중턱까지 쫓아와서 애를 못 데려 간다고 하여 애를 먹었다.

나는 그 아이와 부대에서 같이 지냈는데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내가 데리고 나왔던 14살짜리 아이와 그리고 부대원 1명을 더 데리고 3명이 고성 운봉산 근처로 들어가니 인민군 집결지와 사방으로 인민군 초소가 즐비하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려고 옷도 벗어 버리고 간편하게 하고 신평리까지 뛰어 국군 1중대에 내려가니 초소에서 “손들어!” 라고 할 때 내가 어물어물하니 “왜 어물어물하느냐? 인민군이야.” 하며 소리를 쳤으나 그 초소병은 바로 우리 신분을 알아차린 것 같았는지 들어오라고 한다.

나는 바로 보초와 같이 가서 대장에게 적의 주둔지규모와 동태를 보고 하자, 국군 1중대에서는 인민군의 대부대로 확인이 되었는지 천진리로 후퇴하고 바닷가 까지 철조망을 치고 그 앞에서 암호만 틀리게 대면 위협사격을 해댔다.

◆ **침투지역에 집들도 썩었고 문패도 없어서 증거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명령은 미시령과 진부령 사이인 신평위에 있는 새이령에 가서 적정을 탐지하고 오라고 하여, 오후 4시에 저녁을 먹고 청곡리 정춘영과 감곡리 최돈자와 함께 갔다.

부대에서는 최종 목적인 적의 주둔지의 인민군병력의 숫자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무기종류와 수량 등을 알아 오는데 꼭 그 증거가 되는 표식을 가져 와야 한다고 했다.

부대원들은 인적이 없는 길을 따라 새이령으로 올라가니 집들은 썩어서 문패도 없어 증거를 구할 수가 없어 또 다른 곳을 수색하니 마침 집한 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엿드려 숨어서 지켜보니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가 내려온다.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인민군 9명은 지금은 보초를 서러 나가고 방에는 다친 환자들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아주머니를 막 드려 보내자 방안에서 “밖에 누구요?” 하고 소리가 나자 아주머니는 “아무 것도 아니래요.” 하고 대답한다.

우리는 작은 소리로 저 놈들의 총이라도 빼앗아 가려고 숨어서 살피니 그들은 손으로 총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공연히 문제를 일으켜 사고를 당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하고는 밤중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흑시지뢰를 매설했거나 방향 감각을 잃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민군이 지키고 있는 곳으로 갈까봐 오던 길로 내려 왔다.

가랑잎이 가슴까지 차고 여우가 짙어 개울에 빠져 옷이 젖고 산길을 달리다보니 밤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눈앞에 서있는 회초리 같은 나무가지가 눈을 때려 눈이 아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캄캄한 야밤이라 쉬지도

못하고 산 아래까지 정신없이 내 달려 HID 제2지대에 도착했다.

이렇게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적진에 침투하고 돌아오니 집에 가라고 보내 주었다. 지금까지 적지에 침투했던 것은 군번도 없이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집에 와 있다가 다시 국군에 입대 영장을 받고 논산 훈련소 제22연대에서 훈련을 받고 6사단에 부대 배치되어 말년에 연대 주번사관까지 하고 제대하였다.



- 최선권 (남, 80세, 양양읍 서문리)
- 면담일 : 2015. 4. 9



◆ 불에 탄 쌀로 밥을 하면 냄새가 나서 먹기가 힘들었다.

6·25한국전쟁 당시 16세이었고 양양중학교 2학년생이었다. 우리 가족은 작은집 식구 7명과 우리 5식구가 함께 피란을 나갔다. 강릉 사천까지 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촌으로 밥을 얻으러 다니고 작은 아버지는 불이 난 창고에서 탄 쌀을 구해다 밥을 해 먹는데 탄 냄새가 독하여 먹기 힘들었다. 그리고 마을에 다니며 군인들이 소를 잡아먹고 남긴 소가죽을 불로 털을 그슬린 다음 솥에 삶아먹는데 어찌나 질긴지 오래도록 씹어야 했다.

그렇게 여러 식구가 고달픈 피란살이를 하며 밥은 고사하고 감자까지 얻어먹어가며 연명을 하다가 더 이상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해 이왕 배를 굶을 바에 고향 집에 가서 밥이나 실컷 먹고 죽자고 우리식구만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작은 아버지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고 작은집도 같이 고향으로 들어왔다. 그때 우리 집 뒤에 해마다 감이 많이 달리던 나무는 한쪽 가지가 썩었지만 그 감을 따서 꺾감을 만들어 제사에 쓰기도하였던 그 감나무가 아직도 있다.

◆ **캄캄한 밤의 피란길에는 소꼬리를 잡고 따라 들어왔다.**

1·4후퇴 시 우리 가족은 쌀과 쌀립살이를 감나무 밑에 묻어놓고 쌀 두 말을 지고 손양 고개를 넘는데 양양읍 시내가 온통 불바다였다. 우리는 집이 타는 것을 돌아다보며 피란길을 재촉하여 강릉쪽 가다보니 눈이 많이 내려 오금 짝 만큼 쌓였는데 가다가 눈 속에서 무언가 걸려서 넘어지면 그것은 죽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시체였으며, 죽은 시체를 치우지 않고 길가에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렇게 피란을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지자 작은 아버지가 나를 보고 남의 집에 일꾼으로 가서 살라고 하니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나는 죽어도 집에 가서 가족과 같이 밥 먹고 살다 죽겠다.”라고 하셨다.

그때 숙부가 황소를 끌고 피란을 나왔는데 강릉 피란길에서 길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자 소꼬리를 잡고 소를 따라 들어왔다.

◆ **토굴에서 4가족 20여 명이 살았다.**

피란 갔다 돌아오니 양양 읍내의 모든 집은 탔는데 4집만 남아있었다. 우리는 타지 않은 군행리 최동근씨 집에서 살면서 낮이면 뒤에 굴을 파고 4가족 20여 명이 굴속에서 살았다.

그래도 집을 지어야 하기에 17세 되던 해에 집을 지었는데 집은 타도 온돌이 남아있어 엄마와 흙을 반죽하여 벽을 쌓고 지붕을 덮고 바닥은 가마니를 깔았는데 들어갈 때는 기어들어갔고 들어가서도 허리를 펼 수 없는 움막집을 짓고 살았는데도 그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 김홍식(남, 79세, 양양읍 연창리)
- 면담일 : 2015. 4. 8



◆ **미군기의 공습으로 논바닥 벼이삭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인공 때 당숙이 월남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아버지께서 현 KT양양지점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었던 정치보위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당했다.

1950년 7월 23일부터 양양에는 공습과 함포사격이 심해 소개령이 내려지자 양양사람들 중 일부가 거마리로 피란을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해 추석 무렵 미군 비행기가 현북중학교를 공습할 당시 우리가 다니던 상평인민학교도 공습을 하자 학생들이 모두 방공호로 대피를 했다가 공습이 뜸해지자 집으로 가기 위하여 거마리 굴 앞을 지나 철도로 가는 도중 또 미군기가 기총소사로 공격을 하자 우리들은 재빨리 철도 밑 논바닥으로 기어 들어가 벼이삭 속으로 납작 웅크리고 들어가 숨었다.

나중에 미군기가 사라진 후 논에서 나오려고 하니 다리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다리를 보니 파편이 배겨있었다. 같이 숨었던 7~8명의 학생들의 부축을 받고 다리를 끌고 집에 가서 된장을 발랐으나 빨리 낫지 않았고 얼마 후 상처가 덧나 한참동안 심한 고생을 했다.

◆ **인민군들이 골이 패인 함석 위를 굽으면서 총소리를 흉내 낸다.**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는 시기에 인민군들이 북으로 후퇴할 당시 양양지역으로 북상하던 인민군들이 양양군청 뒷산의 느티나무 뒤로 죽 늘어서있는 방공호에 약 1개 중대병력이 진을 치고 사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국군이 월리 뒷산에서부터 총격을 가하면서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자 인민군들은 후퇴를 하기 위하여 인민군 1개 중대 중 약 1개 소대가 본대의 후퇴작전에 시간을 벌어주려고 방공호에 남아서 힘겹게 방어를 하다가 총알이 다 떨어졌는지 골이 패인 함석쪼가리에다 쇠꼬챙이 같은 걸로 북북 굽어 대면서 총을 쏘는 척 하며 소리로 흉내를 내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 **북으로 후퇴하는 인민군 대열 속에서 도망을 쳤다.**

이때 방공호를 사수하는 인민군들을 제외하고 본대의 인민군들이 우리 집 식구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북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집 식구들과 일부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인민위원장과 여맹위원장의 설득하며 다구 치는 바람에 거부하면 잘못 될 것 같아 마지못해 따라나서게 되었다.

성내리 봉근(북문:北門) 넘 고개를 넘어 청곡리로 해서 감곡리를 지나 금풍리와 사교리를 지난 다음 대문턱(석교리)으로 해서 상북리에 이르자 후퇴하는 대열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감시가 조금 뜸하고 느슨한 틈을 타 상북 마을 산으로 숨어들었다.

얼마동안 숨어 있다가 주위가 잠잠해지자 우리 식구들은 산길로 도망을 나오다가 미군 정찰기에서 뿌린 뼈라를 주어가지고 길로 들어서는 순간 부상을 당해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인민군들을 마주쳤으나 그들은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몸 조차도 가누기가 힘든 처지라 그냥 무사히 통과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국군들이 우리 집 가마솥에 소를 잡아 끓여 먹고 있었다. 내가 미군정찰기가 뿌린 뼈라를 보여주자 그 국군들이 집을 비워주었다.

◆ 울진에서 나무 한 짐을 해 팔아 쌀 1되를 받았다.

1·4후퇴 때 헌병들이 남쪽으로 피란을 가라고 해서 주문진에서 1박을 하는데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피란 온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다. 피란민들이 사천리에 오는데 미군 비행기가 나타나 폭탄을 떨어뜨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피란민을 인민군으로 오인한 것이라 했다.

밤재(강릉시 옥계면 낙풍리와 강동면 산성우리에 접한 고개)에서는 인민군들이 무기와 돈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붉은 북한 돈이 눈 위에 뒹구는 것도 보였다.

우리가족은 삼척을 지나 피란을 가면서 중간에 민가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으며 나갔다.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 3명을 합해 7식구는 끼니를 때우는 일이 제일 어려웠다. 면에 신고를 하면 알랑미(안남미)를 식구 수대로 1되씩 주는데 그것을 오래 먹으려고 죽을 쑤어 먹었다.

최종 목적지인 울진 죽변 화성리에서 집을 풀었다. 그러나 피란생활을 하면서도 밥은 해먹고 살아야 하니 산에서 나무를 해다 죽변에 내다 팔아 식량을 샀는데, 나무 1짐이면 쌀 1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행방을 알 수가 없이 사라져 애타게 기다렸다. 그렇게 동생들과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16세인 내가 나무할 곳도 마땅치 않아 양양으로 들어오면서 주문진 민가에 들어가 1박을 하게 되었는데 윗방이 너무 추워 도저히 잘 수가 없어, 가만히 아래방에 내려가 끼어 자고 아침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하니 주인이 염치가 좋다고 하더라.

◆ 아버지가 탄약운반 짐꾼으로 고성 건봉사 전투에 참여했었다.

왕도에 와서 어머니 이모 댁에서 며칠을 묵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길에서 군인들을 만나 짐꾼으로 고성 건봉사 전투에 탄약을 지고 고지에 운반하는 일을 하며 전투에 참가하였다고 했다. 부대에서 증명서를 해주고 현병이 태워다 주었다고 했다. 정말 전쟁에 나가 돌아가신 줄 알고 할머니는 매일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통하신 것 같다고 하셨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집은 모두 타 없어지고 평양(평양)집 등 몇 집만 남았다. 우리는 성내리 군청 뒤에 토막집에서 지냈는데, 그 토막집은 전쟁 전에 사랑방에 살던 사람이 먼저 와서 집터 구들장 일부에 움막집을 짓고 살았고, 나머지 구들장 터는 주인집이 지을 수 있게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 사랑방 집은 나중에 시장에 기름집을 내고 우리는 그 집 방 2칸과 부엌 1칸에서 살았다.



- 한재덕 (남, 88세, 양양읍 남문3리)
전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양양군지회장
- 면담일 : 2015. 4. 9



◆ **현산공원 굴에 받침 동발이 나무를 남양리에 가서 싣고 왔다.**

북한 함경남도 장진호가 고향인데 형은 교사이고, 누나는 함흥에서 화물차로 목재를 운반하는 사업을 하였다. 19세 때 누나의 차로 목재를 나르는 차를 따라 속초에 왔다.

하루는 인민군들이 나를 보고 자동차를 운전해 달라기에 그들의 화물차로 상평에서 박격포탄과 탄약을 싣고 강릉으로 갔다 돌아오니 이번엔 돼지를 싣고 강릉으로 가자고 한다. 그래서 돼지 10마리를 싣었는데 강릉을 가니 9마리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생각해보아도 전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해서 인민군들이 시키는 일을 마치고 나니 이번에는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어 다른 차로 끌어서 시동을 걸어 청진까지 가서 차는 거기다 놓고 양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집에 숨어 지내는데 내무서 경리계장이 나에게 오라고 연락이 왔다. 나에게 현산공원에 굴을 봤는데 굴에 받침 동발이 나무를 남양리에 가서 싣고 오라고 하여 동발이 목재를 싣어다 주었는데, 당시 인민군들은 굴에 동발이 나무를 받치고 낮에는 굴속에 들어가 업무를 보거나 숨어있었는데, 아마도 미군 비행기의 폭격 때문에 굴에서 숨어 있었을 것이다.

◆ **미군 깡둥이들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을 막 죽이니 조심하라.**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미군 깡둥이들이 쳐들어오면 사람을 막 죽인다 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여 서문리에서 임천리로 가는데 청곡리 최성호 씨를 만났다.

“야! 너 뭐야!”

“예, 저 피란을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나 따라와!” 라고 하여 최성호씨를 따라 감곡리로 가서 10월 2일 거기서 며칠을 있다가 나와 철길을 따라 걸어 나오는데 국군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국군이 오는 걸 환영해야지 왜 피란을 가느냐고 한다. 그래서 국군의 짐을 지고 고성군 토성면 천진까지 가니 이제는 집에 가도 좋다

고 해서 집에 돌아오니, 차에는 ‘제1군단 정보처’란 간판이 붙어있었다.

◆ **울산바위 전투에서 머리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적을 소탕했다.**

양양에서 살다가 군속으로 첩보원이 되어 청진으로 투입되었다. 1951년 1월 홍남철수를 할 때 아가리 배인 LST를 타고 목호에 내렸다.

당시 나는 제1군단 정보처 첩보부대원 10명과 함께 들어가 홍남에서 17~18세인 학생들 50명을 데리고 홍남철수 하는 배에 탔다. 그때 LST를 타지 못한 바닷가 사람들은 자기 집 고깃배를 타고 역시 월남하였다.

1952년 2월 울산바위 전투에 나가기 전 나는 21세의 나이로 남에 빈집에 들어가 명주바지 저고리를 찾아 입은 사복 차림으로 나이가 17~18세인 소년 사병들과 11명이 설악산 울산바위 아래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매복을 하고 있던 인민군이 다발총과 기관총으로 공격을 하며 기습을 하자 우리도 대응사격을 하며 교전이 벌어졌는데 나는 그때 총탄에 맞은 줄도 모르고 진격해 들어갔는데 적을 소탕한 후 1등 병이 내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고 하여 정신이 들어 살펴보니 총탄이 머리를 치고 지나가 제59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환자가 밀려 대구 제3육군병원에 갔다가 웬지는 모르지만 다시 동래 31육군병원에서 2개월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몸이 돌아가고 틀어지며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서 당시 육군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한다고 하여 제대시켜 주었다.



- 신덕순(남, 97세, 양양읍 남문 2리)
- 면담일 : 2015. 4. 14



◆ **설악산 전투에서는 국군 집꾼, 금강산에서는 인민군 집꾼을 했다.**

나는 맨 처음 목수 일을 조금 하다가 우차 끈을 해서 벌어먹고 살았다. 6·25전쟁이 나자 삼척 근덕면 덕산리 까지 피란을 나갔다가 경찰지서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를 보고 짐을 지는 짐꾼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꼭 북쪽에서 나온 피란민만 짐꾼으로 뽑아 가는 것 같아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란을 같이 나온 가족이 있었지만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국군들과 함께 양양 서면 오색으로 들어와서 인민군과 대치중인 설악산 전투에서 포탄을 지고 설악산 골짜기로 들어갔으며, 어떤 사람은 쌀을 2~3말 정도씩 지고 산을 오르내렸다. 그렇게 해서 탄약과 포탄을 지고 나르기를 2일 만에 인민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면담중인 신덕순씨〉

그러자 국군들은 짐꾼들을 챙길 시간도 없이 다급한 상황이 전개되자 짐꾼들을 포기한 채 후퇴를 해버렸고, 국군 짐을 지고 갔던 짐꾼들이 자연히 인민군에게 잡혀 또 짐을 지고 인민군을 따라 금강산까지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

◆ 밤에는 걷고, 낮에는 김일성과 스탈린 대원수 교양교육을 받았다.

낮에는 미군 비행기 폭격을 피해 나무 밑에서 김일성, 소련 스탈린 대원수에 대한 이야기 장단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양 받는다고 했다. 밥은 주먹밥을 먹었고 밤이 되면 산길을 걸었다.

그러다가 장전까지 갔는데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한다. 천지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다.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나오니 인민군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짐꾼으로 간 3명이서 남쪽을 향해 산길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천신만고 끝에 옷은 다 헤치고 신발도 떨어지고 거지꼴을 하고 짐꾼으로 붙잡혀 간지 1달 15일 만에 삼척에 오니 아내가 아이들과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때가 3월쯤 된다.



- 김동녀 (여, 87세, 양양읍 남문2리)
- 면담일 : 2015. 4. 14



◆ **우리 영감은 남들보다 약지 못해 짐꾼을 오랫동안 하다가 돌아왔다.**

남편이 짐꾼으로 붙잡혀가자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남에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찌뽕 장사도 해보고 순댓국 장사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나마 남편이 피란을 나올 때 끌고 온 소까지도 군인들에게 빼앗기고 나니 암담하기만 했다.

남들은 짐꾼으로 붙잡혀 갔다가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오는데 우리 영감은 약아빠지지 못해 짐꾼으로 가서 순둥이 모양으로 고지 곧 대로 일하다가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의 슯한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 최용희 (남, 78세, 양양읍 조산리)
전 양양농업협동조합장
- 면담일 : 2015. 4. 20



◆ **양양군청이 북골로 이동해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조산인민학교 게시판에는 지도를 놓고 매일 인민군이 남쪽으로 침략한 결과를 써 붙여놓고 학생들은 그 앞에 모여 환호를 불렀다. 얼마 후 인민군이 대구까지 점령했을 때는 곧 통일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B29전투기가 폭격이 심해지고 소문이 이상하게 날 때는 게시판에 승전 지도를 그려 넣지 않았다.

B29폭격기가 양양광업소를 연일 폭격을 하였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

데 그 비행기가 스치듯 지나갔는데 학생들은 놀라 뒷산으로 도주하여 각자 집으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갔었고, 그 후 학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누나는 19세, 형은 16세였는데 미군이 쳐 들어오면 모두 겁탈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버지는 누나와 형을 평양 공장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영영 이산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소를 몰고 삼포 큰댁 아주머니 친정으로 피란을 가다가 인홍 나무 밑에서 1박을 하고 갔다.

1951년 속초로 피란을 갔는데 밤에 총소리가 나서 산위를 보니 국군과 인민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나가보니 국군은 쫓겨 가고 인민군이 득실거렸다. 이 때 양양군청은 북골에 이동해 있었다.

◆ 재산을 몰수당한 집은 흰 때가 되었다.

농민은 사상이 따로 없다. 남북이 어디가 좋은지 모르고 재산을 몰수당한 집은 흰 때가 되었고 부자로 살던 사람은 월남하거나 박해를 받고 살았다. 그리고 피란을 안가면 이상하게 의심을 받아 안갈 수가 없었다.

월남한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은 북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북한에 있는 남편과 자식을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갔는데 후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기도 했다.



- 원태수 (남, 83세, 양양읍 성내리)
- 면담일 : 2015. 4. 21



◆ 감자를 미리 캐서 먹고 덜 익은 보리를 닦아서 먹었다.

6·25한국전쟁 시 양양고급중학교 2학년 때이다. 북한의 교육체제는 인

민학교 5년, 초급중학교 3학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다. 나는 키가 작아 큰 이익을 보았다. 학교에는 민청이 있고 인민학교는 소년단이 조직되어 있었고 사회에도 민청이 있었지만 나는 양쪽 다 들지 못했다.

1946년 토지개혁을 하였는데 토지를 5정보이상 가진 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현물세를 받아가 빈곤하게 살았다. 아침은 밥은 먹고, 점심은 먹는 등 마는 등, 저녁은 죽을 먹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토지를 분배받으면 잘 살줄 알았는데 더 궁핍해졌다. 여름엔 감자를 미리 캐서 먹고 보리도 덜 익은 것을 닦아서 찜어 먹어 보리 고개란 말이 있다.

◆ 양양인민학교에 인민군이 주둔했다.

북한은 1950년 전쟁 2~3개월 전부터 군수품이 수송돼 와서 금융조합(현 농협중앙회양양군지부자리)에 자리에 쌓아놓았고 양양인민학교에는 인민군이 주둔했고 농협자리는 군부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식당에는 군인들과 이주머니들이 일하고 있었으며, 우리 어머니도 같이 일하고 있었다.

장교식당 감독자는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누룽지를 가져다주어 많이 얻어먹었고, 자기의 소지품 보따리를 우리 집에 가져다놓았는데 이동할 때 그냥 갔다. 당시 우리 집 앞에는 양양면사무소가 있었고, 그 옆에 현 양양천주교회 디모테오 어린이집 놀이터 자리에는 영화관이 있었다.

◆ 키가 작아서 군대도 가지 않았고, 나이도 4살이나 낮추어 말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학교 게시판 지도에는 매일 전황을 게시하여 오늘은 주문진 해방, 또 오늘은 어디 해방이 되었다고 표시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박수와 환호를 하고 곧 남조선이 해방될 것이라 했다.

남쪽에서 전황이 안 좋아 후퇴할 때는 게시판에 표시를 안했다. 그러면서도 학교는 계속 다녔다. 나는 아버지가 팔을 크게 다쳐 내가 농사일을 해야 하니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어 러시아어가 담당인 담임선생님에게

사정을 말하니 퇴학이 아닌 휴학을 하게하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학교에 오라고 해주셨다.

나는 학교에 안가니 군대에 잡혀가지 않았고 동네에선 학생이라고 안잡히고 하여 군대에 안 갔다. 또 키가 작아 제외되었다. 그래서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두 가지 혜택을 보았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학생들을 군인으로 뽑았는데 연창리 김영환, 그리고 오늘은 또 누구누구를 이렇게 자꾸 뽑혀 가는데 나이가 17세인 나는 키가 작아 제외되었다. 길거리에서 잡으면 나는 13살 이라고 4살 낮추어 말했다.

◆ 북으로 후퇴하는 인민군에 떠밀려 마지못해 통천까지 피란을 갔다.

백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자 국군의 반격으로 인민군이 후퇴하며 양양에 들어 닥치자 할 수없이 통천까지 피란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병환이 있어 어머니가 일을 해야만 했고 나도 같이 도와드렸다.

미군 비행기가 폭격할 때 산으로 피신, 비행기만 뜨면 북문 쪽으로 나가 청곡리 산 쪽으로 피란을 가면서 우리 집 쪽을 바라보니 비행기의 공습으로 집 앞에 있던 극장, 면사무소, 금융조합 등 큰집들이 화재가 났는데 그 사이 성내리 몇 집과 우리 집도 화재를 당했다.

산에서 돌아와 안 탄 집에 방 1칸을 얻어 살다가 회룡리 외가에 동생과 같이 피란을 갔다. 집에 있으면 내무서원이 찾아와 잡아가려고 해서 피해간 것이다. 밥하는 취사장에서 밥을 하면 어디로 운반해 가는지 가지고 갔다. 우리에게 밥도 주고 누룽지도 주고 밥하는 사람 중에 40여 세 정도의 나이를 가진 책임자는 갈 때 밥하던 솥을 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었다.

◆ 묘지 옆에 나뭇가지로 하늘을 가리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

1·4후퇴 시 도화리에 피란을 갔는데, 아버지가 병환중이라 멀리 가지 못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먼저 돌아와 현 양양천 주교회로 올라가는 비탈 길 오른쪽 옆에 있었던 방공호에서 기거하였다.

그때 성내리에서 화재를 면한 집은 조산집(최돈성), 피양집(○○○), 그리고 김주봉씨 집 등 몇 집이 남았고 양양 읍내가 모두 화재를 당하였다. 식량은 피란을 갈 때 땅에 묻고 갔는데 그냥 남아있어 꺼내 먹었다.

또 2차 피란을 도화리로 가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있는데 집이 없으니 묘지 옆에 나무 가지로 하늘을 가리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 아버지는 병환이 심하여 음력 1월 26일 사망하셨는데 장례를 치루려니 엄두가 나지 않아 아는 아저씨들에게 연락하니 와주셔서 장사를 치러주셨다.



- 최용술 (남, 82세, 양양읍 조산리)
- 면담일 : 2015. 4. 22

◆ 집터에 굴을 파고 나뭇가지로 하늘을 가리고 겨울을 났다.

양양초급중학교 2학년 때에 전쟁이 났다. 모친이 혼자 계셔서 피란은 가지 못했다. 1·4후퇴 때 조산리 전체가 화재가 났는데 인민군이 사용할까봐 불을 질렀다고 하였는데, 피란 가라고 하여 바닷가에 나간사이 집에 불이 나서 숟가락도 하나 건지지 못했다.

집 앞에는 잘 자란 아름답디 소나무가 있었는데 다리를 놓는다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여 나무를 넘어뜨리고 잘라갔다. 그 폭파소리에 놀란 새끼를 가진 암소가 죽기도 했다.

겨울인데 집이 국군이 태워 없애서 의지할 곳이 없어 집터에 터널을 파고 소나무 가지를 위에 걸치고 대충 하늘을 가리고 굴 같은 곳에서 겨울을 났다.

봄이 되어 나뭇가지와 흙과 돌을 쌓아 토막집 2칸을 지어 살았다. 갑자기 집이 타고 식량과 옷과 이불도 다 타서 6남매와 겨울을 나기가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 김정숙 (여, 79세, 양양읍 조산리)
- 면담일 : 2015. 4. 22

◆ 이 대통령이 인민공화국을 괴롭힌다고 해서 정말 괴물인줄 알았다.

손양면 도화리에 살았었는데 6·25한국전쟁 때 송포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양양여자중학교 1학년이었다. 8월엔가 양양에 폭격을 하면 사이렌이 울려서 학교 뒤편 방공호로 뛰어간다. 서로 먼저 갈려고 문이 터지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로어(러시아어) 가르치는 언청이 남자 선생님은 희미한 5촉짜리 전기 불을 켜 놓고 러시아어를 가르치나, 불안한 마음에 러시아어가 머리에 들어오겠는가! 학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괴물로 그려놓고 인민공화국을 괴롭히는 나쁜 놈이라 해서 정말 괴물인 줄 알았다.

◆ 할머니가 멀리 피란을 갈 사람들이니 쌀밥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오빠는 고급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차로 실어가 인민군에 입대시켰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다면서 돌아왔는데 삼베옷을 입고 왔다. 그때 집으로 오던 길에 어떤 할머니가 인민군 옷을 벗기고 그 집 아저씨의 삼베옷을 입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오빠는 전쟁 중 엉덩이에 파편이 박혀서 한동안 고생하였다.

1·4후퇴 시 도화리 우리 집은 방 2칸에 사랑 채, 행랑 채, 부엌 등 8칸 집이었다. 눈은 쏟아지는데 피란민은 계속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다보니 우리도 잠자리가 좁아져서 문지방에서 쪼그리고 앉아 세웠다.

어머니는 피란을 나갔지만 어린 나와 할머니는 피란을 안가고 집에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묵었던 피란민들에게 멀리 피란을 갈 사람들이니 많이 먹어야 한다고 디딜방아를 찧지 못해 멧돌로 벼를 테거(겉질을 벗겨) 키질을 하여 쌀을 고른 다음 그 쌀로 밥을 해 먹였다. 해가

지면 침침한 등잔불 밑에 모여 앉으면 요란하게 들려오는 함포소리에 질려 불안한 마음은 기슴을 펴지 못했다.



- 김상환 (남, 83세, 양양읍 청곡 2리)
- 면담일 : 2015. 5. 13



◆ 월남가족이라 국군을 따라 피란을 가지 못해 고초를 겪었다.

청곡 1리 새잇말에서 출생을 하고, 양양인민학교를 2회로 졸업한 후 양양 초급중학교에 입학하자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져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인민군이 남침 했을 때 그때는 양양이 이북지역이라 유엔군 비행기가 폭격하고 군함에서 함포사격을 하니 피란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1·4후퇴 후 인민군 패잔병들이 산으로 해서 북으로 후퇴했다. 그때 공산당 인민위원장, 정치보위부 등은 북으로 갔다. 우리는 감곡리 뒷산으로 피란을 갔다가 동생인 김진해가 계속 울어서 슬쩍 뒤떨어져 집에 왔다.

집에 와 몇 일간 있으니 국군 수색대가 왔다. 그들은 우리 집 방을 사용하였다. 우리 집은 형인 김기환이 월남하여 공산당한테 감시도 당하고 있어 싫어했다. 또 형님은 첩보부대 요원으로 있었고, 또 4863부대 HID작전 참모가 우리 진외가 박학수 아저씨로 북에서 월남하기 전에는 인민군 장교였는데 전선에서 부대원에게 “나는 월남을 하겠는데 같이 가지 않겠다면 너를 총으로 쏘고 갈 수 밖에 없다! 같이 가겠는가, 아니면 총을 맞을 텐가?” 하니 ‘같이 가겠습니다.’ 하여 부하를 데리고 1949년 귀순하여 첩보부대 작전 참모가 되었으니 우리 부모님은 밤만 되면 붙들려가서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국군을 따라 남으로 피란을 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해 많은 고초를 당했다.

◆ **군인가족증명서를 보고 국군이 경례를 하고 갔다.**

어느 날 비가 오는데 형님이 철모를 쓰고 비옷을 입고 왔다. 고성 앞바다에서 침투하다가 발각되어 총탄이 날아오는데 몇 명은 희생되고 겨우 모선으로 돌아와 살아 돌아왔는데, 다발총에 맞아 쪼그리고 앉지를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

그 형님이 가면서 군인 가족이라는 증명서를 해 주고 갔다. 나중에 그 증명서를 국군이 왔을 때마다 보여주면 국군들이 경례를 하고 갔다.

【군인 가족 증명서】
저는 4863부대 김기환입니다.
우리 가족을 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1951년 1월 일
육군 4863부대 대원 김기환 사인

그리고 국군이 또 후퇴할 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우리 집만 피란을 가지 못했다. 그러니 인민군들이 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밥을 해달라고 하여 밥 많이 해 주었는데 우리는 혹시 해코지를 할까봐 겁을 많이 먹었다. 그때 인민군은 대부대가 아니고 5~6명씩 나누어 다녔다.

그 후 국군이 들어왔을 때 그 증명서를 보여주면 거수경례를 하고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 주었다.

◆ **비행기 폭격에 아궁이 고래에 들어갔다가 재강아지가 되어 나왔다.**

다시 인민군이 쳐 내려와 강릉 촌에 피란을 갔는데 형이 혼자 찾아왔다. 당시 옷은 남루하게 입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국군이 또 올 터이니 고향으로 가라고 했다. 그때 같이 피란을 가다가 우리는 고향으로 들어오고 같은 동네 이웃에 사는 김진만 식구는 부산까지 피란을 가서 지금도 누님의 가족들과 부산에 자리 잡고 살고 있으며, 형님은 부대가 해산되어 휴전 후 영장이 나와 국군생활을 했다.

밀고 당기는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미처 피란을 나가지 않았을 때는

주로 굴속에서 계속 살았는데 한때는 굴속이 답답해서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자 부모님이 부엌 아궁이 고래로 기어들어갔다가 폭격이 멈추자 밖으로 나오니 재강아지가 되었다. 밥도 비행기가 오지 않으면 집에서 해다가 굴속에 가지고가서 먹었다.

◆ **소년단장의 옷의 팔에는 빨간 줄이 3개가 있다.**

학교에 가서는 5개년 계획을 승리로 맺자! 고 구호를 부를 때에는, ① 남여 평등권. ② 국유화 법령. ③ 토지 개혁(땅 분배) ④ ○○○○○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는 혼자말로 승리로 맺으려면 맺어라? 하였더니 누가 고자질하여 정치보위부에 끌려갔다. 사무실 바닥에 꿇어앉히고 이것 저것 집안의 일에 대해 물었다. 나는 어떻게 말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다. 뒷조사도 하고 며칠을 불러 다녔으며, 학교에서 모범생이라고 알려주어 큰 일없이 돌아왔다. 학교에서 소년단장은 옷의 팔에는 빨간 줄이 3개가 있다.

◆ **1달에 1회씩 세포위원장이 자아비판을 실시했다.**

옥계까지 피란을 가서 좁은 방에서 20여 명이 들어가 함께 지는데 서로 엉겨 잠자고 고생스러워 죽어도 집에 가서 죽자고 하여 집으로 들어왔다. 피란민 속에 인민군이 숨어 있다고 미군의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으며, 어떤 아이는 죽은 엄마에 등에 업혀 울고 있어도 내가 죽겠으니 마음이 찼해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현재 양양정형외과 맞은편 현대전기 건물 뒤에는 예전에 산이 있었는데 인민군이 그 산위에 토치카를 만들어 놓고 지키다가 국군이 오면 기관총으로 사격했다. 주위는 방공호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인민군은 집집마다 부역을 할당하여 부모가 못하면 아들이 대신 나가서 굴을 파는 일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1달에 1회 세포위원장 주관으로 자아비판을 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았다가 만약 다른 사람이 발각하여 꼬집어내면 호되게 비판을 받았다.



- 양재역 (남, 87세, 양양읍 남문1리)
6·25전쟁 당시 11010전공병단 소대장
- 면담일 : 2015. 5. 13



◆ 인민군들도 잠을 자지 못해 소경이 되어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서 제1국민 병으로 입대하여 대구 제7교육대에 서 단기 20일 훈련을 받고 하사가 되어 9사단 30연대에 배속되어 강원도 영월에 주둔했는데 당시 내 나이는 23세이고 때는 1951년 1월이었다.

1·4후퇴 때 2대대 8중대 1소대에 배치되었는데 대대장은 손희선 중령이었다. 북진 중, 정선 임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나는 81mm박격포를 쉴 사이도 없이 쏘았지만 이 전투에서 36명중 5~6명이 전사하고 7~8명이 부상자가 발생되었다. 비행기 지원 폭격을 받아 고지를 탈환하고 올라가 보니 인민군들도 잠을 자지 못해 눈이 부어 소경이 되어 있어 포로로 잡아 5~6명을 후방으로 넘기고 전진했다. 2월에는 간첩 1명을 생포했다.

◆ 노무자 1인이 적에게 정보를 주고 왔다.

적과의 거리가 2km밖에 떨어지지 않고 대치하고 있었을 때 노무자 5명을 쫓다. 노무자들에게 식량을 주고 날씨가 추워 동네에 갔다가오라 했는데 2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 중 노무자 1인이 적에게 정보를 주고 왔다고 보초가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중대장은 밤중에 비상을 걸어 노무자를 보리밭에 세워놓고 구덩이를 파게 한 후 중대장은 중대원들에게 본 중대에서 적에게 정보를 제공한 간첩이 생겨 죽여야 하니 그렇게 알라! 고 한다.

그 사람을 끌고 나와 눈 감아! 하니 그 사람은 눈을 감지 않으면서 “살려주세요, 한번만 살려 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였지만, 중대장이 세 번을 반복하면서 눈감으라고 호령하고는 죽여 버렸다. 그 다음날에는 아침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 아침에 눈을 뜨니 인민군 시체를 베고 자고 있었다.

부대를 재편성하여 인제까지 와보니 인민군 본부 연대가 함석산(매봉산)을 방어하고 있는데 우리 9사단 28연대가 서쪽 능선, 29연대가 동쪽 능선, 30연대가 남쪽 능선에 배치했는데 인민군은 북쪽에 있었다. 본부에서 고지 탈환의 명령이 하달되어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전하였다.

국군은 총상을 입으면 위생병이 응급 처치를 하여 들것에 태워 후송되고 남은 군인은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진했다. 때는 2월이라 아직도 기온이 차서 날씨가 춥다고는 하지만 밤낮으로 전투를 하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여 호를 파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인민군 시체를 베고 잤었다.

◆ 나는 중화기 소속이어서 살아났다.

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후송되겠구나. 낮에는 그라망(그러면:미국 노스럽 그러면 제작사의 F6F헬캣 전투기) 비행기가, 땅에서는 105mm포 사격과 80mm 화기중대 박격포 사격, 그리고 소총소대 공격으로 정상을 거의 탈환하는데 중대 인사계가 데굴데굴 굴러 내려와 보니 즉사하였다.

치열한 교전 끝에 아침에 고지를 점령하니 산 아래가 새까맣게 되어 있었다. 인민군은 기관총을 든 채로 죽어있어 발로 차니 그냥 쓰러진다.

아군도 1개 대대 병력이 1개 중대 수만큼 남아 있었고, 중대장은 무전기로 지휘하였다. 산위에서 보니 멀리 인민군 지휘부는 도망가고 있었고 지휘관은 잡지 못했다. 나는 중화기 소속이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였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 만세를 부르고 춤추며 군가를 부르고 하산하였으며 이 고지를 방어하는데 1주일이 걸렸다.

◆ 살아남은 우리 소대병력은 소대장을 포함해 10명뿐이다.

70여 대의 트럭으로 인민군 병력을 보충하였다는 정보를 입수 오늘 내일 중으로 올 것을 예상 했는데 으스스한 저녁 무렵에 인민군이 공격을 개시해 왔다. 척후병이 15m 앞에서 인민군을 발견하고 기관총으로 사격

하고 엄호하였으나 앞은 칠혹같이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고 사격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105mm 박격포가 앞에서 번쩍하고 섬광이 비치더니 앞이 보이지 않았다. 약 30분이나 되었을까? 일어나보니 주위는 조용한데 부대는 어디로 이동했는지 안 보인다. 그래서 남쪽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뛰어 나갔다가 후퇴해 오는데 각 부대에서 패하여 후퇴하는 병력이 길을 메워 먼저 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인민군들이 뒤 따라오지 않았다. 그들도 군대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제 기린까지 나오니 트럭이 기다리고 있다. 밤중에 소속도 없이 제각기 혼자서 대구까지 왔는데 이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도 몰랐다.

대구까지 가서 우리부대를 물어보니 철원 금화로 이동해 갔다고 했다. 대구 집결지에 철원으로 귀대해 오라는 방을 다음과 같이 붙여 놓았다. “9사단병력은 철원에서 재편하니 철원집결 요망” 이라고 적혀있었다. 나는 카빈 소총을 메고 총알을 장전하고 철원행 군용차를 탔다.

철원에서 내리니 집결을 기다리는 안내소가 있어 2대대 8중대를 찾아가니 병력의 반 정도만 있는데 우리소대 전우는 10명뿐이었고 소대장은 살아 있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 강으로 시체가 떠내려 간 후 물을 떠 와 밥을 해 먹었다.

3월쯤에 인제 함강리에서 물을 떠서 밥을 하려는데 물에 시체가 떠 내려왔다.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확인도 못 했지만 그 시체가 떠내려 간 후 물을 떠 와 밥을 지어 먹었다.

지금은 주부식이 충분한데 그때는 하루 굶는 것은 보통이고 산골에서 배낭에 옥수수를 넣어 생것을 씹으며 1주일 살아도 보았다. 배가고파 도로에 누워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일이 다반사다.

높은 산 고지에서 주둔할 경우 미군 비행기에서 C레이션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다행이 아군 진지에 떨어지면 밥을 굶지 않았으나 산 아래 인민군 진지에 떨어지면 인민군들이 주어서 배불리 먹으니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배가 고프면 하늘이 빨강게 보여 하늘을 쳐다보며 이제 죽는 구나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휴가제도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하였다.

◆ **간부 후보생 교육을 받고 28기 공병대 소위로 임관했다.**

금화 오성산에서 2개월 동안 방어와 예비 연대로 훈련을 했다. 그때 소대장이 “양 하사 너 간부 후보생으로 가라” 하여 나는 안가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소위는 소모 소위라 했으며 소위는 소대장인데 작전에 나가면 살아서 오는 소대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대에도 관측장교로 초임 소위가 임관한 장교가 나가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소위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전우들이 여기 있는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소대장은 “상부의 명령이다. 책임지는 가야 한다!”

결국 나는 상부에서 자꾸 가라고 권하여 전우들과 헤어짐이 참 섭섭했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사단 사령부에 가서 구두 심사와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필기시험도 합격한 다음 광주 보병학교에 25기로 입교 3개월간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았는데 매주 시험을 보고 성적이 몇 번 불량한 자는 원부대로 복귀했다.

교육이 끝난 후 병기, 병참, 공병대 시험을 보아 나는 공병대에 합격 경상도 김해에서 3개월 교육 받았는데, 기압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였지만 고된 훈련을 마치고 졸업을 하여 공병대 소위로 42명이 28기로 임관하였다.

졸업식장에서 같이 후보생으로 입교한 6명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 나중에 알아보니 그들은 원부대로 복귀하였다고 했다. 1952년 8월 28일 임관하여 특별휴가로 10일간 양양 고향집에 오니 집이 불에 타고 없었다.



- 박제철 (남, 84세, 양양읍 성내리)
- 면담일 : 2015. 6. 15



◆ 학교는 소련군이 주둔하여 누에고치 건조장에서 공부했다.

1945년 해방되던 해에 강릉으로 월남했으며, 형님은 강릉 군청에 근무하다가 변호사 시험을 봐서 강릉 법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와는 17살 차이가 났다. 형님은 내가 시험 봐서 성적이 좋으면 과자 표를 주었다.

빵집을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였다. 물자가 귀해서 과자도 맘대로 사지 못하고 표가 나와야 살 수 있었다. 내가 과자를 받아오면 누나들이 좀 달라고 쫓아다녔다. 양양에는 빵집이 한집, 포목점이 1집, 지물포(문구점)가 2집, 구루마(우차)를 수리하는 대장간이 1집이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강릉으로 나갔다. 1년을 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다. 학교에 안 보내려면 왜 데려갔느냐고 하시면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따라 양양으로 들어오다가 검문소에서 소련군인이 주머니 조사를 하는데 칼만 없으면 통과시켜 주었다.

친구들이 6학년에 다니고 있다. 학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누에고치 건조장에서 학교 공부를 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학교에 오라고 해서 나갔고 학교를 1년을 쉬어도 1~2등을 하였다. 그때 6학년이 80명씩 4개 반 320명이었다. 졸업식 때 1등은 도지사 상, 2등은 군수 상을 주어야 하는데 나는 5학년을 안다녀서 상을 안주어 말들이 많았다.

교장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6학년이 되었냐고 부모님을 학교에 오라고 하였다. 그 후 부모님은 나를 보고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나 김기정 선생께서 1주일만 있으면 교장이 고급 중학교로 전근을 가니 그때 오라고 하



〈면담중인 박제철씨〉

였다. 그때는 학제가 5년으로 돼 있어서 그때에는 5학년과 6학년이 같이 졸업을 하였다.

◆ **강릉서 삼당령을 넘어 정선·단양·대전·대구·부산까지 피란을 갔다.**

학교를 졸업하고 월남하여 강릉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얼마 후 사장이 제재소를 팔고 서울 마포구로 이사를 갔는데 내 나이가 어려서 같이 가지 못했다. 18살이 되었는데 6·25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8사단이 강릉에 있었는데 작전상 후퇴한다고 했다.

형님이 고등법원에 근무하고 있어 피란을 가려니 벌써 인민군이 대관령까지 왔다고 하여 삼당령을 넘어 정선으로 갔다. 단양까지 가서 열차 위에 타고 대전까지 갔다가 다시 대구로 갔다.

대구 팔공산에 박격포 5발이 떨어져 사람들이 놀라 피란길에 나서니 길이 막혀 부산으로 가자고 했다. 그때 김석원 장군이 의용군을 모집하였다. 길에서 나를 데리고 가니 형님이 너를 보내면 집에 가서 부모님을 못 본다 하고 하면서 너는 가지마라 하면서 형님이 대신 잡혀갔다. 형님이 가더니 전쟁 필수요원증을 보여주고 그냥 돌아왔다.



- 김준기 (여, 90세, 양양읍 남문4리)
- 면담일 : 2015. 6. 26



◆ **로스케가 잡아간다는 소문에 남지만 마땅하면 빨리 시집보내려 했다.**

고성 용암리에서 태어났는데 친정아버지가 아들 낳기를 기원하여 남자 이름인 준기로 지었는데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동딸로 자랐다.

나는 이북 지리를 잘 알고 있어 학교에 다니고자 진남포에 삼촌과 같이 살았는데 삼촌은 일철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젊은 청년들은 보국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기 위하여 만든 노무대에) 나갔는데 우리삼촌은 보국대에 가지 않고 일본 일철회사에 다녔다.

춘천에는 정경부인학교가 있었는데 일본 아가씨들은 시집가기 전에 다니는 필수 코스였다. 이 학교에선 시집가서 지켜야 할 예절과 하는 일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 과목은 옷 만들기, 예절, 음식 만들기 등을 2년 동안 다 배우고난 다음 각 부락에 다니면서 아가씨들을 가르치러 다닌다.

나는 이 학교를 마치고 부락(마을)에 나가지 않고 도청에 2개월을 근무하다가 해방되어 집에 와 있었다. 그때는 소련군인이 잡아간다는 소문이 나서 남자만 마땅하면 빨리 중매로 시집보내려 했다.

전 양양읍장을 했던 함동기 고모가 중매를 하여 22세에 토성면 용암리에서 청곡2리 비석거리로 25세인 남편에게 시집 왔다. 시아버님은 춘천고급중학교 1회로 졸업하신 분으로 나중에 양양읍장을 지내셨다. 시집 올 때 친정 부모님은 소문이 나게 혼수를 트럭이 넘치도록 해 주셨다. 남편은 철도국에 다니고 있었고 시조부모도 계시는 대식구가 사는 가정이었다. 내가 25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1950년 인민군에 끌려갔다. 그때 아들 둘을 낳았다.

◆ 옛되어 보이는 국군을 김치독에 숨겨 주었다.

1950년 6·25전쟁이 나서 시어른들과 피란을 갔는데 강릉의 빈집이 누구의 집인지도 모르고 주인처럼 들어가서 살았다. 식량이 떨어져 시아버님이 옆집에 피란 올 때 끌고 온 소를 주고 쌀 4말을 바꾸어 식량으로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에 국군이란 사람이 집으로 뛰어들어 와 살려달라고 하여 애원하여 아버님이 김치 독 속에 숨겨주었다. 곧 인민군이 찾아와 “지금 국방군이 튀었는데 여기 안 들어 왔소.” 한다. 숨이 가쁜 순간이었다. 인민군들이 간 후 아버님은 국군에게 물을 먹이고 물으니, “집이 정동진인데 장○○입니다.” 하여 보니 옛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튿날 아침밥을 해 먹이고 보냈다. 우리가족은 강릉 사천리 언덕에 있는 빈집에서 한 달 가량 살다 돌아왔는데 또 피란을 떠났다.

◆ **애를 업은 포대기가 타는 줄도 모르고 불을 쬐었다.**

인구에 피란 갔을 때 학교가 불타고 있다. 누가 왜 방화를 했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날씨가 추워 애를 업고 불을 쬐는데 애기를 업은 포대기가 타는 줄도 모르고 불을 쬐기도 하였다.

연곡 다리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인들이 픽픽하고 쓰러졌다. 우리는 전쟁을 피하려고 다리 밑까지 갔는데 총에 맞아 쓰러진 여학생의 가슴속에 품고 있던 사진(학생증)을 꺼내 흔들며 좋아하던 그들의 모습은 사람 같지 않았다. 이리 쫓기다 저리 쫓기다가 사천에 있는 먼저 살던 집에 가서 살았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총에 맞은 사람이 달려 달라고 애원한다. 시어머니는 어디 군인인지도 모르니 가면 안 된다고 하여 가까이 가지 않고 도망치듯 왔는데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된다. 우리도 거지 생활이다. 애기 업고 다니며 나무하고 식량 얻어다 나물(풀)과 섞어 끓여 먹는 생활을 이어갔고, 그러다 얘기는 열이 나고 앓더니 얼마 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 **남편이 국군의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돌아왔다.**

막내 시어머니도 막내 시아버님이 국군에 나갔기 때문에 혼자였는데 같이 강릉에 다니며 장사를 했다. 3일에 한번정도 강릉에 가야 하는데 아이들 돌볼 사이가 없어 1년을 이렇게 다니다 강릉에 집을 얻어놓고 시할머니를 모셔다 아이들 돌보라하시고 하고 막내 시어머니와 조카며느리가 장사를 했다.

정신없이 장사를 하는데 포로수용소에서 편지가 왔다. 남편이 국군에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남편이 포로석방으로 집에 왔을 때 땅을 구입, 형편없는 초가집을 사서 헐고 2층집으로 올리고 가게를 만들어 장사를 늘려 나갔다. 그 다음은 철물점을 하였는데 시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장날이면 물건을 시장까지 끌어내어 장마당에 펼쳐놓고 팔다가 집을 사서 다시 짓고 금강상회 간판을 달았다.

아들만 넷을 두었다.



- 이상숙 (여, 91세, 양양읍 청곡1리)
- 면담일 : 2017. 11. 15



◆ 아버지가 군대에 안 보내려고 17세 나이에 감곡리로 시집을 보냈다.

해방 전인 일제 강점기시절 군대에 갈 나이가 되는 여성들을 여군으로 뽑아서 데려간다고 하여 나도 강현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았다. 훈련은 한 줄로 섰다가 두 줄이 되고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하는 제식훈련을 받았다. 당시 아버지는 나를 군대를 안 보내려고 17세 나이에 감곡리로 시집을 보냈다.

그러나 시집을 오자마자 남편이 일본군에 징용되어 군대를 가게 되자 나라에서는 집 앞에 깃대를 세워주었다. 남편은 훈련을 받고 만주에 있는 부대에 배치되어 갈려고 하였지만 마침 해방이 되어 며칠을 걸어서 돌아왔다.

해방이 되고 공산당이 정치를 하는데 논밭이 없으니 논을 분배 받아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봤자 공산당에 공출을 하고 얼마 남지 않지만 그래도 원래 논 주인에게는 몰래 쌀을 샀다가 주기도 했다.

남편은 평소에 남에게 나쁜 일은 안하고 살았고, 나중에 국군이 들어오게 되자 그 집에서 논을 사라고 하여 장리쌀을 내서 샀는데 장리쌀은 1가마면 가을에 1가마 반이 늘어나 값기가 어려웠다. 그때 시댁에서는 6가마의 장리쌀을 내서 700평의 논을 샀는데 3년 안에 갚으려 했지만 6년 만에 다 갚았다.

◆ 남편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굴을 파고 숨어 지냈다.

내가 시집에온지 6년만인 1950년 전쟁이 났다. 그때 우리 시누이가 예쁜 처녀다보니 군인들이 밤이면 찾아와 아가씨 내 놓으라고 방에 불을 켜라고 하자 시아버지는 부싯들로 불을 켜는데 거짓으로 부싯들을 켜는척 하여 불이 안 붙어 방을 어둡게 만들어 옷장 이불속에 숨어서 떨고 있던

시누이가 위기를 모면했다.

나는 아이가 있어 머리는 쪽을 찌고 살았지만 아가씨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에는 검댕이 칠을 하고 옷은 다 떨어진 옷을 입혀 친한모습을 하고 살았다.

인민군에 밀려 애기를 업고 피란을 가는데 폭탄이 떨어지면 나가자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 강릉 초당에서 하룻밤을 자고 삼척까지 가는데 며칠을 걸어서 가다가 길가에 사람 죽은 시체가 여럿이 쓰러져 있지만 돌아다보지도 못하고 지나갔다.

그때 남편은 일본군에 갔던 경험이 있어 피란을 안가고 먹을 것을 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인적이 거의 없는 깊은 산속으로 가서 굴을 파고 숨어 살았다. 부인이나 가족이 알면 들키거나 피란을 다니다 보면 잡혀서 군인이나 짐꾼으로 가야한다고 산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우리도 삼척에 가서 먹을 게 없어 파랗게 자란 보리를 베어 국을 끓여 먹고 살기도 했다. 봄에 집에 돌아 왔을 때는 피란을 갔다 온 가족이나 숨었다가 나온 남편도 얼굴이 형편이 없이 말라 있었다.



- 노재춘 (남, 83세, 양양읍 구교리)
- 면담일 : 2015. 6. 13



◆ 형은 국군으로 동생은 인민군으로 서로 다른 전쟁터에서 싸웠다.

서면 용천리에 살았었는데 6·25한국전쟁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기차에는 군수물자만 실어 나르고 사람들은 태우지 않았다. 아버지가 월남하려는 자들을 안내해 주는 일을 한 월남방조사건에 연루되어 원산 감옥에 1년간 수감 되었다가 50년 6월에 만기 출소하였는데 군수 물자 수송으로 기차를 태워주지 않아 걸어서 나오셨다.

우리 형제들이 월남하였으니 아버지를 믿고 월남을 결심한 사람들이 안내를 부탁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한번에 2~3명씩 7~8번 안내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다 내무서원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알려주었지만 잠복하고 있었던 내무서원에 잡혀 양양 내무서에서 재판을 받고 원산형무소에 갇힌 것이다.

1950년 5월 이전부터는 인민군들이 기차에 군수물자를 싣고 와서 월리아카시아 밭에 탱크를 숨겨놓고 밤에는 38° 선 근처로 옮겨갔다. 동네사람들이 자연히 흰 패와 빨간 패로 나뉘었다.

우리는 형과 사촌들이 서울로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흰 패라 하였다. 작은형은 인민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나갔는데 포로가 되어 거제도수용소에 있다가 반공포로 석방할 때 돌아왔다. 그러니 형제가 형은 국군, 동생은 인민군으로 전쟁터에서 싸운 것이다.

◆ 고향에 있어야지 왜 여기까지 왔소, 고향으로 가시오.

1·4후퇴 때 우리는 용천에 살았는데 국군 대대 본부가 우리 집이었다. 군인들이 곧 후퇴를 하는데 인민군이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집은 우리가 태우고 나갈 테니 먼저 나가라고 했다. 벌써 양양읍내는 화재가 나서 밤하늘이 별같이 밝아있었고 주인을 잃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소등에 질매를 얹어 짐을 싣고 남은 곡식들은 땅에 묻고 소 3마리를 끌고 피란을 떠났다. 첫날밤은 현남 광진리까지 가서 어두워서 어떤 기와집에 들어가니 주인은 없고 쌀도 놔두고 떠나서 우리는 주인처럼 밥을 해 먹고 경포까지 갔다.



〈면담중인 노재춘씨〉

주문진에 가니 인민군이 벌써 와있다. “어디서 사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소.” 인민들이 자기 “고향에 있어야지 왜 여기까지 왔소. 고향으로 가

시오.” 우리 겹을 먹고 북으로 가는척하다가 강릉 경포까지 나갔다.

산에서 내려다보면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인민군에게 폭격을 해서 인민군이 쓰러지면 밋이 그 부상한 동료를 끌고 도망가는 모습도 보았다. 폭격에 다 죽을 것 같았지만 숨으니까 많이 죽지는 않는다. 모두 귀한 집 아들인데 폭격으로 죽이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다.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지만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 강릉에서 식량이 모자라서 소 두 마리를 식량과 바꾸어 먹었다.

이번엔 헌병을 만났다. 헌병은 심부름을 시키고 군인들의 잔일을 하는 쏘리를 하라고 했다. 우리가 따라가면 건빵을 많이 주었다. 배가 고플 때 그 건빵 맛은 참 좋았다. 아버지는 우리는 배가고파도 한군데 있어야 한다며 못 가게 했다.

강릉에서 식량이 모자라서 소 두 마리는 식량과 바꾸어 먹었다. 밥 얻으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평소에는 초상집에는 가지 않다가 피란을 가서는 그런 집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한 끼라도 해결하였다.

다시 국군이 양양을 탈환하여 고향으로 남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데 주문진 교황리 청년 밋이 쫓아와서 자기네 소라고 빼앗는다. 그쪽이 숫자가 많다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침 서울 있던 사촌 형님이 주문진에 경찰로 와 있어서 고발하여 소를 찾아 올수 있었다. 그들도 인민군에게 소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떼를 쓴 것이다. 그 사람도 억울해서 그런 것이니 혼내지 말라고 부탁하고 왔다.

집은 타 없어지고 묻어둔 곡식들은 모두 파 헤쳐져 있었다. 우선 집 탄 자리를 치우고 온돌에 흙과 돌을 섞어 쌓고 지붕은 솔가지나 풀을 이어 비를 가리게 하고 살았다.

◆ 교실은 불탄 방앗간에서 명석을 깔고 책상은 포탄상자로 만들었다.

국군이 양양에 입성하여 마을마다 부역이 배당되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병약하여 내가 대신 나갔다. 군용차로 도착한 곳은 고성 건봉사 근처 공병

대부대였다.

도로 보수나 길을 닦기도 하지만 탄약과 보급품을 지고 산위로 운반하는 일을 했다. 몇 번을 나르고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철모에 벗겨진 글씨를 칠하고 잔심부름을 시켰다. 껌, 비스킷 등 과자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약 1개월을 있었는데 동료는 집에 가지 말고 같이 다니자고 했지만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얼마 있으니 학교에 가라고 해서 학교에 가니 벌써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중학교 3학년이 들어가니, 군인을 잦아 온 학생도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3~4살이나 더 많았다.

교실은 서성용이네(현재 구교리 태산연립 앞 헬스장)불탄 방앗간에서 명석을 깔고, 군인들 쓰고 남은 포탄상자로 만든 책상에서 공부했다. 고등학생은 거의 인민군 나가고 살아서 돌아온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부터는 깎은 목총을 내주고 체식 훈련과 총검술을 가르쳤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치 비행장에 왔을 때 학생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 김옥자 (여, 80세, 양양읍 구교리)
- 면담일 : 2015. 06. 13



◆ 함포사격 때 포탄이 우리 부엌에 떨어졌지만 불발탄이 되어 살았다.

강현면 물치리에 살았었는데 1950년 강현초급중학교 2학년이었다. 9월 인가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종을 쳐서 우리는 방공호로 숨었다. 비행기는 기름뿌리고 폭격하였고 바다에서 함포사격을 하여 그중 한발이 우리 부엌에 떨어졌지만 불발탄이라 터지지 않아서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길가는 사람들에게 기총사격을 하니 길에 나서지 못했다.

바다에 시커먼 군함이 나타나면 더 무서웠다. 대포알이 어디에 떨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었다. 10월 아침밥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함포사격이 시작 되었다. 가족들은 밥을 먹다가 말고 뿔뿔이 헤쳐졌다.

◆ 동생과 외삼촌을 따라 간성 다리까지 피란을 갔다 왔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숨고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나는 동생과 외삼촌을 따라 간성 다리까지 피란을 갔다가 돌아왔다. 길에는 피란을 가는 사람들로 길을 메웠다. 당시 물치는 38이북의 인공치하 때라 국군은 무슨 흙을 잡아 혼을 내기 때문에 별별 떨어졌다. 그래서 간성까지 피란을 간 것이다.

오는 길에 길옆에 금방 죽은 사람 시체가 있어도 그냥 모른척하고 왔다. 오면서 빈집에 들어가 잠자고 누가 부르면 도망갔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17세였던 외삼촌은 우리를 데리고 다니기가 참 힘들었을 것이다.

- 한중성 (남, 87세 양양읍 서문리)
- 면담일 : 2017. 10. 31



◆ 어머니가 조상을 여기에 두고는 월남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면 내현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시어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형과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였는데, 형이 공산당이 싫다고 월남을 하게 되니 누나들과 농사일을 하였다.



〈한중성씨 명예제대증〉
(한중길은 구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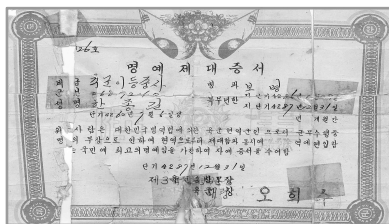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38° 선을 넘어 월남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사촌들도 공산당과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월남하여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 주요 감시 대상으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살았다.

그러다보니 더욱 살기 어려워 가족 모두 월남하자고 하였지만 어머니가 조상을 여기 두고 어떻게 가느냐고 못 간다고 하여 남아 살고 있었다. 1950년 6.25전쟁이 나서 동네 청년들이 인민군에 뽑혀 가는데 나는 월남 가족이라 하여 인민군에 가지 못했다.

◆ **짐꾼이 되어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들어갔다.**

인민군이 국군에 밀려 후퇴할 때 동네 세포위원장이 동네 친구들 4명을 데리고 양양에 오니 이미 모여 있는 청년들이 약 20여 명이나 된다. 그렇게 모인 청년들에게 인민군이 짐을 지고 북으로 가자고 하여 쌀 2말 정도



〈한중성씨 제대증서〉

를 지고 큰길을 피해 주로 산악지대로 인민군과 함께 후퇴를 하였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비행기의 폭격과 바다에서 함포사격을 하니 정신없이 피하면서 따라 가다가 나는 인민군들 몰래 친구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지! 살려면 도망을 가야하는데 잡히면 총에 맞겠지 하며 한숨만 쉬었다.

고향은 점점 멀어지는데 서로 눈치만보며 따라 갔다. 밤이 되면 빈집에 들어가 자거나 숲에서 잤고, 비행기 폭격이 심해져 빨리 갈수도 없었다.

◆ **국군이 주는 건빵을 처음 먹어보니 참 맛 있었다.**

어느 날 우리 일행은 숲속에 숨어 있는데 자동차 소리가 났다. 주위를 살펴보니 다행히 우리를 감시하던 인민군들이 보이지 않자 우리는 자동차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국군들의 자동차가 확실했다. 같이 가던 일행 3명은 지고 가던 짐을 벗어던지고 손을 들고 국군이 오는 방향으로 나갔다.

국군들이 우리 일행에게 이것저것 자세히 묻자 나는 우리 형님도 국군에 잡혔다고 말하고 우리는 현재 인민군들에게 붙잡혀 짐꾼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다고 말하니 건빵을 주어 처음 먹어보는 건빵이라 참 맛있었다.

그 국군들은 우리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자동차까지 태워주어 양양까지 무사히 왔다. 나는 내현으로 가지 않고 인구에 있는 작은집으로 가니 어머니와 누나들도 모두 인구에 와 있었다.

얼마 후 나는 인구에서 입대 영장을 받고 묵호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양양으로 보내져 조산에서 훈련을 받고 15사단 39연대 1대대 2중대에 배치를 받았다.

◆ 소대장의 시체와 전우들의 시체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부대는 고성 통일 전망대 앞 351고지 작전에 투입되었다. 351고지는 국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인민군에게 빼앗겼다고 했다. 그때 우리 2중대는 예비중대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M1소총과 총탄을 양 어깨에 X자고 메고 수류탄 2발, 건빵 2봉지, 그리고 수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능선을 타고 올라갔다.

앞서가던 주 부대가 깨지고 우리중대가 이어서 공격해 올라갔다. 머리 위로는 인민군 총알이 수없이 날아갔다. 관측소에서 작전지휘를 하면 소대장이 공포탄을 쏘며 공격하라고 독려하지만, 무차별 폭격으로 산에는 나무나 풀은 한 포기도 없는 민동산에 앞서가던 전우들의 시체가 쓰러져 있으니 겁이나 제대로 갈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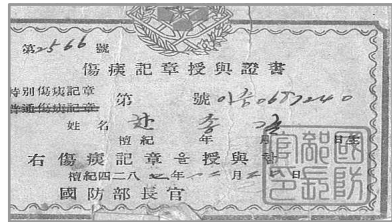
8부 능선까지 올라가 공격을 하려니 앞에서 지휘하던 소대장이 총탄을 맞고 전사하였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정신도 없이 소대장 시체를 밟고 또 전우들의 시체가 호에 널려있어 밟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소대장이 전사하자 향도의 지휘에 따라 전투를 하였다.

인민군들은 산위 토치카에서 아래를 보고 사격을 하니 국군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대포는 어느 쪽에서 쏘아서 떨어지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다.

◆ 철모가 날아가며 다리 쪽이 뜨끈해서 몸을 일으키다 펄쩍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다 바로 앞에 적군방향으로 수류탄을 던지려고 일어서는데 쉼 없이 하고 굉음소리가 나더니 팡 하고 떨어지는 폭탄의 폭풍에 철모가 날아가면서 순간 다리 쪽이 뜨끈해서 일어서려고 몸을 일으키자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고 말았다.

재차 다시 기를 쓰고 일어서려고 애를 써 보자 별수가 없다. 다리에 총알인지 아니면 대포 파편에 맞은 것 같았다.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자 정신을 차려서 가지고 있던 압박붕대를 꺼내서 다리에 감고 지혈을 한 후 중간 방공호까지 간신히 기어 내려왔다.



〈상이기장수여증서〉

얼마 후 후퇴명령이 났는지 우리 군이 내려왔다. 향도가 나를 업고 내려오는데 업은 몸이 출렁거리다 보니 다친 곳이 더욱 아프다. 그때 포화 속에서 살아서 내려 온 전우는 불과 7~8명 정도였다.

들것에 실려 산 아래에 와서 군 앰블런스에 실려 속초 후송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가 배를 타고 목호 제59육군병원에 후송되었지만, 부상 부위가 호전되지 않아 부산 3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거기서 몇 달 치료를 받고 상처는 나았지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라 재대 시켜 주어 상이군인이 되어 북평으로 돌아왔다.

- 이찬호 (남, 90세 양양읍 성내리)
- 면담일 : 2015. 4. 8



◆ 친구를 남한으로 안내하다 또 다른 친구인 세포위원에게 발각되다.

서면 송어리에 살면서 오색에서 양양까지 임산사업소 목재를 우차로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친구가 집에 와있다.

“나를 좀 살려줘”

이유를 물으니 나를 38°선을 넘겨달라는 것이다. 그때는 서로 감시가 심하니 말도 크게 하지 못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친구 일을 말하니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고 길안내를 해 주어라, 라고 말씀 하셨다. 그런데 이 일을 동갑내기 친구가 어떻게 알고 내무서에 일러바쳐 잡혀 가게 되었다.

나는 친구였던 그가 세포위원인줄 몰랐다. 나는 서면 송어리에 살았으므로 서면 내무서에서 양양 내무서로 넘겨져 감방에 들어가니 노돈 형님도 있어 거기서부터 형님과 인연이 되었다. 그런데 내무서에서는 꼭 밤 1시가 되면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바른대로 말하라고 패기 시작한다.

◆ 형무소에 들어가 패통을 쳐서 농사일을 자원했다.

나는 죽는 건 이판사판이다. 내가 살아서 나오면 밀고한 친구인 너는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독기를 품으며 참았다. 3년 형의 재판을 언도 받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형무소는 지방 내무서와 달리 밤으로 잠을 잘 수 있고 매를 맞지도 않기 때문이다. 원산형무소로 넘겨지고 나니 부모님께서는 내가 형무소로 간 사이에 이미 안변으로 이사를 와 계셨다. 형무소에는 반동파, 절도파, 잡범 등으로 구별되었는데, 나는 반동파에 속했다.

감방에는 매일 교도소 수칙을 외워야 한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번호를 대면 줄줄 외워야 하며 못 외우면 엄한 벌이 돌아온다. 또 패통(대나무로 만든 통으로 툭 치면 할 말이 있다는 표시임)이 있는데 할 말이 있는 자는 패통을 치고 말 할 수가 있었다.

◆ 낮에는 비행기가 무서워 밤에만 우차를 몰고 짐을 운반했다.

나는 농사 경험이 있으니 논밭에 일하러 갈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밥 한 끼가 한 숟갈 정도 되는 적은 분량으로 연명하는 판에 농장에 나가는

사람은 한 그릇씩 배식되니 일할사람을 모이라하여 나가니 50명이 나왔다.

밭을 파는 시험을 보는데 모두 못 먹다 보니 힘이 없어 일을 못한다. 조별로 일 잘하는 사람 1과 2등을 뽑아 모아서 15명이 농장에 배치되었다.

밭은 7,500평정도 되었지만 일이 능률이 잘 오르지 않자 모두 모여 대책을 마련하는 말을 주고받을 때 내가 교도 선생님 소만 구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 교도관이 인제군 사람인데 소장에게 보고하여 나를 나오라고 한다.

“자네 소를 구해 주면 할 수 있겠나”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소를 구하러 갔다. 어느 산골짜기에 들어가니 소가 가득해서 그 중에서 튼튼한 황소를 골랐다. 나는 농사일 하고 우차를 몰던 사람이라 소를 다루며 일하는 것은 자신이 있던 차에 우차도 구해주어 짐을 나르는 일을 하고나니 교도소 안에서는 최고 대우를 해주었고, 운반하는 일은 비행기가 무서워 주로 밤에만 했다.

◆ 원산 깡패와 탈출하다.

형무소에는 원산 깡패라는 자가 있어 그와 친하게 되었는데 그가 전쟁이 났으니 정신을 차려야 살수 있다고 했다. 이름이 고용세라고하는 그 깡패가 나를 보고 죄수방의 문을 따고 나와 함께 탈출을 하자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민군들이 무슨 죄로 형무소에 들어온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10명씩 나이롱 끈으로 묶어 끌고 나가 차레로 총살을 시켰다고 한다. 나는 그 깡패와 죄수방의 문을 용케 따고 형무소를 탈출하여 맨발에 죄수복 차림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방향으로 디렀다 뛰었다.

그렇게 얼마인지 도망을 가는 도중 “손들어” 하고 철모를 쓴 군인이 총을 들이 대자 우리가 겁에 질려 손들고 나가니 총으로 막 췌다. 사정을 말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국군소대장이 왔다. 그는 죄수복에 맨발 차림을 한 우리를 보더니 그 졸병에게 왜 때렸느냐고 나무란다.

그리고는 우리보고 “고생이 많았소.” 하고는 헌병대에 인계하니 헌병대에서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대해주었다. 그 후

국군 무장대 700여 명과 같이 인민군을 상대로 전투를 도왔으며, 나는 분대장으로 인민군 포로를 지키는 업무를 주었다.



- 최종원 (남, 79세, 양양읍 구교리)
- 면담일 : 2015. 4. 23



◆ **북한은 전쟁 전부터 송암리 앞 과수원에 폭탄을 쌓아놓았다.**

강현면 강선리에 살았었는데 1950년 전쟁이 나기 전부터 양양 송암리 앞 과수원에는 폭탄을 실어다 쌓아놓았으며, 연창리 정거장에도 석유로 보이는 유류와 말먹이인 마초더미가 쌓여있었고, 정암리에 있는 낙산사역에도 전쟁 물자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

전쟁이 임박해서는 탱크가 나왔는데 물치 다리로 지나가지 못하고 강물을 건너 지나갔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인민군이 지나가는데 나가서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계란과 음식을 선물로 받쳤다.

6월 24일 밤 현재 양양도서관 자리에 인민군 부대가 와서 숲을 7개 걸어놓고 밥을 해 먹고는 새벽에 소리 없이 남쪽으로 나갔다고 한다. 그들이 나간 지 약 한 시간 후 총소리, 대포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아버지께서 새벽에 총소리가 막 났는데 전쟁이 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1950년 6월 26일 강현인민학교에 나가니 선생님이 “남쪽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1km까지 쳐 들어와 우리 인민군대가 반격하여 쳐 내려간다고” 허위로 선전하였다.

◆ **비행기가 공습을 하고나면 기관총 탄피를 주워 장난감을 만들었다.**

우리는 학교의 현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담장 밑까지 굴을 파고 비행기가 폭격하면 피할 수 있게 지붕도 띄워 놓았다. 전쟁 중에도 강현중학교는

공부를 계속하였는데 9월 초에 현북중학교 학생들이 폭격에 여러 학생들이 죽고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선생님들도 군인에 징집되어 나가서 가르칠 사람도 없었다. 학교에서는 게시판에 그날의 전쟁 결과를 게시판에 점령지에 인민공화국기를 꽂아 놓아서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금새통일이 된다고 말했다.

8월경에 미국 비행기가 연일 폭격을 시작했다. 인민군들이 먼저 실어다 놓은 말먹이인 마초와 석유통이 모두 폭파되고 불에 탔다. 과수원에 숨겨둔 탄약은 폭격을 피해 맞지 않았다. 만약 탄약과 폭탄에 폭격이 가해졌다면 엄청난 폭발과 함께 양양은 다 날아가 폐허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지나가면 얼른 나가서 기관총 탄피를 주워 모았다. 정찰기가 지나가야 미국 구라만 전투기가 폭격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탄피로 칼자루도 만들고 친구들과 따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다.

◆ 아버지가 둘째형과 월남을 해서 우리는 꿈작도 못하고 살았다.

북한에서 인민재판이나 교육이 있다하여 매일 밤 모여 자아비판을 하니 너무 자유가 없어 공산주의는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가 민주당원이어서 우리와는 품앗이도 못하게 하여 아버지는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 품앗이를 하면서 농사일을 하였다.

또 아버지가 북쪽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였는데 안변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와서 숨겨서 묵었다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아저씨를 외삼촌이라 하라 했는데 그는 후에 월남을 했다.

한때 양양 내무서는 아버지를 붙잡아갔다가 풀어주었는데 아버지는 북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버지는 그 길로 둘째형을 데리고 월남을 하여 남아있던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꿈작도 못하고 살았다.

얼마 후 국군이 왔을 때 국군을 따라 피란길에 나섰는데 첫날은 청곡리 논둑에서 자고 남쪽으로 피란 갔다. 아버지께서는 수복이 된 후에도 우리

에게 당에 가입하는 일은 절대로 못하게 하였다.

◆ 인민군 패잔병에게 밀려 통천까지 국군을 따라 피란을 갔다 돌아왔다.

사람들은 경상도까지 쳐 내려갔던 인민군 패잔병들이 북으로 쫓겨 도로 쪽이 아닌 산 쪽으로 후퇴를 하니 주민들은 인민군을 피해 다시 북쪽으로 피란을 간 것이다. 그런데 국군 선발대는 7번 국도를 따라 들어가고 인민군 패잔병들은 뒤에서 산길을 타고 따라오고 있었다.

인민군은 수 천 명이 회룡리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염전 고개를 따라 속초 쪽으로 넘어 갔다. 그 대장은 무정장군이라 하는데 백마를 타고 있었다. 어른들은 고성 쪽으로 피란을 가고 아이들은 설악산 뿔 골 쪽으로 피란을 갔다. 그때 주민들은 고성 통천까지 국군을 따라 피란 갔다 돌아왔다.

◆ 우리 집 소가 폭격으로 도망갔다가 화상입고 등이 타서 돌아왔다.


우리 집에서 숨겨서 월남했던 안변 청년이 보안대장이 되어 찾아와 동네에서 북한에서 책임 맡았던 간부들을 찾아 죽이려 할 때 아버지가 나서서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이 한명도 없다하여 다른 동네처럼 서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한 건도 없었다.

1·4후퇴 때는 강선리에 인민군이 와서는 나보고 쌀을 중북리 까지 지고 가자고 했다. 이양섭 아저씨는 장애인 이었는데 그 아저씨는 4말, 나에게 3말을 지고 가자고 하여 싫다는 말도 못하고 져다주었다. 또 우리 집 큰 소가 폭격에 맞아 어디로 도망갔다가 저녁때 돌아왔는데 등이 타서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 인민군이 달라고 하여 돈 3천원을 주며 가져갈 때, 어머니는 소머리는 주고 가라고하여 우리가 삶아 먹었다.


◆ 다섯 살이나 많은 형님 벌되는 학생들과 같은 학년으로 다녔다.

1951년 봄 인민군이 북쪽으로 완전히 후퇴를 하였을 때 강선리에 돌아와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북한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가 없어 초등학교에 들어가 배웠다.

나는 북한에서 인민학교에 입학할 때도 3학년부터 다녔다. 학교에 가니 안 받아주어서 서당에 가서 일본어, 한글, 한자를 배웠고 구구단도 5단까지 외웠다. 수복이 되고 학교에 가니 글을 써 보라해서 썼고 구구단도 외워 보라하여 외웠더니 “너! 3학년 다녀.” 라고 하여 3학년부터 다니다가 6학년을 졸업하고 구 속초중학교 자리에 있던 중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학생들은 나이차이가 있어 다섯 살 많은 학생들과도 같이 다녔다.



- 김남하 (남, 90세, 양양읍 남문3리)
- 면담일 : 2015. 8. 16



◆ 교장보다 당원인 교무주임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강현면 강선리에 살았었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강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년 놀다 평강농업학교 2학년에 다녔다. 당시에는 춘천에 농업학교가 있고 고성 금강중학교, 강릉에 중학교가 있었다. 해방이 되면서 북한 인민공화국에서 교사를 뽑는다고 하므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자 고성 공현진 인민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그때 청년들을 인민군으로 뽑아 가는데 교사는 제외하였다. 그 당시 학교에는 직업동맹이 있어 교장이 있었지만 교감 급에 해당하는 당원인 교무주임이 실권을 더 가지고 있었다. 독보회 라고 하여 공산당인 교양주임이 공산당 이론을 매일 아침 가르치고 신문을 읽어주고 하였다.

또 보도안을 써서 검사를 받고 가르치는데 내용은 “미국 놈이 다섯 놈 있는데 두 놈을 총으로 쏘 죽이면 몇 놈 남았나?” 등으로 남한이나 미국을 중요하는 내용으로 보도안을 작성해야 교무주임의 결재를 받고 가르쳤다.

그때는 모두가 당원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6·25남침이 임박해서는 인민군이 내려와 학교를 비워 달라하여 내막은 모르고 비워주고 학생들을 2~3

일간 방학을 하는 줄 알았지만 그때 교사들은 매일 밤 학교에 나와 지켰다.

◆ **마구간에 있는 소가 내 머리카락을 뜯어 먹으려고 했다.**

1950년 6·25전쟁이 나서 다른 청년들은 인민군에 징집을 하는데 교사들만은 군에 뽑아가지 않았다. 2년간 근무하다가 회룡인민학교에서 지리학과 연구 발표가 있는데 4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 나를 나가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 같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 회룡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였다.

그런데 국군이 진격해 온다고 하여 다들 고성 공현진 학교로 가는데 나는 가지 않고 가족이 살고 있는 강선리 집에 남았다. 그리고 얼마 후 1·4후퇴 때 우리 식구는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남으로 피란을 나갔다.

강릉 사천에 이르러 남의 집 부엌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드러눕는 장소가 좁아 어떻게 하다가 부엌 옆에 붙은 마구간 소 구유(구유:소 먹이통) 밑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얼마큼인가 자다가 보니 소가 내 머리카락이 먹이(짚이나 풀)인줄알고 혀로 잡아 땡기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깨어나는 웃지 못 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 유승일 (남, 83세, 양양읍 남문4리)
- 면담일 : 2015. 5. 20



◆ **삽이나 괭이를 들고 나오시오 하고는 바로 인민군으로 뽑혀갔다.**

손양면 여운포리에 살았었는데 우리는 이북에서 출신성분이 좋지 않았다. 북한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땅을 5정보 이상 가진 사람은 몽땅 빼앗고, 3정보이상 가진 사람은 토지만 몰수하여 100리 이상 쫓겨났다. 아버지는 36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상과부가 되셨고 토지는 다 빼앗기고 나니 먹고살기가 어려웠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일을 하러 나가시고 나는 집에 혼자 있는데 면사무소 인민위원회 세포위원장이 와서 하는 말이, “동무, 집에 있었구만 제국주의자들이 폭격이 심하니 삽이나 썰이를 가지고 나오시오!” 라고 하여 따라 나가니 약 70~80명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삽질은 한 번도 안하고 원산 북쪽 고제읍 까지 갔는데 그때가 1951년 4월 11일이였다.

고제읍에 도착하니 거기에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징집되어 훈련병으로 모집된 인원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부대에는 차가 한두 대 밖에 보이지 않았다. 모집된 훈련병들은 원산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낮에는 산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이동하여 평양을 경유하여 신의주에 도착하니 미국 구라만(미국 그러먼사의 F6F헬캣 전투기) 비행기가 새까맣게 날아와 폭격을 가했다.

◆ 나는 항상 인민군에서 탈출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군사 훈련을 하는데 목총을 깎아 들고 훈련을 하다가 목총이 부러지면 작대기를 들고 훈련을 했다. 1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2개월 반을 행군하여 황해도 연백에 도착하여 단발 장총인 아식보(소련제)소총을 지급받았고 분대장은 71발의 총알이 들어가는 따발총을 가지고 있었다. 부대는 다시 이동하여 월비산(지금 금강산 전망대)에 도착하여 3~5명씩 조를 짜서 유엔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

1개 소대병력이 35~36명인데 잠잘 시간이 없다. 병력 중 1/3은 30리 후방에 가서 식량 구해오고, 1/3은 전투하고, 1/3은 굴을 파야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고향에서 인민군에 먼저 갔던 친구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탈출하여 외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집에 도망쳐 온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1개조 3명이 탈출을 결행하였다.

1개조가 3명으로 우리 조 중에는 서울출신으로 공산당이 좋아서 지원을 했다는 17세의 중학생과, 의주 농촌에서 온 3~4살 위인 장가를 간 청년

이 한조였다. 힘들고 괴로우니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중에 서울서 온 청년이 탈출하자고 제의를 했다.

그는 삼촌이 남한 헌병 말뚝 2개라 했다. 굴을 파다가 교대하여 막사로 와서 지는데 셋이 누워 손에다 글씨를 써서 소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이가 위이고 장가까지 갔다는 고참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고 했고, 나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고, 서울서 온 청년은 아직 철이 없다.

그래서 셋은 새벽까지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는 가겠다. 하고 일어나니 모두가 마음이 긴장되어 조용해지고 떨리지도 않고 안정되었는지 둘 다 따라 나선다.

막사 입구에 나오니 눈이 쌓여있는데 막사를 지키는 동초가 걸림돌이었으나 그때 마침 보초가 “야 너 잘 나왔다 내가 지금 급해서 똥 누러 갔다 올게.” 라고 하자 나는 야, 냄새나니까 멀리 가서 싸 라고 하면서 보초병이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 1개와 총을 가지고 도망을 나와 솔가지를 길게 꺾어 썰매를 만들어 타고 신속히 이동했다.

동초가 보초를 서고 있었지만 안개가 자욱하여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때 나무를 꺾을 때 딱 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 유엔군이 담배도 주고 통조림도 주었는데 꿀맛보다 더 좋았다.

우리는 지뢰가 묻힌 곳을 알고 있어 요리조리 피하여 남쪽으로 향해 걷다가 약 3~5m 사이에 두고 유엔군과 마주섰다. 나는 헬로! 헬로! 하고 유엔군을 불렀다. 그들은 휘파람을 불며 1명은 사격자세, 1명은 권총을 들고 가까이 왔다.

때 마침 안개도 짙어지고 하늘이 청청해지자 긴장했던 마음이 다 풀어지니 유엔군 정문 앞에 인민군이 다발총을 들고 추격해 오는 것 같이 허깨비가 눈에 선 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유엔군을 따라 들어가니 난로를 뜨끈뜨끈하게 피워놓아 얼었던 손이 풀렸다. 유엔군이 담배도 주고 통조림도 주었는데 꿀맛보다 더 좋았다. 당

시 미군과 인민군과 직선거리 약 100m도 안되어 보이는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나중에 유엔군이 우리를 심문할 때 항공사진을 보니 장작 패는 사람 이 름까지 알 것 같았고, 특무장(선임하사)은 누구고 박격포는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신기하기만 했다.

인민군은 장교도 담배공급이 안되어 싸리 잎, 취 잎사귀를 말려 말아 피웠는데 담배를 주니 너무 고마웠다. 유엔군 천막 수용소에 오니 40~50명의 인민군이 시끌시끌했다. 후에 나는 심문을 받은 후 상급부대로 가서 서울 어떤 공장안에 3~4일 수용되어 있었는데 같이 온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이 헤어져 섭섭해 울었다.

◆ 거제도 95수용소는 좌익수용소로 인공기를 게양하였다.

서울서 유엔군 버스로 부산을 가서 LST 배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도착 2월부터 수용소 생활이 시작되었다. 61수용소에서 인원과약과 심사를 하고 5열로 서라고 했다. 포로 선배가 별도주고 위세를 부려 우리는 별별 떨었다. 나는 포로 옷을 입혀 95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포로들 중에는 귀순자와 빨갱이도 섞여있어 서로 싸우고 엎드려뺨쳐 별도주고 곡괭이 자루로 머리를 때려 그 자리에서 죽는 일도 보았다. 포로 중에는 좌익이 80%를 장악해서 귀순자 끼리 단합하여 밖에 카츄사 들이 도와주고 보초서는 사람도 한국군이어서 도와주었다.

포로들은 우리도 자유를 달라, 양담배를 달라! 한 끼 굶더라도 담배를 피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93수용소는 우익 수용소로 태극기를 달았고 95수용소는 좌익수용소로 인공기를 게양하였고 94수용소는 이념전쟁에서 우익이 이겨 우익이 장악했다.

이렇게 싸우니 좌우익별로 갈라놓았다. 대한민국에 남겠는가? 북으로 갈 것인가? 당시 포로들은 거제도를 제외하고 육지에서는 여수, 광주, 논산, 마산, 부산, 부평으로 갈라 수용하였는데 나는 광주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1953년 6월 18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명령으로 수용소

를 뛰쳐나왔다. 미군들은 우리를 잡으려고 사방으로 찾아다녔고, 새벽에 갑자기 나오니 갈 곳이 없어 민가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마을 이장을 찾아가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되어 도와주었다. 그 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와 바로 자원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였다.



- 김태동 (남, 85세, 양양읍 월리)
- 면담일 : 2017. 10. 14



◆ 콩기름을 짜고 난 대두박에 감자와 쌀을 조금 넣고 죽을 쑤어먹고 살았다.

손양 우암리에 살았는데 집형편이 안 좋아 인민학교도 못 다니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16세가 되던 해에 6·25전쟁이 났다.

인공정치 때 마을에서는 조국보위훈련을 한다고 민청단과 소년단 활동을 매일 같이 하였다. 흰하게 날이 세서 아침이 되면 마을 동사에 모여 줄을 서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몇 가지 구호를 외치고 나서야 집에 가서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밥은 주로 콩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인 대두박을 물에 불려 쌀과 보리를 조금 넣고 또 감자 등을 넣어 죽을 끓여 먹었는데, 어떤 대두박은 깨면 곰팡이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렇지만 어쩔 수없이 이렇게라도 식사를 한 후에 일터로 나갔다.

◆ 왕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아 만든 창을 들고 훈련을 했었다.

당시 민청단은 남녀 구별 없이 조직하여 조국보위 훈련을 하는데 나무로 목총을 깎아 못을 박아서 훈련을 하는데 주로 사람 잡는 연습을 하였다. 저녁 모임에도 주로 구호를 외치고 회의를 하여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 만약 나가지 않으면 비판을 받아 안 나갈 수도 없었다.

훈련을 할 때는 왕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아 만든 창을 들고 훈련을 했고, 훈련에 나오라고 할 때는 정신없이 팽가리와 징을 요란하게 치며 소리를 쳤는데 여맹회의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6·25 전 인공정치 때 부잣집들은 노인들만 남고 자식들은 대부분 다 월남을 했으며, 사촌형을 비롯한 친척들 일부는 왜정 때 이미 월남을 하고, 남아 있던 집안 형님과 동네사람들이 월남하려고 모의하다가 그들 중에 골수공산당원 동생이 끼어 있어 발각되어 잡혀 가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무사 했었다.

그 당시 남으로 나갈 사람들 중에 공산당원 동생이 있다 보니 무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마을사람들 대부분은 항상 월남을 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

그때 월남해 가는 루트는 주로 부소치산에 있는 농골이 재로 넘어갔다. 그때 우리 집안 형님은 일본 해군에 있었는데 월남을 해서 다시 남한 해군 들어갔다가 후에 서울 한강물이 많이 나갈 때 인명을 구조하려다 애석하게 목숨을 잃었다.

◆ 몰수한 재산을 받은 자들은 열렬한 공산당원이 되었다.

쌀농사 못지라는 밭에 씨를 뿌리고 모래를 저다 덮어 모판을 만들어 모를 키웠다가 동네 사람들과 서로 모내기를 도왔다. 그러나 가을이면 벼가 익기도 전에 벼를 베어 현물세를 바치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집안 식구가 먹을 것만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이 얼마 없다.

논이 많은 집은 몰수하여 논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다. 그렇게 재산을 몰수해서 배우지 못한 자와 못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열렬한 공산당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동네에서 살면서 이쪽 패와 저쪽 패를 서로 다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고 병어리처럼 살았다.

우리 집은 아래윗집이 사이가 좋아 저녁이면 사랑방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밤에 누가 엿듣는 것 같아 갑자기 문

을 확 하고 열었더니 누가 마루에서 마당으로 공중 나가자빠지더니 급히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자가 누구인줄 대강 짐작이 가서 알고는 있었으나 말하지 못하고 참고 살아야 했다

우리는 논 300평이 있었고 왜정 때 일을 열심히 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 1천 평을 샀는데 그 논을 몰수당해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른다.

배말에 살았던 윤규병 네는 땅이 많아 만석 군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땅을 몽땅 빼앗기고 6.25전쟁 때 남으로 피란을 나갔는데 실종이 되었는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 박격포탄을 등에 지고 바지를 빨가벗고 남대천을 건너 논화리로 갔다.

당시 낙동강전선까지 밀고 내려간 인민군들은 대구 방어진을 사수하는 아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후방에 보급로가 끊어지게 되자 인민군들은 38° 선 이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때 국군이 월리에 야포 3문의 포신을 북쪽으로 향하여 겨냥해 설치해 놓고 있었고, 한쪽에는 80mm와 60mm 박격포탄과 수류탄 등을 갑빠로 썬 위 덮여져 있었다.

이때 우리는 짐꾼으로 동원되어 박격포탄과 수류탄을 지고 바지를 빨가벗고 남대천을 건너 논화리 뒷산까지 올라가니 거기서는 이미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가 짐을 풀어놓으면 어른들은 나무를 찍어 황덕불을 피워 놓고 자고 나서 날이 세면 또 포탄을 지고 이번에는 가라피까지 지고 올라갔다.

그때 오색 가라피에 미군 쌍다리 비행기가 보급품을 낙하산에 메달아 떨어는데 보급품이 색깔에 따라 먹는 것, 피복, 탄약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리를 깔아놓듯이 일자표시와 십자표시에 따라 아군과 적군을 표시한 것 같았으나 그러나 비행기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낙하지점을 잘못 판단해서 보급품이 인민군지역에 떨어진 것도 있었다. 그 후 1.4후퇴 때 국군이 다시 후퇴를 할 때 집으로 돌아왔다.

◆ **우암리 집들은 불에 타지 않아 인민군들이 먹고 자는 숙식 제공처가 되었다.**

형은 19세였는데 인민군에 입대 장전까지 가서 아군과 전투를 하다 도망쳐 나와 산속에 숨어 미숫가루와 머루와 다래 그리고 풀까지 뜯어먹고 살다가 10월에 국방군이 들어오자 국군의 군속으로 따라 다녔다.

1950년 12월 말인가 국군이 후퇴할 때 양양은 모두 불에 탔는데 우암리는 불타지 않았다. 그러나 집이 안타는 바람에 쓸 때 없는 고생만 더하였다.

아군이 재 반격을 하면서 인민군 패잔병이 후퇴할 때 인민군 부대가 불이 안탄 집으로 들어오게 되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인민군들에게 밥도 해주고 방에서 잠까지 자니 진작 우리는 굴을 파 놓은 것이 있어 굴속과 밖에서 자야만 했었다. 그렇게 한패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패가 오고 계속 이어졌다.

이때 여군들도 많이 섞여 한방에서 그냥 막 잤다. 그리고 총 맞은 군인과 화상을 입은 군인도 많았는데 양양까지 말에 사람을 태우듯이 소 등 질매에 태워 데려다 주기도 하였고, 한번은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 부상병을 먼 거리인 상복골까지 태워다 준적도 있었다. 그리고 밥을 여러 번 먹고는 영수증까지 해 주며 다음에 나와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가차고 웃기는 노릇이다.

그 와중에도 바다에 떠있는 함대에서 함포사격으로 포탄 날아가는 소리가 산을 울리며 날아갔다. 그때 인민군들이 조금 있으면 국군이 온다고 동네 책임자가 소식을 전해 동네사람들과 함께 산박골 골짜기로 먹을 것을 조금 싸들고 들어갔다가 바로 국군이 들어와 패잔병들과 공산당원들이 다 북으로 들어가자 굴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국군이 왔다는 소리에 집에 들어왔는데 며칠 후 국군을 만났다.

그 후 2차 피란을 잠깐 나갔다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오죽했으면 피란을 나갈 때 집에다 불을 싸놓고도 싶은 생각을 다 했었다.

◆ **국군이 들어오자 공산치하에서 빼앗겼던 논을 다시 찾았다.**

지금 생각하면 내 평생에 좋은 일은 이북 정치를 싫어하고 남한 정치가

된 것이 태어나서 제일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 국군이 후퇴할 때 강릉까지 피란을 갔다.

그때 어린 동생은 엄마가 업고 그 위 동생은 아버지가 지게에 올려놓고 가고 나는 찰쌀을 조금지고 강릉 비행장 근처인 하시동까지 가서 남에 집 부엌에서도 자다가 다행히 피란을 나간 빈집에 들어가 솥이 없어 양푼에 불을 해놓고 밥을 해 먹으면서 15일정도 고생을 하다가 국군이 다시 밀고 들어간다고 하여 국군을 따라 우암리 들어오니 양양은 다 불에 탔는데 우리 집은 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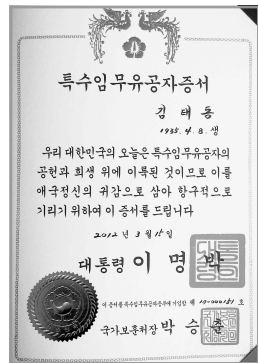
우리 집은 국군이 들어와 공산치하에서 빼앗겼던 논 1천 평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만석군 이었던 윤규병씨는 피란 가서 죽고 그 아들들이 들어와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고, 그때 땅을 분배 받은 사람들은 수복이 되기 직전 대부분 북으로 다 도망쳐서 들어갔다

◆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잘못파악 전사자로 처리 되어 충훈탑에 위패봉안

휴전 막바지에 이르러 38°선 이북 휴전선 일대 고지에서 국군과 적군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무렵, 군부대에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와 우리 동네사람 3명을 따라 오라고 하여 수여리에 가니 이미 해가 넘어가고 어두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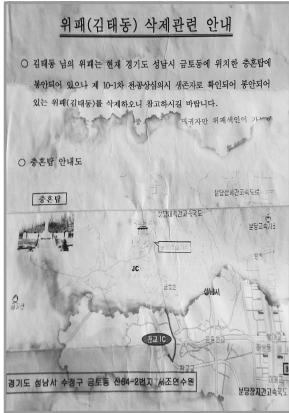
손양면 하수여리 동네의 빈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나니 M1총 여러 정과 인민군이 사용하는 아시보 소총 1정이 세워져 있었다.

군부대 사람들은 우리보고 M1총 분해하고 결합하는 교육을 시킨 다음 새벽이 되자 차에 태우고 전방인 간성을 지나 거진으로 가서 내려놓는다. 거진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고, 별도 건물은 없었고 주로 빈집에 들어가 생활했으며 2월의 추운 날씨에도 아침으로 팬티만 입고 구보를 시키고 나니 몸이 얼어서 뻣뻣하였다.



〈김태동씨
특수임무유공자증서〉

그리고 식사 후에는 큰 천막 속에 들어가 북과 시 정보수집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데 인민군이 어디에 몇 명이 배치되어있는지, 무기는 어떤 것을 가졌는지 등의 교육을 받는다.




〈김태동씨 전사자 봉안위패 삭제관련 안내〉

우리보다 앞서 3명이 한조가 되어 북으로 적의 동태를 탐지하러 들어갔다 나오지 못한 대원들이 많았는데, 소문을 들으니 침투도중에 지뢰를 밟고 죽었다고 한다. 며칠 후 우리조가 어둠을 타고 북한 쪽으로 침투를 하였다.

거진에서 적진인 대진까지 3시간을 걸어서 적진영으로 침투하였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 성과 없이 그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후 북에 들어갈 일이 없어졌는지 상부에 지시에 따라 3월 말경 임무를 끝내고 집으로 왔다.

그때 내가 소속부대는 HID로 북과 공작 시 적에게 생포되면 정보누설 관계로 동료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른 채 북과공작원 임무를 수행했다. 나는 북과 공작원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걸로 된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경기도 성남시 금표동에 위치한 충훈탑에 봉안되어 있으나 제10-1차 전공 심의 시 생존자로 확인되어 있는 위패를 삭제하였다. 휴전이 되고 농사일을 하다가 군에 입대 논산훈련소 22연대 10중대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다.



- 노돈 (남, 98세, 양양읍 성내리)
- 면담일 : 2015. 4. 8



◆ 월남하는 친구 안내하고 2년형을 받고 이승 도중 기차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다.

고향은 손양면 상왕도리였다. 일본 보국대에 끌려갔다 돌아와서 우차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는데 친구가 월남하는 것을 도와 달라 하여 안내하고 오니 누가 고발하여 내무서에 끌려갔다. 나는 월남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안내한 것이 들통이 나서 월남 방조죄에 해당되어 2년형을 선고 받고 함흥 형무소에 갇혔다.

1950년 10월 어느 날 6개월에서 1년 남은 죄수들을 2층 교화회관에 모이라고 하여 나가보니 전국 청원자 궤기대회를 한다고 하며 죄수들이 약 150명이 모였는데 형무소장이 “동지 여러분!” 하고 크게 외쳐대니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기차에 태워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인민군들은 전쟁에서 유엔군에 밀리자 후퇴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중공군이 북한을 도우려 나온 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러시아로 간다고 수근 거렸다. 서하문을 지나서 기관차가 불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 언덕을 지날 때가 되자 나는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렸다. 옷은 죄수복에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으나 잡혀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아픈 줄도 모르고 내려뛰었다.

◆ 옥수수 가리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가을이라 콩밭을 지나는데 콩이 여물어 콩꼬투리가 발등을 찔렀다. 그런데 어떤 보따리가 밭가에 있어 열어보니 옷가지들이 들어있어 그걸 입었다. 10월이지만 밤이면 추워서 옥수수를 수확하고 모아둔 옥수수가리 속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낮에는 솔밭에 숨어서 밖의 정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숨어있다 남쪽으로 오려고 오노리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프차가 다니면 산속에서 내려오라고 방송을 하므로 그 소리를 듣고 107헌병대에 찾아가니 그간 고생했다며 밥을 주었다. 그동안 며칠을 굶고 또 조금씩 먹다가 잘 먹으니 설사가 많이 났다.

먼저 내가 수감되어있던 함흥 형무소에 인도되어 가니 감옥 마다 인민군들이 갈혀 있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총이나 폭탄에 맞아 다리가 떨어져 나간 포로, 총에 맞아 치료를 못 받아 살이 썩어가는 인민군도 있었다.

거기서 인민군들은 미군에게 밀려 후퇴하면서 형무소 인들을 함흥 뒷산으로 끌고 가서 죽인 사람들을 구덩이를 파고 묻었는데 머리는 밖으로 나오게 10명씩 철사 줄로 묶어서 묻었는데 죽은 사람들이 모두 혀를 내놓고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 **미군에 포로가 되었다.**

고원은 원산에서 160리 정도 되는데 걸어서 내려왔다. 오면서 미군에게 영어로 사인이 있는 증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원산을 거쳐 그 증명서를 들고 비를 맞으며 안변, 협곡에 도착해서 헌병대에 갔더니 기관총을 맨 사람이 훈시를 하고 있다. 방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은 자고 다른 사람은 총을 닦고 있던 그 중 한사람이 “어 형님이 아닙니까.” 한다.

나는 여기서 운명적으로 수산리 장병길을 만났다. 트럭을 타고 고저에 가니 유엔군 천막이 수도 없이 쳐 있고 미군이 총을 메고 포위하고 있다. 지프차가 오더니 피란민을 따로 군인 따로 세운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통천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미 남은 집이 없고 모두 폐허가 되어있었다.

고저에서 아가리 배(LST수송선)를 타고 밤에 떠나 부산 서면 포로수용소에 도착 심사를 거치고 논산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어 포로생활을 하다가,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반공포로 석방사건 때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 김용희 (여, 84세, 양양읍 연창리)
■ 면담일 : 2015. 8. 16



◆ **문맹 퇴치를 위해 말곡리에 가서 연극을 했다.**

나는 현북면 하광정리에 살았었는데 왜정 때 아버님께서 일본말을 배

우지 말라고 해서 잔교리에 있는 서당을 몇 년 동안을 걸어서 다녔다.

그 후 현북 인민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학교를 다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는 약 30분을 걸어서 다녔다. 그때 군행리에 사시는 오제정 선생님이 피아노를 키면서 노래를 가르쳤고 또 학교에서는 문맹퇴치를 위해 말곡리 마을에 가서 연극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나는 그 연극에서 어머니 역할을 한 것 같다.

6·25전쟁 당시 현북 발개미(하광정리)에서 살았다. 6월 25일 새벽 3시경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오전 8시가 되자 인민군들이 벌써 인구까지 밀고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한 며칠 동안은 인민군들이 새까맣게 남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 현북중학교에서 미군기가 불 폭탄을 쏘아서 화상을 입었다.

그 당시에는 현북중학교가 지금의 현북면사무소 자리에 있었고 그때 내 나이는 18살이었고 중학교 2학년이었다. 1950년 추석 때 전쟁 중에도 학생들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운동장에서는 10여 명의 인민군들이 불을 차고 있었는데, 오전 9시쯤 미군비행기 1대가 학교상공을 맴돌다가 돌아갔다.

그리고 잠시 후 미군기 4대가 학교를 공습하기 시작하였다. 순간 학교가 이수라장이 되었으며, 인민군들은 산꼭대기 토치카로 올라갔으며 선생님들이 방공호와 산 쪽으로 대피하라고 소리를 쳤다.

이수라장속에서도 인민군들은 총질을 해댔으나 비행기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퍼부었다. 그 와중에 1학년 학생들은 산속 토치카 쪽으로 올라가 대피를 하고 일부 선생님들과 우리 2학년 학생들 약 50여명은 방공호로 대피를 하였는데 그때 미군기들이 주로 방공호로 불 폭탄으로 공습하여 수많은 학생들과 일부 선생님이 화상을 입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나는 그때 머리카락이 모두 그을려 지고 상반신을 거의 다 화상을 입었는데 몸은 화끈거리며 달아오르고 불 폭탄을 맞아 단테가 얼마나 예린지 머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다. 그때 화상을 입은 상처자

리가 온몸에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

◆ 단가에 실려 손양인민학교에서 1박을 하고 강현면 적은리로 들어갔다.

미군기들이 돌아간 후 화상을 입은 사상자들을 실은 단가가 북으로 이송을 하는데 국어선생님과 수학선생님도 머리까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그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임시로 콩기름을 바르고 단가에 실려서 북으로 들어가다가 손양인민학교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강현면 적은리 개인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할머니가 삶아주는 감자가 몸이 엄청 아픈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도 어렵פות이 생각난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가 데리러 와 집에 와서 피마자 잎을 붙이고 그렸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후 국군들이 진격해 들어왔는데 우리 집 사촌이 월남을 해서 국군으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보고 의무대에 가면 페니실린이 있어 그걸 바르면 금방 나아진 지다고는 했지만 그 페니실린 1병이 쌀 5말 값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그 당시 화상을 입은 수많은 환자들 중에 5명인가가 살아났는데 나하고 전종빈만 아직 살아 있고 전병관은 얼마 전에 죽었다.

◆ 조부 대상인데 돼지를 잡아 매달고 술을 담가놓고 피란을 나갔다.

음력 동짓달 11월 26일이 우리 할아버지 대상을 지내려고 술을 담그고 돼지를 잡아 매달아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피란을 나가라고 해서 대상도 못보고 그랬는데 어디쯤을 나가다 보니 바다에서 함포사격을 어떻게 요란하게 쏘 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해 다니다가, 밤새를 넘어 옥계까지 피란을 나갔다가 놀러 들어왔다. 집에 들어오니 그 당시 피란통에 마을 인민위원장과 일부 사람들은 남으로 피란을 나가지 않고 북으로 들어갔다.



■ 김구 (남, 72세, 양양읍 군행리)

이 글은 초대 양양문화원장 김종극 씨가 생전에 쓴
『풍상구십평생행적소회록(風霜九十平生行績所懷錄)』
일기중의 일부내용을 옮긴 글로 저자인 김구씨가 제공하였음.



◆ 설악산 마등령을 넘어 5일 동안 걸어서 춘천에 도착했다.

나는 1905년 강현면 중북리 서당집 김좌배(金佐培) 공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자인 만형[김종섭(金鍾燮) 서당훈장]에게 한문을 배워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16세가 되던 1920년 만형의 권유로 남궁억 양양군수가 군행리 구 객사(舊 客舍)에 설립(1905년)한 현산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

이듬해인 1921년 12월 4학년 2학기 말 야간에 현산학교가 불에 타고 그 앞에 있던 양양의 명물인 태평루(太平樓)가 전소되어, 3학기부터 구교리에 건설한 새 학교로 옮겨서 다녔다.

그 후 보통학교(현산학교)를 졸업하고, 19세 때인 1923년 3월 중북리 집을 떠나 설악산 마등령을 넘어 주막여인숙에서 숙식을 하며 5일 만에 춘천에 도착, 그해 4월 춘천사범학교 응시시험에 합격하여, 1925년 3월 25일 춘천사범학교 제1회로 졸업하고 공립보통학교 훈도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925년 3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근무지를 지정받은 울진군 매화보통학교를 시작으로 홍천보통학교, 원주보통학교, 원주황둔간이학교, 춘천학곡간이학교를 거쳐 1942년 교직생활 17년 만인 37세에 회양군 이포학교 교장과 양양 강현인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1947년 6월 월남 후 강릉성덕학교, 묵호학교, 연곡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6·25 한국전쟁을 맞았다.

◆ 1950년 6월 25일 남침인줄 모르고 2~3일만 피하면 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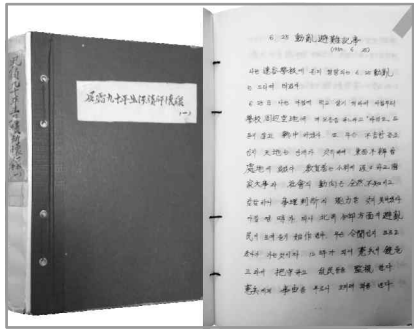
1950. 6. 25 연곡 학교에 온지 10개월 만에 6·25전쟁이 터졌다. 6월 25일 아침식사 후 학교주변 공지에 개 모종을 하느라 라디오도 듣지 않고

모중에 열중하였다. 또 안개가 자욱하여 동서를 구별할 수 없었다.

아침 10시가 되니 북쪽 인구방면의 피란민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무슨 영문(令聞)인지 모르고 왔다가 가는 것이다. 12시가 되니 헌병이 총을 들고 와서 피란민들을 감시한다. 헌병에게 사유를 물으니 오히려 화를 낸다. 학교 선생들과 좌불안석(坐不安席)이라 지서에 물으니 괜찮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피란민은 대거 왔다가 곧 떠난다. 시시각각으로 연락하여도 시종일관(始終一貫) 괜찮을 것이라 한다. 저녁 7시가 되니 연락이 오기를 사이렌이 나거든 피란가리는 것이다. 나는 지서에 가니 이미 주문진 경찰서장도 부하를 데리고 피란하는 것이다.

나는 관사에 와서 대강 식사 도구만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피란길을 떠났다. 그때 약 2~3일만 피란하면 된다고 한다. 살림살이 물건은 그냥 두고 문만 잠그고 떠났다. 오후 7시 사이렌이 들린다. 피란보따리를 짊어지고 연곡을 떠나 경포로 향하였다. 밤은 깊어가고 길은 어두우나 연곡 사람의 피란 대 행렬 뒤를 따라갔다. 모두 간단한 보따리다.



〈김중극 씨가 생전에 쓴 『풍상구십평생행적소회록(風霜九十平生行績所懷錄)』〉

6·25남침인지도 모르고 떠났으며 2~3일만 피하면 된다고에 캄캄한 길을 뒤따라가니 한심할 따름이다. 밤 10시경 경포에 도착하니 학교는 피란민으로 꽉 차있었다. 우리 일행도 교실 1칸에서 뜬 눈으로 새웠다. 헌병이 와서 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벽 한시가 되니 피란민은 떠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회(下回)를 기다려 보기로 하고 있었다.

◆ 6월 26일 인민군이 옥계에 상륙 옥계제방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아침밥은 면에서 주먹밥을 주어 얻어먹고 아침 9시쯤 되어 경포제방에 가보니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며 반격작전을 취한다고 훌레복는다. 피란민

들은 모두 강릉 방면으로 떠났다. 우리일행도 사이 길로 강릉교동에 오니 군인 한 사람이 다리를 질질 끌고 쫓락거리며 온다.

이 군인은 인구방면에서 적군에게 한방 맞은 모양이다. 이 광경을 보니 간담이 서늘하다. 피란민의 집결소는 강릉국민학교이다. 우리 일행가족도 학교로 들어갔다. 답답하여 경찰서에 있는 조카 김관수에게 물으니 아직 상황판단을 못하고 정세 불리한 것으로 말한다. 6월 26일 밤은 강릉국민학교에서 신세를 진다.

인생은 먹는 동물이다. 강릉부인회가 총동원하여 주먹밥을 주었다. 면식이 있는 부인이 있어 특대(特待)를 받았다. 통행이 금지되어 우리 안에 갇힌 몸으로 꿈쩍달쩍 못하고 하루 밤을 새웠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한인민군이 38° 선을 넘어 인구방면으로 육박하고, 강릉 남쪽 해안가 옥계에 상륙하여 옥계 제방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우리 경비대는 강릉에 집결하는 중이라 한다. 이때 강릉에는 제8사단이 있었다.

◆ 6월 27일 안인방면을 내다보니 대포소리가 팡팡 대포불이 번쩍번쩍한다.

악몽의 첫날이다. 정오부터 강릉 8사단이 대관령 방면으로 퇴각중이다. 군인 모두 위장하고 소개하는 중이고 시가는 조용하고 군대만이 우왕좌왕하고 훌레복는다.

오후 7시 피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구정방면의 처가친척집에 왔다. 구정리에 와서 안인방면을 내다보니 대포소리가 팡팡하고 대포의 불이 번쩍 번쩍하여 전율과 공포를 느끼겠다. 친척집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이튿날 최중원 방위대 대위가 피란을 간다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 우리도 더 있을 마음이 없어 길을 떠났다.

◆ 6월 28일 정선 임계학교에서 묵다.

아침에 생각하니 어느 방면으로 가야지 생왕방(生旺方:오행(五行)에서, 길(吉)한 방위)이 될지 숙고(熟考)하였다. 그러나 피란민 모두 정선 방면으로 간다. 우리도 구정 앞산 고개 길로 접어들었다. 고개를 오를 때 앞에

서 인기척이 나면 모두 쉬쉬한다. 그것은 적의 선발대가 혹은 간첩이 피란을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닌가 하고 모두 신경을 곤두세웠다.

온종일 구중 비는 내리는데 옷은 모두 젖었다. 일행은 삼당령(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와 목계리 사이에 위치한 고개)을 넘고 고단을 지나 임계 땅에 들어서니 점심때라 시장기가 있어 민가에 들어가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종일 비를 맞고 오니 오한기도 있었다.

아들 구에게 찬밥을 먹인 관계로 체한 모양이다. 배가 아프다고 한다. 산골짜기에 약이 있을 리가 없어 겨우 응급조치를 하고 떠났다. 다섯 살 아이 구를 업고 길을 걷는 것도 그리 수월치 않았다. 8시경에 임계학교에 가니 학교는 군인이 점령하고 교장을 만나 숙직실을 부탁하니 한 칸 준다. 저녁은 교장이 제공한 식사를 먹고 옷을 벗어 말리고 눈을 붙이었다.

새벽 1시가 되니 지서 사환이 와서 교장을 찾으려 지서장이 함께 피란 가자는 것이다. 그 차에 동승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허사(虛事)였다. 벌써 군인도 떠나고 지서도 철수하니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불안감이 솟아 오른다.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길을 떠났다. 신작로(新作路)로 가면 멀기에 구로(舊路) 사이 길로 잡어 들었다. 밤중 침침(沈沈)한 칠야(漆夜)이다. 일행이 십여 명이 되어 무작정 걸었다.

◆ 6월 29일 정선국민학교에서 신세를 지다.

정선읍 국민학교에 도착 신세를 졌다. 캄캄한 침침 칠야령 길을 걸어 여량에 다다르니 뱃사공이 말하기를 이번만 건네주고 뱃길을 끊는 다는 것이다. 배를 띄워놓으면 인민군이 도강에 편리를 준다는 것이다. 간신히 배로 건네 정선학교에 다다르니 피란소가 되어 초만원이 되어서 들어갈 곳이 없다.

교장은 사범학교 동기생인 장도춘이었다. 숙직실에 우리 일행을 할애(割愛)하나 피란민이 막 들어와 한 귀퉁이에 자리 잡았다. 무엇이 무엇인지 생불여사(生不如死)이다. 온 사람들도 사기는 땅에 떨어져 안색은 모두 사색이었다.

◆ 6월 30일 위장병에 고생하다.

아침에 친우교장과 장학사 손계주가 찾아와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중식 식사하러 가자고 한다. 나는 주저(躊躇)하였으나 내자의 권유로 국수 집에 갔다. 적과 막걸리를 마시고 막국수를 먹었다.

그것이 관격(關格)이 되어 토하고 설사를 하여 매우 신고(辛苦)하였고 엇그제 설사를 하던 아들 때문에 속히 엄마를 데리고 오라하였으나 그 사이에 급하여 한의(韓醫) 집에 가니 의생이 없기에 하도 급하기에 빈방에 누워 고생하더니 의생이 와서 주인 없는 집에 와서 누웠다고 야단법석이다. 내자가 와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주사와 약을 먹었으나 별 효과가 없다. 교장이 와서 학교숙소에 왔다.

◆ 7월 1일 평창 미탄에서 농가 방 한 칸을 얻었다.

아침에 방송에 정선을 떠나라고 외친다. 아침 9시에 경찰서의 스피커에서 정선시민도 소개하니 피란가라고 한다. 나는 우선 여비가 궁색(窮塞)하여 교사 민진기에게 차용을 호소하니 민군이 자기봉급봉투에 반절을 나에게 주어 받고 보니 6,000원이나 된다. 민진기는 과거 목호에서 같이 근무한 교육동지이다. 피란보따리를 지고 아픈 몸으로 떠났다.

10시에 뱃터 까지 와서 식사를 하면서 방향을 정하여야 하는데 어디가야 할 것인가, 제천으로 가야하느냐, 대화로 가느냐 하고 고민하였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으니 대화는 70리 산길이며 과거 공비가 왔던 곳이라 이번에도 선발대가 침투할지 모르니 제천방면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사실인즉 원주 황둔산 끝에서 피란할 의도였으나 행인의 말을 수궁하고 중식을 먹고 비행기재(정선과 평창 미탄면 사이에 있는 고개로 높고 꼬불꼬불하여 마치 비행기를 탄 것 같아 붙여진 이름)를 넘어 36개 줄행랑을 쳤다. 혹자(或者) 피란민은 남의 감자 밭에 들어가 감자를 막 캔다.

비행기재는 하도 강하기에 앞사람이 방귀가 뒷사람의 입에 들어간다고 한다. 하도 다급하기에 아픈 것도 잊고 급한 재 고개를 넘어 미탄에 왔다. 방을 구하나 쌀쌀하게 굴고 방을 주지 않는다. 겨우 농가 집 방한 칸을 얻

어 일박하였다. 이곳도 무서운 산 끝 벽촌이었다.

◆ 7월 2일 아들을 20리 나 업어준 청년에게 감사드린다.

영월 땅 남면 ○○리에 일박하였다. 가족과 함께 무거운 다리를 끌고 영월연당을 지났다. 그때 벌써 큰길에는 지뢰를 묻으려고 국군이 준비하고 피란민의 걸음을 재촉한다. 나는 아들을 업고 빨리 걸었으나 큰 딸이 아주 걸음을 못 걷는다. 나는 재촉하면서 짐을 받으러 갔다. 한심한 것은 군인 몇이 산꼭대기에 포를 걸고 사격준비를 하나 포가 1문밖에 없어 초라하고 한심한 모습이다.

쌍용을 지나가니 웬 머리를 뺏뺏 깎은 청년이 우리 아들을 업고 가겠다고 하나 나는 주저하였다. 그러나 그 청년이 한사코 업고 가기를 부탁하기에 한 20리가량 업어다 주니 참으로 고맙기가 그지없었고, 그 청년은 춘천 형무소 출가자이라고 한다.

그날 밤은 쌍용 길가의 방을 얻어 일박하였다.

그날 밤 그 동리 청년단장이 찾아와 위문하면서 도울 것이 없느냐고 묻기에 쌀 몇 되만 부탁하였더니 청년이 갔다 무료로 주면서 우리도 피란갈지 모른다고 한다. 나는 그분에 후의에 감사하였다. 우리 민족 전체가 나만 살면 된다는 관념(觀念)인데 이 청년과 작일(昨日)의 우리를 부축한 그 출가자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 7월 3일 제천에서 기차를 태워줘 죽령을 넘어 풍기에 내려놓는다.

제천에 도착하니 국군이 퇴각중이다. 쌍용에서 한 30여 리를 가니 화물차가 오기에 애원하니 한 10여리 가량 공짜로 태워준다. 나는 원주로 가서 피란하느냐 혹은 제천으로 가느냐의 기로(岐路)에 부딪혔다. 제천송학면으로 가서 영월 황병산에 가서 숨어볼까도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모심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니 그자 왈 어디가면 살 것이나 하고 오히려 핀잔을 준다.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데 논에서 농부들이 “피란가면 살줄 아나” 하고 욕설을 한다. 정오에 제천역에 다다르니 이곳도 소개중이다. 국

군이 원주전투에서 고배를 맞보고 지금 퇴각 중 양곡을 수송하느라 야단이다. 양곡만 모두 수송하면 퇴각한다고 한다. 역에서 국군의 동태를 살피니 전투태세는 확고하나 중과부적이라고 본다.

마침 강릉여학교 교련선생이 와서 강릉피란민에게 쌀을 얻어준다고 하기에 큰 딸을 따라 보내니 1시간 만에 쌀 2되를 얻어 가지고 왔다. 이 교사는 큰딸의 은사이며 중군 중이다. 얼마 후에 특무상사 한사람이 와서 강릉여교 학생이 누구냐고 하여 큰딸이 나서니 나는 삼척사람인데 김진만 씨의 딸이 강릉여고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지 혹은 앞으로 만나면 ○○○에 연락하라고 한다.

그리고 기차는 내가 태워줄 터이니 강릉사람은 일렬로 서 달라고 한다. 우리는 제일 앞장섰다. 개찰이 되니 서로 앞을 다투어 탄다. 요행이 우리 일행도 기차를 타고 자리를 잡았다. 밤은 깊어가고 행방은 묘연하다. 8~9시경에 죽령을 넘어 풍기에 가서 내려놓는다. 피란민은 풍기국민학교에 집결시키고 저녁 식사는 주먹밥 두개씩 준다. 매우 크고 풍부한 밥이다. 피곤하고 주린 끝이라 맛있게 먹었다.

◆ 7월 4일 영주에 오니 화물차에 태워 보낸 아이들 행방이 묘연하다.

피란길을 재촉하여 안동으로 갔다. 7월 4일 풍기에 피란 온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쉬고 하루 밤을 지냈다. 7시 주먹밥을 준 후에 부면장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지역도 전투지구니 여러 피란민들은 안동방면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곳서도 수군수군 저곳에도 수군수군하며 다시 보따리를 짊어지고 안동방면으로 걸리지 않는 다리를 끌고 걷기 시작하였다.

한 5리쯤 가니 피란화물차 한 대가 왔다. 손을 들어 간청하니 어린이만 타라고 한다. 나는 영주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딸 둘과 아들 세 사람을 태워 보내고 우리 내외는 보따리를 이고 지고하여 짙은 안개가 잔뜩 낀 안개 속으로 아픈 다리를 끌고 영주에 와보니 아이들이 없다.

오는 도중에 8사단이 추풍령 반격작전을 한다고 하며 추풍령을 향해 북상하는 도중이다. 포가 7-8문에 8사단이 반격한다고 한다. 일차전투는 춘

천에서 2차는 원주에서 패주하고 제3차 반격전은 추풍령에서 한다고 한다. 대로는 북상하는 군대가 길을 매우고 북상중이다.

영주에 와서 보니 아이들이 행방이 묘연하다. 영주 시내를 7-8회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았으나 알 길이 없다. 피란 중에는 행동통일(行動統一)을 하는 것이 시는 길이라 한다. 피란처가 안동과 풍천이라 한다. 8월 장마라 비는 억수같이 퍼붓는다. 우리는 저녁 무렵에 안동에 와서 피란민 수용소인 안동농림학교에 와서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비는 폭포같이 퍼붓는다. 좌불안석이다. 안동여자고등학교도 수용소라 한다. 나는 우비도 없이 억수같은 비를 맞으면서 여학교에 갔으나 그 수용소에도 없었다. 다시 안동농림학교에 왔으나 두 내외가 소리 없이 구시렁거리면서 앓고 있었다.

아이들은 생각하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죽겠다. 죽고 싶은 생각뿐이다. 아들 녀석은 나의 독생자, 어려서부터 나만 따르고 잠도 같이 잤다. 옷은 젖고 아이들을 잃어버리니 잠도 잘 수도 없고 잠도 오지 않으니 두 사람은 궁궁 앓았다. 비는 밤새도록 억수로 퍼붓는다.

이침에 일찍 각 피란민 수용소를 찾아 헤맸으나 알 길이 없다. 비는 멈추고 하여 안사람을 수용소에 맺기고 나는 다시 영주로 올라가기로 하였다. 정거장에 오니 때마침 북진 반격하는 작전기차에 탔다. 이차는 일반인은 태우지 않는 작전으로 북상하는 군대 출격 차다. 때마침 목호인 김인기 소위를 만났다.

◆ 7월 4일 아이들을 찾아 영주와 안동을 오간다.

이 기차는 10시에 북상하니 나를 기차일각에서 숨기면서 이 기차는 반격 차니 수상하면 총살을 운운한다. 나는 기차일우(기차한쪽구석)에서 꼼짝 달짝 못하고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기차가 떠나기를 고대하다. 10시차가 떠나지 않고 군인들도 들락거린다. 김인기 소위는 나에게 과일과 식사를 제공하며 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한다. 좀 밖을 내다보았으면 쓸데없는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고생은 사주팔자라 하겠다. 오후 3시에나 기차

가 떠난다.

김 소위 덕택으로 기차를 탔으나 오히려 기차를 못 탄 것이 오히려 이로웠을 것을, 차내에서 하도 지루하여 몇 번 영주로 착각하고 내리려고 하였더니 김 소위가 만약 내린다면 도망병으로 간주하고 총살하니 참고 계시면 영주라 하고 내리시라고 한다.

나는 사의를 표하고 영주에서 내려 영주를 몇 바퀴 돌았으나 찾지 못하고 역에 오니 특무상사가 강릉피란민에게 주먹밥을 준다. 나는 5개를 받아 싸가지고 안동행 기차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한다. 할 수 없이 도보로 걸기도하고 길을 떠났다.

한 20여리 가량 걸어오니 기차가 안동으로 달린다. 역에 놈들도 피란민이 귀찮으니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우리 민족이 친절성(親切性)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이민족 장래를 낙심(落心)하고 밤길을 걸었다. 영주에서 안동이 100리 인데 생소한 산길이라도 그러나 무섭지 않다. 그런 생각이 없고 빨리 안동가기만 마음을 먹었다. 밤길이나 달이 나를 비춰줘서 고마웠다.

머리 숙여 자연에 감사하면서 60리 밤길을 걸어 밤 1시경에 함천이라는 역에 와서 안동행 기차 편을 물으니 역원 놈이 화를 내면서 가라고 한다. 나는 갈 데가 없어 역에서 기다리는데 순경이 나에게 납치상황을 묻는다. 나는 모른다고 하였다. 역원이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내쫓는다. 나는 할 수 없이 여인숙에 와 일박을 청하니 이 밤중에 무슨 숙박이냐고 거절한다. 나는 밖에 마루에서 좀 쉬어 가자고 이것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민족은 하도 시달려 살았기에 남을 도울 줄 모른다.

고대부터 계급관계(階級關係)가 심하여 천시(賤視)를 당하고 또 일본 식민지하에 받던 수모(受侮)가 독립 후 까지 계속하여 민족상조(民族相助)의 애(愛)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면사무소를 찾아가 일박을 요구하니 이불 2개와 담요 2장을 주며 저녁 식사를 이야기한다. 나는 고마우나 불필요하오니 잠만 자고 가겠노라고 하였다. 밥도 먹을 생각이 없어 피곤하여 그냥 잠을 잤다.

아침 새벽 5시경에 안동을 향해 걸었으나 초행이라 방향을 알 수 없어 철로길 앞에 가는 사람에게 여보여보 안동 가는 길이 어디요 하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다. 가까이 가서 어깨를 치니 그 사람은 귀머거리였다. 도리어 묻는 자가 바보였다.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안동에 가까이 왔다.

나는 병이 있다. 성질이 조금한 것이요. 또 신경질이 화근이 될 때가 많았다. 대국적 기질이였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는데 심성이 급하여 스스로 사서 고생하였다. 12시경에 안동역 앞에 오니 내자가 기다린다. 어제 아이들은 내가 영주로 떠나기 전에 내자와 만났으며, 내가 영주로 떠나려고 할 때 둘째딸이 역에 가서 아버지를 수도 없이 불러보았지만, 그때 김 인기 소위가 기차한 구석에 앉아 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하여 쓸데없는 고생에 발까지 굵아서 고름이 나서 질질 끌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다.

◆ 7월 5, 6, 7, 8일 안동에서 아들 딸을 재회하니 목숨부지가 천만다행이다.

잃은 가족은 찾으니 하늘에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며 천사를 만난 기쁨이다. 누가 나의 이 심리(心理)와 이 기분을 알리요. 참말 재생의 기분이다. 앞으로 어떠한 불편이 있더라도 각자행동은 양기로 하였다. 발이 굵아서 촌보(寸步)를 걷지 못하여 다시 병원에 가니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나는 역심(逆心)이 나서 너희들도 한번 피란 맛을 보라고 짜증을 냈다. 나는 수용소에서 외출도 못하고 또 폭염에 교실 내에서 신음하고 피란민들은 운동장에서 식사를 지어 먹었다.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니 병자도 많이 생기고 또 적리환자(赤痢患者:이질병자)도 많았다. 의사란 작자도 할 수없이 와 보는 체 하고 간호부도 피란민 대우는 고사하고 인간이하로 깔보는 것이다. 하루는 단양에서 마지막 기차의 피란민이 안동수용소에 왔다. 단양 또바리굴(뱀이 '뽀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산을 휘감고 올라가는 모양의 철로 터널)에서 기차가 전복하여 특히 어린이가 밟혀 죽고 질식사하였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시커먼 낄장이가 되었다.

참으로 피란민은 2중고라 하느님도 돌보지 않고 버린 것이다. 그 형상

이 비참하여 목불인견(目不忍見)이더라. 그래도 아들딸들을 만나고 목숨만 부지한 것이 천만다행이다. 안동은 옛 문화도시에 구경할 곳이 많으나 발이 아파서 꼼짝달짝 못하니 살아도 죽은 사람 같더라. 피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를 헛소리와 허위조작사(虛偽造作事)라고 할 것이다. 그러저럭 4~5일은 휴식하니 안동도 작전지구라 하여 철수명령이 내렸다. 북괴의 속도전과 한국군 무력(無力)을 직감하였다.

◆ 7월 9일 피란 중 인데도 남녀동석을 거부하는 동네이다.

살기위해도 가야하겠다. 기차를 타고 십생지(十生地)를 찾아 떠났으나 겨우 영천에도 내려놓는다. 이곳 영천 역전은 피란민으로 꽉 차 요지부동이다. 비는 내리고 들어앉은 곳이 없으니 피란민들의 설움이야 오죽하리. 하늘을 우러러 보고 불운을 한탄할 따름이다. 발을 들어놓을 틈도 없는데 어찌하리. 남녀노소 없이 동석하려 하였으나 경상도는 반향(班鄉·양반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라 노부들이 동석합석을 불응하고 남녀동석을 비평하기에 밖에서 비를 맞고 하루 밤을 지냈다.

◆ 7월 10일 영천도 위험지로 경주방면으로 떠나다.

이곳 영천도 작전지의 하나로서 피란민을 기차에 실어 경주방면으로 소개시키는 것이다. 우리 일행도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기로 하였다. 기차는 고도 경주에 내려놓는 것이다. 이후 일행은 계림초등학교 수용소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곳에서 수용소 소장과 반장이 정하여지고 모두 질서 있게 피란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많은 집단(集團)이라 좀 불결하며 사람이 많아서 소연(騷然)하였다. 하지만 피란생활 중 경주에서 가장 많이 지체(遲滯)하고 또 강릉 사람도 많이 만났다.

난중이라 고도관광(古都觀光)도 싫고 단지 먹는 것 생각뿐이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소화가 잘 되는 편이다. 근일(近日) 개월간두유(箇月間逗留)하게 되고 강릉친구도 많아 소일에도 걱정이 없었다. 하루는 그릇을 준다고 하여 군청에서 갔더니 양재기 몇 개씩 주더라.

그때 장학사가 나를 보고 이 지역 향촌(鄉村)에 가서 교장이라도 하라고 하나 나는 만승천자(萬乘天子)를 준다하여도 귀찮다. 그때 대구에서 피란민공무원에게 봉급을 준다고 하여서 가족은 수용소에 남기고 대구 달성군청으로 4.5명이 함께 갔다. 역시 보행이라 이곳도 작전도로라 어떤 때는 상당히 우회하여 걸었다.

◆ 7월 20일 대구 달성에서 봉급을 탔다.

강원도 직원 공무원이 와서 강원도 공무원에게 봉급을 준다. 공무원증을 대조하고 주는 것이다. 수천 명이 와서 우굴 우굴 한다. 나는 6만원의 봉급을 타니 숨이 잘 쉬어지고 다액(多額)에 흡족하였다.

이북 포로 구경하니 눈, 코, 같은 한국동포에 눈, 코, 입 얼굴 하나도 다름이 없고 단지 사상적 상반된 싸움으로 양민만 괴롭힌다. 인민군대의 포로는 18세 청년이고 인민군 지휘자는 25세가량의 청년에 다리에 총탄을 맞고 혈액이 낭자하고 나머지 소년은 남한에서 붙잡은 소년 13명이다.

“여보게 저포로가 내 아들이라면 가 만나보겠느냐?” 하니 모두 그까짓 죄인 놈 새끼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 나는 내 아들이라면 가 만나 보겠다. 하니 모두 비웃더라. 일선에서 징발한 소년들이 불쌍하다. 공산전쟁은 가증스러움이 충만하다.

그 후 평상시가 되어 내가 설문(設問)을 반복하였더니 나중에는 만나본다고 하더라. 이것은 이념투쟁(理念鬭爭)의 고류(派流)로 민족상쟁(民族相爭)으로 통합야욕(統合野慾)의 투쟁(鬭爭)인 것이다.

대구 동촌에 오니 헌병이 증명을 보자고 하니 나는 교장이 발행한 나의 이름이 증명서를 보이니 헌병 왈 이것이 무슨 증명이야 대통령 증명도 불필요 하다고 한다. 나는 패심(掛心)하다마는 대통령도 쫓겨 다니는 판이니 일개 헌병도 함부로 말하니 나라도 망하는구나 하고는 구원 받을 도리가 없음을 슬프게 생각하였다. 적에게는 약하고 동포에게 강한 것이 그때 군(軍)의 자세였다.

대구에서 한 50여 리를 와서 사과밭 옆 여인숙에서 묵었는데 100원에

사과가 10개인데 매우 싸다. 저녁에 사과김치가 매우 맛이 좋아 이것으로 대구사과가 유명한 것으로 알았다. 이튿 날 길을 떠나 평탄대로(平坦大路)를 걸으니 힘들고 지루하고 잠시 피란 중임을 모르는지 배가 고프다.

길가에는 난리중이라 음식점도 없다. 한군데 조그마한 시장이 있다. 점심때라 먹을 것은 소적과 강보리밥이다. 다른 사람은 강보리밥을 먹고 나는 소적을 먹고 떠났다. 20리쯤 오니 소적 먹어서 배는 고프다. 메밀은 영양가가 낮기에 배가 빨리 고프다 고 여겼다.

당시 가족은 경주 동쪽 20리 밖에 이산(離散)하고 있어 경주에 오니 가족과 피란민은 소개 되었다. 그때는 벌써 기계 안강전투가 시작하여 매우 위험하다고 하며, 동해안에는 북괴 김무정(金武亭)이 이끌고 온 대 부대와 김석원(金錫元)장군에 일진일퇴(一進一退)의 치열(熾烈)한 전투가 벌어져, 이 전투에 산천이 둘러싸졌다고 한다. 많은 포격으로 전차, 자동차가 부서지고 사람과 말의 시체가 즐비하게 죽어 아비규환(阿悲叫喚)의 생지옥(生地獄)이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경주의 피란민을 가장한 빨갱이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후방을 교란시키고 인심을 현혹시켜 전세를 유리하게 할 위험이 있기에 소개시켰다고 한다. 와 보니 가족이 없어 낙담하였다. 이는 동지가 우리가족은 여기서 약 20리 되는 덕소방면으로 갔다고 한다.

◆ 7월 25일 경주시장서 붉은 시루떡을 사가지고 덕소에서 가족을 만났다.

한 5일간 대구에 갔다 온 것이 여삼추(如三秋)이다. 경주시장에 가서 붉은 시루떡을 사가지고 도보로 덕소란 곳에 와서 가족을 만났다. 이곳에서 목호 사람들 7.8명이 노변 민가에 피란을 와서 숙박을 한다.

밤에는 모기, 이, 벼룩, 빈대에 뜯기고 하여 잠도 못자고 마당에 황덕 불을 하여놓고 쉬었다. 나중에 안 것이 이곳이 과거 빨갱이 소굴이며 불국사지 반란 때 원천지라고 하여 한 23일 두류(逗留)하니 겁이 나고 공포를 느꼈다.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다. 이곳 청년과 경찰관이 와서 우리 큰딸에게 농

을 하며 놀려대는 불측한 행위를 하고자 한다. 나는 하도 아니꼽고 더러워서 상대도 않고 잠잠하게 지냈으나 꽤 씹하였다. 하여 이곳에서는 도저히 피란생활이 힘들어 울산으로 향하였다.

◆ 8월 3일 울산 수용소의 객이 되다.

울산에 오니 마침 아는 사람이 많았다. 일본인이 쓰던 다다미방이었다. 그 한 칸을 자리 잡고 식사도 지어 먹었다. 그러나 또 모이고 모이다보니 초만원이다. 나는 그때 관수 조카가 울산에 왔기에 경찰 가족 증을 만들어 주고 또 경찰관 수용소에 들어갔다. 모두 남자는 경찰관이기에 전투에 나아가고 부녀자만 남았다. 나도 노인이라 그 속에 끼여 밤이면 마당에 자고 비가 오면 방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잠을 잤다. 경찰들도 전선에서 공비 또는 게릴라, 빨치산들은 토벌하다가 휴가를 얻고 돌아온다. 그러나 참으로 집단생활이라 곤란한 점이 많았다.

수용소내의 남성들은 놀고먹기에는 국가적으로 손실이며 또 일손이 모자라는 전시라는 까닭으로 남자 되는 사람들은 도정공장(搗精工場)에 징발(徵發)되어 부역(夫役)을 시키는 것이다. 나도 공장에 나아가 작업을 하니 먼지가 몸에 덮여져서 죽을 지경이다. 일이 끝나면 울산 앞강에 가서 목욕을 한다.

여기도 미군들이 목욕을 하며 나에게 영어를 아느냐고 묻는다. “노오” 하니 일본어를 하는가 한다. “이 예스”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빨가숭이가 된 검정흑인은 괴한 같이 흉악한 몸이더라.

◆ 8월 4일 영천(永川)을 침공 당해 대구 경주도 전투지역으로 들어갔다.

강릉사람으로 두 형제가 피란을 나와 모집을 기피하며 요리조리 피하며 숨어 있다. 나는 멋도 모르고 “군에 나가는 것이 영광이 아니냐.” 하니 그 자 왈(曰) “이때에 나아가 싸우다 죽는 것은 개죽음이 아니야” 하면서 “당신은 군대에 갈 나이가 지냈으니 그 따위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핀잔을 준다. 나는 창피를 당하여 적면(赤面)하였다. 여하간 피란은 살라고 나

온 것 인데 흘치기를 당하여 죽은 무명용사도 많았다.

우연한 기회에 노상에서 이상국 선생을 만나 반갑기 한량(限量)이 없다. 중식을 같이 하고 피란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 사람과 묵호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다. 이 선생은 연애를 하던 애인이 피란 중에 실종되어 삼지 사방으로 찾아 해매는 길이다.

그리고 그의 말이 병영학교에 김명권 선생이 근무 한다고 하고, 또 울산에 해군오장 최 군을 소개한다고 했다. 김명권 선생도 묵호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나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지 신이 아니면 모를 일이다.

놀기가 심심하여 작은딸을 데리고 병영학교 김명권 선생을 방문하니 참 반가워한다. 묵호 학교 때 이 선생은 말없이 묵묵 착실(默默着實)하고 말없이 근무하던 인격자이며 작은 딸의 담임이었다.

병영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마지막 집단 주둔지라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김 선생과 하루 밤을 자면서 과거지사에 뜻을 피웠다. 이튿 날 울산으로 올 때 김 선생이 면(棉)담요 두 장과 작은 딸과 아들의 운동복을 사주었고, 우리 식구들에게 점심도 사주고 또 돼지 뒷다리 하나를 사주었다.

우리 식구는 피란 중 굶주릴 때라 포식을 하고 감사를 표했다. 인간은 많이 알고 많이 교제를 하여 친분을 넓이는 교제 성이 필요하다. 김 선생 말이 부산에 자기 처남이 살고 있으니 부산에 가서거든 찾아 달라고 한다.

그 후 부산에 가니 부재중이라고 한다. 아무튼 김 선생에게는 묵호와 울산에서 많은 신세를 입었고 진실하고 성실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던 인물이나 동란 후 그 종적을 알 수 없다.

영천 침공으로 대구, 경주도 전투지역으로 들어갔다. 우리 국군의 전세는 시시각각으로 불리하여 국군과 UN군은 밀리어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하여 생사 판가름의 때가 왔다. 수용소에는 경찰관이 총을 거꾸로 메고 와서 자기가족에게 소곤소곤 하는 모습이 위험상태인 것 같다.

밤새도록 북상하고 학도병들은 퇴각을 하여 전세가 불리함을 말하는 것 같아 울산에서 더 두유(逗留)하기가 무서워 남하하여 부산방면으로 출동하기로 하였다.

◆ 9월 중순 부산 금사초등학교 수용소로 피란하다.

울산역에 와서 차표를 구하려 하니 공무원 단신으로는 되나 가족은 매표를 거절한다. 역에서도 경찰관이 집총경계(執銃警戒)하고 역은 미군이 관리한다. 하여 애원해 보지만 불청(不聽)을 한다.

기차표를 단념하고 부산행 자동차를 탔다. 구월 중순이라 금풍(金風)도 불기 시작하고 광야에는 황금물결이 친다. 세상의 회전이 빨라 추풍이 부니 연곡에 둔 살림 사리도 걱정되고, 또 장기전이 되면 겨울 살길이 연상(聯想)된다.

자동차는 신작로(新作路)를 굴고 굴어서 동래에서 20여리 동쪽 산골에 있는 금사국민학교로 도보로 가리는 것이었다. 동래는 도시이나 금사는 벽촌이다. 금사에 오니 벌써 만원이다. 살길을 모색(摸索)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무슨 냄새로 이곳이 만원이 되었는지 의구심을 금치 못하였다.

외외로 강릉사람들도 많이 집결하여서 쓸쓸함이 좀 가셨다. 처음에는 주먹밥을 주더니 나중에는 현물로 주어 술을 걸고 불을 때서 밥을 지어 먹었다. 여기서 친한 친구인 정선교장이 장자를 데리고 왔으나 부인은 사정이 있어 동행을 못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5일간 생활 하였더니 겨울의 입문이라 피란민은 부산으로 집결하라 한다. 부산에 오니 군경유가족은 특별조치로 민가에 할당하여준다. 우리는 남포동 중국요리집의 방 한칸을 배당 받았으나 중국 놈 주인이 지랄을 한다. 서로 언쟁을 하여 보았으나 이방인이라 할 수 없어 관계당국에 불편을 호소하니 남포동 항구 여관 2층 다다미 방 한칸을 얻었다.

잠은 2층에서 자고 밥은 아래층 한 옆에서 먹으니 이게 무슨 꼴 인고 인간이 이렇게 하대를 받고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인명은 재천이라 할 수 없이 단지 하늘에 맡길 밖에 도리가 없다고 무고를 빌었다.

그러나 피란민수용소에 가보니 우리의 형편은 천사 같은 예우라고 생각하고 감사에 뜻을 표하였다. 여관집 주인은 별개 이국인(別個異國人)들이 왔을 것이라고 여기더라.

◆ 5일간의 공무원 강습에 이승만대통령과 신익희씨 특강이 있었다.

여관방에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무료하여 국제시장구경을 갔다. 남포동은 부산에 명동이라 매우 복잡하며 인구가 집중되어 서울 명동보다 더 혼잡하며 건물생심(見物生心)이다. 여기서 의외로 일가 동생 되는 정훈장교인 김종상과 김종계 군을 만났다. 서로 정담을 나누니 김종상은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제5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다.

나는 군인 가족증(軍人家族証)을 얻어 배급미(配給米) 3합(合)에 부식비(副食費)와 시탄비(柴炭費)를 받았다. 이 사람은 양양 도리초등학교 교사로써 해방직후 강연이 불순하다고 구속되는 것을 유보하여 주었더니 월남하여 군에 입대한 정훈장교인 육군소령이고 김종계 군은 일본에서 대학을 수업하고 귀국하여 천재적 철학가로 존경을 받다가 월남하였다.

피란민이 모두 부산에 집중하니 부산시 당국은 골치가 아플 것이다. 강원도 난민으로 작업반을 조직하니 일당을 5백 원씩 주었다. 모두 골을 싸매고 덩벼들어 인원이 초과되자 공무원 신분으로 제한(制限)하자 나도 빗자루를 들고 어정어정하다가 일당을 받았다.

목적은 구제사업의 일조로 소일 겸 도로청소부를 한다. 그러나 일반 피란민의 불평이 자심(滋甚)하다가 격투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청소를 하다가 중단을 하였다. 부산의 취지는 강원도 피란민인데 그 인원이 하도 많아 공무원에 한 하 다 보니 사건이 벌어져 중단되었다.

며칠 후 나는 하도 심심하여 이상국이 소개하던 최경석 군을 만나러 해군본부를 찾아가 해군 오장(伍長)인 최경석을 만났다. 최경석은 목호학교 졸업생으로 나를 모교의 교장으로 친밀감을 갖고 대하니 천리 타향에 봉고인(逢故人)의 감(感)이러라. 나는 그로부터 백미 2입(仄)을 받으니 참으로 은인을 만났다. 그중 1입인 한가마를 팔아 손넉 대접을 하기로 하였다.

전세가 유리하게 되니 수복을 전제하는 강습을 개최하였다. 피란민은 모두 청강하였다. 이승만대통령과 신익희 씨의 특강이 있었고, 문교부장관 주최로 5일간 열렸다. 대통령의 신변보호도 말이 아니다. 즉 국가가 있으면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며 정부가 어디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더라.

강의 취지는 공무원의 국가보호에 대한 강습이며 수복 후 자세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연합군의 지지와 전쟁 완수에 협조 할 것. 특히 도로변의 비료(肥料)와 UN군이 똥 냄새로 전쟁을 못 하겠데 라는 말과, 문교부장관인 백낙준 박사의 청산유수 같은 언변은 참으로 신기하여 염병(厭病)이 나지 않았다.

◆ 경남도청(慶南道廳)의 한국정부(韓國政府)

하루는 경남도청에 가니 대한정부 간관이 붙어있다. 하도 기이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두루 살피니 대통령 실과 각 장관실에는 의자만 서너 개 있을 뿐 무주공산(無主空山)에 한심하더라. 해군본부가 그렇고 정부기관이 이러니 나라의 형편이야 난난중(亂難中)인 것이 직각적(直刻的)으로 품기며 무야유유야무(無若有有若無)의 경지 러라. 도청에 갔다가 돌아오니 아들이 출타하였다. 부인께 물으니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한다.

나는 부인을 책망하고 부산 제일극장에 가보니 없다. 나는 낙담(落膽)을 하였으나 아들 녀석은 나를 보며 요리 조리 피하며 나를 놀린다. 그 때가 5살 때라 나를 놀리는 것이 재미가 있는지 얼마 후에 찾았다. 부산은 매우 복잡하여 인파가 넘쳐나고 특히 명동은 인파가 심하다. 데리고 들어와서 외출을 하지 말라고 듣지 않기에 간담(肝膽)을 서늘하게 할 때가 많았다. 그때 두 딸은 양복 가게에서 단추 디는 일을 했다.

할 일이 없어 먹고 노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때 미공보원이나 구경하기로 하고 아들과 둘째딸을 데리고 갔다. 전쟁에서 노획한 총, 칼, 식품, 복장 등이 전시되어 있고 전차와 대포도 진열되어 있었으나 마음이 없으니 똑똑히 볼 생각도 없다.

단지 시간을 보내기위해 이곳에 왔으나 전리품(戰利品)을 보고 우리 국군과 정부가 옛 부터 당리당락(唐梨當落)과 권리(權利) 싸움질만 하고 국방을 등한시 한 민족인 것이 여실(如實)히 보였다.

외침(外侵)에 쫓기기만 좋아하고 군비는 외면(外面)하는 통일정신과 국가수호에는 외면하여 피란생활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위정자(爲政

者)와 국민을 교훈한다고 하니 가슴이 아프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과거 목호학교 시절의 후원회장인 민병걸 씨를 만났다. 당시 민씨는 목호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부산에 와 고급생활을 하는 재력가 양반이다. 참으로 반가워 바닷가 대포 집에서 빙어회로 한잔하니 기분이 형천(衡天)한다. 일배일배부일배(一盃一盃復一盃)하니 만취에 내 세상이 되었다.

피란 시 사람 만남이 제일 기분이 좋은 일이다. 특히 과거 인연이 있는 친구는 말 할 것도 없다. 헤어질 때 삼치 한 마리를 사주기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포식을 하니 동난 중에는 먹는 것이 제일이더라.

기자감식(飢者甘食)의 이(理)를 알겠다.

하루는 어슬렁어슬렁 송도 구경을 갔는데 유명하다는 송도도 전시라 한적하였다. 단지 점포와 음식점이 즐비하고 해안의 명사(明沙)와 산 봉오리에는 창송(蒼松)이 청청(靑靑)할 뿐 피란중이라 피서객이 없어 한산하기만 하니 업자들은 울상이더라. 이곳도 피란민이들 끌어 분비고 있었다.

◆ 부산시민의 꺾기대회(蹶起大會)와 육군병원 방문

부산 역전 대 광장에서는 꺾기대회(蹶起大會)가 있어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승만대통령의 국민결의 훈시가 있고, 부산시민의 꺾기사가 있었다. 일국의 대통령이 출어(出御)에 경비가 단조롭고 기마순경(騎馬巡警)이 1명 뿐이니 한심한 행차이다. 이때 김시현(金始顯)의 저격사건도 일어났었다.

김중상 소령이 육군병원에 부상치료중이라 위문 차 갔다. 안내원에게 물으니 제○동이라 하기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거리다가 찾았는데 병실은 장교 환자라고 해서 가마니 위에 담요 두 장씩 주고 졸병은 그냥 가마니 위에 툇고 있었다.

장교는 치료하여 주었으나 졸병들은 피투성이 옷에 그냥 아이구아이구 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아무리 전쟁 중에 지휘자들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인간 차별대우가 그리 심하던 말인가? 누가 나라를 위하여 출전(出戰)을 할 것인가 일편(一片) 한심한 일이다.

김 소령은 경상(輕傷)이고 치료도 하여준 까닭에 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위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부상한 줄병이 나를 보고 인간차별대우와 계급적 취급이 전상자 구별이 이와 같이 심하다고 하며 이 같은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 전상자가 나를 보더니 안동에서 나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며 그는 안동에서 흘치기를 당하여 총도 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선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여 이 꼴이 되었다며 치료를 한 번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참으로 불상하여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그는 아직도 피 묻은 옷 그대로 누워있었고 나를 보고 평안도민회를 찾아가 이 사정을 알려 달라고 한다. 나는 사방으로 다니며 도민회를 찾았으나 찾지 못해 미안한감을 느꼈다.

◆ 유언비어에 현혹(眩惑)되어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길거리에 나가니 반가운 소식이라 하며 김일성이가 손을 들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아는가 하니 역 부근 벽보에 그렇게 붙었다고 한다. 하도 고마워서 역으로 가니 모두 허언(虛言)이다. 그 출처는 모르나 모두들 당분간 좋아했지만 환희는 순간이고 고민은 더욱 심하였다.

벌써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한다. 만약 부산이 함락되면 발동선으로 일본에 망명하기 위하여 발동선을 사 놓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유산자(有產者)는 당시 이런 준비를 하고 대기하였다고 한다. 속담에 불상한 것은 원산(元山) 돼지라는 격언은 아니다. 피란민촌의 생활 상태는 불상하나 별로 돕는 자가 없는 것 같더라.

우리는 최경석 군의 지원으로 궁색하게 지나지 않았다. 겨울 내복도 준비되고 또 과동부식대(過冬副食代)도 있었다. 그저 친지를 만나면 반가웠고, 하루는 도 학무과장 김영한과 강릉 장학사 최준길을 만나 시장 안 혈쫂한 음식점에서 그저 막걸리와 증식으로 그럭저럭 나의 체면을 세웠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콧방귀를 칠 것이나 피란중이라 이때에는 기자감식(飢者甘食)일 것이라 생각한다.

난민에게 신탄(薪炭: 떨 나무와 숯 또는 석탄)을 현물로 준다면서 동래에 가서 타라고 한다. 나는 한번은 아들을 데리고 온천 겸 장작을 타러 가

서 장작을 현장에서 팔아 그 난리 통에도 온천에 들어가니 매우 뜨겁더라.
피란덕분에 온천욕을 다 해보니 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가족들과 2~3차례 배급을 탈 겸 해서 온천욕을 할 수 있었다.

◆ 전쟁(戰爭) 중에는 헌병(憲兵) 이 제일이더라.

하루저녁에는 우리 숙소로 최경석 해군 오장이 찾아왔다. 헌병은 시내를 순회하면서 불심검문을 한다. 전란 중에는 헌병의 위치가 좋은 것 같다. 이 헌병은 우리 방에 들어와서 너 웬일이냐고 최경석을 보고 묻는다. 이때 최경석이 나는 지금 모교 교장선생님을 방문 중이라 하니 이 헌병도 코가 깨지게 인사를 하면서 본인도 목호학교 졸업생이라고 한다. 그가 나아가더니 중국요리와 정종을 사가지고 와서 잘 먹지 못하는 술에 만취하여 기분이 충천(衝天)하고 의기양양하여 피란 중임을 잊고 나에 독무대가 되었다.

술이 떨어지자 포도주 5병을 사왔다. 매우 호화관으로 노는 헌병의 권리가 당당함을 느꼈다. 그는 최경석 군과 같이 나가면서 나중에 다시 도와주겠다고 한다.

김종상 정훈장교와 이상국과 최경석을 초대하여 피란중이라 장만할 것도 없이 청요리 5접시와 정종 2되를 사서 모두 흥겹게 먹었다. 최경석은 귀대를 하고 2사람은 여관방 한칸에서 취하여 세상모르고 자고 있다.

아침 일찍 가보니 이게 웬 일이고 방에다 한가득 토하고 달아났다. 박덕(薄德)한 사람은 이런 법인가 주인 모르게 청소를 하느라고 고생했다. 과식은 병에 원인이 되니 동난 중이라 위장에 기름기가 없어 그런 것이리라.

◆ 11월 10일 수복명령이 내렸다.

1950년 9월 15일 UN군이 맥아더사령관의 지휘 아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낙동강전선을 돌파하고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북으로 진격하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환호성이 울렸다.

그리하여 공무원은 수복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부산역으로 모여 신고

하라고 한다. 단 본인에 한하여 수복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부산역에 가서 신고하고 가족들은 추후 안용준의 발동선으로 귀향하기로 하고 단신으로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작은딸을 데리고 초량진역에서 기차를 탔다. 그러나 2시에 출발한다는 기차는 4시가 되어도 요지부동이고 시간만 자꾸 흐른다. 또 내가 먼저 수복을 한다 해도 그저 초등학교 교장일 것이다. 그저 가족을 부산에 남기고 홀로 떠난다는 것은 자기만의 도생(圖生)이 아닌가.

그러다가 지난번 피란길에 가족과 헤어져 노심초사(勞心焦思)했던 일을 생각하니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 또 나중에 아내와 가족들이 발동선으로 만경창과에 맞기고 떠난다는 것이 매우 불안하여 가족과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맹세하고 용기를 내고 최 장학사에게 가족과 함께 수복한다고 하고 하차를 하니 마음이 가뻐하여 생기가 난다. 트렁크를 짊어지고 20리 길을 걸어 남포동 숙소로 돌아오니 마누라가 깜짝 놀라며 반긴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인민군들이 강릉을 재습(再襲)하여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나는 조상이 솔밭에 들어서 음조(陰助)한 덕택이라고 생각되었다.

◆ 1950년 11월 30일 묵호 땅에 상륙, 12월 1일 강릉 땅을 밟다.

삼척 운수국(運輸局) 수송선이 부산에 대피중이다. 운수국에 김복택이라는 수양누이 아들이 근무하고 있어 그를 찾아가 운송선이 묵호에 복구할 때 동승할 것을 부탁하고 고대하고 있다가 11월 29일 수송선에 올랐다.

삼척 운수국 수송선은 전세(專費) ‘에레베스’ 호였다. 김복택이라는 조카 덕에 배를 탔는데 거개(擧峯)가 묵호에 사람들이라 서로가 잘 도와준다.

2시에 떠난다는 배가 오후 9시게 떠나게 되어서 무료(無聊)하여 부두에 나가니 묵호에서 알고 지내는 김 군이 나를 오라고 한다. 그는 해군의 취사부(炊事夫)로 나에게 솔쟁이(누룽지)를 준다. 먹어보니 설탕을 넣고 끓인 솔쟁이라 과자보다도 맛이 있어 우리 가족은 그것만 먹다가 고구마는 쉬어서 버렸다.

배는 밤새도록 캄캄한 창해(滄海)위를 운행하니 밖은 볼 수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파도가 잔잔하여 멀미도 나지 않는다.

단지 구룡포 쪽에 오니 배가 약간 동요한다. 30일 오후 묵호항 부두에 도착하니 강릉을 떠 난지 만 5개월에 그리운 강릉 땅을 밟게 되니 감개무량(感慨無量)하여 행운에 감사할 따름이다. 5개월 동안의 고생과 고난 등은 말할 수 없으나 그래도 우리는 남보다 편한 피란생활을 할 수 있었다.

배에서 내려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진화 철공업사 집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임지로 갈 예정이다. 묵호도 인민군치하에 있어서 많이 황폐하고 함포사격의 흔적도 남아있다. 전쟁이란 이렇게 매정하고 무서운 것일까. 산천도 부서지고 가옥도 파괴되어 어수선하다. 전쟁을 일으킨 동족상잔의 괴수인 김일성은 만주(滿洲)에 도피하였다고 한다.

묵호 지서에 족제(族弟) 김종환이 있기에 고향소식도 듣고 조카의 안부도 알고자 들리니 김 군이 어떤 여자를 심문하는데 그 여자의 말이 청산유수라 순경이 썰썰맨다. 이북문제를 가지고 심문 조사를 하는데 이론이 정연하고 사상문제를 언급하니 무소부지(無所不知)라 하도 잘 알기에 어디 여자인가고 물으니 죽왕면 야촌(野村)이라 한다.

김 교주의 딸이 아니냐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 잘 아느냐고 하기에 친구의 딸이고 내가 보 할 터이니 보내달라고 하니 형님이 보증한다니 내 보내겠다고 한다.

이 여자는 김일성대학에 다니고 전란 후에는 대한민국 간호장교로 육군중령으로 제대한 자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묵호에서 걸어서 이틀 후인 12월 1일에 강릉에 왔다. 처가친척인 최하규 할아버지 댁 뒷방 2칸을 빌려 투숙을 하였다.

강릉에 들어와 보니 선발대로 온 사람들이 인민군 재침공으로 많은 자가 사상 당하였다고 한다. 나는 선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고 조상이 솔밭에 든 까닭이다. 나는 부산에서 선발대로 오기 싫어 도중차한 것은 조상의 음조(陰助)가 아닌가 하고 감읍(感泣)한다.

◆ 1950년 12월 2일 수복 첫 회의와 주영학교 부임

12월 2일에는 교장회의를 소집하고 나의 임지의 사령장을 주니 주문진 주영(注榮)학교였다. 나는 내심 불평만만(不平滿滿)이었다.

피란을 아님 간지는 임지를 잘 하여주고, 또 부산까지 피란을 가서 문교부(文敎部) 강습 시 수복을 하면 원상복귀하고 임시피란교장으로 학교 관리 책임을 맡기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최준사 장학사가 독단적으로 발령한 것을 분개하니 회의 후 나를 보자고 하기에 만났더니 이리 이리 하기에 더 큰 학교인 주영에 배치하였다고 한다.

나는 부산에서 정부의 구두 지령에 모순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니 할 수 없이 단번에 결정하였다고 한다. 또 부역(附逆)을 한 자도 있다는데 하니 그 자의 임지를 시정한다고 한다. 나는 주영보다 전 임지였던 연곡이 좋다고 하니 무가내하(無可奈何)이다. 나의 진언에 좌천한 사람이 있게 되면 미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전 임지였던 연곡학교장 관사에 오니 나의 세간은 간데없고 이불과 종이 부스러기만 남아있었다. 그러나 연곡 사람들이 간장과 된장을 갖다 주고, 내가 심었던 감자는 직원이 파먹고 감자 2가마를 주었다. 그리고 세간을 정리하고 단신 주영학교로 부임하였다.

6·25때 가장 파괴가 심한 학교인 주영학교는 개교 첫날 280명 그 다음 부터는 7~800여 명이 모이고 직원은 전부 직원들이 모였다. 나는 강릉에서 통근을 하기로 하고 민가를 얻어 자취를 하였다.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전선에서 나는 대포소리가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불안하게 만든다.

하루도 몇 차례씩 사다리 비행기가 삼대 편성 12씩 전선으로 물자를 수송하니 너 나 할 것 없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불안한 기분으로 근무하니 이것이 풍진세상(風塵世上)의 모습이다.

◆ 학생들의 폭발(爆發) 사고가 발생하다.

하루는 오후 2시경 천지를 진동하는 폭발소리가 난다. 무슨 까닭인지

놀란 가슴을 달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자기 집 아이들을 찾는다. 이 사고는 경찰서 자리에서 학생들이 포탄 뇌관을 빼다가 폭발이 일어나 학생들 4~5명이 폭사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아직 하학(下學)이 되지 않아 학생들이 모두 재교(在敎)하였다.

하학이 되어 폭발현장에 가보니 죽은 아이들을 찾아 가지도 않고 거적을 덮어 놓았다. 사지가 삼지 사방에 날아가 구별도 할 수 없이 무참하게 죽었다. 전시에는 참으로 불상한 것이 인생이라 할까. 6·25전란으로 인한 피해자가 무려 200만 명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피란을 갔다 와서 4년 만에 고향인 양양을 찾았다.

1950년 12월 10일경 고향의 형제 친척을 찾아보고 또 남하 할 때 남긴 물건을 가지러 큰 댁을 방문하고자 간신히 38° 선을 넘어갔다. 38° 선의 출입은 엄중하여 헌병의 감시가 심하였다. 기사문의 지붕은 풀이 나있고 엄동에도 배옷을 입고 있었다. 참으로 이북 공산당 정치가 얼마나 참혹한 생활을 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

큰댁을 방문하니 형들이 나를 부르고 모두들 울며 보지도 못 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천진 고모 댁에 가서 하루 밤을 자고 이튿날 백운(白雲)이紛紛(紛紛)한데 고모님이 밖에 가갔다 오시더니 큰일이 났다고 한다. 왜 그러니까? 하니 원산(元山) 방면에서 피란민이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공군이 이 전쟁에 가담하여 대거 남침 북괴군을 원조차 한국에 투입하였기에 이북에서 피란을 내려오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조반을 얻어먹고 속히 강릉으로 나가기를 결심하고 큰댁에 인사를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하고 36계 출행랑으로 강릉에 왔으나 교육이고 무엇인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전세는 점점 불리하여 국군과 UN군이 후퇴하기 시작한다. 압록강 강계까지 진격한 우리 국군은 전진천리(前進千里), 후퇴만리(後退萬里) 전세가 역전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메가드’ 장군은 만주(滿洲)에 원자탄(原字彈)을 한 개 투하하자고 하는 것을 ‘토로만’ 대통령의 불허로 전국(戰局)은 새로 전개(展開)되어 2차 피란길이 되고 말았다.

◆ 1951년 1월 4일 제2차 피란길

이북의 피란민이 내려오고 38°선 이북이 소개(疏開)되어 수천, 수만 명이 바다에서 배로 철수를 하고 중공군과 인민군이 서울까지 육박하니 강릉에도 1·4후퇴 명령이 내려졌다. 1월 5일 첫날은 강동신 씨 댁에서 1박하고 떠났다.

1월 6일 때는 엄동이라 월동을 위해 이불 솜 같은 것을 만이 지고 길을 걸었다. 날씨는 춥고 추워서 걸음이 잘 걸리지 않아 이불 솜 위에 아들을 업고 옥계에서 밤 재를 넘을 때 몇 번 엎어졌다. 도보로 묵호에 와 1박하고 삼척으로 향하였다. 묵호도 모두 피란한 까닭에 매우 쓸쓸한 무인지경이다.

1월 7일 삼척에 최하규씨 일행과 그 집 사위집에서 1박하였다. 그때 사위는 경찰에 매우 풍족하게 살았다.

1월 8일 또 다시 붓 다리를 지고 삼척 근덕에 와서 다른 피란민과 같이 한방에서 오들오들 떨었다. 밥은 밖에서 취사를 하고 방에서 밥을 먹었다. 근덕 학교에는 군인들이 후퇴하여 와서 책상과 걸상을 부셔서 태우고 불을 쬐고 있었다. 이것이 망국하는 시초가 아닌가 여겨진다.

1월 9일 길에는 눈이 깔리고 후퇴하는 군인차가 길게 늘어선다. 힘들게 영을 걸어서 호산에 오니 누가 나를 보더니 코피가 난다고 하여 시냇물에게 가서 씻으니 유혈성천(流血成川)이라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호산에서 큰길은 차단되어 피란민은 바닷가 민가에 모였다.

호산서 한 5마 정(町) 길, 어둡고 킁킁한 길로 민가를 찾았으나 초만원이다. 우리들은 늦게 도착한 까닭으로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부엌에서 자겠다고 하였으나 다행히 어린이들을 위하여 방 한 칸을 구하여 들었다. 이튿날도 또 다시 울진으로 향하였다.

◆ 울진에서의 피란생활

1월 10일 고개 길에는 군인차가 길을 막아서 옆으로 돌아서 울진에 오니 이곳은 계엄지구가 되어서 민간인은 투숙하지 못한다고 한다. 나는 옛 친구를 믿고 왔으나 허탕이었다. 다시 걸어서 근남면 수산리에 와서 아는 김이원 선생을 찾으니 방은 만원이고 고간 방 하나를 준다.

할 수 없이 이곳에서 유숙(留宿)을 하니 불상한 거지 신세였다. 이해의 기후는 피란민을 죽이려고 기온도 차고 눈이 많이 왔다. 수산리에서 떠나 매화리로 향하였다. 성류굴 고개 좁은 길목에서 군인이 용품을 조사하여 빼는 것이다.

우리도 군용 담요와 군인 외투를 갖고 있었으나 요행 뺏기지 않고 매화리에 이르러 최현곤 면장 댁에 들리니 방 한칸을 준다.

매화학교는 내가 춘천사범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1925년 3월 1일자로 울진 매화학교로 첫 발령을 받고 약 4년간 근무한 적이 있어 이 지역 인사들은 대부분 다 알고 지낸 터라 조금은 안심이었다. 최 면장은 재직 당시 면서기로 있던 구면이며 그의 춘부장과는 친교가 특별하였다.

우거(遇去)의 친교로 방에 불을 때 주셔서 일야(一夜)의 여독을 풀었다. 매화는 재직 시 4년 이상 지방인사와 졸업생들도 많이 알아서 마음이 든든하였다. 하루 밤 신세를 지고 그 이튿 날부터는 살길이 막연하다.

1월 11일 매화리에서 두유피란(逗留避難)기로 하고 윤방구 면장을 앞세워 방을 구하였으나 이미 초만원이다. 할 수 없이 냉방을 한칸 얻었으나 불도 드리지 않고 조식으로 냉방에서 지냈으나 달리 방법이 없다.

과거 친지인 윤호달, 전용상을 찾았으나 23년 만이라 별로 변한 것이 없다.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마른나무를 해다가 조반석죽(朝飯夕粥)을 하니 대장부 사람사리 이만하면 되지 하면서 3~4일을 지냈으나 후에 윤씨네 방을 얻어 들어가 다소 편하게 지냈다.

1월 12일 나와 사제지간인 원남 면장 최석칠과 매화학교 졸업생인 장전강을 만나 담화를 나누었다. 최 면장은 왜정 때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면장은 나를 위하여 쌀과 좁쌀을 특배(特配)해 주고 구장(區長)은

부식을 갖다 주어 생활이 안정에 걱정이 없다보니 매일 놀러 다녔다.

그런데 울진에 와서 피란생활을 하면서는 이 지역의 풍속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례문화나 혼인도 간단하다. 막걸리 한 두 갈에 소면에 소적을 넣은 국수 한 그릇과 고기 부스러기를 그리고 종이에 싸주는 담배가 전부이다. 참으로 이곳 풍속을 보니 양양지방의 화려한 대가댁(大家宅) 행사가 생각난다.

황씨네 문상을 갔다가 새 구두를 잃었는데 지서에 신고하니 흠친 자는 피란민이더라. 피란살이를 하면서 먹기 살기 위하여 피란민 증(證)을 가지고 각 면을 돌아다니며 양곡을 배급받아 집에다 쌓아놓는 자도 있더라. 또 소일 겸 도박을 하기도 한다.

혹자는 리꾸사꾸 에다 죽은 아이를 넣고 버리고 가는 것을 보고 양천호읍(仰天呼泣)도 하였다. 과시인간(果是人間)이 살기 위하여 악자(惡子) 노릇을 한단 말인가? 의문을 품었다. 또 내 자신이 교원 노릇을 하였다고 궁색(窮色)할 때 은사행세를 하는 일에 자책(自責)도 해 보았다.

◆ 은사 김정순(金定淳)선생을 상봉하다.

이분은 보통학교 의사이며 왜정 때 쟁쟁(鏗鏘)한 교장이다. 또한 이 선생님은 창촌(蒼村)학교 공적기념비도 세워진 교육자로 명성이 높으신 분인데 매화리에 와서는 지방민과는 유대가 좋지 않고 친일분자라는 평도 받았고 지서주임과 야합하여 면의 부정사건을 폭로함으로 회계가 징역을 가고 면장이 파면 당하였다고 고향하던 차에 이번에 매화리로 피란을 온 것이다.

나는 선생님이 매화리로 오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하루는 길에서 매화리로 온 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부인과 함께 우리 거처로 안내하여 중식을 대접하였다. 굶주리면 영웅도 없는 밥 맛있게 드신다.

그리고 방을 사방에 구해 보았으나 없어서 내가 있었던 집을 간선(幹旋)하였다. 나는 이분에 비하면 호화판 피란생활이다. 딸이 나생이도 캐오고 구장이 부식을 갖다 주고 하니 상지상(上之上)의 생활이라 교장보다 백묵

(白墨)을 들고 가르치는 교사의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갈면리 장강식의 집에 가서 하루 밤을 자면서 담화하고 바닷가 조산리의 권상범의 집에 가서 담화하고 황씨 집 초상집에 가서 문조(問帚)도 가고 덕신리 장산준 집에 문상을 갔는데 상주 장산준은 울진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근남면 오산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가서 특배를 타왔다.

하루는 원남면에 갔다가 2명의 형사에게 포박 당해 끌려가는 두 친구를 보았다. 그들은 공산치하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김○○과 김○○으로 피란 길에 공산주의자로 체포된 것이다. 직접 만나지 못하니 미안 하더라. 이자는 삼척에 가서 서낭(埧郎)인 육군 중위 덕택으로 석방 되었다. 그 후 강릉에서 만나니 시장에서 고무신집 좌상(坐商)을 하더라.

◆ 피란 중 징발 당할 뻔해서 곤혹을 치렀다.

매화리 재직 시 신세진 분의 묘소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이중 두의 부친인데 돌아가신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분의 유족들이 매화리에 있지 않았기에 찾지 못했다. 또 과거 제자 중에는 좌익분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다. 왜정 때 울진에는 탁영(濯纓)회라는 것이 조직되었다. 이것은 일본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졌다하여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징역을 보냈다. 그네들이 해방으로 출옥하자 전부 좌익이 되어 좌익의 소굴이 된 때도 있었다고 한다. 우두머리 최모 등은 도피하였으며 윤모는 감옥에서 옥사하였다고 한다.

근남면 구산리에서 남나석 군을 만났다. 남군은 사범2기생으로 해방이 되자 양양에서 국민학교장과 인민중학 교장을 지낸 분이다. 인공사회는 교원을 특대(特待)하여 월급은 군 인민위원장급이다. 말없이 꼭 참고 무언중(無言中)에 종사하면서 공산사회에서 특우(特遇)를 받는다.

남군은 무언 실천자로 특우를 받고 있었으나 1·4후퇴로 자기 고향인 구산리로 피란을 왔다. 양양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피란을 내려오니 생활에 파탄이 났다. 피란을 온 것이 지옥에 온 것 내심 불평 하더라. 공산사회도 개인적 활동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복하면 그러저러

살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나석 군은 무언중에 심복 하였던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루는 길에서 수상한 자가 나를 보고 리 사무소로 가자고 하였다. 나를 노무자로 징발하여 일선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나는 피란민으로 연령이 과하다고 하였으나 그 자는 장년으로 보고 징발을 하려한다. 그때 구장이 이분은 우리 선생님이고 연만(年滿)하여 만류하여 면제하게 되었다. 외면상으로 장년으로 보이는 것은 좋으나 피란 중 징발 당할 뻔해서 곤혹을 치렀다.

◆ 수복(收復)의 광명(光明)

1951년 4월초라고 기억한다. 피란이 해제되어 제2의 수복명령이 내려졌다. 3·8휴전선의 협정이 성립되어서 피란민의 원상복구가 된 것이다. 백일간의 정들은 매화리를 떠나는 것이 섭섭하더라.

4월 상순경이라 눈도 녹고 풀도 소생하는 봄철이라 완보(緩步)로 걸어 하루 50~60여리를 걸었다. 어떤 때는 큰길을 피하고 사이 길로 걸어서 무려장장 500리 길을 걸어 강릉에 와 우선 용강리에 자리 잡고 주영학교로 갔다. 1·4후퇴 함포사격과 폭격으로 재 마당이 되었다. 겨우 교실 한칸과 교장 관사만 남았다.

미군 수송부대가 주둔하고 동해안으로 메가드 장군이 시찰을 왔다 갔다고 한다. 주문학교도 다 타버렸고 주문진 일대가 거의 다 폭격으로 참혹한 형상이다. 옛 사람이 삼금방(三禁方)이 있다고 한다. 영불근도불근(永不近道不近), 산불근(山不近)이라 하니 그 뜻을 해석하여보면 재미있는 말이다.

◆ 1951년 5월 1일 주문진 솔밭학교 개교

주영학교 교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불타고 주문학교 역시 한 가지다. 삼지 사방으로 교실이 될 만한 곳을 물색하여 보았으나 적당한곳이 없다. 한 병원건물을 읍장에게 교보(交步)하여 얻었으나 주문학교에 양보하였다.

개교는 주문진을 주문리 솔밭에서 하였다. 학생들이 첫날은 겨우 80명

이 모였다. 하루 이틀 진행되는 동안 차차 늘어나 교사조직편성을 하여 매일 수업을 단속하니 솔밭이 학교요, 교실이요, 직원실이다. 이때의 현황을 사진을 찍어 남겨 놓았다더라면 나에 비참한 장면이요, 비운에 실상이요, 노고에 환상일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이곳을 통과할 때면 감개무량하여 머리가 숙여진다.

학생들이 모이고 모여 12학급에 800명이나 되었다. 이런 대부대를 솔밭을 가지고는 운영이 곤란하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의를 가졌으나 당국지는 한 놈도 내다보지 않고 권세만 부리고 앉아서 코 방구도 쿨지 않던 참으로 패심한 놈들만 교육청에 있더라.

궁리 끝에 사친회를 소집하고 가교실 건설을 협의하여 각동마다 12평 짜리 교실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지붕은 초막(草幕)과 마루는 흙마루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배우기로 하였다.

나중에 송관결상과 책상을 만들어 가차히 수업을 진행하니 가관지사(可觀之事)이다. 이때의 환경을 영사(映寫)하여 활동사진으로 상영한다면 당시의 노고를 맛보고 목단훈장(牧丹勳章)을 던져줄 것이다. 이력저력 직원들이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교육에 착수하였다. 이 교실 모양이 꼭 짐승을 키우는 우리 같고, 전란에 못 먹고 못 입어서 외관상 모습이 불쌍하며 우리 간에 쭈구리고 앉아 공부하는 관경은 참으로 가궁지사(可矜之事)이다.

◆ 정세 판단을 잘 못해서 제3차 피란을 가다.

1951년 5월 상순이었다. 강릉지방이 수근 수근하며 모두 안면에 수심을 하고 근심 색이 완연하다. 이유인즉 휴전선에서 북괴군이 남침을 하여 왔다는 정보라 한다. 제3차 소개(疎開) 명령이 내려서 다투어 피란길에 올랐다. 우리도 강릉 셋집에서 식사도구를 챙겨 가지고 피란길을 떠났다. 저녁 무렵에 강동면 시동 신재기씨 댁에서 하루 밤 신세를 졌다.

그 이튿 날 정동진에 오니 이곳에서 대기하다가 수복하리라는 령(令)이다. 2박3일에 다시 화비령(花飛嶺:강동면 임곡리, 모전리 와 산성우리 사이에 있는 영) 을 넘어서 강릉에 귀환하였다. 참으로 우습고 일시적(一時

的) 소란(騷亂)이었고 정세를 판단 못하는 오도(誤導)였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피란가지 않고 꺾꽂이 앉아서 피란을 하고, 우리 같이 월남민은 “풀잎만 바삭” 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항시 불안을 느끼고 마음이 두근두근하여 36계 줄행랑을 치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때만 하여도 실권 없는 국가였기에 그런 일이 다반사(茶飯事)이었던 것 같았고, 실력(實力)만이 자주독립(自主獨立)을 이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가교사(假校舍)의 개교와 이종명 군수의 학교 시찰

참으로 주영(注榮)과 주문(注文)은 불쌍한 존재였다. 다른 학교는 피해 없이 정상적이었고 우리학교는 가교사(假校舍)를 지었다. 그러저러 2년을 지나 본교사가 몇 동 건립되어 학교의 면목을 갖추었다.

주영학교는 바다가 학교라서 어민의 생활은 고기가 잘 잡히면 성황(盛況)이고 고기를 못 잡으면 궁(窮)한 생활에 학교교육에 그리 관심이 없다. 그러나 학부형인 전홍선씨는 중개업을 하여 선생 대접은 융숭하며, 또 운동회 때에는 이집에서 교사들의 중식(中食)을 대접한다. 참으로 선생으로 대접받는 일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다.

통학지역인 향호리는 농촌부락인데 상당히 부유하게 지낸다. 가정방문을 이 동리를 갔다가오는 것이 보통이다. 봄 소풍 때는 이 동리에서 선생들의 중식을 모두 준비 대접하는 미풍을 갖고 있다. 소풍 때는 큰 잔치가 이 동리에서 벌어지는 인심이 후한 농촌이다. 으레 봄 소풍은 향호리 호반(湖畔)에서 하는 것이 연중행사였다.

학교 교사가 건설되니 옛 모습으로 등단(登壇)되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리가 잡히지 않고 있을 때도 학교가 군수 산하(傘下)에 있을 때다. 하루는 갑작스럽게 군수가 시찰이라 한다. 나는 출영(出迎)도 하지 않고 오기만을 기다렸다.

○○○군수는 독재체제(獨裁體制)하에 속관(屬官)으로부터 승진한 자이며 권위주의로서 학교가 건설되니 자기가 건설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

기 위하여 시찰을 온 것이다. 촬영을 하지 않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다. 약 2시간동안 학교를 시찰하고 간다는 것이다. 나는 중식을 운(云)하나 거절하고 내가 전송코자 하나 본인이 거절하므로 그냥 갔다.

군에 귀환하여 나의 평을 하였다고 한다. 그네들은 군수이면 천하제일이라고 뽐냈다. 나의 송출영(送出迎)과 중식대접을 하지 않은 것이 본인에게는 불쾌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식사 대접과 송출영 그리고 봉통(封筒)을 주는 것이 그때 세월에 특례(特例)로 되어 있었다.

학교 재정으로는 염출(捻出)이 불가능할 뿐더러 나는 이런 일에는 용심(用心)치 않는다. 천하제일은 간판에 권위의식이 충만한 자의 불만이라고 사유한다. 가교사 때는 위로 한마디 없던 쾌심한 놈들이 집을 지으니 위세를 부리러 온 것이며 출장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 불평불만에 나를 비난하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 자는 내가 처음 교직에 나가 월급이 60원 받을 때 초급 40원으로 임관 된 자다. 그러나 그 자는 요령과 운이 좋아 차관까지 승진하였고 호사다마(好事多魔)라 요사(夭死)하고 말았다.

이들의 등단은 교길금색배(巧吉今色輩)이며 물물공여지도당(物物供與之徒黨)으로 국가민족의 대사 즉 독립 국가건설은 뒷전으로 뇌물지다과(賂物之多寡)와 사욕지사(私慾之士)로서 6·25동란에 패망을 가져온 도당들이라 평한다. 나는 오직 교육에만 정진하고 후세 교육에만 전념 할 따름이다. 그래도 위국자(爲國者)는 교육자 만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 사천(沙川)학교의 이동과 고등공민학교 건립

나는 성의껏 일 하였고 교직원을 과격히 독려한 것이 인심을 잃는 것이며 나의 단점은 인화단결 치 못한 것이 나의 단점이다. 사회적 행정수단이 “제로”이며 세상사 회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교육에만 사유하였다.

세상은 뇌물이 성행하고 “사바사바” 가 대 유행시대라 유아(唯我)독재(獨裁)가 통 할 것인가. 자유당의 부패가 학교까지 풍미할 시대이고 아니

국민의 치리(岨裏)에는 혼탁이 반응(反應)이고 자기의 출세를 위 하여는 사람을 모략중상하고 사람을 짓밟고 또 죽이고 하는 것이 그때의 조류이다. 내 자리를 미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것을 모르고 밀려서 사천 학교로 가게 되었고, 사친회원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나의 후임은 최 장관 이었다.

교감 李圭千. 교사 金征中, 李康國, 鄭總時, 金良洙

이 학교도 옛날에는 간이학교(簡易學校)로 시작되었다. 사천도 강릉군(江陵郡)에서는 역사가 오랜 학교다. 교사는 6·25를 겪어도 거개(擧皆) 완전하여 수업에는 지장이 없고 교직원도 우수한 자만 모여 자리가 잡혀 있어 아무 걱정이 없었다. 전임자는 권혁주로 고등공민학교(高等公民學校)를 세우고 겸무(兼務)하였다.

나는 박우동 면장과 권혁우 사친회장과 친하였다. 고등공민학교는 독립되어서 최재하가 임명되었으며, 학생은 15·16세에서 20세까지 청년층이다. 2학년이 되어서는 강릉농민(江陵農民)학교에 많이 들어가니 이것도 한 엉터리라 하겠다.

고등공민학교는 교실이 없어 교내부지에 독립키로 하고 발기하여 3칸을 짓기로 하고 추진하였더니 다행히 기금이 조성되어 학교를 세웠다. 하루아침에 돌풍(突風)에 도괴(倒壞) 되었다. 나는 현장에서 목격하니 어이가 없다. 재차건립하고 그때의 상량문(上樑文)의 첫 구절이 어명(御命)도 지중(至重)하니 사불(邪不) 범정(犯正)이라 하니 모인 자들이 모두 경탄(驚歎)하였다. 나는 고등공민학교 건축함을 경주(傾注)하였다.

고등공민학교 교사를 정식 배치하니 최재하(崔在河)가 부임하였다.

교감 홍정표는 함흥사범학교(咸興師範學校) 졸업자이고 그의 부인은 성덕학교 때 같이 근무한 사이 이고 자상하고 담화로 밤이 가는 줄 모르는 여인이다. 홍교감이 타교로 진출가고, 새로 온 교감인 박영성은 원주에서 가르친 제자로서 강릉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신하다가 교감으로 영전하였고 착실하고 또한 운동선수로서 열성을 다 하였다.

하루는 심홍섭 교사와 상노동리에 출장을 나가서 변 구장 집에서 숙박을 하면서 담화를 하게 되었다. 이튿 날 조반이 천신제(薦新祭)이라 심홍섭 교

사는 불식을 한다. 이유인 즉 자기 집의 천신을 하지 않았기에 천신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며, 자기 조상에 천신을 하지 않은 까닭으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괴이하게 여겼으나 곰곰이 생각하니 조상을 위하는 심선생의 숭조사상(崇祖思想)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집 잡곡밥과 바꾸어 먹게 되었다. 한편 주인에게는 불경이 되나 대국견지(大局見地)에서 볼 때 조상을 섬기는 마음은 찬양한다. 양양에서는 이 사고를 버린 지 오래이다. 강릉지방 양반가에서도 이 정신(精神)이 유전(遺傳)되고 있다.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 박명표 선생도 이 정신을 계승한 다더라.

◆ 면 자치제(面自治制)의 참관(參觀)

자유당 때 면 단위 자치제로 면 협의회가 열렸다. 나는 면 의회를 참관하니 면장은 별별 떨고 면 서기들은 고양이 앞에 쥐 격이다. 하는 방식은 권리를 남용하고 인권무시(人權無視) 내지는 인격무시(人格無視)이다.

면 행정사무도 잘못 되었지만 면 위원들의 행패가 대단하여 이런 자치제라면 시기상조라는 감(感)을 받았다. 과거 관존민비(官尊民卑)로 민존관(民尊官) 비체제(卑体制)는 정치적 선련(洗練)과 체제 확립 후에야 자치제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천은 평온하고 교육환경이 깨끗하다. 사천은 고래(古來)로 양반의 반촌(班村)에 교육 후원이 평온하여 잡음이 별로 없으니 교육을 안심하게 봉사 할 수 있다. 나의 연갑(年甲)이 되는 분이 많고 서로 교유(交遊)하니 별로 송 허물이 없더라. 학교경영도 무난하며 후원도 적극적이었다. 사천 회장은 권혁우, 염재근 으로 지방 재벌이며 학교 요구조건을 잘 뒷받침하여준다. 지방행사도 교직원을 초청하여 유대가 잘 되었다.

◆ 사천중학교 건립을 추진하다.

나는 이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에 매우 불편하여 중학교 건립이 시급하여 문교부(文敎部)에 중학교건립 신청서를 작성 하는데 전력

을 다 하여 건립 취지문을 근사하게 써서 신청하였다. 그리고 지방유지들과 기금모집에 행각(行脚)하였다. 면장과 사친회장도 동년배(同年輩)이기에 친화애(親和哀)에 면 내(面內)에 편답(遍踏)하면서 조성에 힘썼다.

문교부에서 중학교건립 실지조사차 출장을 왔다. 면장과 나는 문교부 실무자와 회식을 하면서 인가(認可)를 납득시키고, 면장에게 수고비를 주어 보냈다. 빠른 속도로 인가가되어 현 위치에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6·25당시 사천 학교는 하나도 파괴(破壞)되지 않았기에 패념(掛念)할 일이 없고 또 교원의 질이 높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대외적으로 학교후원에 신경을 썼다.

강릉지역 국회의원 출마지는 과거부터 친면(親面)이 있던 최헌길과 동년배(同年輩)인 사천 출신인 박용익이다. 두 사람 모두 팔세 못 할 처지에 박용익은 사천 출신으로 상종상합(相從相合)이 많았기에 최헌길 편에서는 자기에 대한 불지지(不支持)로 고발투감운(告發投監云)한다고 서(署)의 사법주임(司法主任)이 직접 사천에 와 알려준다. 이 주임은 나와 사제지간인 자이다.

그러나 나는 허심탄양(虛心坦壤)한 심정이다. 두 사람 모두 존경할 뿐 투표에는 개의치 않았다. 국회의원이 되면 천자나 된 태도이나 나에게는 초개(草芥)같은 존재로서 국정과 국사만 힘쓰면 된다고 생각한다. 강릉에서 국회의원출마자의 점심 국수 한 그릇 한번 먹었을 뿐이다.

◆ 강릉교육감으로부터 수복지구인 양양국민학교 전출을 권고 받다.

1953년 2월 11일에 교육감 최준길이 사천으로 출장 와서 나와 조용히 이야기 할 시간을 가졌다. 나를 보고 수복지구(收復地區)인 양양(襄陽)에 전출할 의향을 묻는다. 나는 즉각 강릉에서 나 같은 인물이 필요하면 그냥 두고 그렇지 않거든 내 보내라. 그러나 나의 자신은 전출할 의향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헤어졌다. 즉 나의 뒤를 희망운동(希望運動)하는 자가 있기에 고향인 양양으로 가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집에 와서 도인사계장 안경모에게 양양 입주의향을 전달하고 귀향을 결심하여 양양학교로 전출하

게 되었다.

교감(校監) : 홍정표(洪廷杓). 박영성(朴榮成)

교사(教師) : 심흥섭(沈興燮). 박명균(朴命均). 권혁남(權赫南). 심상신(沈相信). 권오선(權吳詵). 최돈필(崔燉弼). 최윤식(崔允植). 홍순자(洪順子). 최○○(崔○○)

◆ 양양국민학교 시절에 얻은 영광의 별명인 돈 버러지 교장

6·25한국전쟁이 휴전과 동시에 3·8이북에 군정(軍政)이 실시되어 모든 기관이 군정 하에 예속(隸屬)되어 교육도 사령관인 군단장이 통할(統轄)되어 공무원의 임면권도 장악하였다.

교원의 임면도 우익(右翼)인사로 채용하여 국민의 제도에 준하였다. 그러나 1955년 3월에 군정이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에 복구하여 수복지구에 공무원도 대거 남에서 입북하여 과거 유임자들과 마찰이 심하여 입북한 자들도 곤경에 처하였다.

나는 양양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도입하였다. 나는 월남을 하여 강릉객지에서 교육생활을 하였기에 지역사회와는 생소하며 또 공산지역이기에 이념적(理念的)으로 합치(合致)하는 편이 적다. 주민들은 혼연(欣然)히 국민의 품속으로 들어 온 것을 감읍(感泣) 할 것으로 여겼으나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았다.

첫째, 교직원들의 생활이 불안정이었다.

이남에서는 사친회에 보조를 받아서 궁색은 면하였으나 수복지구에서는 사친회성립이 전혀 불가능한 위치였다. 나는 유지 몇 분과 합의하에 사친회를 조직하였으나 납부성적이 부진하여 개중에는 반대의 태도를 가진 자가 많았다.

그들은 공공연히 절규한다. 왈(曰)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에 부담이 없는데 무슨 사친회비냐고 회비가 납부되지 않아 교육자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공산치하에서는 교원은 특대(特待)에 배급도 특별하여서 일반민보다는

곤란치 안았다. 하여 선생들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 조회 때마다 돈 예기를 독려하고 독촉을 하니 나에게 영광의 별명이 ‘돈 버러지 교장’이라 하였다.

둘째로는 주택난이다.

6·25때 회신(灰燼)하였기 주택이 없다. 교장도 선생들도 남의 집에 세를 들어 방 한 두칸으로 만족하였다. 교사는 군정시대에 여차 직하면 군막(軍幕)사용으로 어두움 속의 교사였다. 그러나 가교사는 3·8선 지방의 가교사보다는 나은 편 이었다.

셋째 상이군인들의 행패이다.

상이군인이라는 명예를 몸에 걸고 물품의 강매이다. 태극기와, 학용품 등의 강매가 심하였다. 이야기인 즉 국군이 진격 시는 재력의 탈취, 정조의 유린 등 적국 패전지에서 하는 불법행동이 신성한 국군을 모독하는 불순분자도 많아 전쟁 초기에는 육설도 많이 들어 대한민국 국군들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넷째 산에 삼림(森林)들이 없어졌다.

군정시에 적국의 소유물로 여기고 나무를 벌목을 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토색분자(討索分子)도 많아 독산(秃山)이 되었다. 이 지역은 공산주의 불모지대를 거쳐 군정시대에 민정수복이라는 정신적으로도 혼선이 일고 생활도 거의 입에 풀칠을 할 정도이다. 피란민이 대거 입주하여 생활력이 강한 주민들의 경제력을 좌지(左之)하게 되어 암암리에 반항을 하는 기색도 보였다. 우리는 겨우 봉급과 사친회비보조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니 겨우 걸색(乞色)을 면하였다

◆ 양양 교육에 전력을 다하다.

첫째 민주사상의 양양(昂揚)에 힘을 썼다.

둘째 국어 정신함양(精神涵養)

셋째 전 교과 성적 양양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정하고 교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운영에 힘을 쓰니 실

적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도에서 양양학교를 수복지구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그 해 3월 연구발표회를 가졌고, 전 직원이 교육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비교하면 운니지차(雲泥之次)라 하겠다.

이 시기에 나는 1년간 성내리에서 세를 얻어 행랑살이를 하다가 군행리에서 피란민이 사는 두 칸짜리 초가집을 사서 이주하였다. 밭을 일궈 아침에는 똥지계를 지면서 호박농사를 짓고, 아내는 돼지를 키워 살림에 보탬다. 또 교육청 토지 200평에 콩과 감자를 심어 자족을 도모하고 250여 평의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된 것도 모르고 생활을 유지했다.

◆ 군수 교육감(郡守 教育監)과의 마찰

첫째 하루는 군에서 호출이 왔으나 나는 즉시 출두하지 않았다. 이유인즉 수복지구 행정공노표창 이라한다. 나의 불응으로 대노한 군수교육감은 시말서(始末書)를 내라고 한다. 나는 시말이고 무엇이고 군수가 교육자를 호출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이유를 반박하였다.

나는 교육청계통이기에 불응하고, 교육청에서 부르면 당연히 출두한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교육감이면 교육과장을 통 할 것이지 하니 교육청에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며 이건은 호지부지 되고 말았다.

두 번째는 음력 정월 휴일이다. 나는 음력휴일로 2일간 휴업하고 과세(過歲)하라고 하였다. 군수가 나를 보고 무슨 까닭으로 휴업을 하느냐 하면서 또 시말서를 내라하나 나는 불배(不背)하였다.

이남에서도 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였고, 부모동족(父母同族)이 노는데 학생들이 공부가 되느냐고 하였다. 이 일로 나는 고분고분 하지 않고 군수는 어찌하여 군민을 이틀간이나 휴업을 하고 집에서 다 노는데 학생들이 어찌 공부가 되겠는가 하니 군수가 내무과장을 불러 무른 즉 내무과장이 왈(曰) 군수 명의로 2일간 휴업을 통보하였다고 하니 군수도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다. 나의 이 일로 군수는 교육감으로의 호평을 받지 못했다.

나의 출신지는 양양이나 외지에서 교육생활을 많이 하였기에 친지와

친척들의 거래가 없었기에 객지나 다름없다.

과거의 친구들인 최용달(崔容達), 최용원(崔容遠), 최용대(崔容大), 이겸열(李謙烈), 강○○(姜○○), 등 적색분자(赤色分子)들이라 거개(擧皆) 입북(入北)을 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특히 최용대(崔容大), 김중성(金鍾聲), 김중학(金鍾鶴), 김봉면(金鳳冕)도 잠적(潛跡)을 하니 상대하여 말할 것도 없으니 누가 있어 나를 도와줄 친구들도 없다.

중견인물(中堅人物)들은 내가 타 지역에서 교직생활을 한 관계로 나를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나 역시 외교수완이 부족하여 외빈내허(外賓內虛) 하기에 교제할 형편이 못된다. 하여간 돈으로 교제함이 친밀의 첩경(捷徑)인 것이다.

생면부지의 교육자가 많았다. 남에서 입주한 교원은 적고 거개(擧皆)가 군정시대(軍政時代)에 채용한 자들이다. 따지고 보면 인공치하(人共治下)의 종사자와 피란민중 과거 이북에서의 교육종사자들이다.

교육회장(教育會長) 투표에 나는 부회장이 되고 회장은 과거 군정시대의 인물이며 양양이 광역(廣域)한 까닭에 생면부지의 교육자가 많고 민정이양(民政移讓) 입주자가 적은 까닭이다.



- 김충호 [(남, 80세, 양양읍 월리) 현재 속초시 금호동]
- 면담일 : 2017. 5. 4



◆ 인민군들이 탱크를 아카시아 숲속에 감추어 놓았다.

나는 지금은 속초시 금호동에 살고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8년 남대천 다리건너 월리 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7살 때 구꾸민 가꾸(소학교)에 다녔다. 해방되면서 다시 인민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북한 교육을 5년 받았는데, 그때 월리에서 학교로 건너다니던 남대천다리는 나무로 기

등을 박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다리였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바람에 날려 갈까봐 겁을 먹고 학교에 다녔는데, 그렇게 5년간 학교를 마치고 9월에 초급중학교에 진학 하였는데 그때 15여 명의 동네 친구들과 같이 다녔다.

1950년 3월부터인가 그때는 양양 남대천 변에 제방 둑은 없고 철망으로 제방 둑을 대신했고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당시 인민군들이 기차에 탱크를 수십 대 싣고 와서는 아카시아 숲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못 보던 탱크가 나무숲에 있으니 시간이 나면 가서 구경하곤 했다. 그러다 그때는 천이 귀했던 때라서 인민군이 쓰다 버린 밧싸개를 주어서 췌고 실로 꿰매서 싣고 지가다비(찌까다비)도 구멍이 뚫린 곳을 잘라내고 꿰매서 신으로 신고 다녔다.

◆ 아침에 일어나니 작은형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그 탱크가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다. 시내에 가서 들으니 우리 군대가 남조선을 쳐 내려가서 부산만 점령하면 통일 된다고 선전이 대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둘째형이 집에 오더니

“아버지 저 인민군대에 가겠습니다.”

“야! 니가 뭐 군대이야.”

“아버지, 지금 가야 북조선이 남조선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니는 어려서 안 돼!”

아버지와 형의 그런 말이 오가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작은 형은 보

이지 않았는데, 그때 형의 나이는 16세였다. 그 당시 그렇게 인민군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는 도중에 내려서 다시 돌아와 군청에 다닌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작은형을 생각하곤 했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 가면 게시판에 인민군이



〈면담중인 김중호씨〉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벽보가 붙어있어 계속 이기는 줄 알았다. 그러던 중 비행기 폭격이 심해지면서 마을사람들은 굴을 파놓고 비행기 소리만 나면 굴속으로 숨었고, 비행기 폭격으로 학교가 불타면서 호지부지 학교에 못 가게 되었다.

그해 10월이 되면서 우리는 국군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동네 빨갱이들은 다 북쪽으로 피란을 갔고 나는 남쪽 군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른들 틈에 끼어 구경하러 시내에 나가보니 푸른색 옷과 둥그런 철 모자를 썼는데, 사람들은 국군을 보며 만세를 부르자 나도 만세를 연호했다.

◆ 눈이 쌓여 봉긋한 곳을 파서 무나 감자를 꺼내 먹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소문만 듣고 학교에 나가게 되어서 국민학교 6학년이 되었다. 교과서는 선생님만 있고 우리는 공책에 베껴서 공부하며, 12월까지 국민학교에 다녔는데, 1월 초가 되면서 소문이 뒤숭숭하더니 피란을 가야 한다고 하여 이불과 쌀을 준비하여 동생과 나도 짐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 피란을 떠났다.

손양면 금강리 기와집에 가서 묵었는데 밤에 소변보러 밖에 나오니 양양 쪽이 낮처럼 환하게 시내가 불타고 있었는데, 이 불은 국군이 인민군들이 추위를 피해 들어가 기거하지 못하게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 후퇴를 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다시 피란을 재촉하며 가는데 길이 안 좋아 철길을 따라 걷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집이나 들어가 밥을 해먹고 날이 밝으면 떠나고 하여 삼척 효가리 까지 갔는데 발이 다 얼었다.

처음엔 시리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없었고, 강을 건널 때 마다 다리가 없어 물에 빠져 건너다보니 발이 얼어 1.5~2도 정도의 동상이 걸렸는데, 지금도 추우면 발이 퍼렇게 된다. 그러다가 눈이 쏟아지면 빈집에 들어가 눈을 피했으며 집 주변에 눈이 쌓여 봉긋한 곳을 파면 ‘무’ 나 ‘감자’ 가 있어 그것을 꺼내 먹었다.

그렇게 겨울을 떠돌다 1951년 봄이 되어 양양으로 돌아오니 집은 형태

도 없고 재만 남아있었다. 아버지와 재를 굶어내고 함석을 주어다 움막을 지었다. 농사를 지어야 하니 아버지가 어디서 구했는지 뽕씨를 얻어다 못 자리를 만들고 농사준비를 하였다.

◆ 박태송이라는 어른과 인연이 되어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 즈음 학교를 연다고 하여 갔더니 중학교 1학년에 다니라고 한다. 위로 2~3학년은 없고 1학년이 60명씩 3개 반인데, 학교는 건물도 없었고 책도 없어 선생님들은 가리방(줄판)을 굶어 등사하여 교과서로 사용했다.

교실이 없으니 넓고 평평한 곳을 찾아다니며 바닥엔 가마니를 깔고 껌 짝 같은 것을 책상삼아 1~2시간동안 국어와 수학을 배우다가 학교 짓는데 동원되었고, 당시 미군이 제공하는 좋은 목재로 학교가 지어지게 되자 학교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3년을 다니고 나니 1955년 2월 양양중학교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식 전에 이미 다른 학생들은 양고로 가느니 강릉으로 가느니 하며 진학 희망을 적는데 나는 진학을 못한다고 이야기 했다.

졸업식에서 나는 3년 개근상과 우등상을 받았다. 학사보고에 다른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나는 ‘가사’ 라고 적혀있었다. 우리 집은 1954년 9·13수해를 입어 집과 논밭을 모두 잃고 학교에 내는 공납금조차 내지 못할 형편이어서 나는 고등학교에 갈 형편이 못되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다른 학생들은 사진을 찍고 어수선했던 친구가 스피커에서 나를 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해준다. 나는 교무실에 들어가니 선생님이 나를 따라 오라고 하시며 어떤 어른을 보고는 “이 학생이 김충호 라는 학생입니다.” 하면서 선생님이 나보고 인사하라고 하신다.

선생님은 “충호야, 이 분이 너의 고등학교 전 학년 학비를 대 주기로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니 그 어른께서 나를 강당 뒤편으로 데려가서 “그래, 니가 김충호냐? 내가 너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까지 공부를 시켜주마, 오늘부터 집을 싸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기거 하도록 해라.” 하고 지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어른이 박태송씨 이다.

졸업식장에 홀로 참석하신 어머니께 이 같은 정황을 말씀을 드리니 나는 물론이지만 어머니도 좋아 어쩔 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싸주신 흠이불 한 채를 싸들고 박태송씨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대천 다리를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다리를 건너고 나니 바로 북진 양조장인데 넓은 벌판 같았다.

이렇게 하여 졸업식장에 참석하신 박태송이란 어른과 인연이 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분은 북한에서 월남하실 때 나와 나이가 비슷한 아들을 두고 월남하시어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가사를 돌본다는 말을 듣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 보은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1982년에 총정장학회도 만들었다.

졸업을 앞두고 담임을 맡은 이운중 선생님이 나를 불러 “공부를 잘하는데 왜 고등학교를 못 간다고 하느냐?” 고 물어서 “지난해 수해로 집과 논밭을 모두 잃어버려서 도저히 고등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백찬오 교장선생님도 “똑똑한 아이를 고등학교를 못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고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육성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졸업생 진학상황이 보고되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서너 명 된다고 하였단다.

이 자리에서 당시 양조장을 하시던 박태송 사장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고 제안을 하니 박태송씨가 흔쾌히 승낙하고 “내가 학생 한명을 도와 줄 테니 누구를 도와주면 좋을지 추천해 달라” 하여 이운중 선생님께서 “김충호라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진학을 못 한다” 며 나를 추천했다고 한다.

나는 졸업식장에 참석한 박태송씨가 즉석에서 나에게 학비를 대 준다고 한 줄 알았는데 사전에 학교에서 추천을 한 사실을 후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들어서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양조장 일을 도와드렸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학비까지 대 주시어 내가 약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약사가 되기까지 나를 도와 주셨다.

나는 그 보은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1982년에 충청장학회도 만들었고 1969년부터 속초라이온스클럽 활동을 시작하여 1976년 속초회장을 역임하였고 1990년 강원지구 라이온스클럽 총재를 맡아 활동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은인이 되어주셨다.

고 박춘섭, 박태송 씨의 체험수기

이 글은 김중호씨가 「설악신문」과 자서전의 『사람이 재산이다』를 참고한 증언 내용입니다.

◆ 나와 형님은 고향에서 국군 수색대와 치안대 활동을 했다.

우리 가족은 인공치하에 함경북도 경성군 무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형님이 김일성을 나쁘게 말하다가 청진교도소에 투옥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 후 형님과 우리 가족은 요주의 인물로 주목되어 어디 가서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1950년 6월 전쟁 발발하자 김일성군대는 기세 좋게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으로 후퇴를 거듭하다가 압록강에 인접한 중국접경지대에서 유엔군과 대치하게 되면서 전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이를 당시 나와 형님은 고향에서 국군 수색대와 함께 치안대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 상황이 바뀌어 국군이 남으로 후퇴할 때 우리 가족은 월남을 결심하고 달기(썰매처럼 소가 끌고 다니는 기구)에 식량을 싣고 명천까지 내려와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지면 집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 다시 걸어서 성진 이명령 까지 내려왔다.

인민군이 2km 근방까지 쫓아오게 되자 도저히 가족과 함께 월남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길주군 동해면에 고성철이란 사람의 집에 가

죽을 두고 전쟁이 끝나면 만나기로하고 형님과 나는 국군 수색대와 같이 이명령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민군이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경계를 서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 형님과 나는 각자 다른 배를 타고 남으로 내려왔다.

산 고지에서 내려다보이는 성진 항구까지 약 4km는 되는데 바로 눈앞에 적군이 쳐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치안대장이 개별로 행동하여 성진 항구까지 도착하라고 했다.

옆어지고 자빠지고 정신없이 부둣가에 도착하니 LST 배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배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 사람을 밀치고 겨우 올라탔다. 어떤 사람은 올라타려고 밧줄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여럿 있었다. 이때 형님은 운 좋게 피란민을 가득 태운 LST를 타고 며칠 만에 도착한 곳은 경남 방어진에 상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 배를 타지 못하고 부둣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마침 부둣가에 목선이 하나 있는데 퀘 짝을 싣는 것을 발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캄캄한 바다에서 그 배를 향해 뛰어 들어 가니 좁은 배에 사람이 서로 타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때 서로 밀고 부딪치고 하다가 어떤 부인의 발을 밟아 아프다고 야단을 쳤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배 아래에 밀가루 포대를 깔고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헌병인지 군인인지 나에게 내리라고 한다.

그때 헌병을 껴안고 난 치안대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면 죽는다. 나는 남쪽에 가면 쫓으니까 군대도 갈수 있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인도 난처했는지 배 한쪽 구석에 가서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배가 웅~ 하고 소리를 내며 떠날 때 그 소리 듣고 이제는 살았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배 안에서 감격해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달래는데 바로 어량면 수남리에 살던 장기치라는 사람

인데 치안대에서 같이 활동하던 사람으로 서로 잘 아는 처지라 동반자가 되어 같이 월남해 그와 원주로 갔는데, 그때 내 나이는 24세에 단신으로 월남하게 된 것이다.

◆ 원주 시장에서 우연히 동생을 만나 형제가 상봉을 했다.

LST를 타고 월남했던 형님은 그 후 서울로 올라와 그냥 밥을 얻어먹으며 생활하다가 원주로 내려와 시장에서 돌아다니다 우연히 동생인 박춘섭 이를 만났다. 이것은 천우신조요 조상이 돌본 것이라 생각했다. 형제는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어떻게 든 먹고 살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했다.

원주에는 이주일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이때 장기치는 이주일 장군을 따라갔고 우리 형제는 어떻게 수소문 끝에 조카인 박승하가 수도사단 1연대 중대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카가 주문진에 있다고 해서 밤에 부식차를 타고 강릉을 거쳐 주문진에 가서 조카를 찾으니, 양양에 있는 조카와 연락이 되어서 조카가 월리에서 차를 보내주어 양양으로 들어와 조카를 만나니 너무 반기웠다.

◆ 나무로 만든 함지박을 쓰고 공습지역을 벗어났다.

그러나 전쟁이 한창 이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나는 군복을 입고 군인을 따라 다니며 취사 노역을 해서 밥 먹는 건 걱정이 없었다. 어떤 때는 전투를 하는데 일선고지에 올라간 군인에게 밥을 공급해야 하는데 주먹밥을 만들어 지고 가는데 지고 갈 사람이 없으면 피란 온 사람을 불러서 지고 올라갔다.

다음날 새벽에 먹을 밥을 전날 오후 3~4시에 해서 총을 메고 운반하는데 중간에 암호가 바뀌기도 하여 암호를 대는데 엉뚱한 거를 대서 아주 곤경에 처하기도 했고, 가다보면 조명탄이 평평 쏘아 올라가는 최 일선을 쫓아 다녔는데 그때 죽었다하면 개죽음인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요행히 살아나기도 했다.

양양 인구 지경리로 후퇴명령이 내려서 현지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표식이 잘못되었는지 밥을 먹다가 비행기공습을 받아 술값이 많은 데는 불이 나기도 하는 상황에서 나무로 만든 함지박을 쓰고 공습지역을 벗어나왔다. 그때 기관총 맞았으면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런 난리를 다 겪고 살아났고, 대관령과 연곡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인민군과 중공군이 경기도 가평까지 내려 왔다는 통신을 듣고 부산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진격하여 진부령에서 전쟁 지원을 하다가 1953년 7월 휴전이 되어 후방으로 나왔다.

◆ 소금장사와 화랑담배 장사를 하다가 술장사를 시작했다.

군에서 나오니 뭘 먹고사나 그래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소금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때 수복지구는 군인이 진격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된장, 고추장을 다 사서 먹었고 피란 갔다 온 사람들이 당장 나물이라도 무쳐 먹으려면 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릉에서 군인 차에 소금을 싣고 양양에 들어오면 잘 팔렸다.

소금을 팔아 돈을 가지고 묵호에 가서 화랑담배를 사 가지고 와서 군부대에 가 팔면 잘 사는데 그때는 군인들에게 화랑담배가 보급이 잘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술장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하면 강릉 금학동 집에 피란을 하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의 권유로 당시 가지고 있던 300원으로 쌀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강릉 구정면 대관령 가는 길에 누룩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차도 없이 걸어가서 누룩을 사서 삶어지고 다시 금학동까지 걸어서 왔다.

그 할머니는 쌀을 찌고 누룩을 뺏아서 버무려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윗물인 청주는 바께스에 담아 강릉시장에 나가 팔면서 강릉에서 술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마침 형이 인천인가 어디 갔다가 뭐 좋은 사업이 없나 찾아보고 돌아와서는 술장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강릉에서 술을 만들다가 규모를 좀 키워야겠다고 해서 양양에 집을 하

나 세를 내어 본격적으로 술을 만들기로 하고 기술자도 영입했는데, 성이가 씨이고 이름이 창인 그 사람을 기술자로 영입해서 판자에서 함석을 벗겨내고 보일러를 만들어서 술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처음에는 술을 만드는데 엉터리였다.

◆ **북진상회 북진양조장을 동광상회 동광양조장으로 바꾸었다.**

밀을 벗겨내서 보일러에 넣고 열을 가하니 판자에서 벗겨낸 함석이라 김이 새고 말았다. 증류식으로 소주를 만들려면 밀 빵은 걸 반죽해서 발효시키고 다시 끓여 김을 냉각시켜야 한다.

그런데 김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소주를 만들어? 분쇄기나 제분기도 없고 처음에는 소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몰라 밀을 통으로 그냥 넣었다.

그때 이웃 다리 밑 이 씨네 할아버지가 술 만드는 걸 보고는 하는 말이 “함경도 놈들 재간이 용하긴 용타, 술은 술대로 나오고 밀은 밀대로 나온다.” 하며 비웃기도 했어. 그러니 처음에는 술이 아니라 거의 맹물을 잤다 팔아먹은 셈이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소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때 나는 군복을 입었으니까 소주를 드림통에 담아서 지나가는 차를 손을 들어 세우면 태워주어서 주문진에도 가고 강릉에도 가서 호수를 뿔아서 나눠주고 팔아 달라고 하면서 거래처가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북진(北進) 양조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던 중 양양시내에 백주에 간첩이 나와 한 놈은 사살되고 한 놈은 생포되었다. 바로 우리 집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북진상회라는 상호를 쓰면 어느 날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동녘 동(東)자 빛 광(光)자를 써서 동광상회라고 상호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양조장을 형님과 같이 하다가 나중에 형님이 처남과 둘이 공장에 있게 되자 형님이 한곳에 여럿이 있으면 나중에 형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나보고 도매점을 개설해서 나가 팔라는 거야? 그

래서 형님은 술을 만들고 나는 판매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다.

동광 양조장에서 술을 생산하고 동광상회에서 판매하게 되자, 우리 형님은 돈이 좀 생기니까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 속초 청호동과 지금의 고성군 죽왕면, 토성면이 모두 양양관할이라 그때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했다.

◆ 형님이 동해일보를 창간했다.

형님은 1952년 4월 15일 황폐한 수복지구 주민들에게 복구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 국민회 속초지부 회관에서 동해일보 신문사 창립식을 갖고 4월 17일 등사판으로 밀어 500부를 발행했다.

창립 당시 사장은 김진익(후에 대포국민학교 교장)씨가 총무국장은 박천복이 맡았다. 당시 강원도에는 강원일보, 속초에 동해일보, 강릉의 강릉일보 3개 신문만 있었고, 얼마 후 형님은 1952년 8월 1일 동해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처음에는 등사판으로 발간하다가 1953년 6월 18일부터 활자로 된 신문을 발간하였으며 1953년 8월 5일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형님은 1955년 7월 1일 강릉일보사 사장도 겸임하였고, 동해일보는 행정수복 후인 1954년 11월 17일까지 발행하였으나 1955년 공보처의 발행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되었다.

1954년 6월 25일자 동해일보 기사를 소개하는데, 그해 5월 10일에 세워진 수복기념탑에 새겨진 장호장 시인의 시(詩)인 모자상부(母子像賦)가 실렸다.

이 시에는 어머니와 아이인 철이의 대화가 나온다.

어머니! 우리 집 앞뜰 복사꽃도 이젠 피었겠지?

아무렴 제비도 처마 끝 짓에 나래를 쉼리꺼야.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계실까.

아무렴 너를 만날 때까지는 살아 계셔야지.

그러나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파손 된 것을 복원하여 1983년 11월 17

일 제막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때 장호강 시인이 모자상부 글을 새로 썼다.

그 후 형님은 1956년 5월 1일 양양군 군민회장에 피선되었고 1960년 7월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낙선하였다.



- 김성영 (남, 78세, 양양읍 구교리)
전 양양초등학교 교장
- 면담일 : 2017. 12. 4



◆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난생 처음 보는 탱크가 내려간다.

나는 일제강점기시대인 1940년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에서 태어나고, 6살이 되는 해인 1945년에 해방되어 남과 북이 양분 될 때 내가 사는 상왕도리 동네는 38°선 이북에 놓이게 됐다.

그리고 내가 손양인민학교 다니고 있을 무렵인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양양엔 극심한 가뭄이 들어 천수답인 상운들은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6월 25일 직전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져 상운들엔 물이 가득 들었다. 한꺼번에 벌어진 일이라 일손이 부족해서인지 우리 학생들까지 동원 되었다.

당시 손양인민학교 다니고 있던 나는 학생들과 상운들에 모내기를 하러 밀양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난생 처음 보는 탱크가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때 그 괴물 같은 탱크가 무서워서 산비탈에 쫓겨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니 탱크는 남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다.

한참 뒤에 월리에 사는 또래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월리 아카시아 숲에는 탱크가 가득 와 있었다고 했다. 그때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

어서 그랬는지 북한 인민군들에게 크게 저항도 제대로 못해보고 낙동강
까지 밀려 내려갔다고 했다.

그리고 3달이 지나고 난후 미군의 도움으로 수복되기는 했지만 누가 전
쟁을 준비하고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자명해지는 것이 당시 어린 나이
였지만 북에서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남으로 침공해 나가는 것을 우리
38° 선 이북사람들은 똑똑히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 화약을 바위에 놓고 돌로 탁탁 치면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이 재미있었다.

6·25전쟁 발발 후 국군이 들어온 후부터 38° 선 이북 지역은 북한 공산
당이 지배하던 시대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 가끔 북쪽으로 커다란 B29 비행기가 높이 떠서 지
나가는 것을 보고 구경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던 1950년 가을 어느 날 양양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보이는 구탄
봉에 송이를 따러 가서 송이를 한참 따고 있는데 비행기가 왔다. 정찰기인
L19 한대가 와서 양양 시내를 한 바퀴 도는가싶더니 무스탕 전투기 두 대
가 날아왔다.

그 무스탕 전투기는 상평 광산 쪽으로 가더니 비행기 머리를 내리 숙이
며 폭격했다. 그때 어린마음에 나는 산등성이에서 비행기가 볼까봐 소나
무를 안고 돌며 폭격하는 것을 구경했다. 그때는 큰길에 자동차만 지나가
도 구경하던 시절인데 이만한 볼거리가 어디 또 있을까하고 철없는 어린
나일 때 일어났다

그때 나는 어린 또래 아이들과 박격포알을 주어다가 분해를 했다. 마을
앞 너레바위 위에서 원통형 종이 케이스를 열고 박격포알 뒤쪽 바람개비
에 붙어 있는 장약을 뜯어냈다.

그리고 파란 종이 속에 화약이 들어있었는데 바위에 놓고 돌로 탁탁 치
면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이 재미있었다.

◆ 비행기에서 잘 보이는 흰옷을 입고 대밭으로 숨으러 간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찰기 한 대가 마을 한 바퀴 돌고 가는가 싶더니 뒤이어 전투기 두 대가 쏜살 같이 뒷산을 넘어왔다. 시커먼 구루망 전투기였는데 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큰 전투기는 처음 보았다.

우리는 바위 밑에 숨었고 어떤 아이는 엄마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앞마을 청임말 사람들은 뒷산 왕대밭으로 하얗게 올라갔다. 방공호가 거기에 있었던 모양이다. 그 비행기들은 청임말 사람들을 향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몇 번 돌며 폭격을 하더니 윗마을 담박골을 향해 또 공격을 하였다.

뒤에 들어보니 청임말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잘 내려다보이는 흰옷을 입고 대밭으로 숨으러 간 것이 화근이었다. 그때 아이를 가진 어느 엄마는 파편에 맞아 창자가 나왔다는데 호박을 쳐 메고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으나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또 담박골에서는 군복을 빨아 넣어놓은 것이 또 화근이 되었고 했다.



서면



- 이순형 (남, 82세, 서면 서선리)
- 면담일 : 2015. 4. 9



◆ 장작을 팔러갔다가 소와함께 짐꾼이 되어 정족산으로 갔다.

소에 질매[소나 말의 등에 얹어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안장]를 매어 장작을 싣고 친구 3명과 양양에 팔러 내려오니, 고모가 “너 지금 어느 때 인데 장작을 팔러 왔느냐! 빨리 집으로 가” 라고 하여 장작을 고모 집에 두고 서선리 집으로 오다가 내곡리 논에 주둔해 있는 한 군인이 나를 잡아놓고 하는 말이 이 탄약을 소 질매에 싣고 산으로 가자고 한다.

집에 질려 못 간다는 말도 못하고 탄약통(M1총탄)을 소 질매 한쪽에 3통씩 6통을 싣고 따라 오란다. 탄약통은 셋덩어리여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수동 정족산으로 올라가는데 험퍽거리는 소가 불쌍했다. 탄약을 내려놓고 내려오니 이번에는 또 수동에서 밥을 싣고 올라가란다.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서 가마니에 넣어 질매에 싣고 올라가니 날씨가 추워 주먹밥이 모두 얼어 있었다.

이렇게 집에도 못가고 5일 동안 밥과 탄약을 날랐는데, 얼마 후 공산군이 다시 쳐 내려온다고 하여 국군이 후퇴를 하면서 동네마다 불을 질러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다 피란도 못가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내 나이가 15세였다.

사촌이 HID 부대에 있어 그를 따라 피란을 떠났는데 강릉 강문에서 피란 생활은 너무 힘들었다. 먹을 것이 없어 군인이 소를 잡아먹고 머리를 버렸는데 그 것을 술을 걸고 삶아 먹기도 했는데 겨울이라 소머리가 며칠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도 맛있게 먹은 것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 따발총을 맨 인민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큰 외삼촌을 만나 다시 저녁부터 걸어서 고향으로 들어오던 중에 따발총을 맨 군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작은 외삼촌을 빈집으로 데려가서 간첩이라고 잘못 알고 취조를 했는데 다행이 오해가 풀려 나오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다시 걸어서 양혈리에 오니 날이 흰하게 새는데 인민군은 초소에서 즐고 있었다. 우리는 이 동네 할머니가 있는 집에 들어가 아침밥을 얻어먹었다. 그러나 낮에는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그 집에 숨어 있다가 해질녘에 용천 외가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서선리 집에 왔다. 집은 모두 불에 탔지만 어제가 보름이었다며 그나마 불에 안탄 이선형 집에 모여서 두부를 해먹었다.

◆ 할머니는 우리가 모두 죽었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3월이 되자 국군이 다시 들어왔다. 그때 국군 HID가 나를 보고 “너 화일리에 가서 인민군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와” 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화일리로 가서 숨어서 보니 인민군은 20명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오다가 권총을 찬 인민군 대장과 마주쳤다. 그가 한 사람씩 서라고 하고는 “너희들 왜 여기 왔는지 솔직하게 말하라” 라고 하여 우리는 왜왔는지, 누가 시켰는지 다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따라 오라고 하여 둔전리 쪽으로 길도 없는 산으로 가는데 어떤 노인을 잡아와서는 그 노인을 안내자로 앞세워 송암산으로 올라

가다가 다행인지 우리(서선리 2명, 장승리 3명)를 보고 가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서면 권총으로 쏠까봐 돌아서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뒷걸음으로 몇 발자국 물러서다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걸음아 날 살려라하고 돌아왔다. 집에서는 할머니가 우리는 모두 죽었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 산위에 떨어지는 보급품은 국군이, 산 아래는 인민군이 받아먹는다고 했다.

1952년 3월 강릉 안인에 피란을 갔다 와서 국군만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국군이 남쪽으로 가면 마음이 조마조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군이 와서 나를 따라 오라고 하여 논화리로 가니 거기는 이미 짐꾼으로 모집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 내 옆에 연곡이 자기 집이라 하는 아저씨가 전선을 지고 앞에 가면 그 뒤로 군인은 손으로 줄을 잡고 풀어가며 전화 줄을 땅에 깔면서 설치한다.

나는 선임하사 배낭을 지고 대공포관(4~5m×1m 크기의 두꺼운 천으로 비행기가 아군을 알아보라고 퍼놓는 표지판)을 맡아 매고 따라갔다. 백담사 쪽에서는 11사단이 패하여 외설악산으로 넘어온다고 했다.

비행기에서 대공포관을 보고 보급품을 떨어뜨리면 산위에 떨어진 것은 국군이 받아먹고 다른 쪽에 떨어진 것은 인민군이 먹는다고 했는데, 골짜기에는 인민군이 있어 내려가지 못했다. 그 당시 수도사단 1연대 10중대 화기소대에서 내가 짐꾼으로 일을 하던 부대는 전진을 못하고 대관령으로 후퇴한다고 했다.

그 후 우리 부대는 설악산 둔전리 안 골짜기에서 적군과 교전이 벌어졌는데 아군의 총알이 떨어져 총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미군 고문관이 권총을 중대장에게 주며 자기가 잘못하여 보급품을 못 받아 이 지경이 되었다고 자기를 쏘라고 했다. 하지만 중대장은 쏘지 못했다. 그때 미군의 군법이 엄격하다는 걸 느꼈다.



■ 탁홍영 (남, 76세, 서면 송천리)

■ 면담일 : 2017. 6. 21

이 글은 고 탁상호씨의 자제분인 탁홍영씨가 아버님이 6·25전쟁을 전후하여 체험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 북암령을 넘어 월남했다.

내 나이가 26세인 1948년 나는 서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 당원의 감시가 심한 북한사회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월남하기로 결심 아버지께 의논하고 서면 새덕 골짜기를 택하여 월남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길은 내가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길이다. 동생 상진에게 두 살배기 아기인 정자를 산 중턱까지 업어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상진이는 중간지점인 새덕까지 가서는 무서워 더 못가겠다고 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망대바우를 지나 북암령을 넘으면 설피밭(진동리) 삼거리이다. 때는 겨울이고 그것도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길에 눈까지 쌓인 경사가 가파른 비탈길을 오른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우리 부부는 죽을힘을 다해 두 살 된 아기까지 업고 눈길을 헤치고 9부 능선을 돌아 북암령을 넘어 설피밭까지 가서는 지쳐서 더는 못 가 주저앉게 되었다.

마침 아래 동네에는 화전민들이 몇 집 있어 그 집을 향해 “사람 살려!” 를 연발하며 도움을 청하였다. 어두운 밤 동네사람 몇 명이 설피를 신고 횃불을 들고 눈을 헤치고 마중을 나왔다.

그들의 도움으로 화전민 장씨 집에 도착하여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진 발을 콩 자루에 넣어 발을 녹이고 있는 동안 그 집에서 급히 조밥을 해 주어 허기를 면하게 되었다.

이튿날 방동리 처갓집에 갔다. 그러나 치안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매를 때리며 고문을 하며 북한 첩자가 아니냐고 실토하라는 것이었다.

마침 장인인 김우성이 방동 마을에서 양조장과 생필품 가게를 하여 큰 부자로 살고 있어서 치안대원들을 설득하고 각서를 쓰고 보증을 서 주서

서 쉽게 풀려난 후, 방동리에서 한 2개월 동안 생활을 하다가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주북리에 장인이 땅 1만 5천 평을 사 놓은 게 있어 그 중 8천 평을 집사람에게 주어 농사를 지으러 가서 고구마, 옥수수를 심고 2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 피란을 나가서 떨어진 고무신 때우는 일을 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여 피란길에 올랐다. 마침 장인은 공주군 사곡면 동해리 삼박골에 토지 2천 평을 구입해 두었다. 정감록을 숭상하던 장인(김우성)은 계룡산이 피란처라고 믿고 토지를 사 두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공주에 나가 있었다.

나는 공주 무성산 골짜기 용목동에 들어가 통나무로 귀틀집을 지었는데 일어서면 머리가 닿아 구부리고 있을 정도로 낮았으며, 집이라야 벽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통나무집에서 애기까지 낳았는데 이불도 부족하고 찬바람이 들어와 다른 애들이 서로 작은 이불을 잡아당기며 잠을 지는 바람에 갓난 애기는 그만 얼어 죽었다.

생활이 어려우니 애기 낳고도 산후 관리를 못해 아내는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처사촌 동생인 김병국이 노동일을 하여 미역과 쌀 몇 되씩 사다주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또 장모가 공주군 유구장에 갔다 오면서 애들에게 줄 과자 등 먹을 것을 사다주어 아이들은 외할머니를 늘 손꼽아 기다렸다. 전쟁이 한창이라 의용군이나 집꾼이 많이 필요한 때라 경찰은 자주 젊은이들을 잡으러 왔다. 그러나 나는 가족이 있어 잡혀가면 식구 생계가 어려워 갈수 없었다.

그래서 방바닥에 굴을 파고 판자로 덮고 자리를 깔고 농 짝을 올려놓고 그 속에 숨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평상시 아랫마을 사람들이 보초를 서면서 머리를 긁으면 경찰이 왔다는 표시로 신호를 주면 굴속에 들어가 숨어 지내게 되다보니 늘 긴장하며 아랫마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살아야 했다.

여름에는 옥수수, 감자, 콩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이웃에 사는 한용덕

이란 동료와 고무신 때우기 장수를 했다. 장판을 돌며 또는 집집마다 다니며 “떨어진 고무신 때우세요!” “떨어진 고무신 때우세요!” 를 연발하며 헌신을 모아오면 나는 고무풀로 고무신을 때우는데 기술이 별로 없다보니 잘 붙지 않을 때에는 여러 번 항의를 받아 그냥 돌려주기도 했다.

◆ 휴전 후 두고 간 딸이 엄마를 못 알아봐 한동안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전쟁이 소강상태가 되자 송아지를 구입하여 키워 우차를 만들어 땀나 무를 하여 장사를 하였고, 또 가을이 되면 마을사람들은 디딜방아와 연자방아로 벼 방아를 찼었는데, 마침 장인이 안마 라고 하는 4마력짜리 일제 원동기를 사주어 마을마다 신고 다니며 벼 방아를 찼어주었다.

여름에는 보리방아도 찼었고 제분기를 직접 제작하여 밀가루 방아도 찼어 주다보니 살림도 풍족해지자 살림살이까지 우차에 신고 딸을 지게 위에 태우고 1개월에 1회 정도 이사를 다니기도 하면서 돈을 벌었다. 또 집집마다 3~5대씩 직조기를 놓고 비단공장을 하였는데 목재 수요가 많아져 원동기로 목재 제재소를 세워 직조기에 쓸 목재를 공급하였다.

그러다가 사업의 규모가 조금 커지자 산판 허가를 받아 제재소를 차려 목수 길씨와 모씨를 고용하여 규격이 4자8치×2자2치 짜리 인 문짝을 며칠 동안 만들어 장날이면 4장씩 지고 공주군 사곡면 유구장에 나가 팔았다. 전쟁 후라서 집이 불에 타거나 파괴되어 곳곳에서 집 건축 붐이 일어 문짝이 잘 팔렸다.

휴전이 된 후 1955년 봄에 고향 송천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려주었고, 동생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없었다. 그리고 두고 간 딸 화자는 그간 키가 크지도 못 했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있었으며 엄마를 알아보지 못 하고 할머니 뒤에 숨으며 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르며 한동안 할머니 품에서 자라기도 하였다.



- 김성제 (남, 86세, 서면 서림리)
- 면담일 : 2017. 6. 14



◆ 하루에 3번씩 정족산 초소에 밥을 저 날랐다.

일제강점기시대에 일본사람들이 우리 동네 앞산 깊은 골짜기에 산판을 차려놓고 굵은 소나무를 비어다가 우리 마을 바로 앞산 중턱에 솔개미 차를 만들어 마을 가운데 터로 떨어지게 하고 그 자리에 제재소를 차려놓고 나무를 캐서 일본으로 실어 내갔다.

1945년 해방이 되어 38° 선이 그어지자 서림과 영덕사이에 초소를 지어 놓고 인민군과 국군이 서로 지키고 있었고 제재소를 하던 자리에 국군 중대본부가 있었다.

그때 국군은 강릉 8사단 예하 1개 독립중대가 150여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역이 워낙 넓어 군인 수가 모자라서 서림, 갈천, 명개 청년 72명이 특공대[대한청년단]를 조직하여 초소에 나가서 군인들과 같이 경계도 서고 호 구덩이를 파는 일도하고 군인들에게 밥을 날라다 주는 일도 했다.

군인은 각 지역에 파견 경계(정족산, 37고지, 서북고지, 반평초소, 후방고지)를 나가고 본부에는 군인이 몇 명만 남아 같이 근무를 했고, 취사반이 있어서 마을 어머니들은 그들을 밥해주는 일을 맡아했다.

밥은 보통 하루에 3번씩 해서 각 초소에 먼 거리는 1시간 30분 가까운 거리는 10분 동안 밥을 저 날랐는데, 정족산(1개 분대 9명) 1시간 30분, 반평초소(4~5명) 1시간, 37고지(4~5명) 30분, 서북고지(4~5명) 30분, 후방고지(4~5명) 10분이나 소요되었다. 정족산은 1개 분대 병력인 9명이 파견 근무를 하여 2명이 밥을 저 날랐고 나머지초소는 1명이 밥을 배달했다.

◆ 6·25전쟁이 일어나던 날 인민군들이 신작로에 4열중대로 내려왔다.

6·25가 일어나던 날 새벽 4시경 우리 집 앞 버덩에 폭탄이 광하고 떨어

졌다. 당시 중대에서는 GMC에 항상 실탄과 장비 등을 미리 실어놓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제 보초를 서고 집에 와 자다가 새벽에 어머니가 식사 당번이라 밥을 하러나가 시기에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나가니 인민군들이 신작로에 4열중대로 총도 쏘지 않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인민군인지 몇모르고 구경했다.

그 사람들이 쪽 내려오다가 GMC가 세워져있는 중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운전기사는 그때서야 그 들이 인민군인지 알고는 깜짝 놀라 차 뒤로 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밥 이구 뭐 이구 다 그만두고 식당 뒤로해서 집으로 돌아오셨고 병석중인 아버지는 내가업고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동생과 함께 어미 소 1마리와 새끼 송아지 2마리를 끌고 피란길에 올랐다.

피란을 가는 중에도 청년들에게 입대를 권하고 있어 형과 나에게 입대 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병이든 아버지를 보여주며 사정하여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고 그때 형님은 8사단을 따라 다니다가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형님은 후에 전사를 하고 말았다.

◆ 사람들은 배에 타고 소는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넜다.

구룡령을 넘어 청도 광운국민학교에서 1박하고 나니 서석 운두령에서 전투가 벌어져 아군과 인민군들이 교전하는 틈을 타서 장평, 제천, 단양 따바리굴[또아리굴:죽령 대강터널]을 지나 단양에오니 단양 마나강을 건너야 되는데 소를 배에 태워주지 않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소는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기도 했다.

안동역전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의 폭격을 맞기도 하였는데 그 폭격은 호주비행기가 오폭을 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 힘든 피란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먹을 것도 떨어지고 소도 키우기가 어려워지자 안동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1만원에, 남은 송아지마저 1만 5천원에 팔아 쌀을 사서 밥을 해먹으며 피란생활을 했다.

영천에서는 밤이 되자 사과밭주위에 인민군들이 주둔해 있는 것을 어

뭇게 알았는지 아군비행기가 주위를 비행기가 빙빙 돌고 나더니 새벽녘에 팡 하고 소리가 난지 얼마 후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 아침에 보니 많은 인민군 시체가 뒹굴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나는 소를 키우기가 힘들어 경산에 있는 과수원 주인에게 큰 소를 8만원에 팔았는데, 그때 쌀 1되에 100원정도 이니 쌀이 여덟 가마니 값이라 그렇게 큰돈을 만지니 걱정이 하나도 없었다.

대구에서 복진을 한다고 하여 아버지를 업고는 힘이 들어 도저히 양양까지 올 수 없자 경주에서 1박을 하고 포항에 들어왔는데 그때 포항은 폭격으로 잘라 녹아서 매랜도 없었다.

우리는 포항 부두가로 가서 군인 배를 타고 강구, 죽변을 거쳐 강릉 정동진으로 왔다가 다시 주문진으로 들어와 벽실령을 넘어 서림 집으로 들어오니 부친이 소를 다 팔고 없으니 소를 사자고 해서 피란을 나가지 않았던 이웃 오랍들사람들 집의 송아지를 3만원을 주고 샀다.



〈김성제씨 호국영웅기장증〉

◆ 박격포탄 5개를 지고 하루에 대청봉을 3번씩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동짓달이 되자 2차 피란인 1·4후퇴 때 또 부친을 업고 송아지를 끌고 나가는데 벽실령이 어떻게 미끄러운지 어쩔 수없이 송아지를 내버리고 면옥치 옥수수거리 속에서 1박을 하고 어성전 명주사 쪽에 있는 망령제를 넘어 달래(월천)로 해서 주문진에 나갔다.

나는 인민군이 내 미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업고는 도저히 빨리 피란을 갈수가 없게 되자 아버지는 나를 보고 너만이라도 살아야 되니 너는 빨리 남으로 내려가라고 하여 주문진에 있는 방공호에 가족을 남겨두고 울진까지 나가서 피란생활을 얼마동안 하다가 국군이 다시 복진을 할 때 주문진에 와서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루는 아침에 부모님께 생선반찬이라도 해 드리려고 바닷가에 나갔다

가 군인에게 잡혀가게 되자 나는 부모님의 사정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자 나는 군인 가는 것은 좋은데 부모님 얼굴이나 보고 가겠다고 하여 군인과 함께 부모님이 계시는 곳까지 와서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하고 군인을 따라 갔다.

그 군인을 따라가 보니 수도사단 기갑연대로 주둔지는 양양 율리였다. 군인들은 나를 트럭에 싣고 오색 가재골에오니 거기는 하마(벌써) 취사반이 있어 주먹밥을 받고 80mm 박격포탄을 5개씩 지고 대청봉으로 지고 세 번을 오르내렸다.

그때 나는 옷이 다 떨어져 맨살이 나오게 되자 미군 바지를 주는데 얼마나 큰지 아주 헐렁하게 입고 다녔는데 이때 같은 마을 김경춘, 이형섭 그리고 3대대소속인 이대영도 같이 짐꾼으로 대청봉을 오르내렸는데 나는 당시 거기서 제일 젊고 어렸으니 쏘리로 있을 수 없느냐? 하니 그래 그럼 너는 2대대 미 고문관 쏘리를 하라고 하여 고문관 배낭을 지고 따라다니게 되자 조금은 편해졌다.

◆ 미 고문관 쏘리를 하는 바람에 살아나왔다.

이때 국군이 주둔한 지역으로 쌍다리 비행기가 보급품을 떨어주는데 바람이 불면 양식인 건빵 등 가벼운 것은 날아가 인민군주둔지역에 떨어지고 아군 쪽으로는 실탄만 떨어져 밥을 굶게 되니 어이가 없었다.

그러다가 밤에 인민군에게 포위되었는데 총소리가 요란하고 수류탄 폭음도 들렸는데 나는 고문관을 따라 한발자국을 옮길 때 마다 수류탄을 까던지면서 오색으로 내려왔고 부대는 풍비박산이 되었지만 나는 쏘리로 있는 바람에 무사히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때 같은 마을의 이대영이는 인민군 포로가 되었다. 제1집결 장소는 율리였는데 같은 마을 이형섭이는 취사반 화목을 하러갔다가 지뢰가 터져 등뼈가 나간 것을 단가에 실려 취사반에 모포가 덮혀 놓혀있는 것을 보았다.

전쟁이 끝난 후 형섭이가 죽은 것을 나밖에 모르니 애까지 있는 형섭이 부인에게 내가 형섭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어 형섭이 부인에게

개가하도록 말해주었고, 3대대 이대영이는 인민군에게 끌려 다니다가 나중에 도망을 나왔다고 했다.

제1집결지에서 다시 후퇴하여 제2집결지인 강릉 구산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부대가 대관령으로 올라가는데 밤중이라 GMC가 저속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서 애이라 모르겠다하고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그때 나는 현역 군인도 아니니 내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표시도 안 날것이다. 그렇게 부대를 이탈해서 천신만고 끝에 주문진 부모님에게로 가니 우리 가족은 방공호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효자가 되려고 그랬는지 주문진에 와서 3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 내손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4식구가 서림 앞 벽실령을 넘어 서림 집에 돌아왔지만 집은 불에 타 다 없어져 당장 살 일이 막막하였다.

나는 그때 마침 매형이 생기면서 그와 토막집을 두 칸을 짓고 살고 있다가, 22세 때 우리 윗마을 처녀와 혼례를 치루고 다시 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연천 대광리에서 군대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였다.



- 손종관 (남, 91세, 서면 서림리)
- 면담일 : 2017. 6. 17



◆ 1·4후퇴 때 소 4마리를 끌고 피란을 나갔다.

그 당시 서림리는 남한 땅이었었는데 6·25전쟁이 나자 구룡령, 은두령을 넘어 속사리까지 피란을 나갔는데 인민군이 앞서나가니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에는 인민군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마을에선 지방 빨갱이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

1·4후퇴 때 피란을 가는데 소 4마리를 끌고 큰 소등에 질매를 얻고 쌀을 댓 말 싣고 나가다가 마을마다 피란을 떠난 빈집에 들어가 밥을 해 먹고, 소는 부엌에 매어놓아 눈을 피했으며 소도 전쟁이 나서 피란을 가는 걸 아는지 잘 따라와 주었다. 당시 눈이 많이 내려 벽실령을 넘어 인구, 주문진까지 나갔으며, 옥계에서 피란하는 집에서 주인집 영감이 송아지를 잡아먹자고 하니 안 줄 없어 그냥 잡아먹으라고 주고 나니 이제 소는 큰 소만 남았다. 그 집에서 1박하고 묵호로 가서 냉촌에서 1주일을 묵었다.

울진까지 나가면서 식량이 떨어지자 얻어먹으며 가다가 밥을 얻지 못하면 굶기도 했는데 7남매에 부모님까지 식구가 10명이나 되어서 밥을 얻어먹기도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자고 하여 돈을 조금 받고 소를 잡아 고기를 팔기도하고 그냥 주기도 하였고, 또 군인들이 황소를 250만원에 팔라고 해서 “너희들 그냥 먹겠다는 거냐? 너희들 부모님 생각 안 나?” 하면서 다투다 5만원을 더 받고 팔았다.

◆ 인제 백봉령으로 가서 차가 다니는 도로에 제설 작업을 했다.

그 당시 서림은 강릉군에 속해있었는데 신서면장 김남원과 같이 피란을 나왔는데 김남원 면장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는 더 갈 필요가 없다고 하여 부모님과 동생들은 그곳에 두고 우리 부부와 여동생이 먼저 들어오는 도중에 안인에서 피란민 중에 인민군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있어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강릉 경포대까지 오니 국군 8사단이 주둔해 있는데 우리 부부는 군부대에서 밥을 해서 날라다 주는 일을 했고, 동생은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남의 집 아기 보는 집에 보냈다. 안인에서 국군이 나를 필요하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할 수 없이 인제 백봉령으로 가서 차가 다니는 도로에 눈치는 일을 시켰다. 거기서 동네사람인 김동준과 이장영을 만나 눈을 치는 일을 하고 강릉 성산에 내려왔는데 오늘밤 전쟁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나다니지 말고 조심하라고 국군이 알려 준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인민군의 습격으로 전투가 벌어지자 우리는 납작 엎

드려 있었는데 한참을 있다가 조용하여 일어나 보니 군인들이 후퇴를 하고 있기에 그들을 따라 강릉으로 돌아오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집으로 가다가 잡히면 또 군인을 따라가서 부역을 해야 하므로 증명을 해 달라고 떼를 썼더니 ‘귀향증’ 을 해 주어 물어 물어 가족을 찾아다니다 천신만고 끝에 삼척 동막골에서 가족을 만났다.

◆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 후 명예제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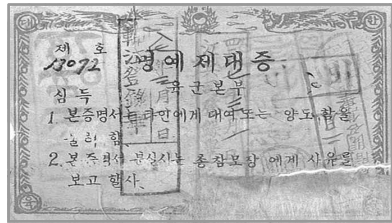
우리는 전쟁을 목격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방 지역은 너무 무서워 온가족이 울진으로 다시 나갔다. 울진에서 1개월을 묵으면서 아버지가 소를 키우기가 힘들다고 팔자고 하여 아버지가 소를 팔아 피란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냉촌에서는 먹을 게 없어 지자 남의 집 머슴을 살아 1년 농사를 지어주고 쌀 3가마니를 받고 다음 해에는 5가마니를 받기로 했는데 군입대영장이 나왔다.

마침 경포지서 주임이 손 씨인데 집안 아저씨였다. 경찰서에서 배를 내어 제주도 훈련소에 가니 동네사람이 몇 명 있었다. 훈련소에서 3개월 훈련을 받고 하사관학교에 입교했다.

하사관 교육이 힘든 건 알았지만 일선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청하여 2개월 동안 하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8사단으로 배치되었다. 2살 아래인 동생뻘 되는 동료 보고 전투 중에 부상자가 생기면 무조건 그 부상자를 부축하면서 환자를 따라 후송을 같이 하여라! 그래야 오래 살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17세에 일본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손종관씨 명예제대증 (앞면)〉



〈손종관씨 명예제대증 (뒷면)〉

다시 나는 1사단으로 발령을 받아 경기도 고양에 가서 보니 사병들은 죽고 없는지 장교들만 남아 있다. 예비부대에 배치되어 후방으로 나왔는데 부대에서 빠리 빠리 한 사람 7명을 뽑아 특공대로 선발되어 밤에 인민군 초소에 침투하여 적군을 생포해 오라는 명령을 받고 야음을 타서 침투하였다.

철조망을 넘어야 하는데 보초는 졸고 있는 듯 적막이 흐르고 있다. 나무를 주어다 철조망을 누르고 첫 번째 침투요원이 넘다가 호에 빠져 죽고, 두 번째 요원은 철조망에 다리가 걸려 지뢰가 매설된 것을 건드려 터지자 그때 보초가 깨어나 다발총을 난사하여 여러 사람이 다쳤다. 나는 목에 총알이 지나가고 손에도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M1 소총을 잡았는데 피가 꿀꺽꿀꺽 하고 나오는 것이다.

다발총알은 계속 날아오자 대원들은 납작 엎드려 뒤로 기어 내려와서 점검을 하니 1명 사망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나는 바로 헬리콥터로 대구 27육군병원으로 후송 1개월 후 명예 제대하였다. 지금도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다 올라가지 않는다. 전상군경 7급이다.



- 강봉진 (남, 87세, 서면 장승리)
- 면담일 : 2017. 6. 19



◆ 모를 심으려고 논에 들어가는데 총 소리가 났다.

38° 선이 그어지면서 강릉군 신서면 갈천리에도 집집마다 1명씩 배당되어 경비를 서게 되었다. 노인·청년 불문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이면 경찰과 합동으로 경비근무를 하였다.

6·25전쟁 며칠 전 김두한과 황노인(봉관)이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 한 명은 문을 지키고 그때 다른 한명인 노인은 안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 김두한이 찾아가서 아저씨! 하고 부르니 대답이 없어 방

문을 열려고 하니 인민군이 총을 겨누며 ‘너 누구야!’ 하면서 김두한과 노인을 인질로 방안에 가두어놓고 그들은 칼국수를 먹고 못나오게 하고는 어디로 나갔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조용하여 밖으로 나와 경비대에 알려 몽둥이를 들고 서림 쪽으로 내려가니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있는 지 4일이 지났다. 서림에 가서 쌀과 부식을 정족산에 있는 8사단 10연대에 운반해 주고 눈에 모를 심으러 갔다. 그해 가물어서 좀 늦었으나 증골 눈에 모를 심으려고 눈에 막 들어가는데 총소리가 나서 늘 그러하듯 오늘도 붙었구나. 생각하고 모를 심기 시작했다.



〈면담중인 강봉진씨〉

그런데 다른 날과 달리 총소리가 가까이 들리며 자주 났다. 일꾼들은 일을 못하고 궁급해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온다. 김남원 면장이 와서 난리가 난 것 같으니 피란을 가라고 한다. 밥을 술에 가득해 뵈는데 어이가 없다.

◆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은 대가 끊어진다.

대충 옷을 갈아입고 쌀, 냄비, 장을 챙긴 다음 소를 끌고 산골짜기로 갔다. 거기 숨어 있다가 영을 넘어 명개리에서 밥을 먹었다. 집에 밥을 한 술 해놓고 영까지 넘어와 나무 밑에서 밥을 해 먹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동생이 7살인데 업고 가다가 창춘에 도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매워 피란을 가는 것이다. 운두령에서 비가 심하게 쏟아져 비를 피해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서니 못 들어오게 한다. 할 수 없이 찬비를 맞으면서 운두령을 넘어갔다. 그 짧은 놈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의 빨갱이였다.

갖은 고생 끝에 영천까지 내려가니 쌀이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김남원 면장과 어느 기관에서 근무를 했다는 서면 영덕 사람인 김학수가 그 지역 면장과 유지를 찾아가서 쌀과 곡식을 얻어와 피

란민들에 끼니를 도와주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우리들을 위해 마을에 다니면서 밥을 얻어왔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영천 다리 밑에는 서림, 황이, 갈천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보리를 베어주고 모도 심어주고 3일을 보냈다. 그 속에는 8사단 10연대 군인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적이 가까이 못 오게 싸우면서 피란민을 지키고 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군인을 뽑는데 지원하라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식구를 덜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피란을 더 나갈 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더군다나 자식이 없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은 문이 닫아(대가 끊어지다)진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 황이리 운보가 군인 가자! 하여 14명이 지원했다. 세 식구가 밥을 먹고 나니 군인이 데리러 와서 어머니께 말하고 차에 타니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다.

◆ 여름옷을 입다가 솜바지를 받으니 너무 좋았다.

며칠 후 바지저고리 입은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다. 거기서 대대를 창설했는데 형제는 물론이요 어떤 이는 부자가 온 집도 있었다. 옷은 민간인 옷을 그냥 입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서림경비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M1소총은 눈감고도 조작할 수 있는데 박격포는 처음이었다.

4일 동안 훈련 받고 9월 1일자로 군번을 받고 군복과 통다비[전투화]를 지급받아 낙동강 전투에 투입되었다. 낙동강 전투에서 양쪽 군인들이 많이 죽어갔다. 처음엔 총도 없이 전쟁에 투입되어 탄환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우리부대가 경기도 연천에 들어올 무렵에 M1총과 실탄을 몸 어깨에 감을 정도로 충분히 받고 수류탄 2발씩과 그리고 배낭과 밥 해먹을 항고까지 지급 받았다.

황해도 미처 못가서 높은 고지로 밤낮 없이 걸어서 이동했다. 취사병이 밥을 제때에 하지 못해 주먹밥을 배급 받았다. 10월인데 춥기 시작하여

숨이 들어간 방한복과 목인 긴 운동화 같은 전투화를 지급 받았다. 여름옷을 입다가 솜바지를 받으니 따뜻해서 너무 좋았다. 미군의 옷이라 너무 커서 줄 일수도 없었지만 젖은 옷을 말릴 시간도 없어 젖은 채로 풀면서 전진하였다.

평안북도 강계에서는 눈이 발목까지 왔다. 1개 소대씩 경계를 서는데 새벽녘에 어디서 나팔소리가 나니 전우들이 눈이 등그레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연락병이 모이라 해서 가보니 “이제부터 후퇴한다.” 하니 모두 기가 죽었는지 맥을 못 쓴다. 얼마를 왔을까 밥을 먹어야 하는데 해먹을 시간도 없고 신발이 젖어 발이 물 커서 말이 아니었고 쉴 시간도 없다.

밤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 밥을 하려고 하는데 나무도 없고 주위는 어두워 밥도 못 해 먹었는데 동이 트기시작하자 그냥 생쌀을 나누어 준다. 마을은 꽤 큰데 앞산에서 ‘따콩 따콩’ 하고 총소리가 나고 잠시 후에는 사방에서 따콩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 불과 몇 100미터 내에서 나는 소리였다.

◆ 그때 내 다리를 잡았던 전우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밥이고 나팔이고 뛰는데 중대 작전관이 “화력이 적은 쪽으로 뚫어라!” 하면서 한쪽을 정하여 가라는 명령을 하니 모두가 은폐하기 적당한 방향인 2~3m 높이인 보둑 솔이 뺨뺨하게 들어선 쪽으로 몰려 뛰었다. 한참 뛰어 8부 능선까지 갔는데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 여기서 아이쿠, 저기서 아이쿠! 하며 쓰러진다.

하늘에서는 소나무위에 쌓였던 눈이 흰 솜같이 날아다닌다. 그때 나는 몸이 후끈한 것을 느꼈는데, 같이 뛰던 옆 전우가 같이 가자고 발을 잡는다. 나도 느낌이 이상해서 몸 이곳저곳을 만지니 피가 손에 흥건하였는데 옷에도 피가 묻었다. 그때 내 다리를 잡았던 전우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나는 다리를 움직여보니 빠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둔부 쪽인 엉덩이에 총알이 관통한 것 같아 압박붕대를 칭칭 감아 지혈을 하고 난후 총알 일부는 버리고 M1소총과 총알 1켄을 가지고 능선을 오른 후 골짜기

를 내려가자 눈이 나왔다.

이때 능선에서 군인들이 태극기를 매고 내려 왔는데 누구냐 물으니 ○○중대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수류탄이 터지면서 거의 다 죽었다. 먼저 가던 전우들은 죽고 뒤에 떠던 전우들은 돌아서 눈 쪽으로 뛰었다.

알고 보니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태극기를 가지고 골짜기로 유인하여 수류탄을 던져 감쪽같이 적군에게 당한 것이다. 아픈 것도 잊은 채 동서남북이 어딘지 정신없이 얼마를 달렸는지 큰길이나왔는데 그 지역은 평안남도 맹산지구로 기억된다.

◆ 도저히 갈 수 없으니 나를 죽여 달라!

헌병이 보여 아군부대에 합류하니 부상병을 구별한다. 같은 소대원인 전라도 출신인 ○○를 만났다. 헌병이 확인해주고 차가 없으니 사과 1개를 주며 이쪽이 남쪽이니 걸어서 가라고 한다. 같이 온 전라도 ○○전우는 “너 혼자 못 간다고 때를 써라. 그러면 한사람 같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헌병이 “병력이 없어 안 돼!” 하였다. 나는 ‘그럼 도저히 갈 수 없으니 나를 죽여 달라!’ 그랬더니 ‘그럼 한사람 데리고 가! 그래서 그 전라도 전우와 같이 가게 되었고 그 사람은 나를 50M쯤 업고 가다가 쉬기도 하였다.

소여물 때가 된 시간이 되자 마을이 나왔다. 집들이 줄지어 있는데 모두 피란을 가고 빈집들이었는데, 기차 길을 넘어 가더라도 한 집에서 연기가 났다. 회벽에 함석집인데 축진 하고 찾아들어가니 3칸에 반 퇴가 달린 집에 문이 걸려있다.

사람은 없고 불려도 안 나와서 문짝을 발로 차니 문이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불을 때고 있다. 방은 깨끗하고 다담이 방인데 젊은 놈이 고개도 안 돌리고 불만 때고 있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불을 때느냐? 물으니 대답이 없다. 그래서 불 때는 놈의 옷을 찢어 묶고 방안을 뒤지니 쌀이 있고 책자 같은 것이 있어 거기에 적혀있는 것을 자세히 보니 그 지역 인민위원장인 것 같은데 40~50살은

때 보였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밥도 못 해먹고 총소리를 내면 위험할 것 같아 전라도 전우가 그놈을 칼로 찔러 죽이고 쌀을 가지고 나왔다.

◆ **아까정끼(머큐로크롬)만 바르고 마당에서 2일을 잤다.**

그 다음 부터는 다리가 떨리고 걸을 수가 없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오는데 멀리서 자동차 불이 보이면서 이쪽으로 다가와서 숨어서 보니 국군 지프차였다. 우선 차를 세워 타고 보니 장교 같은데 계급장은 없고 권총만 차고 있다. 우리는 그가 주는 건빵을 먹고는 바로 잠이 들었다.

그가 깨워서 일어나니 “너는 이제 살았다.” 하기에 눈을 떠보니 사방이 전깃불이 환했다. 어디냐고 물으니 여기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라 했다. 병원 직원은 거의 피란가고 없고, 같이 온 전우는 부대를 찾아 귀대하고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온다는 핑계로 후방으로 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다 피란가고 약 20명 정도의 환자들이 아프다고 야단을 치니 1시간 후 앰블런스 같은 차가 와서 열차 있는 데로 가니 사과 2개씩 나누어주고 열차를 태웠다. ‘야 이제 살았다! 하고 잠들었다. 열차에서 내리니 대구 육군병원이었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당에 무시로(가마니를 뜯은 것)를 깔고 째 찼다. 아까정끼(붉은 소독약 : 머큐로크롬)만 바르고 마당에서 2일을 지새웠다.

◆ **강릉출신 군의관이 너 양양사람이구나!**

다시 마산 수도육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은 3층짜리 고등학교 건물이다. 피가 마르니 옷이 뻣뻣해졌고, 난방은 석탄과 흙과 반죽을 하여 불은 때고 있었으며, 병상으로는 야전 침대를 2명씩 엇 거꾸로 사용했는데 나는 하필이면 동상에 걸려 살이 썩어가는 환자와 같이 침대를 쓰는 바람에 냄새가 코를 지독하게 자극했다.

내 상처는 둔부 쪽으로 총알이 맞고 빠져나가 피가 응고되었는데, 그때 병원 군의관이 키는 몽탕하고 야무지게 생긴 강릉사람인 최○○대위가

내 병부일지를 보았는지 “너! 양양사람이구나.” 하며 잘 해주었지만 둔부로 충알이 빠져나간 구멍에 심지를 박은 것이 성이 났는지 병원에 들어온지 8개월 만에야 겨우 완치되었다.

◆ **마산병원에서 같이 입대한 고향사람인 창원이를 만났다.**

그런데 상처가 다 나아갈 무렵에 이 마산병원에서 고향인 서림에서 피란을 같이 나왔다가 같이 입대를 한 창원이를 만났는데 창원이는 이병원에 환자로 들어왔다가 병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퇴원을 한다니 나와 같이 퇴원을 한다고 하여 내가 야 니 좋은데 있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하니 그래도 나와 같이 붙어 다니려고 퇴원을 한다기에 그럼 너 마음 대로 하라고 하여 같이 퇴원하여 부산 제2보충대로 같이 갔다.

그 보충대에서 2일을 묵고 나니 싹 집합하라고 하면서 학력조사를 하는데 대졸, 고졸, 중졸 등으로 조사를 하는데 나는 왜정 때 간이학교를 다녔다는 생각에 에이 빌어먹을 놈의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 중졸로 손을 들었다.

이때 창원이도 고졸은 너무 심하다고 하면서 중졸로 손을 같이 들어 나하고 같이 차출되어 차를 타고 어디론지 가는데 어느 군인이 “야 너희들! 팔자고 쳤다.” 고 하는데 우리가 공병학교로 간다는 것이었다.

◆ **“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루살이다” 하면서 기를 죽인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김해에 있는 공병학교에 입교하게 되자 당장은 전쟁터로는 안 가게 될 것 같았다. 공병학교에서는 지뢰 매설 법, 다리 놓는 법, 철수하는 법 등을 교육받았다. 교육이 끝나고 5사단 공병대에 같이 배속되어 인제에 갔더니 입구에 붙인 구호가 한문으로 공격소대라고 써져 있었다.

나는 창원이 보고 야 너 인제 죽었다! 저 봐라! 구호 봤나? 공격소대다. 야! 또 죽을 판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부대에 들어가니 소대장이 그러는데 “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루살이다” 하면서 기를 죽이는데 그러나 나

중에 알고 보니 간판만 공격소대지 대대 보초 선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대에서 운전해본 사람 나와라! 하기에 저 운전합니다! 하고 나가니 나온 군인은 모두 30명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정 때 석탄 차를 보기만 했지 운전을 해본적은 없지만 손을 들었다. 그 중에는 입대 전 차 조수를 한 사람도 나왔다. 그때 내가 운전병으로 가게 되어 창원과 떨어지게 되자 섭섭하였다.

◆ 불이 번쩍 나게 얻어맞으며 20일간 운전을 배웠다.

그렇게 30명이 운전교육대에 입교하였지만 군기가 얼마나 센지 육군 이등상사라는 작자가 교관인데 이놈이 얼마나 악질인지 잘못하면 군화발로 정강이를 차고 오른쪽 귀때기는 아주 내놔야 했다.

개뿔도 모르는 놈들이 운전을 할 줄 안다고 지원을 했으니 본인도 가르치는 것이 힘이 들었던지, 잘못할 때마다 편치가 날아와 눈에서 불이 번쩍 나게 얻어맞으며 20일간 운전을 배웠다. 도로 연습할 때는 인제에서 고성까지 다녔는데 출발하면 왜 그리 시동이 잘 꺼지는지 그때마다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별부터 받았다.

도로운전교육 때 우리조가 탄 트럭이 간성에서 양양까지 운전해 오는데 어떤 전우가 낙산고개에서 교관이 차를 세우라고 했다. 그리고 “출발!” 하니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어찌할 시간도 없이 산 쪽으로 쳐 박혔다.

그때 나를 포함한 차에 승차했던 대원들은 차가 미끄러지기 전에 뛰어 내려 다치지 않았고 다행히 한명만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얼마 후 렉카 차가 끌고 부대로 들어왔는데 이 사고를 겪은 후 부터 그렇게 악질적으로 굴던 이등상사는 사고를 당하고난 후부터는 대원들에게 심하게 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혹독한 운전교육을 마치고 육군 소위가 시험 교관이 입회하는 실기시험에 단번에 합격하여 군인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그 후 5사단에 수송부가 창설되어 강릉에 가서 차를 수령해 오라고 하여 강릉에 가니 GMC가 새카맣게 서있는데 마음대로 골라 가라고 하여

차를 인계받아 인제에 있던 수송대대는 영을 넘어 양양 낙산 조산학교 터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

그 후 다시 거진으로 이동하여 5사단 각 부대에 보급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휴전이 되고 1년이 지난 후 지리산에 공비들이 준동하자 5사단 병력을 지리산에 전투에 투입할 때 병력을 수송하고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진행 중 이던 1954년 5월 1일자로 제대하였다.



- 이춘우 (남, 91세, 서면 서림리)
- 면담일 : 2017. 6. 14



◆ 주문진에 가서 장을 보고 등짐을 지고 벽실령을 넘었다.

8·15해방 후 서림은 38°선이 영덕을 지나갔기 때문에 아랫마을인 영덕에도 갈 수가 없었다. 그 때는 서림, 황이, 갈천, 명개, 조개리가 강릉군 신서면으로 속해 있어서 벽실령을 넘어 주문진을 다니며 여성전까지 쌀이나 생필품을 차로 싣고 와서 서림까지는 등짐으로 지고 왔다.

영덕 38°선에는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마주보고 지키고 있었는데, 인민군은 높은 봉우리에 있고 국군은 아래쪽인 냇가에 주둔해 있었다. 이남지역인 서림동내는 특공대를 조직하여 순경과 특공대원들이 한조가 되어 잠복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 신서면장 처남이 인민군에게 잡혀갔고 같이 근무 중이던 청년은 아래로 굴러 떨어져 겨우 살아 도망을 오기도 하는 일이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경찰과 한청[대한청년단:16세부터 청년들이 가입]이 경계 근무를 하고 교대하고 와서 자는데 새벽 4시 38°선에서 총소리가 나기에 한청 대원들이 출동하여 가보니 벌써 서림리까지 인민군이 와서 할 수 없이 도망쳤다. 그때 인민군은 숫자도 많았고 아군은 경찰

만 총이 있었고 한칭은 무기도 없는 맨손이었다.

◆ 함경북도 덕천까지 북진을 했다.

집에 와서 빨리 피란가자고 소리치자 가족들은 발 방아로 곡식을 찧다가 그냥 두고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피란을 가는데 인민군들이 피란민에게 무자비하게 총질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군인과 함께 가고 가족은 가족대로 피란을 나갔다.

나는 총알과 밥을 굶어지고 군인들 따라가다가 군인이 총에 맞아 죽으면 그 옷을 그냥 입고 계급도 그냥 달고 총도 들고 전쟁에 참여했다.

인민군에게 밀려 경상도 안양면에 까지 내려가서 대구에서 군번을 받고 7사단 3연대 2중대로 배속을 받아 대구서부터는 북진을 시작해서 북한 평양을 지나 백두산을 향하여 함경북도 덕천까지 북진했는데 중공군이 산속에 숨어있다 나오는 줄 몰랐다. 중공군은 앞서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다음 군인이 나오고 또 죽으면 다음 사람이 나서고 죽 여도 죽여도 나오니 어떻게 하지 못했다.

◆ 중대병력 130명중 장교 2명과 사병 5명만 살아 나왔다.

그러다 중공군이 포위작전을 감행하려고 사방에서 피리를 불고 총소리가 다가오는데 어찌할 수 없었다. 시체는 여기저기 널려있고 신병들이 대부분이라 총을 쏘아도 잘 맞지 않았고 그 중에서 어떤 신병들은 M1총 8발을 다 쏘면 “선임하사님 총이 망가졌어요!” 하면서 총을 다룰 줄 모르는 군인도 많았다. 전쟁이 한창인데 총알 장전해 줄 겨를이 어디 있는가? 제대로 군인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이다.

전투상황이 악화되자 종전에는 모두들 멋대로 뽄뽄이 헤쳐졌고 몸에 지고 있던 쌀을 한 움큼 씹 먹어가다가 무거운 총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총을 버리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 무거워도 총과 수류탄은 버리지 않았다.

쌀이 떨어져 풀, 나무껍질을 먹으며 3일을 굶으면서 후방인 개성까지

와 보니 중대병력 130여 명 중 장교 2명과 사병은 5명뿐만 살아서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죽은 모양이다.

◆ 가칠봉 전투가 끝나고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개성에서 인원을 보충 받아 전투에 임했지만 다시 후퇴하여 강원도 인제 기린 현리 전투에서 또 포위되어 부상을 당하여 홍천 야전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대구 27육군 병원에서 입원 완치되어 부산 보충대에서 3사단 18연대(백골부대)에 배치되어 일등중사가 되었다가 전쟁 중에 소대장이 전사하자 소대장 역할도 했다.

1951년 양양에 입성하였다. 그때 양양은 전체가 불타서 잿더미만 보였다. 오색리에서 배치되어 경계근무를 하다가 양구로 이동하였을 때 가칠봉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공격하여 탈환하면 밤에는 인민군에 기습을 당하여 빼앗겨서 후퇴를 하고 3번



〈호국영웅기장증〉

씩이나 점령을 했다가 후퇴하기를 수차례 되풀이하였다. 그때 마다 많은 전우들이 죽어갔지만 적군과 아군의 가칠봉 전투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한번은 우리 분대 원 9명이 해질 무렵에 수색을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데 인민군들도 피곤에 겹쳤는지 보조병이 줄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총을 빼앗으니 순순히 따라와 부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2명을 포로로 잡아 휴양소로 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가칠봉 전투가 끝난 후 나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많은 전우들이 희생되었지만 나는 살아서 나온 것만도 다행한 일이었다. 6·25전쟁 전 서립리는 청년들이 40~50명 정도 있었는데 전쟁 후 살아남은 청년들은 불과 몇 명뿐이었다.



- 조흥식 (남, 83세, 서면 수상리)
- 면담일 : 2015. 4. 16



◆ 1950. 7. 15 양양중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6·25한국전쟁이 발발하고 20일후인 1950년 7월 15일 양양중학교를 졸업을 하였는데, 졸업장에 이수 과목과 점수가 5단계로 표시되는데 품행점수가 불량하면(4점 이하) 졸업이 아닌 수료증만 받았는데, 1개 반에 3~4명은 수료증을 받았다.

아침학습 시간에 소년단, 민청생활,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하였는데 남한은 부자만 잘살고 못하는 사람은 깡통을 찰 정도로 거지가 많다고 했다.

학생 자치회는 소년단 위원장, 민청위원장, 벽보주필이 있었다. 제식훈련은 인민군 장교가 파견하여 지도하였고, 고등학교는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하면 소대를 지휘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입대하였다. 중학교 졸업할 때 비행기가 폭격하여 양양여중 솔밭에서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그 당시 정찰기가 하늘에 떠 다녔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굴속으로 재빨리 피신하는 반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교사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았다.

◆ 학교에는 기마대가 주둔해 있었고, 그 말들이 대포를 끌고 이동을 했다.

양양중학교 교장이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덕원농림학교 교장으로 이동 발령이 났는데, 그 학교 교사가 강현중학교에 와서 덕원농림학교 입학시험을 보게 하여, 동급생 몇 명이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나는 그때 걸어서 덕원농림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밭에서 김을 매는 실습을 하는데 비행기가 폭격을 했다.

학교에서는 9월 20일 휴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다시 친구 김석호와 하루에 100리 썩 걸어서 집에 왔다. 집에 와서는 부모님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각 학교는 인민군이 주둔해 있었다. 양양실천여학교는 기숙사까지 기마대대가, 상평학교는 기마중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인민군은 대포를 말이 끌고 이동하기 때문에 말이 꼭 필요했다.

◆ 인민군 패잔병은 민간인 옷으로 위장하고 가다.

국군의 진격으로 인민군은 쫓겨 가기 시작했다. 국군은 7번 국도를 따라 빠르게 진격하고 인민군은 산 쪽 길로 퇴각하는데 민가에 들어가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갔다. 각 학교들은 군인들이 주둔했다.

상평국민학교는 1개 대대가 주둔하여 학생들은 광산 빈집에서 공부하였다. 양양국민학교도 인민군이, 양양여자중학교는 인민군 기마대대가 주둔하여, 양양중학생은 2부제 수업을 했다. 덕원농림학교에 1개월 다니다 휴교하여 집에 돌아와 농사일을 도왔다.

후에 국군이 입성하여 상평국민학교에 1개 연대가 주둔했다. 1·4후퇴 후 남한은 자유스럽고 부자만 잘살고 자동차가 많다. 그러나 거지는 많아도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산다고 월남한 사람들이 돌아와 남한은 자유스럽더라고 알려주었다.

◆ 날씨는 춥고 잘 곳은 없어 타지 않은 변소에서 잠을 잤다.

면 치안대가 피란가라고 하여 떠났다. 외가가 토지를 몰수당하였으므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란을 떠났다. 부모님은 그릇, 옷을, 나는 쌀 2말을 지고 부모님을 따라 삼척까지 피란을 갔다. 그때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았다.

1951년 1월 집을 태우는데 치안대가 태우지 못하게 말리지도 못했다. 2~3일전에 피란가야 하니 물건들을 꺼내서 밭에다 묻었다. 입을 옷만 두 겹께 입고 2~3일만 있다온다고 저녁에 출발했다. 동네 사람, 친척들도 모두 피란을 떠났다. 날씨는 춥고 잘 곳은 없어 타지 않은 변소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 피란민 중에도 은연중에 남쪽 편 북쪽 편으로 갈리었다.

도시는 폭격을 하니 도시는 피하고 산길을 따라 피란을 갔다. 가는 도중에 골짜기에 빈집이 남아있어 그 곳에서 하루씩 자고 갔다. 구장(이장)의 말이면 절대적이었다. 피란민 중에도 은연중에 남쪽 편 북쪽 편으로 갈리었다.

강릉 작은 외가에 갔다. 3개월을 지내고 봄에 상평 집으로 돌아오니 집은 재로 변해 있었다. 집에 탄 자리에 남아있는 구들장 위에 움막을 짓고 피란가기 전 묻어두었던 쌀을 꺼내어 양식으로 했다.

국군이 또 후퇴를 하니 피란을 가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무자로 잡혀 오색령으로 식량, 탄알 등을 지고 최전선으로 날랐다. 약 20일을 노무자로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현지에서 입대하였는데 나는 17세여서 집에 왔다가 또 간단한 짐을 지는 짐꾼으로 가자고 하여 또 총알을 지고 전선에 나갔다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결말이 나더라도 아무튼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한국 사람만 희생된다. 한국 전쟁으로 일본만 부자가 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사는 게 좋겠다.

■ 김종호 (남, 80세, 서면 수리)
■ 면담일 : 2015. 6. 8



◆ 남한유격대가 들어와 학교를 폭파하여 내현리 빈집에서 공부했다.

나는 수동 삼밭이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9세 때 해방이 되고, 11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나를 돌보아주시다가 13세에 돌아가셨다. 이듬해인 14세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인공 때는 상평인민학교에 다녔는데 나이가 많아 특별반에 입학 1년간 1~3학년 공부를 하고 2년째 4학년

에 월반하였다.

하지만 늘 지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삼발이에서 상평까지는 멀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는 하천에 다리가 없어 질러가려면 돌고지 물을 건너고 범부로 넘어가는 된님이 고개를 넘고 범부 물을 건너는 등 다섯 번 물을 건너고 오솔길로 돌아서 학교에 다녀야했다.

상평인민학교에 갑 반, 을 반이 있는데 을 반은 1~3학년 과정을 1년에 마치고 4학년에 월반하는 학년이다. 상평학교에 다니다 너무 멀어서 현북도리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그때 남한유격대가 들어와 학교를 폭파하여 내현 빈집에서 공부하였다. 다시 수리 인민학교가 인가가 나서 가까운 곳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상평인민학교도 인민군 대대가 주둔하여 양양철광산에 있는 극장에 가서 공부할 하는데 매일 30리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멀어 매일 지각이었다. 늦게 가면 자아비판을 해야 했다. 그러다 수리인민학교에로 전학을 하니 너무 좋았다.

1949년 여름 수리 인민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중학교에는 못가고 농사일을 하며 풀 베기와 화전 밭 매기 그리고 나무하는 일을 도왔다. 부소치에 로스케(소련군)가 주둔하고 있어 큰 누나가 원일전으로 시집갈 때 38° 선을 넘어가야 하는데 가마를 조사하고 보냈다.

그러나 17세인 둘째 누나는 양양 서문리에 시집갔는데 며느리가 일을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밥도 안주고 동네사람들이 인민재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못한다고 말하니 한사람이 올 소! 하면 모두가 올 소! 하여 며느리가 잘 못 했다고 하여 이혼 당해 와 얼마 후 산길로 38° 선을 넘어 장리에 시집을 보냈다.

◆ 인민군들이 우리 집 마루에 박격포탄을 가득 쌓아놓았다.

1950년 5월에 북에서는 약 100여 명씩 남쪽으로 보내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내다보면 군인들이 줄지어 행군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리 병력을 남쪽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주민 3가구는 아랫말로 보내고 자기들이 차지하여 우리는 작은 할아버지 댁 사랑방에 가서 살았다. 우리는 이북 정치를 싫어했다. 아버지가 ‘조선조 말엽 정감록에 12당에 들지 말라’ 는 말이 있다하여 공산당에 들지 않았다.

6·25전쟁이 일어나고는 별 일없이 농사일을 했는데 1·4후퇴 때 피란가라고 하여 이장네는 소 질매에 짐을 싣고 피란을 떠났다. 숙부가 월남했고 누나들이 남쪽 원일전과 장리에 시집가서 살아서 쌀 3말을 지켜주며 장리 누나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다.

내현에 가니 군인들이 못 가게 하여 돌아오니 우리 집에는 포병들이 집을 차지하여 마루에 박격 포탄을 가득 쌓아놓았다. 이튿날 망태를 지고 발독을 살살 기어 도리를 지나 장리 누나 집에 갔는데 군인들은 없었다.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피란가라고 하고는 집에다 불을 질러 놓는다. 원일전리에 가도 불을 썬놓는다. 초가집에 소이탄을 쏘니 삼시간에 불이 붙었고 기와집에 불이 붙으니 기와 장에서 총소리처럼 탕 탕 하고 소리가 났다.

◆ 족보와 효부교지를 부엌 단지에 묻고 피란을 갔다.

어성전에서 1박하고 입암리에서 1박하고 나갔다. 부모님은 하루 늦게 떠나 내현, 손양을 지나 해안을 따라 강릉 쪽으로 가서 이산가족이 되었다.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 있을 때가 없어 집으로 가자고 하여 죽현리, 주문진, 정자리에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1박씩 하고 집에 돌아왔다.

동네사람들이 모두 불이 안 탄 집에 모여 살았으며 산에 굴을 파고 살기도 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3월에 오셨다.

그러다가 국군이 또 밀려 피란을 가게 되었는데 족보와 가보로 여기는 효부 교지를 부엌에 단지에 쌀과 함께 묻어놓고 피란을 갔다. 이번엔 얼마 가지 않아 돌아왔는데 쌀은 누가 꺼내 먹고 교지는 물이 들어가 젖어 있어 잘 말려서 보관하였다.

그러나 우선 집을 지어야 했다. 방바닥에 흙을 걷어내고 나무토막으로 쌓아올려 움막 2칸과 부엌은 우데기를 쳤다. 나무는 내 것, 네 것 없이 아

무산에서 베어다 지었다. 할아버지는 족보를 단지에 넣어 보관하고 못자리를 만들어 놓고 논물도 보시는 일까지 하셨는데 그때 할아버지 연세는 75세쯤 되셨다.

우리는 원일전리 큰누나 집까지 갔다. 그때 장질부사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 시체 거들 사람이 없어 아버지가 가서 거두어 밭에 토롱(임시로 만든 간단한 무덤)을 하였다. 그러다 아버지가 전염되어 앓아누우니 아버지가 모내기 성군인데 할 수 없어 동네사람들이 품앗이를 안한 다구 하여 세집이 모내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다행이 아버지는 나으셨고 다른 식구들은 전염되지 않았다.

◆ **인민군을 잡아 소원이 뭐냐 고 하니 인민공화국 만세를 3번 외친다.**

1950년 가을 인민군이 쫓겨 갈 때 전투 없이 차를 타고 북진했는데 낙동강까지 갔던 인민군이 해안으로 가지 못하고 산간으로 가는데 부연동 가마소에서 수리까지 와서 뒷전의 예문리로 해서 오색으로 가려는데 이때 백골부대가 수동에 주둔했는데 인민군이 모르고 수리로 온 것이다.

그때 국군 매복지로 향하여 인민군이 들어오자 뚝 방이 높은 곳에서 국군이 손들어! 하고 소리치자 멀리 도망가는 인민군 쪽으로 박격포로 쏘서 1명은 탄 봉서 죽고 4명은 가둔지로 뛰어가고 1명은 콩 가리 속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나오라고 하니 안 나와서 국군이 들어가 부상당한 인민군을 끌어내어 소원이 뭐냐? 하니 그 인민군은 “조선 인민공화국 만세” 를 3번 부르기에 총을 쏘서 죽였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방공호로 들어간 것을 끌어내어 부상당한 인민군을 아래 골에 데려다 너는 거제도까지 갈 처지가 못 된다고 하면서 총살 시켜버렸다.



- 이대영 (남, 87세, 서면 서림리)
- 면담일 : 2017. 6. 17



◆ **갈천 배낭골에서 3달간 숨어 살았다.**

서림리는 38° 선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마을인데 나는 8·15 해방이 되고 20세가 되기까지 아버지와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며, 이때 형님은 국군 경비대에서 교통호를 파는 작업도 하고 경비대 초소에 실탄과 밥을 운반해 주는 일을 했다.

나는 1950년 6월 1일 지인의 소개로 영 넘어 황성에 있는 황성농업중학교에 입학하여 겨우 25일 다니고 있던 중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27일인지 28일인지 그맘때 벌써 인민군들이 황성까지 내려오자 학교가 폐쇄되어 보따리를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 인민군들이 이미 제천까지 나갔다고 하여 미처 피란을 못 나간 사람들은 인민군 뒤로 따라가야 되는 판국이라 우리가족과 일부 마을 사람들은 피란을 나갈 수가 없게 되자 나는 국군이 진격해 올 때까지 갈천리 구룡령에서 제일 큰 배낭골 이라는 골짜기에 산판을 하던 움막 같은데서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3달간 숨어서 살았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갔지만 나는 작은어머니가 날라다 주는 감자를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그때 만약 숨어살지 않았으면 필시 인민군대에 끌려 나갔을 것이다. 얼마 후에 국군이 들어온 다고하여 갈천으로 내려가니, 자동차를 타고 들어온 국군이 나를 인민군으로 오인하여 총을 겨누었다. 그들은 내가 뻑뻑 머리이기 때문에 인민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인민군이 아니고 학생입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가니 국군이 같은 동네 친구인 안익순과 함께 짐꾼을 하라고 하면서 쌀 4말을 지고 양양까지 내려갔으나 부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민간인은 썩 보내라고 하여 군인들한테 짐을 인계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 다음부터는 또 국군들에게 짐꾼으로 잡혀 갈 것 같아 차 소리만 나면 큰길로 다니지 않았다. 그때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안익순 이라는 친구는 동네에서 2~3년을 더 살다가 가족들과 남쪽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 피란민들이 인민군에게 밀려 고성까지 피란을 갔다 왔다.

당시 강릉에 약 5만 여명이 집결되어 있던 국군은 차를 타고 북진했지만 인민군은 산속으로 걸어서 후퇴하니 인민군이 국군보다 뒤떨어졌다. 그래서 피란민들은 인민군에게 밀려 통천에서 고성까지 피란을 갔다가 죽다가 살아오기도 했다.

당시 인민군들은 큰길보다는 38° 선 이북지역의 태백산맥줄기를 따라 산속에서 북으로 후퇴하자 미 해병대가 통천에 상륙하여 반격하자 인민군들은 회양으로 넘어가 재정비했다가 가을에 또 나왔다고한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미군과 국군이 반격하자 인민군들이 북으로 후퇴하며 도주 할 무렵 인민군 패잔병들이 서림동네를 들이닥쳐 이 동네 사람들이 지난 6·25남침 때 피란을 나간 사람들의 눈에 벼까지 몽땅 털어서 저장해놓은 것을 약탈하며 뒷산으로 도망가려는 것을 총으로 무장한 동네 한청대원들이 격퇴시켰다,

당시 이 지역에서 주둔했던 8사단 기갑연대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으로 서 있던 반 장갑차 책임자로 있던 일등중사가 기관포로 패잔병들에게 사격을 하자 인민군들은 아군주력부대가 있는 줄 알고 도망가기가 바빴다.

그때 한청 경비대원들은 국군이 인민군들과 전쟁기간 중에 인민군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노획하여 총과 탄약을 땅에 묻어놓은 것을 파내서 무장을 했고 그 당시 한청대원들은 남한과 북한의 모든 총을 다 사용할 줄 알았다.

◆ 이갑영은 일본군 출신으로 한청대원을 지휘한 훌륭한 애국자였다.

당시 서림리에 살고 있던 이갑영이 총책임자가 되어 신서면 5개 마을인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 명개리, 조개리의 청장년들을 모아 소대장과 분대장을 임명 책임자를 정하고 경비대를 조직 도주하는 인민군들과 여러

번의 교전을 통하여 수 십여 명의 패잔병들을 사살하는 성과를 거양하다.

이때 우리가 사살한 인민군들을 동네에서 30~40이 넘는 대원들과 노인들이 즉시 개울가 모래 불에 얼른 묻어 흔적을 지워버렸는데, 이는 나중에 인민군들이 알게 되면 이 동네사람들이 몽땅 화를 입을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한청경비대 책임자 이갑영은 40세 정도로 1945년 4월에 일본군에 입대하여 해방될 때 북해도에서 돌아온 사람으로 그가 책임자가 되어 조직한 한청대원을 지휘하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점호까지 취하면서 군기가 든 조직으로 만들었기에 인민군들을 소탕하는데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이었다.

또한 이갑영은 15여명의 대원으로 시작해 약 50여명 넘는 인원으로 성장하게 되자 자신을 중대장으로 자처하며 인민군에게 많은 병력을 보유한 것처럼 기만술을 써서 인민군들을 속여 대원들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그가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가 버글버글한 옷을 벗어 이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후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슬픔에 젖어있는 그에게 마을사람들이 모두 함께 애도를 표하며 위로하기도 했으며, 이갑영이도 후에 우리 건너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신 훌륭한 애국자였다.

◆ **군번도 없고 명예도 없었지만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싸웠다.**

앞서 국군과 미군들이 반격할 때 인민군들이 통천에서 미군해병대에 막혀 회양으로 도주하였다가 다른 인민군부대와 함께 재정비하여 다시 산을 타고 내려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갈터를 점령했다.

당시 기갑연대는 그 지형을 잘 아는 지역경비대 분대장을 한명씩 국군 수색조에 편성하여 함께 수색정찰을 수행하며 적과 오랜 교전 끝에 엄청난 전쟁을 겪으며 인민군이 타고 다니거나 짐을 싣고 다니던 말과 각종 장비들을 노획하여 기갑연대가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우리 민간인은 그 전투에서 싸우다가 며칠도 되지 않아 죽을 것

같았고 그렇게 죽으면 헛 죽음이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더라도 당시 우리들은 군번도 없고 명예도 없었지만 그저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만으로 인민군과 치열한 전쟁을 한 것이다.

◆ **깜깜한 밤이 되자 군인들이 깔아놓은 전선줄에 불을 붙여가며 영을 넘었다.**

그해 12월이 되자 9사단은 인민군에게 밀려 구룡령 방면으로 후퇴를 반복하며 진부까지 전투를 하며 후퇴하였고, 기갑연대는 당시 동해안에 포진한 미 함정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해안선 지역인 양양을 경유하여 남으로 후퇴 하였다.

1·4후퇴가 시작되자 군인들은 동네 주민들의 집까지 불태우고 난 다음 피란을 가도록하여 우리 식구는 소를 끌고 벽실령을 넘다가 영이 험하고 길이 미끄러워 끌고 가던 소를 버리고 피란을 나갔다. 캄캄한 밤이 되어 앞이 안보이자 군인들이 깔아놓은 전선줄에 불을 붙여가며 좁은 길을 따라 어성전을 경유 강릉까지 나갔다.

◆ **어머니가 나에게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면서 가족과 헤어졌다.**

1·4후퇴 때에는 군인들과 함께 피란을 나갔으며 시일이 지나자 쌀이 떨어져 밥을 얻어 와야 하는데 나는 창피해서 굶기가 일수였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식구가 많으면 고생을 한다고 내가 군인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허락하여 기갑연대를 따라 다니기로 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나에게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면서 작별인사를 하고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다.

강릉을 지나 삼당령을 넘어 임계에서 삼척으로 가는 도중 눈 속에 얼어 죽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밤에 국군들이 민간인들에게 밥을 해먹이면서까지 짐을 지켜서 백복령을 넘으려 했지만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은 국군들의 작전(정보)이 엇갈리면서 오락가락하다가 백복령으로 짐을 지고 가족을 데리러 가다가 민간인들끼리 인민군이 온다는 헛소문에 당황한 나머지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갈팡질

팡 헤매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민간인들은 직접 전투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데 인민군이 다 죽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 인민군점령지에 가족이 고립되자 가족을 데리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그러나 당시 인민군들도 민간인들이 묶고 있는 집이나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민간인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우리 가족은 다행스럽게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삼척까지 피란을 나갔다고 한다.

◆ 징발된 민간인노무자는 옷에 증거를 표시하고 박격포탄을 저 날랐다.

나는 이 무렵 소대장의 배낭을 지고 다니다가 들쭉에 뛰어 다니는 주인 없는 소들을 보았는데, 이 소들을 그냥 두면 인민군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지 않아 우리 부대원들이 먼저 여러 마리를 잡아먹으며 건강하게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그 후 중공군의 대공세 때 우리 기갑연대는 강릉을 지나 대관령을 넘어 하진부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다시 강릉으로 넘어오려고 하니 중공군에게 길 이 막히자 고참(선임)들이 중공군을 무찔러 길을 터서 후퇴 시켰다. 통상 전시에 신병들은 힘을 쓰면서 진격을 잘 하지만 후퇴 즉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고참병들이 더 힘을 발휘한다. 이때 적은 중공군이 인민군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겨우 포위망을 뚫으며 강릉에 오니 학교 운동장에 집합시켜놓고 강훈련을 시키며 봄이 되자 신분증이 있는 징발된 민간인은 몸에 ‘증’ 자를 써 붙이고 오색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나는 기갑연대 제1대대 제4중대 81미리중화기중대에 배속되어 박격포탄을 5개씩 지고 설악산을 오르내리며 전투를 하다가 중공군 대공세에 아군 1개연대가 포위되어 하진부까지 후퇴하였는데, 때는 못자리에 모가 뽕족이 나오고 있을 무렵이었다.

◆ 오색 관터에서 인민군에게 잡혀 다시 인민군 짐꾼이 되었다.

그때 나는 퇴각하는 부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설악산에서 포로가 되고

말았다.

우리 부대 주둔지는 대청봉 그 밑에 꽤 높은 산(관모봉)이었는데 그날은 모처럼 암자(영혈사 암자)가 있는 좋은 샘에서 항고에 2사람분의 밥을 하려고 쌀을 씻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기관총 소리가 났다.

당시 나는 김동건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해먹을 때인데 쌀이 2사람분이면 항고 뚜껑으로 2뚜껑 인데 김동건은 나보다 나이가 열 살이 많은 사람으로 앞서 내가 서림에서 민간경비대에 근무하면서 인민군 패잔병들을 소탕할 때 인공 치하에서 민청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국군들이 죽이려고 하자 기가 바짝 죽어있을 때 내가 나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여 내가 살려준 사람이다.

김동건은 아군이 복진을 할 당시 북으로 피란하였다가 도로 나온 사람으로 당시 민청이라면 총살 감이지만 내가 살려준 은인라고 이 사람은 내가 어물어물하면 벌써 밥을 해주며 나에게 대접을 잘 해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민군이 기습을 할 때 후퇴하는 퇴각하는 기갑연대 대열에 합류했지만 결국 나는 모처럼 동떨어진 곳으로 밥하러갔다가 고립이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바위굴에 들어가 숨어서 2일을 지냈고 그러다보니 한 10끼는 굶은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많이 굶어도 웬만한 행동은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래 살려고 절대로 막 안 먹고 생쌀 2뚜껑을 양말에 넣어서 조금씩 아껴 먹어가며 숨어 살다가 잠잠한 틈을 타서 굴 밖으로 나오니 비행기 소리만 들리고 국군은 보이지 않아 하산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인민군에게 잡히면 할 수 없고 안 잡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판사판인 심정으로 하산하기로 했다.

설악산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땅 전체가 거의 지뢰가 많이 묻혀있는 지역이라 주로 바위 돌만 밟으면서 오색 관터의 솔밭으로 막 내려오는 찰나에 인민군인 듯한 4명이 “손들어!” 라고 소리를 지른다. 나는 속으로 (증)지를 떼어 버리고 머리를 깎았으니 내 뿔까 말까하다가 “저는 군인이 아닙니다.” 하고는 잡혀가 보니 관터 둔덕위에 있는 인민군 사단 사령부였다.

◆ **바삭 마른 싸리나무나 뽕나무로 불을 때면 연기가 잘 안 난다.**

사령부 막사에 들어가니 인민군 연대장이 “동무네 연대장 무사히 나간 것 같나요?” 하자 나는 짐꾼이라 모르겠다고 하자 그 밑에 부관인 듯 한 자가 “무사히 나갔겠지요?” 하고 말한다.

전쟁 중에는 국군이나 인민군들도 민간인들을 잡아다 짐꾼으로 써먹기는 마찬가지인지 이 인민군들도 나를 보고 실탄 통을 짚어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놈들이 날 죽일 놈들은 아니라고 혼자 생각했다.

나는 몸이 정상이면 짐을 질 수 있지만 밥을 10끼를 굶었다고 하니 인민군 연대장이 “이런 망할 놈에 새끼들 국방군 놈들은 밥 두 안 먹이고 전쟁을 했나?” 하면서 으스스대듯이 욕을 하며 “야! 밥 줘! 여기 경건이(북한에서 밥반찬을 이르는 말) 없어!” 라고 한다. 나는 경건이가 무엇이나 하자 국방군 그 새끼들 경건이도 없이 전쟁을 하나? 라고 소리를 친다.

나는 밥을 먹고 나서 우의를 입고 탄통을 지고는 연대 사령부 소속 장교(중위)1명과 중사 1명에 졸병 2명의 인민군과 같이 행동을 하며 따라 다녔는데, 특히 장교는 나를 잘 돌봐주었다. 박달령을 넘어 설피밭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비행기 때문에 연기를 못 내니까 바삭 마른 싸리나무가지를 구해서 밥을 했는데, 제일 좋은 뽕나무로 불을 때면 연기가 잘 안 난다.

나에 일행은 5명인데 책임자에게 뭇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해주었더니 나를 동생처럼 대해 주었으며, 믿음을 주어 감시가 허술하게 했다. 또한 처음에는 이들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으나 제까진 것이 가 보아야 어디를 가겠느냐고 하면서 나중에는 감시가 소홀해졌다.

부대는 비행기 폭격을 피하려고 주로 나무숲이 우거진 오색 박달령을 넘어 설피밭과 구룡령을 넘어 아침가리 광원까지 산악지대를 진군을 하면서 아군 비행기들에게 25여 번의 폭격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다리가 떨려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산길은 인민군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정 코스이다.

◆ **“해방군동무 여기서 정선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아침이 되자 구룡령을 넘어 아침가리를 지나 광원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관령, 진부, 유천, 월정사로 들어가는 3거리까지 갔다가 대관령에 아군 탱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대관령 방향 쪽으로는 뚫지 못하고 우회해서 연곡까지 갔다.

연곡에서 계급이 높은 듯 보이는 땀이 흠뻑 젖은 놈이 2명이 와서 콩과 강냉이를 20가마니 구해 놓아라! 하고 명령하는데, 당시 연곡 사람들은 집집마다 농사를 지어놓고 피란을 떠난 후라 거의 빈집을 텅타시피 하여 콩과 강냉이 20가마니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인민군들은 다시 월정사 쪽으로 가는데 장교가 “해방군 이 동무 여기서 정선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동무는 아직 나이가 있는데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 고 하면서 정선 가면 나를 슬그머니 보내주겠다고 약속한다.

나는 의도적으로 장교에게 밥을 더 많이 주어서 장교가 밥을 남겨서 나에게 주게 되면 졸병들은 의례히 내 눈치를 보게 되는데 나는 이를 미리 알아채고 졸병들에게 밥을 주어 선심을 샀다.

옥수수만 그냥 끓이면 불려 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 딱딱해 먹기 힘들기 때문에 깨끗이 씻은 바위위에 물을 조금 붙고 옥수수를 넣고 돌로 으개서 끓이면 부드러운 쌀 밥 같이 되어 쉽게 먹게 해 주니 그들이 “강원도 사람이 다르네.” 하면서 칭찬까지 해 주면서 한 식구처럼 되어 가다보니 이제부터 나에게 대한 호칭도 “이 동무” 라고 부른다.

◆ 나는 10끼를 굶어봐서 식량이 없이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민군 부대는 창촌 이라는 살골 길에서 길을 몰라 나에게 해방군 이 동무 앞장서라고 하여 앞으로 나갔지만, 나는 알아도 모른다고 할 판인데 연대장 앞에 가서 캄캄해서 모른다고 했다.

그래도 이놈들이 지도를 보며 갔는지 날이 썰 무렵에 진부 쪽으로 가니 솔밭에 국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못 가져간 쌀이 남아 있었다. 당시 국군이 후퇴할 때 인민군이 대전차 무반동총으로 앞에 가는 장갑차를 폭파하자 뒤에 있던 국군들이 혼비백산하여 장비는 그냥 두고 산속으로 후퇴를 한

것이다.

그리고는 아군 비행기한테 연락을 해서인지 인민군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를 폭격해서 몽땅 태워버렸다. 그러나 출발 속에 남아있던 쌀은 인민군들에게 5항구씩 나누어 주었다.

그 후 미 공군기가 계속 폭격하며 인민군들을 괴롭혔다. 나는 10끼를 굶어 봤기 때문에 식량도 없이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만약에 인민군들이 도망을 갔다가 먹을 것이 없어 기어 나오는 것을 보면 인민군들은 용서 없이 죽인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5인분으로 1인당 2되씩 쌀을 1말 정도 지급받았는데 그 장교는 나를 짐을 많이 못지게 하여 쌀과 실탄 1통을 지고 인제까지 가야 하는데, 오늘밤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 그 사람은 내가 목숨 맡고는 다 내어줄 수도 있는 은인이다.

저녁 식사 후 L19 비행기가 빙빙 돈다. 인민군들이 아무리 연기가 안 나게 마른가지를 이용해 밥을 한다고 하지만 병력 전체가 밥을 하게 되면 뽀얗게 연기 같은 것이 보이니까 하늘에서 정찰을 하던 L19 비행기 5대가 연락을 해서인지 창춘에 주둔한 국군들이 105미리 포로 집중사격을 가하였으나 다행히 몸은 무사했다.

나는 여기서 나가면 38°선 이란 것을 안다. 장교는 나를 짐을 많이 못지게 하였으나 나는 실탄 1통과 쌀을 질방을 만들어 매고 지는데 특히 쌀은 꼭 묶고 실탄은 빠져나가게 허술하게끔 묶었다. 장교가 “이 동무 괜찮겠냐?” 하며 나를 걱정을 해 준다. 일행들은 서로 줄을 잡고 밤길을 따라 걸었는데, 그때 나는 소련제 군화를 신고 있어 발은 편했었다.

출발을 하고 한 50M쯤 갔는데 아군 포 부대에서 미리 영점을 잡아놓고 사격을 하는지 행군하는 인민군들 지역으로 정확하게 포탄이 날아오는데 대낮같이 환하게 포탄을 쏟아 붓는다.

사방에서 아우성소리가 나는데 나는 도로가 옆 도랑물이 흐르는데 거기를 내려뛰니 실탄은 빠져나가고 쌀자루만 붙어있다. 개울 건너 바위가

있어 뒤에 숨었다. 그때 장교가 “이 동무! 이 동무!” 하고 계속 부른다. 당시 5개부대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포격으로 인하여 불바다인 외중에서도 나를 걱정하며 부른 것이다.

전시인 상황에서 그 장교는 나와 행동을 같이하는 동안 나를 끄찍이 보호를 해 주었으며 단 들이 있을 때 나에게 다음에 기회에 되면 숨었다가 집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라! 하고 나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인도한 이름도 모르는 군관 동무가 고맙기 그지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내가 목숨 맡고는 다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은인이다.

더구나 그 장교는 나에게 짐을 지키면서 소련제 군화까지 구해줘서 발바닥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인민군 사병들은 신발이 좋지 못해서 부대가 진군을 하다가 힘이 들어 쉴 때마다 선전부 중대장과 문화부 중대장이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동무들이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내색을 하면 군 사기가 떨어지니 조국해방을 완수하려면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정신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내가속한 부대는 수시로 38연대 또는 79연대로 2개 명칭을 사용해 아군들에게 혼선을 주려고 2개 부대 행세를 했다.

◆ 할머니 문 열어 봐요! 내가 할머니가 나를 내다보는 것을 다 봤어요!

그 후 나는 흠뻑으로 현리 귀둔으로 들어가는 골짜기에 숨어있다 나오니 무슨 중얼 중얼 소리가 났다. 이상하다 싶어 보니 인민군 소위의 인솔하에 약15명 정도 가고 있었는데 나는 당신네 왜 이제와! 바쁜데. 하고 큰 소리를 치니 그들은 “아 우리는 저 골짜기로 올라가서 밥해 먹고 가려고 이제 온다.” 라고 한다.

나는 바로 우리 부대는 포격이 심해 여기서 숨었다 날 썰 무렵에 후퇴하려고 저 아래에서 집결하는데 너희들은 밥해 먹고 빨리 가라! 하고 호통을 치니 그들은 나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인민군들은 내가 높은 사람들이나 쓰고 다니는 인민군모자에 머리카락도 길고 소련제 위커를 신고 코트처럼 생긴 긴 우비를 입고 있으니 나를 높은 장교나 또는 정보장교로 본 것이다.

한참을 걷다보니 저쪽에 민간인 집이 보여서 가보니 문에 붙인 조그만 유리창 속에서 밖을 내다보는 눈이 보였고 밖에서는 인민군이 맷돌에 옥수수를 타개고 있어 내가 “야 이놈아 지금 어느 뎬데 여기 있어!” 하고 큰 소리를 치자 그 인민군은 부상을 당한 친구가 다쳐서 옥수수를 밥을 해 먹이려고 타개고 있다고 하면서 타긴 옥수수와 덜 타긴 통 옥수수를 가지고 겁에 질려 낄 소리도 못하고 간다.

나는 빨리 가! 라는 큰 소리를 치며 문 유리창을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가 보여서 할머니 문 열어 봐요! 내가 할머니가 나를 내다보는 것을 다 봤어요! 나는 이집 식구가 방공호 속에 숨어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군화 신은 채로 앉아서 나는 할머니 밥 좀 주세요! 할머니가 방공호 속에 있는 식구에게 줄려는 밥 있잔 우! 하자 내가 높은 사람인줄 알고 건추 국밥에 김치짬지가 나와 군화신은채로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서 나는 고단해서 잠깐 자고 갈 테니 국방군이 쏘는 포격 소리가 나면 나를 깨우고 밖으로 나가서 숨어야 되요! 하면서 나는 그레야 포격을 할 때 이 할머니가 틀림없이 반공호로 떨 테니 그때 나도 그 방공호에 같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 그러면 나중에 이 집에 불을 확 지른다고! 큰소리를 지르고는 바로 깊은 잠이 들었다.

◆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며 중공군 옷차림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후 얼마나 지났는지 포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사방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포탄이 막 떨어져 황급히 뒷문을 열고 나가니 아무도 보이지 않아 바로 앞 골짜기를 올라다보니 소가 다닌 길과 소똥이 보여서 마을이 있을 같아 올라 뛰는데 포탄이 사방에서 비 오듯 했다.

그렇게 뛰어서 올라가다보니 석가레만 걸린 빈 집이 보이고 바위 뒤에 큰 소가 매어 있는 곳으로 가니 한 60먹은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내가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위에는 널찍하고 평평한데 1천여 평은 되어 보인다.

순간 나는 그 할아버지가 나를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인민군 모자를 벗어 핵 던지며 이런 것도 모자라고 주나! 하며 노인 옆에 앉으며 개새끼 들 이걸 모자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내가 인민군으로 보여요? 하면서 내가 14일간 끌려 다니다 지난밤에 포격할 때 탈출했으니 이 쌀로 밥을 해주고 날 숨겨주세요? 하니 노인은 쌀자루를 받아 쥐면서 나를 따라 와요! 한다.

아마 그 할아버지도 인민군이면 골짜기로 뛰면서 길을 따라 도망을 치겠지만 나는 인민군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오니 아군 쪽 사람으로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집은 8칸 집인데 부엌이 넓었고 며느리와, 손자 딸이 있는데, 이들은 방 위군에 끌려갔다고 한다. 나는 쌀자루를 부엌에 놓고 그 노인이 나를 숨으라고 하여 산비탈로 올라가 짚단 가리에 짚단을 들어내니 방공호 속에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 이미 한사람이 숨어있기에 서로 인사를 하라고 소개한다.

그 사람은 지방 사람인데 통성명하고 난후 몇 시간 있다가 방공호에 있던 사람이 갔다. 그 사람은 노인과 같은 마을 사람으로 그 사람 집은 중공군과 인민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 겁이 나서 이곳에 피해 있었는데 내가 들어오니 서로가 불편한 것 같아 나간다고 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니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였으나 만약 그 사람으로 인해 최악에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집 노인과 가족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생각하니 안심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밥은 날이 새기 전과 어두운 밤에나 가져오게 되니 하루 2끼씩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잠시 후 노인의 발자국소리가 아닌 땅이 크게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나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며 중공군 옷차림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

◆ 상하이에서 모택동 군대에게 잡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다.

순간 가슴이 화끈하며 야! 이놈으로 인하여 인민군에게 끌려가 죽을 생

각을 하니 머리가 멍해졌다. 뭐라고 말을 걸기에 모른다고 하니 나오라고 하여 얼른 나가니 나를 앞세우고 따라 온다.

나는 내가 만약 도망을 치면 노인과 이집 가족인 며느리와 손자 딸도 바로 죽일 것을 생각하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날은 어둑어둑 한데 노인 집에 들어가니 화롯불에 첩을 올려놓고 다른 또 한 놈이 있다.

똥똥하게 옷을 잔뜩 해 입은 이 중공군들은 똥똥해 멀리서 이 집 주변을 주시하며 사람들이 방공호를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며 상황파악을 대충하고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를 데리러 온 것이다.

중공군들은 미군 파커와 모포까지 가지고 있어 이놈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는 알 수 없고 순간순간이 초조하기만 했다. 서로 말은 잘 안 통하였지만 눈 동작과 손짓 등의 행동으로 교감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별의 별생각을 다 하며 이놈들이 공산군인 적군 쪽인지 자유진영 쪽인지를 가늠하며 그렇게 한 1시간동안 있더라니 그중 한 놈이 날 보고 앉자있던 다른 놈에게 데리고 가 악수를 권했다.

그때 노인은 담배만 빼꼼빼꼼 피면서 전혀 겁먹은 눈치가 아니다. 나는 노인보고 ‘야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니 노인은 애들이 부대를 이탈한 도망병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그들은 파카옷의 실밥을 뜯고 한문자로 쓴 종이를 꺼내는데 신분증이였다. 나는 일정 때 서당에서 동몽선습을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새파란 종이로 만든 중화민국(대만)국부군 신분증을 보이는데 그들은 상하이에서 모택동 군대에게 잡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다.

국부군 출신으로 한사람은 29세이고 운전수를 했다는 사람은 30세로 장개석군 이었다. 나는 중국말은 몰랐지만 대만군 아이들은 미군, 기관총, 이승만이라는 한국말을 했다. 그들은 미숫가루를 가지고 먹으며 지냈으며 자기들은 대만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 긴장 속에서 1시간이 흐른 다음 노인에게 물으니 애들은 국부군 같다고 했다. 긴장이 풀리고 나자 그래 좋다 하면서 서로 먼저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이들은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려고 미리 준비한 미숫가루를

먹으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중에 매고 다니던 미제 모포 2장을 주며 한 장을 깔고 한 장은 덮고 자려고 나에게 대접을 잘 해준다. 나는 속으로 이들과 행동하다가 만약에 인민군에게 붙잡혀도 중공군과 같이 있으니 별 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도 대포소리는 가까이서 들리고 있고 먼 아래에서는 기름 드럼에 들어있는 중유가 타는지 불이 타고 있다. 중공군들은 궁금한지 내려가 보자고 하나 나는 가지 않고 잠이 들었고, 그들은 늦게까지 뭐라고 떠들다가 늦게 잠을 잤다.

◆ 그들은 내 눈치를 보고 바보가 된 것 같은 모양으로 내가 하지는 대로 한다.

다음날 나는 노인과 함께 처음 보는 며느리와 손녀딸과 함께 식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노인께서 방에서 자고 있는 중공군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기에 나는 저 아이들은 나중에 깨어나면 미숫가루나 먹으라고 하면 된다고 하면서 노인 가족과 밥을 다 먹고 난 다음 나는 중공군 아이들을 발로 차서 깨우자 그들은 일어나서 내 눈치를 보고 바보가 된 것 같은 모양으로 내가 하지는 대로 한다.

이제부터 나와 이 중공군 아이들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 나는 중공군에게 군장을 단단히 챙기게 하고 오로지 아군진영으로 귀순을 하기 위하여 국군이나 미군점령지로 가야만 했다. 나는 이들과 함께 가다가 만약 중공군이나 인민군에게 마주치면 내가 손을 들고 중공군의 포로 행세를 하기로 미리 약속을 정해놓았다.

얼마를 가다보니 인민군이 10명 그리고 2명과 5명이 지나갈 때도 있었고 중공군까지도 20여명이 지나가기도 한다. 그때마다 나는 인민군이나 중공군을 만나면 포로 행세를 했지만 정작 적군들은 전쟁 중이라 자기들도 바빠 행동하느라고 뭐라고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가기만 한다.

그러나 어떤 때에 그 아이들은 나를 보고 인민군이든지 중공군이든지 관계없이 내 옆에만 있으라고 하면서도 겁이 났는지 선 듯 앞장을 못 서

자 내가 먼저 앞으로 나가기도 했다.

그렇게 얼마동안 있더라니 제법 먼 거리에서 미군들이 지프차에 기관총을 매달고 오는데, 그때 버드나무 숲에서 숨어있던 인민군 7명이 미군 지프차에 다발총을 난사하여 1명이 죽고 나머지 한명은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을 목격 했다.

◆ **코가 큰 미군을 보자 지레 겁을 먹었는지 손이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얼마 후 조용해지자 나와 행동을 같이하던 중공군 아이들은 미군 지프차가 있다는 것은 이곳에 미군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는 앞서서 가고 중공군 아이들은 뒤에 따라오라고 한 다음 아군에게 내가 손을 들고 신호를 하면 빨리 옆에 와서 손을 들라고 했지만 그들은 겁에 떨며 계속 내 눈치를 본다.

나는 구불구불한 길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자 조금 더 내려가서 시야가 트인 먼 아래를 보리밭에 미군들이 보였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미군들 오면 나가서 손을 들어 신호를 할 터이니 너희들도 내 옆에 와서 손을 들어야 한다고 제차 다짐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 미군들이 있는 보리밭으로 접근하여 M1총을 들고 있는 미군들에 한손은 들고 다른 한손으로 손짓하며 큰 소리를 지르자 그 중국군 아이들은 내가 총을 겨누고 있는 미군에게 총에 맞은 것 인줄 알았는지 놀라 오던 길로 다시 도망을 쳐 미군들이 잘 보이지 않은 구렁텅이에 가서 손을 들고 숨는다. 전쟁이 아니라면 다른 한쪽에서 웃음이 나올 판이다.

나는 다시 빨리 나오라고 제차 큰소리를 치자 그들은 그때부터 손을 들고 내 옆으로 오는데 얼마나 두꺼운 옷을 많이 껴입었고, 그리고 코가 큰 미군을 보자 지레 겁을 먹었는지 손이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들은 우리들에게 접근은 하지 않고 총을 겨누며 꼼짝 말고 내려오라고 한 다음 확실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서있는 보리밭 뒤쪽인 먼 산 방향으로 사주경계를 하는 한편 보리밭에서 뺑 돌려 서서 3명중 1명이 총을 겨누고 나머지 2명은 꼼꼼히 몸수색을 한다.

◆ 중공군(대만)을 귀순 시켰다고 말하니 미군이 참 잘 했다고 격려한다.

그리고 난 후 한참을 있더라니 서로 연락이 되었는지 한국 사람이 타고 있는 쓰리쿼터에 미군 운전수 1명과 또 다른 미군이 와 우리를 태우고 주둔지 부대에 도착하니 이 전선에서 한국군은 망하고 물러났는지 미군 주둔하여 전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차가 부대로 들어가는 중에 나는 한국군 통역관에게 대충 이야기를 하니 큰일을 했다고 한다. 주둔지에 도착하니 미군들의 연대 CP 천막이 쳐져 있었다.

얼마 후 미군이 한국통역관을 대동하고 오더니 ‘당신들 어떻게 된 것 이야! 하고 묻자 나는 저 중공군(대만)을 귀순 시켰다고 말하니 그 미군이 그래 당신들 참 잘했다 하고 격려한다. 그리고 나를 보고 웃으면서 당신은 이제 전쟁터에도 안 다니고 포로수용소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한다.

나는 대만 아이들을 보고 ‘이제부터 당신들 걱정 말아라 이제는 살았어! 대만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니 그때부터 중공군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나로 인하여 이 미군 주둔지에 중공군 포로는 처음이라서 미군부대가 들 떠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이미 인민군도 15명이나 잡혀와 있었다.

그리고 한국군 통역관이 뭐라고 하자 중공군이 잡혀온 것을 알고는 천막에서 미군들이 쏟아져 나온다. 미군들이 귀순한 중공군아이들에게 C-레이션 박스를 가지고 나와 먹으라고 대우해준다. 인민군 포로들에게 C-레이션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중공군 아이들은 아주 난리가 난 모양이다.

◆ 대만에서 나를 만났다면 자기아버지보다도 더 귀하게 대하였을 것이다.

그 후 미군 원주 야전 사령부에 오니 전쟁포로가 몽땅 잡혀와 있었는데 중공군도 약 2천여 명이나 잡혀와 있다. 때는 4월이라 넓은 논에 중공군, 인민군, 한국군 포로수용소가 만들어져있다. 전쟁 중에 포위된 격전지에서는 모든 한국 사람들도 예외 없이 몽땅 포로취급을 한다.

그러나 중공군과 인민군들은 포로들에게는 철조망을 치고 분리해 놓았다. 처음에 중공군과 인민군포로들은 한국군이 하라는 데로 하고 때려도

꿈쩍 못했는데 나중에는 누가 미군 헌병에게 말이 들어갔는지 미군들이 화를 내며 포로들을 때리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수용소에 격리되어 있던 한국군 포로는 군번을 확인하는 등의 신분을 파악하고는 소속부대로 복귀시키고, 나는 대만출신 중공군을 귀순 시켰지만 나도 한국군포로 신분이었으며, 귀순한 중공군 아이들하고는 원주에서 헤어졌다. 나중에 내가 군대 가서 전우신문에서 대만 군들을 배로 보냈다는 보도가 났었다.

나는 후에 어른이 되서 여행을 가는 계를 모아가지고 대만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만약 그때 그 대만군아이들 이름이나 적어두어 찾아서 만났다면 그놈들이 나를 아버지보다도 더 귀하게 대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전쟁 중이라 그런 생각은 미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 군의관한테 이질 병이 걸렸다고 하고는 도망을 쳤다.

당시 원주 군부대에서는 나같이 현역이 아닌 민간인은 원주 민사처로 보내져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설악산전투에서 아군 기갑연대의 짐꾼 노무자로 일할당시 나와 같이 민간인 신분으로 기갑연대 군수과에서 보급품 일을 보던 김갑수를 만나니 친구처럼 반가웠다.

그는 나보다 한 살 위로 전쟁초기 인민군이 남으로 쳐 내려올 때 인민군 분대장으로 참전을 했다가 부대에서 이탈해 도망을 쳐 한국군에 편입되었던 자이다.

당시 원주민사처에서는 민간인들을 다시 노동인력으로 추천면 도로 보수 작업에 동원되었는데 미군들이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데 힘들어 못 배길 것 같아 ‘야 갑수야 우리가 공병대에서 일하게 되었나!’ ‘갑수야 우리 도망가자!’ 당시 전쟁터에는 이질 병이 심하게 돌텐데 군의관에게 이질이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는 데는 이골이 난 놈들이라 밥을 조금씩 먹고 모아두었다가 싸가지고 도망을 쳤다.

그리고 나는 갑수보고 ‘너 어디로 갈 거야’ 하니 머뭇거리기에 ‘야 우리가 그보다 더 한데서도 도망을 다녔는데 못 갈 것 없다’ 면서 한 3-4일이면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서림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 너 지금 집에 가면 군인을 가게 되니 더 있다가 가라고 한다.

얼마를 가다보니 헬리콥터가 날아 숨어 있다가 주천에서 산을 넘어 내린천으로 밥을 얻어먹으며 다리를 건너는데 보초가 총을 겨누고 오라고 하여 그 부대 중대장에게 가니 ‘왜 이렇게 도망 다녀! 이 새끼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6·25 전쟁이 나기 전 서림에서 국군 8사단 예하의 1개 중대가 지키고 있을 때 그 곳에서 만났던 정진화 소위가 1년후 인테 대위가 되어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는 “야 너 우리하고 여기 같이 있자, 야는 누구야!” 하기에 나는 “야는 설악산에서 인민군들과 전투를 할 당시 기갑연대에서 나하고 같이 짐꾼 일을 하다가 원주 민사처에서 우리를 미군 공병대로 보내져 도로보수를 하다가 도망가는 중인데 갈 데가 없어 우리 집에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너 집에 가면 군인가! 여기서 더 있다가 늦게 군인가! 안 그러면 위험해! 빨리 가면 전방으로 팔러가 빨리 죽을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리고는 여기서 밥도 하고 나무를 켜 나르고 창춘가서 보급도 받아오면서 나하고 같이 있자고 한다. 그때는 수시로 헌병이나 특무대에서 조사를 자주 나온다고 하면서 나를 보고 ‘너 나보고 고종 사촌 형이라고 해!’ 라고 한다.

◆ 전 후 김갑수에 대한 행방을 알 수 없고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나는 갑수보고 정진화 중대장이 나를 보호해 줘서 당분간 집으로 못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갑수와 같이 정진화 중대에서 얼마를 지내고 있다가 부대가 양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어떻게 알았는지 갑수가 우리부대 바로 옆에 설악산에서 같이 있었던 기갑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기갑연대에 간다고 하고는 밥 지고 간다고 자청하여 밥을 지고 나가면서 “내가 없거든 기갑연대에 간줄 알아!” 하면서 부대를 이탈해서 기갑연대로 들어갔다.

나는 중대장에게 “갑수가 내 뺏어요. 간다고 말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왔어요.” 하니 중대장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갑수를 기갑연대로 보내줄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럼 너도 집에 가고 싶으냐? 지금 집에 가면 바로 영장이 나와 군에 들어가면 바로 전방이야.”

“지금도 휴전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에 갔다가 신통찮으면 이리로 오나라!” 라고 한다. 지금 생각해도 정진화 중대장은 내가 하루라도 군대를 늦게 가려고 나를 붙잡아둔 것을 고맙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김갑수에 대한 행방은 알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지금도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나기도 한다.

◆ 빨치산 연락병이 서림으로 자수해왔다.

가을에 집에 오니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형과 형수만 있었다. 그 시절은 살림을 책임져야하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군인을 가야하는데 이때가 1951년 11월 쯤 이었고 내 나이는 22살이었다. 하루는 신서면 사무소에서 사람이 와서 지서에 가니 그때 지서장이 슯한 전쟁을 겪은 나를 보물이라고 여기고 전쟁을 체험해기 해 달라고 한다.

지서장은 권영열 경사인데 가끔 공비가 출몰하자 전쟁터에서 경험을 많이 한 나를 공비도발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청하자, 나는 아직 집에 일을 거들어야할 입장이라고 하니, 지서장은 조금 있으면 군대 영장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전방으로 갈 거여 안 갈 거여” 하면서 내가 지서에서 숙식을 다 제공해 줄 터이니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

나는 속으로 그렇지 않아도 형님 내외와 같이 지내는 것이 조금은 그렇고 해서 지서장 일을 돕기로 했는데, 그때 지서에는 지서장 외 순경 7명과 당시 명개리와 조개리 동네가 공비들에게 점령당하자 명개리와 조개리 사람들이 서림리로 쫓겨 피란을 와서 가족과 함께 움막을 짓고 살던 청년 20여명이 경찰 특공대 같은 신분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평양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공비가 험준한 태백산맥을 따라 지리산

빨치산에게 지령을 전달하려는 책임구간 총책임자와 연락병2명이 마침 서림구역으로 들어와 귀순하여 왔다. 이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자수하면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확고한 공을 세우려고 비밀정보를 제공하고 큰 성과를 얻어 신분을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다.

이들에 정보에 의하면 설악산 구역 연락병이 ○월 ○일 서림에서 남쪽 구역인 오대산 구간 연락병과 접선을 하기 위하여 영덕에 체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빨치산 연락병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데 설악산에서 오대산까지의 연락책 2명이 영덕 산야골에 와서 저녁을 해 먹고 어두운 밤이 되어야 행동개시 할 터이니 그놈들이 정족산까지 가서 접선하기 직전 이 서림 구역에서 잡아야 한다고 하며, 이놈들은 얼마나 악질인지 자수할 놈들이 아니니 사살하라고 당부했다.

◆ 영덕 산야골에서 빨치산 연락병 2명을 사살하다.

자수한 공비들이 정보를 제공하자 내가 직접 작전계획을 짜자 지서장도 내 계획대로 하자고 하여 함병열 팀장과 대원들을 내가 직접 인솔하여 현 영덕양수발전소 홍보관이 있는 산야골 입구의 맨 끝에 있는 집으로 출동했다.

당시 그 집은 가을농사를 거두어들인 다음 겨울을 나려고 공수전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빈집이었고, 내년 봄에 다시 올라와 꺼내먹으려는 김치까지 땅에 묻고 갔었는데 공비들은 그것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대원들은 그 집 앞 큰 밤나무 뒤로 접근하여 관망하니 집에서 하얗고 맑은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하얀 연기가 난다는 것은[예전에는 거지가 밥을 얻어먹으러 다닐 때 하얗고 맑은 연기가 나는 집만 찾아다닌다고 한다] 밥이 거의 되어 지금은 밥을 먹고 있을 때 라 여기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니 밥을 다 먹었는지 향고(밥통)를 굽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한 놈이 MI을 들고 쑥 나왔다.

주위는 어둑어둑하고 굵은 함박눈이 드문드문 내리고 있었는데 그놈은 주위에 뭔가 이상하다는 감을 잡았는지 산을 쳐다 보고 있다가 뒷산 쪽을 쳐다 보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내가 총을 빵 쏘고 ‘손들고 나와!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하자 그놈은 바로 집으로 뛰어 들어가며 밤나무 방향으로 총을 쏘기 시작하자 밤나무 쪽 옆에 죽 늘어져 있는 흙벽에서 흙이 퍽씩 퍽씩하고 떨어진다.

사실은 우리 대원들은 앞에서만 대치하고 있었는데 공비들은 뒤에서도 포위한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은 당초 계획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어 공비들을 당황하게 만든 상황이 되었다.

뒤에는 대나무 숲이라 손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소리치고, 밤나무 뒤에 숨어 대치하고 있는 대원 7~8명에게 ‘안방과 아래방에 있으니 그 쪽으로 쏘아라!’ 하자 갑자기 한 놈[후에 조장으로 밝혀짐]이 앞문을 발로 차고 나온다.

그 위기 상황인데도 바보같이 한손에 배낭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총을 들고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드는데 순간 내가 확 끌어안을까 했지만, 앞서 귀순한 공비들에게 ‘생포할 생각은 마라!’ 는 말을 들은 지서 김 경사의 당부도 있고 해서 혹시 단도를 들고 달려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총으로 그놈의 목에 들이대고 손들어 하자 이놈이 엎드리면서 빙글 돌더니 앞으로 내 달려 담장이 쪽 서있는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7~8명의 대원들의 막강한 화력으로 총을 쏘 데자 그놈은 마구간 뒤로 돌아가다가 그대로 쓰러진다. 상황이 종료된 후에 가보니 그 조장이란 놈은 수류탄 통이 다 깨져있을 정도로 총을 많이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한명이 남아있다면 내 짐작에 부엌에 가 납작 엎드려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잠시 후 그놈은 그래도 배낭은 제대로 짊어지고 M2 카빈총을 난사하며 나오면서 아래로 뛰어 내려가는 것을 나는 대원들에게 어둡더라도 조준하여 쏘라고 하였다. 날이 어두운 가운데 그놈이 아래쪽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바로 거꾸로 지는 모습이 보이자 혹시 알 수 없어서 그놈에게 다가가 다시 총을 쏘았다.

◆ 공비들은 남에 집 김치까지 꺼내먹을 정도로 상황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개털 모자를 쓰고 공비를 잡으러 나왔던 연수가 위치 선정을 잘못해 영동한데 가서 배꼽에 총에 맞아 엎드려 있었다. 그때 나는 연수를 끌안고 “야 연수야 연수야” 야 이런 딱한 놈아 왜 하필이면 여기에 와 있다가 변을 당했느냐 하고 소리치자 연수는 뭐라고 입을 열다가 바로 고개를 푹 숙인다.

이 작전에서 연수만 안 죽었으면 공비를 생포는 못했다 하더라도 다 죽여서 전공을 세워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텐데... 그리고 연수만 안 죽었으면 성공을 거두는 사건이었다.

당시 연수 아버지는 일정 때 만주까지 가서 살다온 아주 유식한 어른 이셨고 3형제 중 형은 군인 가서 연락 없고, 동생은 피란 땡기다가 죽고 없어, 부모는 오로지 연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서림특공대국가유공자〉

나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연수 부모에게 가서 연수가 죽었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선다. 그래도 형은 전쟁 후 상이용사가 되어 돌아와 150만원씩 받는 전상6급 유공자가 되었다.

사실 빨치산 정보원을 사살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다 죽고 나 밖에 없다. 당시 권영열 지서장과는 나는 한 마음이 되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때 지서장과는 같이 앉자 사진을 찍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공비들이 지금 양양양수발전소 홍보관이 있는 산야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집에서 김장김치를 땅에 묻어놓고 공수전에 가서 겨울을 나고 봄에 들어와 김치를 꺼내 먹으려고 묻어놓은 것 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빨치산 정보원들은 사상적으로는 강해서 정신무장이 잘 되었으나

전투능력을 보니 위급상황에서 양손에 배낭과 총을 따로 들고 있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적군인 공비가 M1총이나 M2 카빈총을 사용하였는데 그때는 아군이나 적군도 서로 상대방의 총을 사용하기도 했었다. 참고적으로 6·25 전쟁 기간 중에 입대를 한 사람은 유공자이나, 휴전 후에 입대한 사람은 유공자가 될 수 없었지만, 단 민간인 신분으로 공비토벌에 참여하면 유공자로 인정했다고 한다.

◆ **노리쇠가 아가리를 벌려 재 장진이 안 될 정도로 치열했던 저격능선 전투**

4월 초순 입대 영장이 나와 제주도 훈련소로 가서 일반 병으로 훈련을 마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방에 늦게 배치되지 않으려고, 또 다시 2개월 동안 훈련을 더 받는 하사관 학교로 지원해 갔다.

하사관 학교는 240명을 뽑았는데 A반 120명, B반 120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거기서 1등으로 수료하고 춘천 보충대로 보내졌다가 2사단 23연대 1대대 3중대 하사로 부대배치를 받자마자 바로 금화지구 저격능선 전투에 투입되니 아군과 적군이 서로 저격능선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중대원은 130여명으로 분대장이 분대원 8명을 인솔하여 올라갔다. 소총을 매고 안전핀은 쉽게 빠지도록 열어놓은 수류탄 50개씩을 배낭에 지고 고지를 향해 돌격하며 앞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중대장이 대원을 지휘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포탄이 떨어지고 총을 쏘려고 하였지만 흙이 튀고 앞이 안보여 쓸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다가 어떻게 하다가 첫발을 사격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격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탄을 장진하는 노리쇠에 흙이 들어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 재 장진이 되지 않는 지경되기도 하였다.

◆ **적군과 뒤섞여 수류탄이 필요 없었고, 하늘에서 부모님에 환상이 보였다.**

미군과 우리 아군 포가 300문과 적군 포 200문에서 발사된 포탄이 빗방

울처럼 쉴 틈 없이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터진다. 하늘에는 나뭇조각과 흙이 회오리바람 불 때처럼 공중에서 쏟아진다. 쌍방의 포격으로 몸이 자동적으로 흙에 반 이상은 묻힐 정도로 포탄이 쉴 세 없이 고지로 떨어진다.

등에 지고 올라간 수류탄을 정신없이 적진을 향해 던지고 또 던졌다. 어떤 대원은 수류탄을 던지지도 못해보고 쓰러지고, 아군과 적군이 뒤섞이는 상황에 까지 이르자 수류탄이 필요 없게 되어 대원들이 수류탄을 버려 땅 바닥에 널려져 있는 것이 수류탄이다. 나도 수류탄을 잔뜩 매고 있는 것이 소용없게 되자 수류탄을 버리고 그래도 2개만은 꼭 쥐고 있었다.

왕~왕, 짜르르~왕 귀청을 요란하게 들리던 포성도 아련해지면서 하늘에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 보이는데 그 환상과 아울러 나무 조각이 날라 천천히 눈처럼 가라앉는다. 맥이 하나도 없이 누워 하늘을 보고 있다.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모님이 나를 살리러 왔는가? 부모님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고, 그리고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면 나는 살 것이다! 부모님 형상이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난 후 포탄소리가 들리다가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그리고 포 소리도 안 나고 사방이 조용하다.

◆ 24시간을 버티는 치열한 전투에서 거의 전사하고 7명만 남았다.

그때 “3중대 살아 있는 놈은 나를 따라 내려와!” 어떻게 생존했는지 중대장 조태수 대위가 계속 소리를 친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겨우 몸을 추슬러 기어 내려와 바위절벽 아래에 오니 배추국과 밥이 와있다.

그리고 건빵을 주는데 얼마나 나굴었는지 밀가루 번떡(몽터기)이다. 지고 올라간 빈 수류탄 통은 벗어 던지고 총은 목숨과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총은 버리지 않고 총은 뒤로 매고 밥을 먹었다. 이 전투를 치른 먼저 패들 중에 총을 내버리고 온 병사들은 나중에 후방으로 잘 안 보낸다고 했다.

이 지옥 같은 저격능선 전투에서 살아서 내려온 전우는 나와 중대장을

포함해서 7명이었다. 함경도 사람인 조태수 중대장은 비교적 안전한 벙커 같은 곳에서 중대원을 지휘 하는 바람에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다른 부대가 투입되어 바로 사창리에서 빠져나왔다.

다음 부대도 같은 상황으로 또 계속 전투를 치를 것이다. 대대병력이 한번 이 저격능선에서 24시간 동안 버티면 아주 잘 버텼다고 했는데 이는 곧 그만큼 피아간에 힘겨운 싸움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부대는 거의 전사하고 7명만 남아 임무가 끝나 사창리를 나가 인원을 보충 받아 다시 투입될 것이다. 결국 금화지역 저격능선전투는 2달간 지속되었다.

전쟁 후 미 군단사령부 조사에 의하면 1분간 6000천 여발의 포탄이 저격능선에 쏟아졌다는 기록을 보면 피아간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혹독하였는지 짐작 할 수 있었다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막바지 전투에서는 네이팜탄 이라고 해서 휘발유 같은 연료를 섞어 넣은 20리터짜리 깡통에 호수를 연결하여 끓어지고 밀집된 적들을 향해 화염방사기를 쏘아 불태워 버리기도 하는 참혹한 전투를 목격했다.

6·25전쟁 기간 중 나와 같이 죽음에 고비를 넘나드는 격전지에서 내가 직접 체험한 부모님의 환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 장병들도 나와 같은 환상을 보았다는 체험수기와 또는 방송매체에서 보고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이 극적인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환상이 보였다면 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상이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으며,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나를 살아있게 한 것은 부모님의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항상 남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왔다.

◆ 백마고지에서 벨기에 군인들이 우리를 하느님보다 더 반갑게 맞이한다.

금화지구 저격능선 전투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한 우리부대는 다시 신병으로 인원보충을 받아 엄한 군기 속에서 전투와 같은 훈련을 1개월 동안 받은 다음 1952년 12월 25일 백마고지 전투에 투입되었다.

우리부대는 이 고지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던 6·25 참전국 중 한 나라

인 벨기에 대대와 교체를 하였는데, 우리부대 선발대가 들어가서 보니 미군들하고는 생김새가 다른 나라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벨기에군으로 우리부대가 들어가자 우리장병들을 보고 하느님보다도 더 반갑게 맞이한다. 이 부대원들에 표정을 보아 아마도 백마고지 전투에서 악전고투를 겪으며 많은 사상자를 내고난 후라 우리부대가 구세주로 보였음은 당연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야전에서 미군이 지원한 담배 등의 보급물자를 사용하고 크리스마스 때 본국에서 보급된 깡통에 든 담배와 먹을 수 있는 보급품 등을 땅굴 속에 보관해놓은 것을 고스란히 우리부대에 인계하고 갔다.

◆ 백마고지 전투에서 관측장교 업무를 대행하여 특별대접을 받았다.

이 백마고지전투도 포격전의 양상이라 전투가 시작 되려면 이틀 전부 터 드문드문 포탄이 날라 온다. 그러나 내가 속한 부대에서는 포탄이 떨어지는 탄착점을 지도에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나 밖에 없었다.

캄캄한 밤에서도 위치를 찾아 갈 수 있는 독도법을 철저히 배워 하사관 교육 때 240명중에 1위를 하였다는 소문이 나서 하사신분으로 포대 관측장교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우리 관측소는 적의 포사격에도 끄떡없는 높은 곳에 위치한 병커시설이었다. 이 병커 안에는 포대 관측장교와 우리 중대장이 그때 마침 배앓이를 해서 중대 부관인 백낙수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야간에 포사격을 하는데 아군의 포탄이 적 진영에 떨어지면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펴 놓고 횡좌표와 정 좌표 등의 교차 점을 표시하고 좌표를 찍어서 포병부대에 보고를 했다. 관측장교가 있었으나 관측업무를 내가 대행하다보니 내가 없이는 전투가 어려울 정도였고, 간혹 내가 밤새 상황근무를 하고나서 아침이 되면 나보고 침대에 가서 자라는 등의 특별대접을 받기도 했다.

그때 당시 포대 관측장교가 업무가 미숙하였고, 내가 마침 운도 따랐겠지만 포사격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격표적을 정하는 좌표를 찍어주는 실

력을 인정받아 관측업무를 이행할 수 있었기에 안전한 포대관측병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휴전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 **중공군들이 조명탄 낙하산을 걸어 가려고 하얗게 나와 있다.**

하루는 초저녁에 소대장이 와서 1953년 7월 27일 저녁 10시경부로 휴전이 조인 될 것이니, 오늘저녁에 중공군들이 포탄 자량을 하려고 남아있는 포탄을 다 쏘고 나가려고 자량삼아 포 사격을 해 올 수도 있으니, 밤이 되면 땅굴 속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오줌이 마려워도 호 안에 싸고 나오지 말거라, 이때까지 싸우다 살아났으니 대원들에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달되었고 밤 10시가 되기도 전인 벌써 8시인데도 포성은 없고 조용하다.

하긴 이 중공군들도 휴전이 되는 마당에 포만 쏘았지 무엇이 아쉬워서 총을 들고 공격을 해 올리는 만무하였다.

10시가 되자 적군지역을 바라보니 중공군들이 후레쉬를 들고 나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조명탄에 달려있는 낙하산 걸어 가려고 불빛이 어른거린다. 그다음 날 아침에도 중공군들은 낙하산을 줍기 위해 하얗게 나와 있다.

우리도 우리 지역 쪽으로 떨어진 낙하산이 욕심이 나기도 했었지만 겁이 나서 못나갔는데 그놈들은 우리 측에서 총을 안 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시 야간 전투를 위해 미군이 조명탄을 쏘아 올릴 때 사용했던 낙하산은 줄도 매끄러워 사용하기 좋고 천은 마후라를 만들 정도로 좋았다.

◆ **소대장이 과실로 죽은 병사의 귀때기를 때리며 분해서 벌벌 떨며 오열한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모두 살아있음에 기뻐한다. 그러나 아군 진지에 뒷일거리가 생겨 평평한 장소에 모든 장비를 정리정돈 하면서 수류탄 안전핀을 돌려놓고 실탄 과 장비를 모두 거두어 상자에 넣는 일도 힘들었지만 신이 났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한 병사가 수류탄안전관리를 잘 못하여 터지는 바람에 죽고 말았는데 그때 소대장은 벌벌 떨면서 ‘이 천치 같은 놈’ 이라고

소리치면서 이 전쟁 통에서 숫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
나 너의 부모내외가 기다릴 텐데 이 병신 같은 놈, 바보처럼 죽었다고 귀
때기를 힘껏 때리며 분해서 별별 떨면서 오열을 하며 우는 것을 보았다.

그때 2사단 32연대 1대대 3중대 선임하사로 전투에 참여하여 살아난 사
람은 나 한명 뿐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한 10여년이 지난 후 백마고지 전투를 재현한 영
화가 나와서 내가 거기서 싸웠으니 관심 있게 보았는데 어느 누가 고증을
했는지 국군이 철모 옆면에 백마가 그려져 있는 철모를 쓰고 싸우는데, 실
제 백마고지 전투 당시에는 백마 마크가 아니고 9사단 마크가 그려져 있
는 철모를 쓰고 싸웠음을 분명히 밝힌다.

◆ 2사단 23연대 1대대에서는 내가 그는(박희준) 2대대에서 혼자 살아났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서림 해담마을 야영장에 취재를 나온 TV방송에
서 사회자로 출연한 뽀빠이 이상용이 나를 연단으로 나오라고 하며 6·25
한국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물어보자 나는 1952년 4월에 입대하여
8823군번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끝까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방송이 나가고 얼마 후 경기도 양주시 고양동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
는 박희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와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쟁이야
기를 나누었는데, 병적증명서까지 떼어가지고 온 그분은 당시 군번이 나
보다 1번이 빠른 8822번이었으나 부대로 팔려가는 순서에 밀리다보니 나
보다 늦게 입대하였다.

그도 나와 같은 사단인 2사단 23연대 2대대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살
아난 사람으로 대대장 당번병을 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나와 같은 시기에
입대하여 2사단 23연대로 같이 떨어진 다음 나는 1대대에, 그는 2대대에서
배치 받고 휴전이 될 때 까지 대대에서 끝까지 혼자 살아남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부대원들이야 쉽게 죽어갔지만 같은 소속의 지휘관급 장교들이
야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대원들보
다 생존할 확률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정식 (남, 74세 서면 오색리) 전 오색초등학교 교장
- 면담일 : 2015. 4. 9

이 글은 이정식씨가 유년시절 부모님들에게 들은 내용(이야기)을 바탕으로 작성 되었음.



◆ **인민을 똑같이 살게 해준다는 선전을 믿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였다.**

당시 서면 수상리에 살았었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후 원치 않은 38° 선이 생겨 우리국민은 남북으로 갈려 지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된 것이다.

이곳 양양은 38° 선을 경계로 한 지역은 공산치하에서 또 다른 지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게 되는 운명을 가졌으나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그 당시,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든 인민을 똑같이 살게 해준다는 선전을 믿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였다.

그 당시 아버지(이영운, 당시 31세)께서는 면사무소 창고관리 업무를 맡아보고 계셨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인민은 모두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선전과 함께 그때 당시 잘 살고 있는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면사무소의 창고에 압수하여 갖다놓기도 하였지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산당원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업무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무서원이나 공산당간부들이 열쇠를 달라기에 무심코 주곤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창고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갖고 가서 없어지기에 모든 인민이 잘 살 수 있게 하여 준다는 선전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기에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갖고 있는 북한 실정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에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많은 우마차가 상평국민학교의 운동장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을의 주변 환경이 차츰 변하더니 마을에 인민군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상평국민학교도 인민군들이 차지하였고 마을의 주민들도 모두 이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라 하였으나 막상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이웃 마을에 있는 친척에게 더부살이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우리 집은 친척들과 함께 서선리 안경다리 앞마을로 집단 이주하여 빈 기와집이 있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곳 양양의 철광산은 일본시대부터 한국에서 자철광이 제일 많이 나는 광산이라 일제가 철을 캐어 원산으로 실어 날랐다. 우리가 이주한 서선리는 집 윗 쪽에 철길이 있어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철을 구해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에 놓으면 납작하게 되어 장난감을 만들어 썼고, 기차가 언제 오는 지는 철길에 귀를 대고 있으면 기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고 가까이 오면 철길에서 멀리 달아나는 놀이를 하면서 자랐다.

상평리와 서선리 사이에는 매일 원산에서 오는 기차에 우마차와 인민군들 그리고 무기들을 하루가 멀다하게 실어 날랐다. 길가에는 죽은 말이 널려 있어 개들이 죽은 말을 뜯어 먹는 현장을 보면서 자랐고, 많은 우마차가 상평국민학교의 운동장에 집결하는 모습들을 보았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6·25남침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간에 남침이니 북침이니 하는 논란은 어디에서 발단이 되어 나왔는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알 줄로 사료된다.

그때 이곳 38°선 이북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라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좁쌀 한 꼬투리 중 제일 잘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물세를 부과**

제가 어려서 세상물정을 몰랐을 때는 남과 북의 관계를 모르고 지냈으나 철이 들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북한 실정을 할머니와 어머니께 들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이다.

해방 후 북한은 현물세를 공출할 때는 농사지은 곡식의 낱알을 세어 한 꼬투리의 평균을 내어 평당 얼마를 생산했는지 계산하여 제일 잘된 해의 수확량으로 현물세를 공출하였다고 한다.

좁쌀 농사를 지었으면 좁쌀 한 꼬투리 중 제일 잘된 해(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물세를 부과하여 수확한 곡식으로 현물세를 공출하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확한 곡식의 삼분의 이 이상을 현물세를 내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한다. 거기에서 월남을 한 집에는 반동분자라는 핏말이 붙어 온갖 어려움을 덤으로 주었다고 하니,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조용하던 마을에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그때의 북한 노동당 청년들이 손에 큰 대나무로 만든 죽창을 들고 도망을 하는 청년을 붙잡아 죽창으로 찢러 죽이는 광경을 보곤 하였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모든 일에 궁금한 것이 많았던 때라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곤 하였으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6·25가 끝나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그 당시 강릉을 중심으로 애국청년들이 38° 선을 넘어 북한 땅에 가서 정보를 얻어오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다가 붙잡혀 죽은 애국청년들이 많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내무서원들이 아버지께 총을 쏘았으나 사정거리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950년 이른 봄 아버지께서 대낮에 월남을 하게 되었다. 당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아버지께서 내무서원의 감시 하에 아랫마을 수상리에서 윗마을 상평리로 이송도중 아버지께서는 두 내무서원들에게 “이보게들 잠깐만!” 하면서 작은 논두렁을 건너뛰어 윗마을의 뒷산을 향해 달음질 하였던 것이다. 그때 마을의 작은 길에서 뒷산까지의 거리는 약 100여 미터의 거리였다.

두 내무서원은 갑작스런 일을 당하자 “여보게! 여보게!” 하면서도 아버

지 뒤를 쫓지 않고 윗마을에 세워둔 차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어 총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가지러 뛰어갔고, 아버지께서는 온힘을 다해 산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마라톤 대회에서 상을 탈 정도로 달리기를 잘하여 윗마을로 달려가는 내무서원들의 거리와 산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와의 거리 차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저는 7살로 아버지가 근무하는 면사무소에 점심때만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와서 점심식사를 한 후 근무를 하였는데, 그날도 예전과 같이 아버지를 모시러 갔으나 아버지는 그냥 혼자 가라고 하기에 울면서 집에 오니 어머니께서 왜 혼자 오느냐고 하기에 아버지께서 바쁜 일이 있으니 혼자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였다.

그때의 상황은 6·25를 일으키기 위해 젊은 청년들을 의용군으로 잡아갔고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기에 제일 나중에 붙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 정보를 알아차린 마을의 젊은 아버지 친구들은 아침 일찍 월남을 하기위해 남쪽인 강릉군 신서면 영덕 쪽으로 탈주를 결심했던 것이다.

윗마을 뒷산을 향해 달리고 있던 아버지가 산 중턱쯤에 갔을 때 자동차에 있던 총을 갖고 쏘았으나 사정거리에 미치지 못해 무난히 산을 넘어 남쪽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갈 수도 있었으나 인민군이 길에 지키고 있을 것 같아 힘든 길일지라도 산으로만 갈 수 밖에 없었다. 밤이 어두워지면서 허기를 느꼈으나 어쩔 수 없이 평소 알고 있는 삼팔선 경계인 영덕을 향해 계속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 밤중이 넘어서야 영덕 38°선 경계까지 갈 수 있었으나 어디로 넘어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소련병사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 넘어갈 위치를 여기 저기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아버지는 소리가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다행히 먼저 탈주한 친구들 있어 반가이 맞아주며 그 친구들은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서 늦게 왔고 우리는 편하게 이곳까지 왔으니 아버지를 먼저 삼팔선을 넘어라기에 안전한 곳을 찾아 먼저 넘었고 이어서 친구 셋이서 무난히

삼팔선을 넘어 서림까지 월남을 할 수 있었고, 그 후 아버지께서는 강릉군청에서 근무하셨다.

◆ **자아비판이라는 명목으로 노역이나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께서 월남한 사건으로 인한 어머님과 할머니께서는 갖은 고충을 다 겪으셨다고 한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6·25가 끝난 후 철이 들면서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

내무서원들은 밤이 되면 집 주위를 감시하며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과 내통을 하거나 남한으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초를 서면서 알게 모르게 고통을 준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한다.

저녁마다 학습이라는 미명아래 마을 사람들을 매일 한데 모아 공산주의 이론을 주입시키거나 5인 1조로 하여 서로 잘못을 감시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공산당에 벗어나는 일을 할 때에는 자아비판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노역이나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6·25전쟁이 발발한 후 철모르던 시절 우리는 서선리에 살고 있으면서 유엔의 참전군들이 이곳 양양철광에 있는 변전소를 향해 비행기로 폭탄을 퍼붓는 광경을 불과 1km되지 않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졌었다. 그때는 여름이라 보리가 자라고 있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구경하려면 그때는 방공호가 없어 철길의 배수로로 들어오라고 야단들이었다.

그 당시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로는 비행기는 직접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배에서 쏘는 함포는 언제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알 수 없어 제일 무서운 폭탄이라고 말씀들 하셨다.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나 여자 친구 하나가 비행기 포격을 구경하려고 들어갔던 배수로가 무너지면서 깔려 지금까지 목소리가 변성이 된 것 외에는 없었다.

◆ **오늘에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진실 된 교육을 해야 한다.**

이곳 양양은 38이북이라 전쟁 당시에는 꿈쩍없이 그대로 있었으나 다행

히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한군이 후퇴할 때 공산주의가 싫거나 고충을 받은 가족은 1·4후퇴를 계기로 남쪽으로 피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우리 가족은 제일 먼저 친척들과 함께 현남면 북분리까지 우차를 이용하여 북분리에 작은집 외가 집이 있어 할머니는 먼 거리까지 피란을 할 수 없으셔서 이곳에 할머니를 모셔두고 어머니를 비롯한 삼형제와 누님은 강릉까지 걸어서 피란을 하였다.

강릉에서는 아버지께서 강릉군청에 근무하셨으므로 얼마동안은 편하게 그곳에서 피란생활을 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쪽으로 더 피란을 가야하는 형편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강릉에 두고 삼척을 거쳐 울진까지 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나이를 걸어서 피란길에 오른 것이다. 피란길에 온갖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이야기를 들어 안 사실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아쉬움이 뒤 따른다.

6·25가 끝나고 휴전협정을 하면서 미처 북한으로 퇴각하지 못한 북한 괴뢰들을 퇴치하기 위해 우리 남한의 청년들은 산속에 숨어있던 잔당을 소멸하였다.


한때 서면사무소 서림분소에 아버지께서 근무하고 계셔서 누님과 저는 토요일마다 아버지께 다녀오곤 하였는데 우리 남한 청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산속에 숨어있는 북한 괴뢰군을 죽여 가마니에 싸서 들것에 메고 마을 가운데에 늘어놓은 것을 몇 번이고 본 사실이 있다.

저희 세대는 해방 전에 태어나 6·25를 거쳐 어수선했던 시대를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지나면서 옛 일을 되돌아보면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함은 물론 모든 국민은 나라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선배들이 몸소 겪은 경험이 오늘에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진실 된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온갖 노력과 힘을 들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 이진형 (남, 86세, 손양면 금강리)
전 양양군 노인회장

■ 면담일 : 2015. 4. 10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three men sitting around a table, engaged in a conversation. One man is wearing a cap and glasses, while the others are in suits.

◆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이 되었다.**

양양국민학교 6학년 때 해방이 되고 이듬해인 1946년 졸업하고 양양중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후 고급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매일 점심을 싸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군사훈련 받았는데 당시 내 나이가 19세였다.

1949년 8월에 인민군에 입대하여 원산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간부후보학교 입교하여 2주간 교육 받고 분대장인 병장계급을 받고 간성에 배치되면서 파란색 견장을 받았다.

군에는 외무성 군인과 내무성 군인이 있는데 내무성 군인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국내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외무성 군인은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적군을 막는 임무를 갖는다. 또한 내무성 군인의 복장은 바지에 파랑색 줄이 2개가 있고 외무성 군인은 빨간색 줄이 2개있으며 모자도 같은 색의 줄이 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후 나는 중대장으로부터 4분대장으로 임명 되어 간성에 배치되고 2일후 양구에 부임하라는 명을 받고 20여명이

함께 걸어서 점심은 마을에 들러 부인회에서 해주는 밥을 먹어가며 2일 만에 도착했다.

◆ **영어를 배웠다고 포로를 지키는 임무가 주어졌다.**

20일 후 황해도 곡산에 배치되니 학교 운동장에 국방군과 미군의 포로들이 쇠고랑이 채워져 약 300명이 모여 있었는데 포로들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쇠고랑을 풀어주었는데 도망가는 것으로 오인되어 총을 발사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1950년 9월 나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다고 포로를 지키는 임무가 주어져 연대본부로 들어오라는 명이 내려왔다. 연대본부는 원산 위에 있는 덕원으로 250리길이다.

대원 40명이 같이 떠났는데 3~4일간 잠도 제대로 못자고 미군 비행기 폭격 때문에 밤에만 산길로 걸어서 원산에 도착하니 가는 중에 거의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지 않았다. 중간에 취시는 마을에 가면 여성동맹이 위원들이 나와 해주었고 없는 마을에서는 굶었다.

그래도 남은 대원들은 가는 도중에 과수원에서 배도 따먹으면서 안변에 도착하니 날이 밝았는데, 사방에서 패잔병들은 다 모였는데 계급장도 없는 상태이고 지휘자라는 사람이 산에 쌓아두었던 총을 내어주고 안변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때 인민군들은 서로 이는 사이도 아니고 지휘자는 있었지만 계급도 달지 않았다.

◆ **패잔병을 모아놓고 총을 주는데 총알은 주지 않는다.**

9월 17일 경인대 배에서 함포 사격을 하여 산천에 드르릉 드르릉하고 울렸다. 부대는 전선을 다시 평남 양덕으로 이동하는데 배고프고 힘도 없어 총도 버리고 그냥 따라갔는데 사단은 모르고 제4연대라고 했다.

제4연대 집결지에 도착하니 400명이 모여야 하는데 이동 중에 다 도망가고 100여명만 모였다. 저녁때가 되자 제방 독에 나가니 연대장을 체포해 왔다고 하는데 눈을 가리고 있다.

인민재판을 하는데 정치보위부원이 죄명 발표하는데, 도망갔다는 죄명으로 어둑할 때 총살을 해 버렸는데 고향은 강원도 속초사람인 김○○로 23세라고 했고, 같이 잡혀온 여자 위생병 2명은 경고조치하고 풀어주었다.

나는 정신이 앓 짙 하여 도망갈 생각도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해산! 하는 구령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북쪽으로 걸어갔다. 평안북도 성천(成川)까지 가서 패잔병을 모아놓고 총을 또 나누어주는데 총알도 주지 않는다. 비행기가 폭탄을 퍼부으니 앞에 가던 인민군이 막 죽어나간다.

◆ “고향이 어디여? 보모님이 얼마나 기다리겠어.” 하니 눈물이 울컥 난다.

계속되는 비행기의 공습에 정신이 없고 귀가 멍멍하고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살기위해 모두 산으로 도망쳤다. 잠시 후 폭격이 뜸해지고 산에서 내려와 어딘지도 모르는 눈에 벼를 베지 못해 그냥 있어 그걸 훑어서 비벼서 먹었다. 낮에는 낙엽을 긁어 덮고 숨고 저녁이면 산으로 걷는데 토끼길을 따라 가서 민가를 찾아 들어가니 노인이 혼자 있었다.

그 노인은 “고향이 어디여? 보모님이 얼마나 기다리겠어.” 하니 눈물이 울컥 난다. 반갑게 맞아주며 이 옷으로는 못가니 인민군 복을 벗기고 자기 옷인 명주 적삼을 준다. 노인의 옷을 입고 나가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 민간인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수십 명이다.

◆ 귀가증명서, 한청 귀가증명서, 인민군 귀순증명서

서로 고향을 물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산길을 걷다가 산에서 내려와 넓은 도로를 가다가 국군 헌병에게 잡혔다. 국군 주둔지에 가니 우리뿐만 아니라 잡혀온 사람이 몇 백 명이 되었고 개별로 신상과 증명서를 조사한다.

어쩌나, 나는 증명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던 참에 눈치를 보니 어느 한사람이 육군 대령이 해준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나는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같이 일했다고 해 달라고 사정을 하자 그 사람이 그러마라고 했다.

증명서는 ‘귀가 증명서’ 라 쓰여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한청 귀가증명서’ 어떤 사람은 ‘인민군 귀순증명서’ 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 사람 뒤에 바짝 붙어 위기를 면했다. 그 사람은 황해도 사람인데 그 집까지 같이 가니 부모님이 아주 반겨주었다. 그 사람의 나이는 나와 비슷했고 학도병으로 나갔던 것이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집에서 해주는 강냉이밥을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그 귀가 증명서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니 선 듯 내주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고향집으로 가기위해 잘 모르는 길을 혼자 찾아가야할 판인데 그렇다고 무작정 큰길로는 갈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도로로는 가지도 못하고 주로 산길을 이용해서 걸었는데도 그만 한청(한국청년단)에 잡혔다. 나는 귀가 증명서를 보여주니 “너 수상해! 증명서는 황해도인데 왜 남쪽 여기까지 온 거야!” 하며 으박지르며 때린다. 나는 구구절절이 사정사정하여 겨우 풀려나 경기도 이천까지 왔다.

◆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오다.

다시 조금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길을 택해 내금강 쪽으로 방향을 잡아 10월 7~8일경에 강원도 고성 현내면 모정리에 도착하여 구장 집을 찾아 들어갔다. 구장 집은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며 큰 걱정하고 있었다.

그 집에서 잠시 묵었는데 아직도 위험하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몇 일을 더 지나고나니 구장이 현내면 치안대에 가서 인민군 귀가 증명서를 해다 주었다. 먼저 받았던 증명서는 귀가 다 닳고 삭아 없어졌다.

10시에 출발하여 간성에 오는데 산에서 군인 2명이 내려오는데 다행히 그중 1명이 당숙이다. 셋이 만나 걸어서 간성읍 군인(HID)부대에 가니 양양사람인 이복길씨가 문관으로 있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거지같은 행색을 한 나에게 민간인 신발과 그리고 옷도 갈아입힌 다음 부대에서 주는 점심밥을 잘 먹고는 다시 양양으로 걸어서 1950년 12월 18일 오후 4시경 고향인 손양면 송현리에 돌아왔다.

◆ 남한에서는 학생이 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학교에 다니려고 학교에 가니 강진천 이라는 분이 교장이
셨다.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당
시 학교에서는 나에게 2학년에 입학하라고 하였지만 나는 후배들과 같이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여 남한에서의 학생은 되지 못했다.



- 박인동 (남, 89세, 손양면 학포리)
- 면담일 : 2015. 4. 21

◆ 의무장교가 되어 권총을 차고 옛 친구들을 혼을 내다.

일정 때 나의 증조부는 현북면 장리 연하동에 살았는데 후에 손양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학포 집은 조부가 양양의 제1
부자 윤규병씨가 지은 집을 매입하여 살았는데 해방되고 북한 당국이 몰
수하여 손양면 인민위원회 간판을 기둥에 걸어놓고 북한 정치를 하였다.

1951년 3월 국군이 양양을 탈환했을 때 소위 계급장을 달고 의무장교
되어 고향 학포리에 권총을 차고 와서 악질 공산당 짓을 하던 옛 친구, 이
○○, 이○○, 박○○ 등 5~6명이 피란가지 않고 있어 그들을 모이게 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그냥 보냈다. 나중에 다시 수복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그들은 이미 북으로 가고 없었다.

◆ 연화동을 거쳐 새벽에 살금살금 38° 선을 넘었다.

1945년 8월 해방되고 북한은 토지 5정보 이상 가진 지주는 재산을 몰수
하고 일주일 이내에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부친은 식량 10일치와 간단
한 취사도구를 챙겨 서문리 친척집 좁은 방 1개를 얻어 온 식구가 2~3개
월 정도 기거하였다. 식량이 떨어져도 배급품이 많지 않아 대두박을 배급

으로 주었다. 동네에서는 우리 집을 밤중까지 감시하고 지키고 있어 나는 공산당을 싫어했다.

나는 당시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왔는데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38° 선이 막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야간에 학포리에서 출발하여 38° 선 근처인 장리 연하동 골짜기를 왔다. 그곳에는 인민군과 소련군이 합동으로 보초를 서고 있어서 붙잡히면 죽는다는 공포감 때문에 마음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조마조마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금살금 기어 38° 선을 넘어 월남하였다.

◆ 피란 당시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고 장교가 되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주문진에는 고모부가 동제병원을 하고 있어 거기서 1년을 지냈으며, 아버지는 도청 지적계장을 지내셨는데 수산에서 배를 타고 월남하였다. 할아버지는 글을 잘하여 인제에서 교사를 하다가 손양, 현북 면장을 20여 년간 하였고 나중에 양양명륜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그 후 6·25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젊은이들이 부산으로 피란을 갔는데 당시 19세인 나도 군인으로 잡아갔다. 그러나 그때 군대에 입영된 자들 중에는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 19세 입대한 나는 장교가 되는 간부 후보생으로 2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소위계급을 달고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다. 다른 동기들은 전선에 배속되어 전투 중에 사망하기도 하였다.

군정시기에 접어들자 제1군단에서는 1951년 8월 18일 박중승씨를 민정관으로 임명하고, 부친이신 박증길 씨를 부군수로 임명하여 군정을 하고 1954년 민정이 이양되고 내무과장을 하였다. 나는 춘천에서 약종상 자격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하여 한 때 양양 시내에서 관동약국을 운영한바 있다.



- 이주희 (남, 80세, 손양면 수여리)
- 면담일 : 2015. 5. 4



◆ 50년 5월에 학교 앞 아카시아나무 숲에 탱크와 대포도 숨겨 놓았다.

1950년 6·25한국전쟁 당시 나는 14살 이였고 양양 초급 중학교 2학년 생이었다.

6월 25일 10시경 동네 인민위원회장이 우리 군대가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주문진까지 진격했다고 동네에 알렸다. 그때 동네에는 부인회, 농민회 등 북한 단체들이 있었다.

1950년 5월에 이미 학교 앞 아카시아나무 숲에 탱크를 숨겨 놓았고 대포도 마차로 싣고 와서 숨겨놓았다. 인민군에게 물어보니 “학생동무는 알 필요가 없어!” 하며 가르쳐주지 않았다. 학교 운동장에는 인민군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분대장은 어깨에 빨간색 3줄이 있었다. 파란색 견장은 국방경비대이고 정규군은 빨간색견장을 하였는데 전쟁 발발 후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양양에는 38경비대 3대대와 4대대가 주둔해 있었고 38°선 남쪽은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 미군 폭격으로 양양인민학교 뒤 밤나무 밑에서 공부했다.

1950년 전쟁 중에도 학교 공부는 9월까지 하였다. 양양초급중학교에 미군 폭격이 있어서 양양인민학교 뒤 밤나무 밑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추석이 가까울 때 각 면으로 분산하여 다녔는데 나는 손양으로 다녔고 조산리 아이들도 같이 며칠간 공부하다가 현북중학교가 폭격에 맞아 학생들이 많이 죽어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집에서 농사일을 하였고 지계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도하고 벼 추수도 도와드려 농사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인공 때는 소나무를 못 베게 보호하여 동네 할아버지가 송아리(소나무 가지)를 따 가지

고 지고 오는 것을 보고 노인을 영창에 못 보내니 그 아들을 영창에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 **함포사격이 심해지자 굴을 파고 온돌을 놓고 1년 동안 살았다.**

북한이 쫓겨 가고 국군이 들어오니 북한의 인민위원장, 부인회장 등 간부들을 잡아가고 소도 끌어다 잡아먹는 일도 있었고, 집안 아저씨는 인공 때 교사를 하였어도 북한을 싫어하여 울진까지 피란을 갔다 왔다.

그러나 그는 학도병들과 치안대들과 같이 어울려져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 10여명과 북으로 피란을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밤에 군인들이 소를 끌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여 쌀을 모아 소주인에게 소 1마리에 쌀 5말 정도를 걸어서 주기도 하였다.

당시 예고도 없이 무력으로 남침을 당했던 국군들은 이 동네가 공산치하의 지역이라 이같이 못된 짓을 한 것으로 생각되나 38° 선 이북지역에 양민들의 소를 잡아가는 일은 전후 피치 못할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함포사격이 심해지면 학포 산골짜기에 들어가 2일 동안 피란하였다가 함포사격이 점점 심해져 집에서는 살 수 없어 굴을 파고 온돌을 놓고 1년 동안 살았다. 1950년 말 온 동네를 국군이 불을 질러 집 탄 자리를 쓸어나고 토담집을 짓고 살았으며, 전쟁을 해도 싸우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1951년 3월 국군이 북진해 와 짐꾼으로 포탄을 나르는 일을 했다. 그때 16~60세 까지는 전투를 하는 지역에 가서 포탄, 쌀 등 물건을 지게로 저 나르는 일에 동원되어 고성 어디인지는 모르나 짐꾼으로 15일 동안 산봉우리를 오르내렸다.



- 홍성하 (남, 85세, 손양면 동호리)
- 면담일 : 2015. 5. 4



◆ 모내기를 하다가 탱크가 처박혔다기에 꺼내주고 왔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모내기를 하는데 동네 인민위원장이 논에 찾아와 밀양고개에서 탱크가 처박혔는데 인부를 내라고 했다. 모내기 하다가 5명이 가서 탱크를 꺼내주고 왔다. 그리고 보니 마차에 대포도 끌고 가고 인민군이 새까맣게 총을 메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군 내무서에서 인민군에 나가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장작을 무릎에 대고 꿰어앉아 있으라고 해서 하루 종일 있으니 발이 저려서 감각이 없어졌다. 그들은 저녁때 입대하겠다고 하니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양양학교에 오라고 했다. 그리고 당시 북한에서는 조국 보위훈련이라 해서 15세부터 손양학교에 모여 모의 수류탄도 만들고 총도 깎아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 빨간 딱지 군인과 파란딱지 군인

이튿날 연창 기차정거장에 가니 약 200명 정도 모였다. 기차를 타고 안변에 내리니 날이 밝았다. 학교 운동장에 모이니 부대편성을 한다. 빨간딱지를 한 군인이 와서 줄을 세운다. 나는 파란딱지를 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 강원 내무성 1대대로 편성되었다.

편성지에 가니 궤짝에서 독일제 총을 꺼내 지급하면서 기름이 묻은 것을 닦으라했다. 그리고 빨간 딱지를 한 사람은 전쟁터로 간다고 하여 총알을 100발씩 지급받아 간성에 있는 인민군 연대의 빈자리에 배치되어 진부령을 도보로 넘어 양구읍에 가서 근무하였다.

낮에는 숲에서 자고 밤에는 이동, 식사는 민가에 가서 식사를 제공 받는데 마을 인민위원회에 연락을 하면 그 마을에서 쌀, 옥수수, 보리쌀이 섞인 밥을 주었다. 그 때 먹었던 10년 된 된장이라고 하여 먹었는데 그 맛이 지금도 기억에 난다.

◆ 포로들은 8명씩 손을 묶어 오줌을 누러 같이 갔다.

우리 2개 소대는 포로병을 양구로 이동시키라는 임무를 받았다. 포로는

약 150명이었다. 그중에는 남한 경찰, 군인, 국회의원, 책임자들, 공무원을 하던 자들이라 했다. 이들을 이천에서 회양 산골로 인솔하여 황해도 금천군 인민학교에 가서 인수하러 온 사람들에게 인계했다. 포로들은 8명씩 손을 묶어 오줌을 누러가도 같이 가야 했다. 이때 중대본부는 산골 절에 주둔해 있었다.

양구에 돌아오니 방송에 인천상륙작전이 있으니 인민군은 북쪽으로 후퇴하라고 나왔다. 후퇴하면서 인민학교 운동장에서 문서들을 태웠다. 소대본부는 양구 읍내 큰 건물에 주둔해 있었는데 다시 원산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 의용군에 잡혀갔다가 도망을 쳤다.

인민군들은 후퇴를 위하여 이동을 하다가 어느 한 고개를 넘게 되면 잠을 자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친구와 둘이 몰래 도망치자고 모의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사방을 둘러보니 모두 잠이 들어있었다.

특히 장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산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래야 사방이 잘 보이기 때문이었다. 나와 친구는 총과 탄알을 버리고 그냥 뛰었다. 그때 탄띠를 찻던 영치[방언: 영덩이 뒤부위에서 뼈가 만져지는 부위]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해가 저물고 사방이 어두워지는데 골짜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방을 살펴가며 집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인이 살고 있다.

“너, 웬 사람이냐?”

“예, 저 양양 명지리 사람인데 의용군으로 잡혀왔다가 도망가려는데 도와주세요!” 나는 동호리는 북한 땅이어서 순간적으로 외가가 있는 명지리지를 잘 알고 있어서 둘러댄 것이다. 노인은 옥수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방으로 들어가니, 그 방에는 통천에 산다는 사람도 와 있었다.

강냉이와 좁쌀이 섞인 밥을 먹고 나니 노인은 인민군 옷을 입고 있으면 잡히니 10월 말 쯤 이라 싸늘한 날씨이긴 하나 배주적삼을 갈아입고 노인이 길을 가르쳐주어 그대로 영을 넘으니 통천이다.

◆ 쌀밥에 쇠고기 국을 먹으니 눈이 번쩍 떠졌다.

해가 저서 아직 어둡지는 않은데 길거리에서 헌병이 지키고 있었다.

“너, 어디 갔다 와!”

의용군으로 잡혀갔다 옵니다.

고향이 어딘데!

양양 현북면 명지리 인데요.

저기 민가에 가서 자고 내일 와!

라고 하여 민가를 찾아 들어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들어오라고 한다. 그리고 소를 잡았다며 쇠고기를 얻어와 쌀밥에 쇠고기 국을 먹으니 눈이 번쩍 떠졌다. 주인은 친절하게도 “잡히면 포로가 되어 고생을 할 테니 저 버덩으로 질러가면 양양으로 가는 길이 나와.” 하며 안내를 해주었다.

한길에는 군인GMCT력이 빗발치듯 다녔다. 통천을 걸어 오다보니 빈차가 오고 있어 용기를 내어 손을 번쩍 들으니 묻지도 않고 용케도 세워 주어 친구와 둘이 타고 장전을 지나 고성읍에 내렸다. 밤이 되어 민가 집에 들어가니 “젊은이들 위험한 시기에 어디 갔다 와!” 주인이 물어서 사정을 말하니 “고생했구나!” 하고 밥도 주고 재워주었다.

아침을 먹은 후 고성 역에서 국군들이 타는 차로 4인이 철로 위로 손으로 지기는 철도 수리용 차를 타고 토성면 사람들과 남쪽으로 내려왔다. 간성읍에서 죽왕면에 들어서는데 국군이 딱 막아서며 조사를 한다.

다른 두 사람을 조사하는 중에 우리 둘이는 눈짓으로 신호를 하여 죽어라고 도망을 쳤다. 뛰어가면서 뒤를 보니 따라 오지 않았다. 청간에 오니 헌병이 또 막아선다.

“야, 너희들 어디 갔다 와!”

“양양 현북면 명지리에 사는데 의용군에 잡혀갔다 도망쳐 가는 중입니다.” 하니 가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 또 잡히면 어려울 것 같아 증명서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헌병은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증명서를 해 주었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니 식구가 다 있었는데 집에서는 죽은 줄 알았다고 하며 반가워했다.

◆ 젊은 강릉 아줌마와 20일간 한방에서 살았지만 아무 탈 없이 지냈다.

집에 와서 약 한 달을 지냈는데 1·4후퇴로 국군이 인민군에게 밀려 피란을 가야 한다고 했다. 부모님과 동생 5명이 소 질매에 쌀 1가마니를 싣고 현남면 동산과 강릉 경포를 지나 안인에서 자고 눈이 많이 와서 더 가기가 힘이 들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인민군에 갔다 도망 왔으니 잡히면 죽는다. 너는 남쪽으로 더 나가거라.” 고 하여 가족과 떨어져 울진까지 가는 동안 이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몇 술씩 얻어먹으며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피란지에서 구걸생활을 하였다.

국군이 북진하여 묵호에 들어오니 묵호항 부둣가에서 큰 배에 연탄을 싣는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찾아갔다. 하루를 일하면 알람미(안남미)밥과 국을 주고 쌀 2되씩을 품값으로 주었다.

나는 묵호의 어느 빈집에서 숙식을 하며 살게 되었는데, 마침 강릉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남편은 의용군에 잡혀갔고 3살 된 아기가 있는 20대 후반의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다.

그 아줌마는 전쟁 중 피란생활이라 본인에 신변도 보호 받을 수도 있고 검사검사 해서 나와 같이 있자고 하여 나는 낮에 일하고 품값으로 받은 쌀을 갔다가 주면 그 아줌마가 밥을 해주어 같이 먹으면서 그러저럭 한 가족처럼 생활을 했다. 아줌마는 아랫목에서 자고 나는 윗목에서 자면서 그렇게 약 20일을 연탄 나르는 일을 하면서 동거도 아닌 동거를 하면서 함께 살았다.

그 당시 피란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남녀가 한 방에서 기거를 하면서 아무 탈이 없이 지내게 된 것은 지긋지긋한 피란생활 속에서 오로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가 양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아줌마는 강릉 시장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 총탄을 지고 전쟁터인 대관령을 오르내렸다.

목호를 떠나 양양으로 들오는 중에 연곡에 산다는 한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그 아저씨와 걸어오다 옥계에서 어떤 기와집에 들어갔다. 주인집 아저씨는 요사이 잘 못하면 국군이 잡으러 오니 저 뒤에 있는 골방에 가서 자라고 한다. 골방에서 한참 잠이 들었는데 노크소리에 일어나니 국군이 짐을 좀 옮기면 되니 따라 오라고 한다.

주인아주머니가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밥이나 먹고 데려가요!” 하니 국군이 “잠간 가서 도와주면 되니 빨리 갔다 오자” 고 한다. 나는 할 수 없이 그 군인을 따라가니 군용 GMC차가 기다리고 있다. 약 20명이 같이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 보니 대관령 밑 구산국민학교라 했다.

탄알을 지고 대관령으로 가는 일이었다. 중간에 주막집에서 쉬면서 건빵을 1봉 주었다. 입춘인대도 날씨는 춥고 눈이 쌓여 자동차가 가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춥다고 하니 누비옷을 내 주어 따뜻하게 입고 대관령에 올라가니 정상에는 공병대가 눈보라 치는데 눈구멍을 파고 있었다.

우리와 같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앉아 쉬었는데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냥 두고 가니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때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그냥 두고 간 7명은 그대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투는 황계리에서 벌어진다고 했는데, 황계리에 도착하니 밥과 쇠고기국을 주는데 오랜만에 쇠고기국을 먹으니 살 것 같았다.

전쟁터에 도착하여 전사한 병사들의 총을 메고 중대본부에 오니 중대본부 상사가 같이 다니자고 하여, 나는 무서워 싫다고 하니 구둣발로 차면서 욕을 하더니 가라고 한다.

그날 구산국민학교 연대본부에서 1박하고 다음날 또 오대산 쪽으로 가라하여 중대본부에서 총알을 지고 가니 철수 명령이 났다고 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다.

저녁식사 후 모이라고 할 때 나는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이새기 피를 쓴다! 라고 하며 막 패니 할 수 없이 또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연곡 중대본부에 가니 국군이 빈집에 가서 베틀을 가

저다 발 방아[디딜방아]를 짚으라고 해서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다.

인부들도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전투 현장으로 총알을 계속 날라다주고 난 다음 전쟁이 뜰 하자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보내준다고 하여 그때 도매금으로 풀려났다.

아버지와 헤어진 안인을 찾아가니 모두 모른다고 해서 양양으로 들어오려고 인구에 오니 국군, 미군, 경찰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여 큰 길을 피해서 대치리 명지리 상광정으로 해서 동호리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 어머니는 감자를 심으려고 조 뿌리를 뽑고 계셨는데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 이흥만 (남, 79세, 손양면 동호리)
- 면담일 : 2015. 5. 12



◆ 길가에 누더기를 덮고 누어있던 노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13살 때 손양인민학교 3학년을 다녔는데 그 때 6·25전쟁이 일어나 인민군이 남쪽으로 쳐 나갈 때까지는 잘 몰랐다. 그러나 1·4후퇴 때인 겨울에 국군을 따라 피란을 나가는데 길거리에는 시체가 많아 피하면서 발을 옮기며 걸어 피란을 나갔다. 때로는 노인이 가지 못하고 누더기를 덮고 누워있는 모습도 기억에 생생하다.

첫째 날은 지경리 현 동해막국수 집 부근에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고 주문진 큰 냇가를 지날 때 비행기에서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여 사람들이 막 쓸어졌다. 그때 우리 동네 이상덕씨 모친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는데 그 어디 가서 항의도 하지 못하고 산에 묻었다.

◆ 그때 버려졌던 애기가 지금 속초에서 살고 있다.

연곡 쫓 인데 하늘엔 검은 비행기였고 뽕뽕 날아다니고 피란길가 옆으로 소이탄이 떨어졌다. 이웃집이 애기를 버리고 가는 것을 우리 누나가 업고 갔다. 나는 이불을 지고 따라가다 누나가 없어 찾아보니 애기가 울고 있었는데 가보니 폭탄이 떨어지면서 흙속에 묻혀 있었다.

그렇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걸어서 초당에 도착하니 마침 집 주인이 피란 떠난 빈 집에서 1박을 했다. 그때 버려졌던 애기는 전인호로 지금 까지 속초에 살고 있다. 그 후 삼척까지 피란을 나가서 1개월쯤 지나자 쌀도 떨어져 남의 집에 다니며 동냥을 하며 살았다.

◆ 굴속은 인민군도 피하고 함포사격에도 안전했다.

인민군이 후퇴할 때 인민군을 따라 양양에 왔다. 그때 같이 들어 온 사람들 중에는 전라도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는 동호리 까지 와서 살짝 숨어 마을에서 떨어진 뒷산에 굴을 파고 살았다. 이곳은 인민군도 피하고 함포사격 때도 소리만 요란했지 안전했다. 피란민들은 하얀 보자기를 가지고 다니다 비행기 소리가 나면 보자기를 뒤집어쓰고 몸을 숨겼다.

북한에서 어머니는 교회를 믿는다고 내무서에 잡혀가서 많은 고초를 겪었기에, 더는 인민군을 따라가지 않고 다섯 가구(이홍만, 전인영, 전인호, 전○○, 홍○○)가 굴속에서 함께 살았다.

밥은 집에 가서 해 먹고 대부분 굴속에서 살았다. 마을 고개 넘어 에는 7집이 살고 있었지만 그중 3집만 남았는데 그때 불타지 않은 집은 최천명, 윤해병, ○○○ 집이었다.

국군이 들어오자 어머니와 교회 장로였던 장기주는 태극기를 그려 굴속에서 나오며 만세를 불렀다. 국군은 불에 타지 않은 집에 주둔하니 밥도 먹을 수 있고 누룽지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그때 내 나이는 14살이었는데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최고로 좋았다.

이른 봄 국군과 같이 산에 갔는데 인민군이 산에 숨어 있다가 총을 사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는데 한참 후에 보니 7명중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는데 한 군인의 처참한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 시멘트 푸대 종이에 태극기를 그려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얼마 후 국군이 또 남쪽으로 후퇴할 때 우리는 안 따라가고 굴속에 숨어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국군을 좋아한 사람들을 누가 인민군에게 고자질하여 사람들을 줄로 묶어 끌고 바닷가 솔밭으로 가서 구덩이를 파게하고 기관총으로 사살했다고 한다. 우리는 무서워 굴속에서 숨죽이며 살았다.

인민군들은 우리 동네에 와서는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형이 인민군 장교였는데 두 번이나 자기 부모님께 인사하고 갔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 인민군들은 우리가 있는 곳을 모르고 남쪽으로 가더니 얼마 후 국군에게 쫓기어 또 후퇴해 북으로 가버렸다.

인민군이 후퇴하고 동네가 비어있게 된 후 국군이 들어올 때 어머니와 장기주 장로님은 시멘트 종이에 태극기를 그려서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형의 가족은 그 후 서울 어디에 가서 산다고 하는데 이 고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 동호리 앞바다에 좌초된 군함

피란 갔다 돌아오니 동호리 남쪽 끝 앞바다에 시커먼 큰 군함이 바닷가 모래 불에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시간이 흘러 반년이 흘렀을까? 가보니 군함 밑에 구멍이 났는데 그리로 들어가 보니 칸칸마다 총과 총알 폭탄 대포가 있고 별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대포는 머리를 넣어 봐도 들어갈 큰 대포도 있다. 부처님도 있고 식당에는 그릇들도 많았다. 군함이 처음엔 육지에 닿아있었는데 홍수가 지면서 떠밀려 바다에 떠 있었다. 우리는 그 속의 구리 파이프를 뜯어다 동네에 도랑에 배수구를 만들려고 파이프를 놓고 쓰니 좋았다. 그러다 고철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친구들인 이흥만, 장기성, 장세환이 뜯어서 고물상에 팔기로 했다.

◆ 군함 속에 부처님으로 쌀 5가마니 값을 받았다.

처음에 구리파이프를 뜯어서 속초 고물상에 가지고 갔다. 차가 없어 걸어서 가거나 운이 좋으면 군용차를 얻어 타고 가기도 했으며, 처음 쌀 1말 값을 쳐 주었는데, 몇 번 그렇게 팔러 다니다 요령이 생겨 망치, 쇠틀, 스패너 등 공구를 사서 이용하니 더 많은 고물을 뜯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돈이 생기니 하고 싶었지만 해엄을 쳐 들어가야 하고 또 잠수를 해서 군함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고 또 무서워서 용기를 내서 하지 못했다. 내가 군에 입대하여 1군사령부에 근무할 때 잠수병으로 뽑혀 양평 다리 놓을 때 철 와이어를 메고 강을 건너는 일을 했을 정도로 물에는 단련되어 있었다.

다음은 주문진에도 가지고 가서 팔았다. 파도가 심하여 죽을 뻔 한때도 있었으며, 그러던 중 군함 속에 부처님이 있어 그것을 꺼내 속초에 가서 팔았는데, 그 다음날 고철을 뜯어 팔러가니 고물상 주인이 부르더니 어제 부처님 값을 더 쳐 주겠다며 쌀 5가마니 값을 준다. 기분이 아주 좋아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 금이 아니면 보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종우 (남, 84세, 손양면 수여리)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고문
- 면담일 : 2017. 12. 20



◆ **큰댁 벽장 속에 조카와 같이 숨이불을 여러 겹으로 가리고 숨어있었다.**

1950년 10월 1일 우리 국군이 기사문리 38° 선을 돌파 양양에 입성한 후 1개월간 주민들은 전쟁의 불안한 생활을 벗어나려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북쪽 안변지역까지 피란하라고 소개령이 내리니 마을의 이장 한 청단장 등 책임자들은 은밀한 곳에 숨거나 자치치안대와 같이 북쪽으로 피란하였다.

이는 앞서 국군이 먼저 북상을 하고 낙동강전선에서 국군과 미군의 반

격으로 미쳐 북으로 퇴각을 하지 못한 인민군패잔병 8개 사단병력이 1950년 11월 2일 양양으로 진입을 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 마을에도 인민군패잔병 1개 연대가 진입하여 3일간 머물다가 11월 4일 새벽에 철수하는데 초가 6칸인 우리 집은 의무소대가 주둔하고, 중형게서 한창단장을 맡고 있는 우리큰댁에는 대대본부, 이종순씨 댁에는 연대본부가 주둔했었다.

그런데 이때 큰댁에 주둔한 대대본부의 대대장이 후퇴 할 때에 나를 납치해 간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 아버지가 은밀하게 듣고서 피하라고 하여, 나는 3일 날 밤에 몰래 인민군이 주둔하지 않은 하수여리에 있는 아래큰댁의 벽장 속에 조카 이홍수와 같이 숨이불을 여러 겹으로 가리고 숨어 있었다.

숨이불로 몸을 감싼 이유는 우리의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음 효과를 노린 것이며 또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혹시 나의 은신처 벽장을 향해 사격 할 시 방탄용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하여 나는 밤새도록 숨도 크게 쉬지 않고 숨어 있는데 4일 새벽 지축을 흔드는 폭음소리가 광광광 세 번 울리더니 조용해졌는데 큰댁 노 아주머니께서 인민군들이 남대천을 건너 북으로 다들 떠났으니 나오라한다.

이리하여 나는 그때 인민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슬기롭게 처신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피해나갈 수 있었다. 벽장 속에서 숨을 죽이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날 밤은 시간이 왜 그렇게 더디 가던지 그때 아버님께서는 조상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 은덕이라고 말씀하셨다. 새벽의 폭음이 진동한 것은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양양남대천 대교를 폭파시킨 것이었다. 2일 동안 양양에 체류한 인민군이 11월 4일 새벽 북으로 후퇴해 들어갈 당시 속초와 대진에서 인민군에게 피해를 입힌 방공애국청년단 조직원이었던 당시 우리 마을의 이장 이공수(당시22세)의 무용담(武勇談)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반공애국청년단 조직원 이공수는 23명의 대원과 같이 11월 3일 밤 속초읍

부월리에 진을 치고 인민군이 후퇴 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인민군 선발대와 교전 인민군 정규군과의 대적은 중과부적으로 몇 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고성에서 대진을 지나 제진까지 후퇴하여 그곳에서 다시 인민군과 교전하고 많은 피해만 남기고 안변까지 후퇴했다가 돌아왔다고 전하였다.」

◆ **양양군정사령관 이하 관계 장병들과 국군환영 마을잔치를 성황리에 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은 승승장구하던 북한군의 기세는 꺾이고 3개월만인 9월 30일 당시 인민군이 쌀 창고로 사용하던 향교를 불 지르고 인민군은 후퇴하자 10월 1일 국군이 우리 양양을 수복했다.

당시 인공치하에서 요직에 있던 분들은 북으로 피란가고 나머지 주민들은 전과 같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치행정조직, 자치치안조직 등으로 조심스럽게 새 세상, 새 터전을 꾸려가고 있었으나 이곳은 38°선 이북지역이라 대부분의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이 영속(永續)되려는 것을 염려(念慮)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 시기 전 재산 몰수당하고 남한으로 월남했던 이면수 씨가 수복 귀향하여 구중궁궐(九重宮闕) 같았던 집을 수리하고 공포 속에서 생활하는 마을 주민의 심리적 내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마을인 양양군 손양면 수여리의 지난날과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 하면서 주민의 안녕, 단합, 화합을 위해서 국군환영대회를 열어야 한다. 는 주제로 토의하니 이면수 씨의 의견대로 국군환영연회를 개최기로 결의하고 주민 각자 부서별 담당자가 선정되었고 그때 나는 연락과 초청 안내책임을 맡았다.

시기는 기억이 암울하나 1950년 11월 20일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양군청 청사에 군정을 관할하는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남대천 다리도 끊어졌으니 나는 혼자서 남대천을 건너 군청에 자리한 사령부에 찾아가서 우리 마을의 전후 사실을 말하면서 국군환영 마을잔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우리 마을 주민을 따듯이 안아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사령관은 꽤히 승낙하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마을에 돌아오니 마을 주민은 합심하여 술을 담그고 큰 암소 한 마리도 잡는데 담당은 간성택 이용조 할아버님이 맡았고 마을 부녀들이 동원하여 음식을 장만하여 큰잔치가 열리게 된다.

나는 약속한 날 또 혼자서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군청청사로 들어가 사령관을 비롯하여 관계 장병을 우리 마을로 안내하여 국군환영마을잔치는 성황리에 끝을 내었으니 인공치하에서 조금이라도 앞서서 부역하던 사람들 모두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으며, 이후 우리 수여리 마을 주민들은 군정초기 군과 소원함이 없이 군정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었다.

◆ 출생 5시간 된 핏덩이를 누더기로 감싸 안고 엄동의 피란길을 나서다.

1950년 12월 23일이다. 당시 수여리 한청부단장 이영택이 새벽 일찍부터 마을을 순회하면서 큰 소리로 “모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빨리 남쪽 목호 이남으로 피란 떠나라.” 고 소란이다. 그러지 않아도 종형 이종범 한청단장은 화동부리(황소) 등에 쌀자루 두개를 엮고서 몇 일전에 혼자 떠났고 이어 큰어머니는 나머지 가족인 자부, 어린 손자 손녀 6명을 대리고 12월 22일 떠난 후다.

우리도 피란 준비하는데 양양읍에서 우리 일가의 사돈인 이종철 장모께서 분만시각이 급박한 자부와 세 살 박이 손자를 대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우리 아버지께서 난감해 하시면서도 침착하게 방에 불을 뜨끈뜨끈하게 지펴 방을 달궈놓고서 방바닥에 벼짚을 깔고 분만 준비를 하고 있는 외중에도 집을 비우고 떠나라고 국군이 돌아다닌다.

할 수 없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계에 명석과 집단을 지고 수여리 서널말 서낭재 바람으개 대나무밭 옆에 아늑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식구와 분만 진통이 시작된 사돈네 식구까지 모두 대리고 그곳에 이르니 추위는 말할 수 없으며 앞산에서 여우가 짚는 소리 시끄러운데 아버지께서는 내 어린 동생들이 놀랄까봐 개가 짚는다고 하신다.

이러한 상황인데 밤 10시경 임부는 그 통증이 어떠하라? 죽는다고 신음

하니 “이리다간 이렇게 추운 밤중에 잘못하면 여기서 장사를 치르게 되겠구나.”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사돈네는 나와 같이 집으로 들어갑시다.” 하시니 우리 식구만 산에 남고 사돈네는 뜨끈뜨끈하게 달궂어 놓은 집으로 들어갔다.

우리 식구는 눅지도 못하고 추워서 웅크리고 앉아서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만 있는데 얼마 지난 후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들을 순산했다.” 면서 “할 수 없다. 우리도 들어가자.” 하여 집에 들어오니 어느새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깨어나니 1950년 12월 24일 아침이다.

준철네 식구는 벌써 남쪽으로 떠났다한다. 상상해 보라! 조산원도 없이 난리 중 태어난 핏덩이 아이와 미역국도 제대로 끓여 먹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 다섯 시간도 되지 않은 핏덩이를 누더기로 감싸 안고 살을 에는 엄동의 피란길을 나섰다.

여기서 이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조물주의 조화에 의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리라.

이 세상에 태어난 핏덩이가 다섯 시간도 지나지 않아 엄동설한에 전쟁의 참화 피란 속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은 거기에 가까운 신비스러운 비화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는 의젓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우리 양양의 재건을 위해 심신을 다 바치고 늙어가는 양양인 안준덕 이다.

◆ 잿더미가 된 집으로 되 돌아와 땅굴을 파기 시작하였다.

1950년 12월 24일 양양지역은 유엔군 작전명령에 의하여 가옥은 모두 불태워졌다. 손양면은 7호선 국도변 마을은 전소되었으나 날이 저물어지자 하수여리, 학포리 등 동해안 쪽 마을에는 가옥을 소각하는 군인들이 미치지 못하고 황급하게 후퇴하는 바람에 그쪽 마을들은 불태워지지 않았다.

우리 식구는 불에 타는 집을 뒤로하고 그날 저녁 어두운데 소 등의 질매에 쌀 한 자루 이불을 실고 조갱이골을 지나 조선시대 도로였던 진손이 쪽으로 나가다가 밤이 어두워 더 나가지 못하고 길가의 무덤에 어린소나

무인 보두기를 찍어다 바람막이를 하고 밤을 지냈다.

바람은 없었으나 밤길에 하룻밤 지새는 것은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다.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어린 동생 넷 우리 식구는 남하 할 수 없어서 잣더미가 된 집으로 되 돌아와 땅굴을 파기 시작하였다.

아버지께서 하수여리 아래큰댁의 상황을 보러 가셨다 오시더니 “아래큰댁은 타지 않았다.” 하시면서 큰댁으로 가자고 하여 그날(1950년 12월 25일)부터 우리 식구가 기거 할 굴이 다 될 때까지 큰댁에서 지내는데 눈이 계속 내리기 시작한다.

이 시기 북에서 내려오는 피란민들은 남대천 양양대교가 끊어졌으니 남대천을 건너는 요지(要地)는 바로 지금의 연어양식장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하천의 폭은 넓으나 여울져 가장 얕으며 옛 철로와 연결 강릉 쪽으로 나가는 이 지름길을 지나서 남으로 내려가려는 피란민들은 우리 아래큰댁 집 길목을 꼭 지나쳐야만 했다.

◆ 마당의 바지랑대에 태극기를 달았다가 인민군에게 화를 당했다.

수요일인 1951년 1월 10일 눈이 계속 내리는 날의 일이다.

오후 5시경 나는 아버지의 머리를 깎아드리려고 차비하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드니 “집 주인님 계십니까?” 소리치므로 나는 재빨리 방 출입문 창호지 문살에 붙여놓은 조그마한 유리조각 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국방색 코드를 입은 군인 7명이 서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피하게 하고 밖에 나아가 그들을 맞이하니 마당에서 눈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인민군 척후병이요.”

우리는 후퇴하지 않고 인제의 깊은 산골에서 은신하면서 작전 임무를 수행다가 이제 다시 진격하게 되어 척후병으로서 선발대 역할을 하는 중이다. 라고 하고는 남대천 쪽 버덩말로 간다.

그때 내가 내다보니 말을 하는 군인은 장교요 걸 요대에 권총을 찼으며 나머지 병사는 장총과 따발총을 코드 속에 메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떠난 지 10여분 지났을까? 200m이내의 지점에 있는 형수 별되

는 일가 덕 부인인 거릿덕 아주머니가 눈이 펴 붓는 길을 헤치고 달려 나와 울면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방금 인민군들이 남편(이종상 당시 47세)을 권총으로 머리를 쏘 죽이고 갔다고 함으로, 우리 아버지는 황급히 그 아주머니와 함께 그 집에 가서 시신을 염하고 그 즉시로 뒷산에 눈을 치고 매장하고서 밤늦게 돌아오셨다.

화를 당한 형님께서서는 눈 내리는 마당의 바지랑대 끝에 태극기를 게양해 놓고 사랑방에 앉아 경서를 읽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소녀물을 끓이는데 인민군 척후병이 나타나서 형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한다.

“우리는 인민군인데 이집은 반동의 집이로군, 저 태극기를 내려 버리시오.” 라고 하니 형님께서서는 “나는 이승만 박사와는 종친 간으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놈들아 내 앞에서 살아져라.” 라고 소리치니 악에 바친 인민군 장교가 형님을 끌러 내어 마당 고질까리 옆에 꾸러 앉히고 곧바로 권총 한발로 머리를 쏘 사살하고 남대천을 건너갔다.

이종상의 부인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며칠 전부터 실성해 하시면서 경서만 읽는다고 하셨다. 후에 인민군 7명은 형님을 사살하고는 곧바로 남대천을 건너 낙산사 입구 강현면 주청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 신고산유격대원들이 강현면 주청리에서 인민군 척후병 7명을 소탕하다.

당시 신고산유격대 소대장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1951년 1월 10일 밤 인민군 척후병 7명이 주청리에 당도하니 주청리의 여맹위원장, 농맹위원장 등 북한 노동당 세포요원들이 모여들어 대환영잔치가 벌어진다. 이웃마을까지 연락하여 각자 집에 담귀 놓은 막걸리단지며 안주감 마련 급히 찹쌀떡을 안반에 치는 등 야단법석으로 음식과 주안을 마련하고 여맹위원장 집에서 환영 만찬회가 열리니 이제 그들의 세상이 열린 것이다.

항창 주흥이 무르익을 참에 북에서 반공활동을 하던 36명의 신고산유격대원들이 그곳에 당도하여 그 상황을 감지하고 그자들을 소탕(掃蕩)할 준비를 갖추고 주흥이 무르익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동무들!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조국전쟁과정에서 이렇게 동무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정말 반갑습니다. 동무들 환영합니다.”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적기기를 같이 부르며 포옹도 하고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어 갈 때, 지휘자의 신호에 의하여 인민군의 개인화기도 탈취 제압하고 그 방에서 놀던 인민군 척후병 7명을 비롯하여 그 지역 노동당 세포요원들을 사살하는 쾌거를 올리고 신고산유격대 36명 전원이 그 다음날인 1월 11일 오후 중에 남대천을 건너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수여리에 도착하였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 노병례[(盧炳禮) 1932년 양양농민조합사건으로 3년간의 형을 받고 함흥형무소 구금]씨의 안내를 받으면서 수십 명의 피란민 대열 선두와 후미에서 신고산유격대원들이 피란민들을 호위하면서 남대천을 건너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란민과 유격대원 일부는 잠시 쉬었다가 남으로 떠나고 노병례씨와 나모지 유격대원들은 내가 기거하고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쉬었다가 1월 12일 아침에 남쪽으로 떠났다.

그때 신고산유격대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누런 편지봉투 하나를 들고 ‘수여리 이준재 씨를 만나려한다.’ 고 하므로 내가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셔오자 유격대 대장이 들고 있던 편지를 우리 아버지께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편지는 우리가 통천을 지나올 때 강용길 동지가 편지를 써 주면서 이분이 나의 장인이시니 양양을 지나갈 때 꼭 찾아 드리라고 부탁받은 것입니다.” 라면서 우리 아버지께 편지를 전하고 인사를 하고난 다음 남쪽으로 떠났다. 그것이 나로서는 작은 매형이 아버지께 전한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말았다.

〈편지내용〉

「안부를 전하고 묻는 말, 전쟁 기간 중 몸을 보존하시라는 당부, 3개월 후면 국군이 다시 진격 할 것이니 그때에 재회할 것이다.」

◆ 67년 전의 격전장을 찾은 “신고산유격대장” 손흥구의 증언을 듣다.

당시 유격대장 손흥구(남, 88세, 서울시 통일로 78-가길 13-14)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 이곳 강현면 주청리에 찾아와 감회가 새롭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그는 “평안남도 양덕군 동양면에서 공산당을 반대 활동 중 인민군에 입대영장을 7회나 받았으나 6회는 군에서 반대하여 안 나갔고 1회는 평양까지 갔다가 도중에 도망하여왔다.” 고 했다. 그 후 피신 중 6·25전쟁이 일어나 피신생활 5개월 만에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평안남도 양덕군에 입성하자 산에서 내려와 자치대를 조직하였다. 그 때 소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중략>

“나는 자치대 대원 7명과 선발대로 남하 중 낙산사 앞 동네에 인민군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때 우리는 남진하는 인민군 유격대라고 하면서 민간인을 동네에 있던 인민군을 보자고 연락하니 인민군 한명이 나와 악수를 한 후 대대장과 소대장하고 같이 회합을 하자고 한 후 인민군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는 대원중 칼빈 소총 소지자를 4인 선발하여 모두 총을 장전시키고 내가 인민군한테 말을 시키면서 손을 들면 사격하라고 약속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아랫방과 윗방사이에 칸막이에 문짝이 4장 있는 것을 떼어내고 인민군들은 아랫방에 앉아 있고 우리는 문턱에 걸터앉아 동무들 소속이 어디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우리는 대대장, 소대장 2소대장 3소대장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자 그 인민군들은 오늘 인민군유격대[위장을 한 HID]대원이 오늘 온다는 연락을 받고 그들이 막걸리를 해 달라고 시키고 갔는데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돼지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한창 여흥이 고조되어가고 있을 무렵 나는 재빨리 손으로 신호를 하여 인민군 8명을 사살하고 따발총 6정, 장총 3정을 노획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67년 전에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회상하여 기록한 내용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 **창고와 마구간에서 공부하고, 손양면민 자력으로 국민학교를 재건축했다.**

1950년 12월 24일 작전상 부득이 모든 가옥과 관청이 모두 불태워 질 때 손양학교도 잿더미로 변했다.

전쟁 중 학구열에 불타는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이 타지 않고 남아 있는 주리와 학포리 민가의 창고와 마구간을 빌려 교실로 이용하여 교육시키도록 하고 이어 군부의 지원이 있어 잿더미가 된 손양학교의 교정을 정리하고 군 천막을 지원받아 교실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시기 타면의 학교들은 유엔군이 지원하는 자재로써 육군공병대의 직접지원 하에 복도가 운동장 쪽으로 설계된 교사를 재건하여 학교마다 교실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손양학교만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나로서는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양면민들은 학교건축을 위한 자치기성회를 조직하고서 손양면민의 총의(總意)에 의하여 총동원되어 직접 면민의 손으로 학교를 건축한다고 의견을 정하고 부소치리, 삼촌리, 주리, 상왕도리 등지의 산에서 재목으로 쓸 만한 소나무를 베어 작동(作動) 재재하여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외벽 내벽 모두 외(椽)를 얹고 익인 흙을 맨손으로 발라 벽을 만들고 이렇게 면민의 합심으로 7개 교실로 된 손양국민학교 교사가 재건되었다.

다만 지붕의 루핑(roofing)과 교실바닥의 마루는 미송판자 그리고 창호는 유리 대응인 가는 철사 망 한쪽 면에 얇은 비닐 같이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과 같은 재료를 입힌 것은 군부에서 지원하였었다. 이 시기 손양면장은 밀양리의 윤현중씨가 아니면 양철리의 고연재씨 이였을 것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았던 전쟁과 군정(軍政) 속에서 변혁(變革) 애향(愛鄉) 교육열은 면면(綿綿)이 이어져 오늘의 양양이 있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고맙다! 양양” 이 탄생하였는지 모른다.



 ■ 박광표 (남, 80세, 현북면 잔교리)
■ 면담일 : 2017. 11. 17



◆ **인민군의 도발을 피해 북분리 백자골에 들어가 살았다.**

해방이 되어 38° 선이 그어지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자 북은 소련군이 와서 지키고 있어 경계선을 넘으려고 산길로 숨어서 다니는 장사꾼들이 남으로 물건을 팔러 넘어와 아군에게 잡히면 압수당했다.

당시 북에서 명태가 많이 나서 대나무로 꺾어서 팔러 오다 압수당한 것을 현재 마을회관 자리에 있던 지서에 쌓아 두었는데 꼬챙이로 명태 눈을 빼 먹다 잡혀 지서 뒤에 나무로 둘러막아 만든 영창을 살아보기도 했었다.

그때 장사꾼들은 주로 대치리에서 잔교리쪽 산으로 넘어오는 장삿길로 많이 다녔다. 경비가 점점 강화되면서 소련군과 인민군이 습격을 해와 운석갑 순경이 다쳤다. 그래서 남쪽도 북쪽을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북쪽 인민군들이 주로 밤이면 보복을 해와 도발을 자주 당하니까 불안해서 살수가 없어 집을 놔두고 마을을 떠나 백자골에 움막을 치고 낮이면 논밭에서 일하고 밤이면 움막에 와서 자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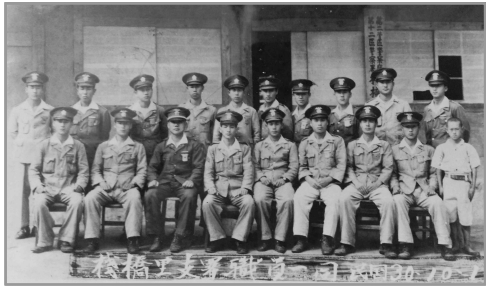
◆ 눈에 가래질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총알이 날아와 총상을 입기도 했다.

북분리 백자골에는 30여 집이 있었고 현 경찰공원 자리에 부근에도 20여 집이 있었는데 잔교리 지서는 철거하고 북분리로 옮겼다. 그때 마을 청년들은 한청에 가입하여 순경들을 도와 마을을 경비했다.

잔교리는 경찰마을이라 한집에 2~3명씩 경비를 서다가 경찰이 되어 경찰서장도 나왔다. 그리고 지금 현남 휴휴암 자리는 북한 간첩선이 접선하고 돌아가는 장소였다.

그때 간첩 9명이 북한 간첩선과 접선하다가 잡혀 휴휴암 방파제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중 할머니 한분은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가 총에 맞지 않은 그 할머니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기도 했다.

그리고 남흥덕 순경 부친은 봄에 골짜기 논에서 가래질 하다가 쉬는 시간에 불을 쬐고 있는데 총알이 날아와 맞아 다치는 일도 있었다.



〈 잔교리지서직원일동 民國30年(1948年) 10.1 〉

그때는 북쪽 기사문리도 소련군과 같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

은 서로 연락하여 월남할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여자들이 주로 하였다. 낮에 일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농사일하고 오후에는 철수하도록 하였다.

◆ 주문진 소들에서 북한 쾌속정 3대가 아군 함포에 맞아 침몰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난 줄도 몰랐다. 민동이 틀 무렵 경찰이 땡땡땡 하고 비상종을 울렸다. 얼마 후 총소리가 몇 방나더니 동네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고 나갔다. 그때 미처 나가지 못한 경찰이 M1 총을 보리 짚 더미에 던지고 우리와 같이 피란을 나가다가 북분리에서 인민군을 만났고, 중공군도 북치며 나왔지만 소련군은 보지 못했다.

남으로 피란을 나가려고했으나 앞서 인민군이 있으니 할 수 없이 북분리

백자골에가서 식구가 방 한 칸을 얻어서 살았다. 백자골에는 이미 노인들과 아이들은 피신해 와 있었고 나도 할아버지와 거기서 같이 지냈다. 할아버지들은 전쟁이로 뒤송송하건만 그 와중에도 쌀로 술을 담아 먹고 있었다.

아이들과 구르마(놀이기구)를 타려고 산위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니 북한 쾌속정 5대가 주문진 소들 에서 아군 군함의 함포 사격을 맞고 2척은 가라앉았고 1척은 불이 붙었다 바로 침몰하고 나머지 2척은 북으로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

◆ 리장 선거에 지자 인민군이 되어 긴 칼을 차고 겁을 주며 리장을 찾는다.

우리 마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동네에서 리장 선거가 있었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가 떨어지니 그중 한 사람이 화김에 월북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그 자는 칼을 차고 바지 옆으로 빨건 줄이 있는 옷을 입고 와서 마을 앞에 있던 뽕나무를 긴 칼로 획~하고 베면서 겁을 주며 리장을 사방으로 찾아 다녔지만 못 찾았는데, 그 당시 전연차의 손자에 의하면 그는 북분리 백자골에 있는 남에 집 쌀통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해 10월이 되자 국군이 북진해 들어 왔다. 경찰 김형갑과 낙권이 아버지가 피란 안간 것을 알고 북분리 백자골로 찾아왔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국군이 양양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자 이젠 살았구나 하고 하면서 잔고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군의 뒤를 따라 들어온 인민군 패잔병에게 밀려 마을사람들은 오히려 북쪽으로 피란을 갔다. 그때도 노인들은 피란을 안가고 밤으로는 산으로 가서 지냈는데 인민군들은 소와 먹을 것을 내 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약탈해 갔다.

그해 겨울 또 인민군이 나온다고 피란을 가라고 한다. 그때 북한에서 내무서원들이 마을 책임자를 찾아다녔지만 다 피신하고 글을 모르는 문맹자만 남아 있어 피해는 없었다.

◆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피해자가 된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때 마을 일을 맡아서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김○○은 마을을 위해 누가 해도 해야 한다며 내가 안 나서면 죽으니 마지못해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니 마을사람들 모두가 나중에 국군이 들어오면 꼭 지켜주겠다고 결의했다. 그래서 김○○이 인민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국군이 진격해 와서 인민위원장을 찾았다. 그때 경찰과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강제로 인민위원장을 맡아주어서 피해 없이 살았고 증언하여 아무 탈이 없었다.



〈38선 고무(苦務)를 상위(相慰)하는 바-레 광경
잔교리에서 民國30.10.2〉

그 사람 아들은 머리가 좋아 인데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하였으나 과거 부친이 인민위원장 경력 때문에 신원보증에 걸려 불합격이 되자 나중에 지역경찰들이 신원보증을 하여 경찰이 되었으나 후에 아버지 김○○은 화병이 나서 술마시고 죽어 마을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피해자가 된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었다.



- 흥필녀 (여, 90세, 현북면 잔교리)
- 면담일 : 2015.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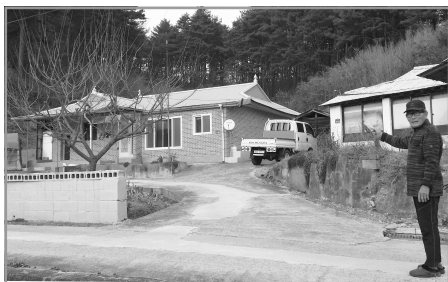
◆ 그때 김순희네 집의 방은 이남이고 부엌은 이북이었다.

1945년 로스케(소련군인)와 미군이 잔교리에 와서 38° 선에 막을 치며 여기서부터 이북이라고 말했다. 10월 윤옥남이 시부모 대상(大喪)에 나가

보니 빨갱이질 하는 사람들인 최○○, 정○○, 진○○ 등이 이북으로 넘어가거라 지랄이더라.

그때 윤옥남이 남편인 김형만은 상제 옷을 벗고 회를 내면서 이놈들 때려죽인다고 야단이였다. 그 후 서북청년단이 주문진에서 들어와 북쪽으로 간 사람들 집을 때려 부수었다. 그때 잔교리 김순희네 집 부엌은 이북이고 방은 이남이였다.

광정에 있는 내무서원들이 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 조사를 하고 죄가 없으니 저녁에 돌려보내기도 했으며, 이장 선거 때는 서로 이기려고 험담을 일삼고 경쟁을 하며 서로가 갈등을 야기 시켰다. 그 당시 남쪽에는 경찰이 경비를 했고, 북쪽은 소련군 로스케와 인민군이 국경을 지켰다.



〈 현재 현북면 정기동 58번길 18-30 (309번지 당시 순희네 집터) 〉

어느 때인가 무슨 사건이 생겼는지 소련군과 인민군이 경계를 넘어 공격해 왔다.

그때 소련군이 “아메리카 가만히 있어 로스케 마요즈(온다)” 라고 했으나, 남한 경찰 경비대 순경이 총을 발사하여 로스케 다리가 관통상을 입어 단가에 실어 북으로 보냈다.

경비하는 경찰은 15명이 근무했는데 마을 순찰 시에는 경찰 1인과 한청(한국청년단)이 딱딱이를 치며 한국청년단원 4명이 동행했다.

그러다가 한때 인민군들의 갑작스러운 기습공격으로 함순경과 권순경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주민들이 논밭에서 일하다 인민군의 총을 맞아 사망하기도 했으며, 밤에는 인민군이 자꾸 내려와 노략질을 하여 산 너머에 희망 촌을 만들어 움막집을 짓고 피해서 살았다.

◆ 국군만 잡을 테니 민간인은 서있으세요 !

6·25전쟁이 일어나던 날 새벽 포격 소리에 일어나 산위에 올라가 보니 인민군이 새까맣게 깃발을 흔들며 오고 있다. 엄마는 큰 언니가 약해서 애기를 업고가지 못하니 인구 언니 네와 작은 언니 네와 같이 피란을 가라고 했다. 우리는 국군을 따라 인구리 5중대본부로 나가는데 뒤에서 인민군이 총질을 하며 따라 온다.

그 인민군들은 “우리는 인민을 사랑하여 인민을 해치지 않는다! 국군만 잡아간다! 민간인은 서 있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때 국군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보고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며 우리를 방패 막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피란민들이 인구에 있는 국군 5중대 주둔지에 도착하니 벌써 인민군이 앞에 와 있었고 국군은 이미 산을 이용해 주문진으로 후퇴했다고 한다.

우리는 길을 따라 강릉으로 나갔는데 사천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했다. 강릉도 위험하다고 하여 성산으로 가니 인민군이 뒤따라온다고 하여 삼당령[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와 목계리 사이에 위치한 고개]을 넘어 임계, 여량, 정선에 도착했다.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고 애기를 업고 가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 안동에서 대구 그리고 부산 해운대 까지 피란을 다녔다.

다시 위험하다고 하여 안동으로 그리고 또 대구까지 내려갔다.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 식은 밥, 감자밥, 조밥 강냉이밥을 집집마다 다니며 얻어 먹었다. 어떤 집은 “젊은이들이 힘들게 왔는데 밥이 없어 어떻게 하지” 하며 안타까워했다. 때로는 순밥도 맛있게 얻어먹었다.

대구에서 다시 해운대까지는 군인차로 갔다. 해운대에서도 밥을 얻어먹었는데 배는 굶지 않았다. 설 때에는 왜 그리 이가 많은지 가려워 머릿니도 잡고 옷을 벗어 이를 잡고 또 잡았다. 이는 보리쌀만큼 큰 놈들이 옷이 접힌 솔기에 숨어 있으면 양쪽 엄지손톱으로 눌러 딱 터져 죽이면 피가 터져 나온다.

◆ 피란선(군함)을 타지 않아서 죽음을 면했다.

국군이 38° 선을 탈환했다하여 군용차로 임원까지 왔고 다시 배로 주문진까지 왔는데, 음력으로 9월 9일이었고, 그리고 다시 사흘 후에는 인민군 패잔병에 쫓겨 할 수 없이 고성 충석정까지 갔다.

그때 언니 시동생이 경찰이어서 우리는 더 피란을 가야만 했다. 식사는 문전결식을 하였는데, 때로는 경찰관 시동생이 쌀과 수수쌀을 주어서 밥을 해 먹었다.

다시 국군을 따라 나올 때는 언니의 둘째아들을 업고 군함을 타고 나오려고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애기를 업고 화장실에 갔다가 금방 나오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

그랬더니 형부가 “얻는 밥 잔뜩 주어먹고 똥을 싸러 가서 늦게 와 군함을 놓쳤어! 어떻게 양양까지 걸어 가!” 하면서 여간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애기를 업고 남쪽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런데 그 배가 먼 바다 쪽에 갔을 때 비행기가 오더니 우리가 타려했던 군함을 향해 폭격을 하더니 그 군함은 그만 파선되어 갈아 앓고 말았다. 그때서야 어른들은 “니가 우리를 살렸다!” 하고 좋아했다. 그 때 그 어린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 속초양양교육장을 한 이상집 이다.

그렇게 걸어서 피란을 다니는 동안 옷은 떨어지고 신발도 밑창이 나서 얻어 신고 다녔다. 양양 고향에 오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있었다.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으니 밭에 쌓아놓은 큰 콩 가리 속에서 지냈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날은 9월 29일이었는데, 약 20일간 피란생활이었다.

◆ 나무해 팔고, 삼 삼고 허드렛일 도와주고 보리쌀, 좁쌀을 얻어먹었다.

1·4후퇴 시 인민군이 사용한다고 집을 모두 불 질러 놓자 동네사람들은 눈을 밝으며 울진까지 피란을 갔다. 울진에서 같은 동네사람이 경찰서장을 하고 있는 김상원이 우리들에게 매화리에 자리를 잡아 주었다. 하지만 밥은 자기가 해결해야 했다.

덕구 온천마을에 가서 동냥을 해다가 밥해 먹고, 삼 삼아주고, 허드렛일

도와주고 보리쌀, 좁쌀을 얻어다 먹고 남자들은 바다에 나가 놀래기 잡이, 그리고 나무해다 팔고 농가에 가서 일도와주고 보리쌀을 구해다 먹고 살았다.

이렇게 3개월을 지내다가 집으로 들어오니 집은 타고 없어 안탄 집에 한 칸씩 한집에 3~4가구가 살다가 한집씩 토막집을 짓고 나가 살았다.

◆ 인민군이 기관총 사수를 죽을 때까지 쏘게 기관총을 몸에 묶어놓았다.

잔교리는 60여 호 중에 경찰출신이 38명이다.

38°선이 막혔을 때 공산당이 밤에 넘어와 노략질을 하거나 사람을 해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학도 경찰이 되었는데 나중에 정식 경찰로 편입되었다. 한집에 3명의 경찰이 있었으며, 김일권씨는 속초, 인제, 철원의 경찰서장을 지냈다.

38°선을 정할 때 소련군이 북분리와 잔교리 사이에 정했는데 미군이 들어와 38휴게소 지나 굴다리 넘어서 정했다가 지금의 38°선으로 확정했다. 처음에는 미군이 양보 하다가 했더니 나중에 절대 양보하지 않아 지금 위치로 정해진 것이라 했다.



〈 습니다!! 38선이며! 故 權德出 警友 敬告 新軍에서 단기4281.10.30. 잔교지서일동 〉

잔교리 앞산이 고산봉인데 6·25전쟁이 지나간 후 고물을 주우려고 올라가 보니 인공 때 산중턱에 병커가 있었는데 철근콘크리트로 아주 두껍게 만들어져 있었다. 병커 안이 100평은 되어 보이고 천정에는 붉은 색 별을 그려놓았다.

그 병커 안에 인민군으로 보이는 기관총 사수가 기관총이 몸에 묶여있는 채로 불쌍하게 죽어있었다. 인민군들은 이 사수에게 죽을 때까지 기관

총을 쏘게 하고 후퇴한 것이다. 이 기관총사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하였는지, 아니면 상급자에 명령에 의한 것인지 모르는 일이니,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었다. 병커 안에는 총, 반함,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 윤옥남 (여, 93세, 현북면 잔교리)
- 면담일 : 2015. 5. 12



◆ **남편이 일본 징용으로 끌려가 4년 만에 돌아왔다.**

밀양에서 17세에 잔교리로 시집왔다. 그때 처녀는 일본군 위안부로 잡혀 갈까봐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다. 시집온 지 4년 만에 남편은 일본 징용으로 잡혀가서 온갖 고초를 겪고 해방이 되어 끌려 간지 4년 만에 돌아 왔다. 그때 이북 사람들이 자주 넘어와 노략질을 일삼아 그것을 피하여 고모님이 있는 삼척으로 이주를 하였다. 그때 시누이 남편은 철도국에 근무하여 그 소개로 철도국에 다니게 되면서 나는 셋방살이를 하였다.

◆ **부자 집에 가서 보리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그러던 중에 6·25한국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부산으로 피란을 가게 되었는데 맨 몸만 피란을 갔는데 남편이 어디 가서 쌀을 구해 와서 남의 집에서 생활을 했지만 끼니는 거르지 않았다. 그것도 계속 할 수 없어 내가 그릇을 들고 밥을 얻으러 다녔는데 부자 집에만 가서 보리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한 달 가량 있다가 국군이 38° 선을 넘었다하여 고향에 돌아오니 집이 모두 타 없어졌다.

타지 않고 남은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생활했는데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면서 농사도 짓고 집터에 움막을 지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다

시 피란을 가라고 하여 삼척까지 가서 약 1주일가량 피란생활 하다가 돌아왔다.



- 김용섭 (여, 84세, 현북면 하광정리)
- 면담일 : 2015. 5.12



◆ 인명은 재천(人命在天)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내 나이 22세가 되던 해에 상운 인민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 9월까지 상운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미군과 국군이 북으로 진군을 할 때 학교장의 인솔로 북으로 피란을 가게 되었는데 고성 어디쯤에 갔을 때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고 바다에선 함포사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산이 우르릉 거리며 요란하게 들렸다.

우리 주위에는 온통 정신을 차릴 수가 없도록 폭탄이 떨어져 숨어 있다가 나오니 일행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할지 분간을 못해 헤매는데 마침 수양을 맺었던 할머니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피란생활이 끝나고 나중에 복귀하여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폭격으로 삼지 사방으로 흩어졌던 학교장 이하 동료들을 멀쩡하게 모두 만날 수 있었으니, 그 당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처하였을지라도 모두들 제 살길은 다 찾아서 몸을 숨겼으니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았다.

◆ 너는 집으로 가라고 하여 서운하고 허탈했다.

할머니는 나보다 위인 딸을 데리고 안변 사돈네 집으로 갔다. 그 곳에서 기사문리 할머니 이모네 큰 오빠를 만나 마음이 놓이고 의지가 되었는데, 그 큰 오빠는 나를 보고 본인 자신은 만주까지 가야하니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너는 집으로 가라고 하여 많이 서운하고 허탈했다. 그 오빠와 떨어진 다음 마을을 찾아 들어가서 석왕사 앞 농가에서 자고난 다음 우리 외가 집으로 갔는데 버덩이 아주 넓었다.

그 마을은 양양에서 농사지으러 온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아버지가 강릉농고 2회 졸업생으로 우리 고장에 고구마를 전파한 공이 있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서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두 달을 머물렀다.

◆ 굴에 흙을 발라 험하게 만들고 검문을 받았다.

전쟁이 조용해져 양양으로 나오는데 헌병의 검문이 심하였다. 할머니는 나를 작은 딸이라고 했다. 둘 다 20대 아가씨이니 더욱 검문이 심하여 할머니는 모래로 손과 얼굴을 피가 날 정도로 문지르고 흙을 발라 얼굴을 험하게 만들어야 양양까지 무사히 갈수 있기 때문이었다.

검문이 있을 때 마다 농토가 없어 산을 일구어 농사를 짓다보니 우리 딸들은 얼굴이 성한 데가 없다고 했다.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 나오면서 나는 바보처럼 행세했다.

농가에 들어가 거지처럼 밥 구걸을 하고 잠도 자고 걸어서 왔다. 고성 건봉령을 넘으니 간성이었다. 그렇게 걸어서 양양에 왔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돌아왔다고 울면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 집은 비행기 폭격으로 불타버려서 아랫집 방을 얻어 살았다.

그 후 당시 군정 하에 양양군에서 학교선생을 뽑는다고 해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강습을 받고 전에 근무하던 상운학교에 발령을 받아 아이들을 가르쳤다.

◆ 남편 윤석진(86세) 이야기

내 남편인 윤석진은 6·25전쟁이 나기 전 현북 초급중학교에서 공산주의 교육만 시키는데 반대하여 학교 당국에서 구타를 당하여 동료인 윤석

규, 윤석중, 박상진, 윤석근, 윤석무 등과 1948년 6월 집단 월남했는데, 남한에서는 어린 학생들이므로 38° 선에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라고 보내주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었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였다하여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어 1949년 3월 12일 재판에서 4년 혹은 5년의 형을 받고 원산형무소에서 있다가 함흥, 청진 형무소에서 복역하였고 윤석규, 윤석중, 박상진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창에 가두어 놓고 한사람씩 나오라고 하고 매질하고 총살했는데 남편은 2일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이라 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5년 이상 정치범은 총살하고 4년형 이하인 자를 북으로 이송 중에 남편은 마침 유엔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이수라장이 되었을 때 탈출하여 산위로 올라가 감자 굴에서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때 맨발로 산속으로 탈출하였으나 방향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어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 같이 나온 평양 사람과 같이 낮에는 감자구덩이에 들어가 생감자로 20여 일간 연명하다가 맨발로 함남 신흥군 하기천면 치안대장 집에 찾아 들어가 밥을 얻어먹고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여 치안대의 호의로 함흥 감포항에서 어선을 타려고 부둣가로 나갔다.


그러나 그 배에는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나 좀 태워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니 어떤 사람은 같이 가자고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사정사정하여 간신히 배를 타고 주문진에서 내려 말곡리에 돌아오니 할아버지께서 ‘꿈인가 생시인가? 너 나를 알겠니?’ 라고 하신다.

“할아버지 제가 석진입니다.” 고 하니 그제야 할아버지는 “네가 석진이나.” 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반가워하셨다고 하시면서 할머니는 너 때문에 내가 산에 있는 서낭당에 다니시며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할머니는 내가 죽었다고 울고 다니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가 전쟁 중에 피란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고무신이 다 떨어져 밑바닥이 구멍이 나서 밑에 천을 얻어 깔고 신고 다녔다고 했고, 길을 가다보면 폭격에 맞아 죽은 시체가 드문드문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신발에 구멍이 나서 길에서 주워 신고 맞지 않으면 새끼를 꼬아 동여매어 신고 다녔다고 한다.



- 김상연 (남, 79세, 현북면 장리)
- 면담일 : 2017. 11. 24



◆ 그 경찰부인은 최근까지도 계속 혼자 살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해방 되면서 북에는 소련군이 왔고 남쪽에는 미군이 왔다. 당시 미군은 우리 마을에서 소련군과 서로 대치하려고 현재 마을회관 뒤편에 있는 산 등성이 둔덕에 임시 주둔할 곳을 만들고자 미군 4명이 와서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나는 친구들과 천막 바닥을 폭신평신히 하려고 송이풀도 베어주고 일을 도와주었더니 미군들은 우리에게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알사탕을 주었다.

그때 장리 곤지골에 사무소가 있어 배급을 타 오는데 경비를 서던 소련군들이 검사를 하고 쌀을 빼앗아 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미군은 1~2개월 후 가고 지서에서 파견을 나온 경찰관 2명을 인민군들이 확인한다고 끌고 갔는데 돌려보내지 않는 일이 생겼다.

당시 38°선 경계선 근방은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며 어수선하게 살던 때라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경찰부인은 개가도 하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 혼자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상황이 이러하자 남아 있던 경찰도 가끔 습격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밤에는 경비초소에 근무하지 못하고 산에 호를 파고 근무하였고 주민들

도 인민군들의 습격을 우려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잠도 편히 잘 수 없었다.

◆ 그들은 전날 어디서 사람을 동원해 왔는지 야밤에 벼를 몽땅 베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어성전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5중대에서 1개 소대 병력이 주둔하러 왔다. 국군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전투 호를 파고 산에서 살았다. 그러나 국군이 주둔하자 전처럼 가까이 지내던 이웃 동네 도리는 북쪽 마을이니 서로 왕래도 못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양양 시장에도 다녔는데 갈 수 없었고 원일전리 청년 한명은 토치카 공사 중 인민군이 총을 쏘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그 어디 가서 항의도 못하고 억울하게 살았다.

1950년 들어서는 거의 밤마다 습격을 당하니 공병대 3명이 지뢰 매설하러 와서 지뢰를 매설하였다. 그 후 아침에 나가면 인민군들이 지뢰를 밟아 죽자 머리를 잘라서 10개씩 가마니에 담아 인부꾼들이 지계에 지고 어성전리 중대 본부에 가지고 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 머리가 무거우니 귀를 잘라 가져갔다. 그러나 당하기만 하던 인민군들이 습격을 와서 지뢰 매설 군인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게 쌍방이 피해보는 일이 자주 일어나니 장리 주민들은 편히 살수 가 없어 어성전에 쫓겨 가서 살았다.

그러나 추수철이 되자 논에 벼 베는 날만큼은 서로 인접해있는 북쪽 마을인 부소치와 협의하여 같은 날로 정하고 남북이 서로 도발을 하지말자고 약속을 하고 벼를 베기로 했는데 그들은 전날 어디서 사람을 동원해 왔는지 야밤에 자기들 논에 벼를 몽땅 베어갔다.

◆ 피란 못간 경찰 가족을 동네 주민들이 신고 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인민군들이 폐거리로 총을 쏘며 내려오는데 그나마 주둔해있던 국군 1개 소대가 필사적으로 대항하니 금방은 내려오지는 못했으나, 계속 남하하는 인민군의 공세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국군은 후

퇴를 했다.

주민들은 밀려오는 인민군들의 총소리에 정신을 차리지도 못할 판국인데 이때 어성전 국군 본대도 철수하며 피란을 가라고 했다.

주민들은 다급하게 피란보따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 어성전을 지나 산 넘어 부연동까지 가서 1박을 하고 아침에 전우재를 넘어 연곡에 가니 거기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바글바글 했다. 피란을 나온 사람들에게 인민군들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여 더 피란을 갈 수 없어 할 수도 없이 장리로 돌아와 농사일을 하였다.

그 후 북에서 공산당원들이 마을에 와서 동네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일을 시키자 그들은 마을의 젊은이 들을 찾으려 다녔다.

그때 젊은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었고 마을 사람들도 신고하지 않아 찾지 못하였는데 한 청년이 집에 내려 왔다가 잡혀서 인민군에 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찰 가족이 미처 피란을 못 갔지만 동네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 무사히 다친 사람 없이 지날 수 있었다.

나는 어성전 인민학교 3학년이 들어가 김일성이에 가르침을 배웠고 그때 배운 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난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농사를 지은 생산고 조사를 하는데 좁쌀까지 썼다. 세는 방법은 일정한 면적을 정해서 베어서 작은 종지로 세고는 그걸로 되질을 하여 계산했다.

◆ **엄동설한에 만약 빈집이 없었더라면 엄청 더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다.**

국군이 반격을 하자 인민군이 후퇴할 때는 강가에서 하얀 보자기를 가지고 있다가 비행기가 나타나면 보자기를 뒤집어쓰고 옆드러니 비행기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때 우리 마을 앞길로 인민군이 후퇴를 하는데 종일 줄지어 지나갔다.

인민군이 들어가고 잠시 동안 배웠던 인민학교가 다시 국민학교로 바뀌어 학교에 가니 선생님들도 우리가 처음 국민학교에서 배우던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구장을 하던 아저씨도 선생님이었다. 좋은 세상도 잠시

겨울인데 또 피란을 나가라고 하여 1·4후퇴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피란보따리를 싸고 집에서 나오자 군인들이 총을 쏘니 집에 불이 붙었다. 가족은 할아버지와 부모 그리고 우리 3형제 여섯 식구가 여성전을 지나 망령재를 넘어 땃골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주문진에 갔는데 아버지가 국군에게 잡혀 차에 태워갔다.

남은 식구들은 모두 짐을 지고 정동진에 가니 빈집 들이 많았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 잤다. 그때 눈이 많이 내리는 엄동설한이라 밖에서는 잘 수가 없었는데 만약 빈집이 없었더라면 엄청 더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다. 가끔 썩썩이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사람도 많이 죽고 소도 죽어 있었다.

◆ 울진에 나가서 형과 나는 옛 장사와 양담배 장사를 했다.

6·25가 나고 1차 피란 때는 얼마 나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와 살다가 공산치하에서 3달 동안 시달려보았기 때문에 2차 피란 때는 제법 많은 쌀을 지고 피란을 나왔다. 그러나 많은 식구에 피란생활이 길어지자 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밥을 얻으러 다녔다. 목호에서도 피란민이 하도 많아 밥 얻어먹기가 어려워져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울진까지 갔다.

울진에서는 형과 나는 옛 장사를 했다. 옛은 만드는 집에서 떼어다가 옛 판을 매고 다니며 옛 사세요! 옛 사세요! 하며 다녔다. 잘 팔리는 날은 하루 한 판을 다 팔았고 나중에는 양담배도 떼어다 같이 팔았다. 주민들은 돈이 없어 못 사먹고 대부분 군인들이 많이 사 먹었다.

피란생활이 조금은 익숙해져 가는데 얼마 후 수복이 되었다고 하여 고향으로 들어오니 국군에게 잡혀갔던 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와 계셨다.

그때 모두가 힘들고 고달팠던 피란생활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많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대부분 인심은 좋았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수많은 피란민들과 같이 살았던 인심이 좋은 현지 사람들은 피란민들을 위하여 밥을 더 넉넉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김용범 (남, 82세, 현북면 어성전리)
- 면담일 : 2017. 11. 21



◆ **해방 후 현북면사무소는 하광정리에서 어성전리로 이전되었다.**

어성전리는 38° 선에서 남쪽으로 15여리 떨어져 있다. 해방 전에는 현북면 면사무소가 하광정리에 있었으나, 해방 후 38° 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38° 선 이남이 강릉군으로 편입되면서 면소재지가 현북면 어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해방 후 어성전에는 국군 2개 중대와 화기소대병력이 주둔한 대대본부가 마을을 지나 명주사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의 ‘노전’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주민들은 38° 선과 인접한 동네인 명지리와 장리 연화동 등지를 다니면서 땅을 파고 초소와 같은 병커를 흙주머니를 쌓아 만들고 교통호를 파는 일에 한 가구당 1년 5~60번을 동원되었고 군부대의 짐을 나르는 일에 동원되어 실탄과 식품 등을 저 날랐다.

가끔씩 남과 북이 38° 선에서 충돌이 있으면 그때마다 피했다가 조용하면 들어오곤 했는데 농사일을 하기가 불안하여 아침에 골짜기나 논밭에 들어갔다가 주로 오후가 되면 집으로 내려왔다.

그때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총소리를 들으면 어디쯤에서 날아오는지 대강 안다. 총알이 멀리 날아갈 때는 ‘튀~웅’ 하고 소리가 나고, 가까이로 떨어지는 소리는 ‘찌직~찌직’ 하고 소리가 났다.

◆ **국군들은 밥을 먹을 때와 잠잘 때도 손에 수류탄을 쥐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부모님은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눈에 모 심으러 가셨는데 마을 앞길로는 피란민들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에 떨며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은 점점

때가 넘어서 돌아오셨다.

우리 식구들은 짐을 챙겨서 피란을 떠나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사람이 많은 곳은 절대로 가지 말자는 말을 듣고 우리는 할아버지를 따라 인적이 드문 들미골로 가서 하루 밤을 묵으려고 초막을 쳤다.

저녁 4~5시가 되자 피란민에 섞여 나온 국군 1등 중사와 2등 중사가 전쟁 전날 저녁을 먹고 하루 종일 굶었는지 힘도 재대로 못 쓰며 주저 않는다. 우리가 마침 밥을 하여 그들과 밥을 같이 먹는데 그중 1등 중사는 손에 수류탄을 쥐고 밥을 먹고 있었고 잠을 잘 때도 수류탄은 손으로 꼭 쥐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머니에는 산에서 따가지고 온 덜 익은 산머루가 들어있었다.

다음날 국군들이 어디로 가야 남으로 가느냐고 물어서 개잔리를 거쳐 가마소를 지나 연곡으로 나가서 진고개로 접어들면 남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니 국군들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M1총을 메고 개잔리로 향한다.



〈면담중인 김용범씨〉

◆ 동네에는 장총에 칼을 품은 인민군이 씨글씨글 하다고 한다.

우리도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고 용너미를 거쳐 개잔리로 가서 개울가 옆에서 모래를 파고 나무를 찍어 덮고 4집 식구가 잤다. 이튿 날 할아버지 두 분이 마을에 가 보자며 어성전으로 내려 가셨다 오시더니 동네에 인민군이 장총에 칼을 꽂고 씨글씨글 하다고 하신다.

나도 인민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여 혼자 내려 가 보려는데 원일 전리 사람과 장리 사람들이 피란을 나가고 있다. 어성전 마을에 들어서니 누런 옷을 입고 있는 인민군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나는 혹시 함부로 행동을 하다가는 그들에게 붙잡힐 수 있어 도망을 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나는 태연하게 그들 옆으로 지나 동네 집으로 들어

가는 척 하다가 그 집 뒤로돌아가서 다른 길로 우회하여 돌아왔는데 그때 나는 얼마나 무서운지 발바닥이 땅에 닿았는지도 모르게 달려 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인민군들이 남쪽으로 떠난 후 할아버지는 인민군이 우리보다 앞서 나갔으니 어딘들 피란을 가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시어 집으로 돌아 왔다. 그때 내 나이 16살 이었다.

그러나 당분간은 집에 들와서도 바로 못 살고 4집 가족이 고적제에 막을 치고 얼마동안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일부 다른 집들과 대부분 공무원가족 그리고 특히 경찰가족은 경상도 까지 피란을 나간 집도 있었다.

◆ 농작물을 베어 벼이삭과 콩알도 세더니 현물세를 내라고 한다.

그리고 멀리 피란을 나가지 않고 되돌아와 살고 있던 동네에 얼마 후 북에서 정치공작대라며 남자 1명 여자 1명이 왔다. 그들은 소년들을 모두 현성국민학교로 나오라고 하여 모아놓고는 소년단을 조직하고 노래를 가르쳐 주고 김일성 장군에 대하여 가르쳤고 어른들 중에서 동네를 이끌 수 있는 책임자를 뽑는 등 이른바 100일정치 사회가 시작되었다.

8월에는 남조선 해방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인민군에 나가라고 선동을 하니 안 갈수 도 없고, 만세를 부른다고 모이라 하여 현성학교 운동장으로 나가니 마을 청년들은 바로 의용군에 끌려가 인민군대로 입대시켰다. 그때 의용군에 나갔다가 돌아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해는 가물어서 벼를 심은 논이 많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나마 동네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은 곡식에 대해 현물세를 내라고 하며 전체수확량을 조사를 한다고 농사가 잘된 곳 1평을 낮으로 베어 벼이삭과 콩알도 세어서 전체수확량에서 할당된 곡식을 현물세로 내라고 했지만 결국 국군이 들어오자 북으로 도망갔다.

◆ 청년들이 국군으로 위장한 인민군에게 속아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 마을 청년들이 모여 국군이 온다고 환영식을 하려고 하

였다. 그런데 인민군이 국군 복장을 하고 오니 국군인줄 알고 만세를 부르고 환영을 하니 청년들을 꼼짝 말라고 하며 전화선으로 손을 묶고 끌고 갔다.

밤이 되면서 청년들은 외딴곳으로 끌려가면서 묶인 손을 몰래 풀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청년들을 세워놓고 다발총을 쏘려고 할 순간에 재빨리 도망을 쳤다. 하지만 인민군의 총알을 피하지 못한 2명은 총에 맞아 죽고 부상을 당한 청년도 있었다.

그때 범수치 구장도 가슴에 총에 맞아 발에 엎드려 피를 흘리며 죽었고 김영옥은 그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외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며 아들 내놓으라고 소리 쳤지만 그때 인민군들은 이미 마을을 떠나고 없었다.

그 후 가을에 타작을 하는데 인민군 패잔병 3명이 신줄기를 타고 어성전으로 들어왔는데 2명은 부상자이고 한명은 위생병인 듯 한자가 부축하고 왔다. 그들에게 우리 큰 집에서는 패잔병이었지만 총을 들고 있으니 어쩔 수없이 10여 일 동안 밥을 해먹이면서 묵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인민군 복을 입은 군인 셋이 와서 여기 인민군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큰 집에서 콩 마뎡이를 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M1총을 쏘며 나오라고 하니 한 인민군이 수류탄을 마당에 던지고 뒤로 도망가려 하는 것을 군인들이 엎드려 포위하여 총을 쏘니 나가다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이 터져 죽고 환자 한명은 방에서 다른 한명도 도망을 치다가 군인들에 총에 맞아 죽었다.

그 인민군 복을 입었던 군인들은 국군들이 인민군복장으로 위장을 한 것이었다.

◆ 1·4후퇴 때 짐꾼으로 가셨던 아버지를 정동진에서 기적처럼 만났다.

평온도 잠시 동짓달에 인민군이 다시 밀고 내려와 국군이 후퇴하면서 제 2차 피란인 1·4후퇴가 시작되자 가족과 친척들은 짐을 지고 피란을 가자고 하였다. 1차 피란을 가까워서 잠깐 동안 하고 들어왔다가 북한정치

에서 고초를 겪으시고 이번에는 멀리 피란을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국군을 따라 산줄기를 타고 벽실골을 넘어 서림으로 해서 인제와 홍천방면으로 짐꾼으로 가셨고, 나는 가장이된 몸으로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과 모두 넷이 피란을 떠났다. 대치리를 지나 인구에서 1박하고 아침에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만나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안심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친척어르신들과 같이 가는데 내가 끌고 가는 수소 송아지를 군인들이 팔라고 하여 4천원에 팔고 주문진에서 1박하고 강릉 팔송정에서 자고나니 눈이 왔으나 그래도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정동진에 가서는 수많은 피란민 인파속에서 뜻밖에 국군을 따라 짐꾼으로 가시는 바람에 헤어졌던 아버지를 기적처럼 만나니 하늘이 도와서 운이 좋았는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 삼척 오분리에서 겨울철에서 봄까지 바다풀을 뜯어먹고 살았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쌀과 장 그리고 이불을 나누어지고 밤재를 넘어 옥계에서 1박을 하고 삼척에 나가니 피란민이 바글바글하다.

시내에서 살다가 바닷가 마을인 오분리에 가니 겨울에 산에는 풀이 없지만 바다에는 겨울철에서 봄까지 바다풀인 보리해동이 등을 뜯어서 먹고 쌀이 떨어지자 쌀과 밥 동냥을 하러 다니려고 20리도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피란생활은 주로 가는 곳 마다 더 멀리 피란을 나간 빈집들을 찾아다니며 살았고 정라진에 이르러서는 피란을 나가지 않은 할머니 집에 들어가니 그 집에는 며느리와 장질부사를 앓는 아들도 있었다.

그러다 아들이 죽으니 누구 하나 병이 옮길 것을 겁내고 장례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 아버지가 산에 묻어 주었다. 그 집의 26살의 애 엄마가 고맙다고 돈을 줌 주어 주문진으로 들어와서 지내다가 망령재를 넘어 어성전으로 들어와 보니 옛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 강가 모래밭에 감자구덩이처럼 깊게 파고 나뭇가지를 덮고 잤다.

때는 3.4월이라 강바람이 몹시 차지만 첫날에는 잠 잘 곳이 없어 강가에 쫓그리고 앉아서 추위를 견디며 자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이튿 날은 강가 모래밭을 감자 구덩이처럼 깊게 파고 그 위에 나뭇가지로 걸치고 그 속에서 잠을 잤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월천에 사는 누님 집에 가보니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우리보고 먼저 고향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전세를 살피고 나중에 들어오시겠다는 아버지가 오셨다. 당시 강가 언덕위에 ‘뒷송정’이라는 장소에는 전쟁 전 강릉 ‘임공사’ 라고 하는 회사에서 침목을 많이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 침목을 가져다 타다 남은 집 구들장 위에 동네 사람들과 같이 여름까지 서로 품앗이로 집을 지었다.

전부터 아버지는 노꼬(나무를 캐는 폭이 넓은 톱)질을 잘 하였고 할아버지는 목수여서 외를 엮고 벽을 바르고 집을 지어주었는데 돈도 받지 않고 서로 도와주었는데 그 후 면사무소가 들어오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쌀과 옷 등 구호물자도 배급받았다.

한때 범수치 깊은 산골에 미처 북으로 들어가지 못한 공비들이 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약탈해가서 주문진 경찰서 여성전 지서에서 보조경찰(의경)들이 근무를 하며 공비들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 김환기(남, 81세, 현북면 말곡리)
- 면담일 : 2017. 11. 24



◆ 해방 전 아버지가 면서기를 했다고 혹시 월남을 할까봐 감시를 받고 싶었다.

해방 후 38°선 이북에 인공정치가 시작되자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면서기를 하였다고 친일파로 몰려 토지 분배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혹시 월

남할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들에게 감시를 받고 살았고 그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제 3자가 또 감시를 하니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소년단은 저녁 식사 후에는 동사에 나오라고 하여 노래도 배우고 줄을 서서 마을을 돌며 이승만 타도하자!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

6·25전쟁이 나기 직전 걸으로는 전혀 기미를 채지 못했다. 그러나 인민군들은 열흘 전부터 마차 위에 폴로 위장하고 무엇인가를 싣고 나왔고 주부대가 마을 앞산 샘젯산에 이웃 주민들에게 인부 나오라 하여 호를 파고 인민군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그러다가 남과 북이 서로 총질하다 보면 총알이 마을에 날아들기도 했고, 남쪽 명지리 방면에서 박격포를 쏘아 우리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불이 번쩍하고 나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다.

어느 날 마을에 서있는 큰 감나무에 포탄이 터져 사람이 1명 죽고 2명이 다친 일이 발생했다. 그때 다친 사람들은 들것을 만들어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하여 장례를 치렀다.

◆ 인민군이 말곡리 입구 골짜기에 포신이 긴 대포 7대를 설치했다.

전쟁 3일전에는 포 1대에 사람들이 20~25명이나 매달려 대포를 밀고 당기며 말곡리 마을입구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짜기에 7대의 포가 설치되었다. 그때 나는 13살 어린 나이에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드디어 전쟁이 터져 피란을 가라고 하여 자다 말고 아랫말 골짜기에서 총소리가 나니 곱말로 가라고 했다. 전쟁 당일 인민군들이 말곡리 샘젯산을 올라가다 지뢰가 터져 3명이 죽어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일이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인민군들이 계속 남하하며 점령하는 곳을 마을 게시판 지도에 그려놓고 경상도와 부산만 남았으니 곧 통일이 된다고 선전하여 사람들 모두가 그런 줄 알았다.

◆ **교통호에 대피한 고학년은 죽고 산으로 간 1학년은 무사했다.**

그런데 9월 어느 날 교통호를 파고 소나무를 베어 현북중학교 건물 주위에 죽 세워놓고 나뭇가지를 베어다 지붕을 위장한 현북중학교 상공에 갑자기 정찰기가 와서 빙빙 돌다가 미처 가기도 전에 시커먼 썩썩기 폭격기 4대가 날아와 폭격을 하였다고 한다.

저학년 학생들은 산으로 뛰어 올라 토치카로 대피했고 고학년 학생들은 교통호에 숨었다. 소이탄 폭격과 함께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몸에 불이 옮겨 붙자 손으로 불을 털어내면 또 옮겨가며 불이 붙으니 교통호로 대피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죽고 산으로 올라 뿔 1학년 학생들은 무사했다고 한다.

그때 마침 나는 집에 일이 있어 학교에 안가서 화를 면했는데 폭격기가 지나간 후 여학생들이 살이 타서 넓적다리에 살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기 무서워 소름이 끼쳤다. 그때 소이탄 공격을 받은 학생들은 몸이 뜨겁다고 손으로 치면 불이 그 옆으로 바로 옮겨 붙어 피해가 컸다.

인부들이 동원되어 들것에 태워 양혈을 지나 간리를 넘어 양양 감곡리로 해서 적은리로 환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한다. 약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못하다가 국군이 들어오니 환자들을 두고 인민군들은 북으로 도망갔다.

부모들이 수소문하여 자식들을 찾아서 호박을 구해다 속을 긁어 발라 치료를 하고 감자를 삶아서 붙이고 피마자기름을 바르고 정성으로 치료하여 나온 학생도 있다. 그때 소이탄공격으로 넓적다리가 갈라져 화상을 입었던 여학생들은 나중에 사망하였다.

당시 현북중학교 뒷산에는 인민군 고사포 부대가 있어 비행기에 고사포를 발사 했다고 한다. 이 사고가 난후 소문이 퍼져 양양군의 학교들이 모두 폐교를 하였다.

◆ **중복골까지 피란을 갔다가 국군이 와서 열흘 만에 돌아왔다.**

9월말이 되면서 현북 중학교에 다니는 고학년 남자 학생 5명을 보자고 하여 인민군들이 데리고 갔다. 열마를 지난 후 에 돌아왔는데 청진까지 갔

다가 도망 왔다고 했고, 도망친 방법은 비행기 폭격을 받을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 그 틈을 이용하여 산으로 뛰어 숨었다가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얼마 있다가 이곳이 전쟁터가 된다고 피란가라고 하였다. 그때 우리들은 미군이 들어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열흘간 피란을 가있으면 된다고 하여 이불과 쌀을 지고 고모 네가 살고 있는 중북골까지 피란을 갔다가 열흘 만에 국군이 온다고 하여 돌아왔다.

당시 국군은 자동차로 빨리 북진하는 바람에 인민군들이 미처 북으로 도망가지 못한 인민군 대 부대가 국군이 북으로 들어간 후에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식구와 가까운 세 집은 굴속에서 15일간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다.

다행이 우리 동네는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았고 인민군 패잔병 대부대가 북으로 다 지나간 후에 나와 보니 2~3달 동안 마을을 설치고 다니던 세포위원장과 인민위원장 그리고 민청위원장들은 모두 북으로 들어갔다.

◆ 남쪽으로 자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밥을 더 얻어먹기가 쉬웠다.

그리고 3달이 채 안 되어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며 인민군과 또 쳐 나온다고 하자 1·4후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공산사회에서 시달림을 받고 살아서 먼 남쪽으로 피란을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연로하신 할아버지는 집에 남겨두고 식구들은 이불과 쌀 3말을 지고 피란을 갔다.

강릉 비행장 부근 빈집에서 1박하고 밤재를 넘어 옥계를 가다가 인민군을 만났는데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때 우리는 피란가기 싫어 다시 들어가는 중이라고 위기를 모면하였다. 옥계에서 한 달 여를 지냈는데 그때 아버지가 북으로 들어오던 국군의 포탄을 지고 전쟁터로 나가셨다.

피란을 나가면서 밥을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남쪽으로 자주 나가면 더 쉬웠다 그래서 모든 피란민들은 힘들어도 남쪽으로 계속 더 나갔다.

◆ 국군의 짐꾼으로 가셨던 아버지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시다.

국군이 다시 북진을 하고 인민군들이 북으로 쫓겨 가자 지역마다 공산주의에 혼란 사람들이 한청을 조직하여 안내를 하고 있었다.

전쟁 중이라도 정보통이 있어 들어가도 된다고 하여 밭에 마늘이 올라 올 때쯤인 봄에 말곡리에 돌아오니 집이 다 타고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때 이미 아버지께서 먼저 들어와 계셔서 식구들은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겨름 밭에 독을 묻고 쌀을 감추어두고 나갔는데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묻은 쌀독 윗부분은 1·4후퇴 당시 우리 집이 탈 때 용광로 같은 어마어마한 열을 견디지 못하고 불에 타서 누렇게 된 쌀도 그때는 곡식 날 알이 한 톨도 귀한 때라 어머니가 아까워서 밥을 해먹었는데 얼마나 쓰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였다.

동네 어르신들은 우선 집이 타고 난 온돌위에 통나무를 베어다 토막을 쌓고 벽은 흙으로 발랐고 부엌은 거적때기로 막고 솔을 걸었다.

봄에 농사를 시작했는데 씨앗은 어디서 구했는지 씨앗을 뿌렸고, 전 동네가 힘을 모아 서로 도와가며 일을 했다. 먹을 게 없으니 면사무소에서 우유가루와 밥이 훌훌 날아가는 안남미 쌀 등을 배급받고 나물과 섞어서 배를 채우며 농사일을 하며 살았다.



- 권오열 (남, 96세, 현북면 하광정리)
- 면담일 : 2017. 12. 1



◆ 국군이 올 텐데 왜 심하게 하느냐

해방이 되고 당시 우리 마을이었던 명지리는 38°선 이남이다.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친과 농사일을 하였다. 명지리에는 그때도 송이가 많이 나서 지계에 지고 주문진에 내다 팔았으나 지금처럼 값이 좋지 않았다.

당시 우리 집은 아버님이 6·25가 나던 전 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큰형수 그리고 집사람과 두 아들이 함께 6식구가 살았고, 큰형님은 해방 전 만주에서 돌아가시고 큰형 아들은 그때 국군으로 있었다.

1950년 전쟁이 났어도 우리 동네는 피란을 못 나갔다. 그날 아침새벽 북한인민군이 쳐내려오니 38° 선 바로 코밑에 있는 명지리 마을은 피란을 나갈 겨를이 없이 인민군들이 벌써 앞서가니 그냥 동네에 주저 앉고 말았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북한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마을에 간부를 뽑는데 당시 우리 마을에 좌익들은 없었지만, 그들은 강제로 마을책임자를 정하고 이장은 인민위원장을 나는 청년단장을 하라고 하여 마지못해 마을일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남한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북정치를 받아야 한다며 날마다 동사에 모여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 교육을 하고 또 의용군을 뽑아 간다고 하니 17세 이상 청년들은 모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 숨었다.



〈명지리 38 표시석〉

그들이 시키는 일은 생산고 조사가 있는데 면 인민위원장이 와서 나보고 출자로 농사를 짓는 조이 발두렁을 재라고 하며 조는 이삭이 길이가 얼마며 몇 개가 되는지 세고, 논도 기본면적을 자로 재서 계산된 수확량을 현물세를 매긴다고 했다. 이 제도를 쓰보갈이(일어)라고 한다.

그때 면 인민위원장의 친척이 되는 한 아저씨가 조카뻘이 되는 면 인민위원장을 보고 자네 “내일 모래면 국군이 올 텐데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하고 지레 짐작을 하듯이 말을 했더니 “아저씨! 큰일이 날 말 하네. 조심하세요.” 라고 한다.

◆ 마을사람들은 숨은 청년들의 장소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고는 일을 시켰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었으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마을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숨은 청년들의 장소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마다 회의에 나가면 북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무슨 말인지 지루하게 연설을 하곤 했다.

얼마 후 면 인민위원장의 친척뻘이 되는 아저씨의 말대로 진짜로 국군이 들어와서 나를 대치리 지서로 데리고 가서 이북정치에서 명지리 청년위원장 일을 하며 어떤 일을 하였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여 나는 마지못해서 책임자로 한일을 그대로 다 말하니 방망이로 때리더니 집에 가라고 했다.

그러다 마을 젊은 청년들과 나는 북진하는 국군들을 따라가며 식량과 보급품을 날라주는 짐꾼을 하다가 함경도 단천까지 올라가서는 계급이 높은 군인에게 나는 아버지 소상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니 가라고 했는데, 그때 나와 같이 짐꾼을 하던 마을청년들도 같이 보내달라고 간청하여 마을청년 열 두 명과 같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어머니가 탄원서를 내서 살아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상을 치르고 밥을 먹고 있더라니 주문진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고 또 다른 한명과 함께 감옥에 넣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도 막 붙들어 왔고 모두 약 15여 명이 한 방에 갇혀 있었다. 얼마 후 한사람씩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나는 내가 한 사실대로 말하였고, 이튿날도 조사를 하고 몇 번을 불러내서 조사를 받았다.

그 사이 어머니는 명지리에서 마을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북에서 온 사람들이 시키니 마지못해서 그들에 비위를 맞추려고 마을일을 했을 뿐이고 또한 마을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못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자 마을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 본인 이름에 도장을 찍어줘서 탄원서를 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감옥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1시나

2시 사이에 사람들을 불러내서 데리고 나갔고, 그 이튿날도 3명을 불러내 갔다. 셋째날도 또 사람을 불러내는데 권○○라고 불러 이번에는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마침 나와 이름이 비슷했던 다른 권○○라는 사람이 나간다. 그리고 얼마 후 나를 불러내더니 집으로 가라고 한다.

◆ 소금을 지고 영을 넘어가 콩과 옥수수 바꾸미를 했다.

그리고 겨울이 되자 국군이 후퇴를 하면서 두 번째 피란을 나가라고 하여 쌀을 대충 묻고 지계에 이불과 먹을 것을 지고 대치리 고개를 넘어가려는데, 그때 국군이 나타나서 길을 막으며 나에게 인민군이 나오면 집에 들어가 주둔할 터이니 마을 집을 다 태우라고 한다.

나는 할 수 없이 지계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 그 당시 명지리에서는 제법 좋다고 하는 우리 굴피 집부터 불을 태우려니 잘 붙지 않아 벗짚에 불을 붙여 태우기 시작하며 다른 초가집도 이집 저집을 뛰어다니며 불을 붙였다.

아깝다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군인이 빨리 태우라고 하여 마을 전체인 40여 동을 2명이 나누어 몽땅 다 태우고 대치리 고개에 지계를 놓았던 자리에 가니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두 떠나고 없었다.



〈면담중인 권오열씨〉

고개를 넘어 대치리 고모네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 현남 땃골을 지나 주문진에 가서 지내다가 인민군이 내려온다고 하여 삼척 맹방까지 갔다. 그때 피란을 나갔던 우리 가족은 어머니, 형수, 그리고 집사람과 어린 아들 둘을 합해 여섯 식구라서 가지고 갔던 쌀이 금방 떨어지니 바가지를 들고 밥을 얻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계속 밥 얻으러 다닐 수가 없어 소금을 사 가지고 지계에 지고 영을 넘어 다니며 바꾸미를 나쳤다. 소금을 지고 산골에 드문드문 떨어진 집집마다 다니며 콩과 옥수수를 바꾸어 밥을 해먹으며 살다가 국군이 북

진하여 수복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 김희곤 (남, 83세, 현북면 대치리)
- 면담일 : 2017. 12. 1



◆ 로스케군인이 공중에 총을 쏘아대고 겁을 주어 무서워 학교에 가지 못했다.

6·25전쟁 당시 대치리는 이북인 상광정리와 마주보는 38° 선 이남이다. 해방 전인 일정 때 나는 현북면 상광정리에 있는 현북국민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해방 후 남과 북이 서로 갈라지면서 내가 다니던 학교는 38° 이북인 상광정리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과 북을 가로막은 38° 선이 그어진 직후에도 학생들은 며칠 동안은 북한에 있는 현북국민학교에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로스께가 학교로 들어가려는 학생들을 손짓을 하며 가라고 하자 말이 통하지 않으니 우리들은 영문도 모르고 잠시 머뭇거리자



〈대치리 38 표시석〉

로스께가 공중에 총을 쏘아대고 겁을 주어 무서워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때 우리 동네 아이들은 상광정리에 있는 학교에 못 가게 막으니 집에서 놀고 있다가 나중에 어성전 학교로 가야했다. 그러나 학교가 멀어서 일주에 3일 정도씩 가고 학교로 안가는 날에는 동네 한문서당에서 글을 배웠는데 학생들은 약 30명이나 되었다.

처음엔 38° 선 이남을 경찰이 지키는 때는 서로 왕래를 하였는데 경찰경비대가 국군 1개 소대와 교체되면서 왕래가 완전히 차단되어 잔교리와 대치

리는 인구 관할이 되었으며, 명지리 장리 원일전리는 어성전에서 주둔한 국군이 관할하였다.

당시 국군이 와서는 주민들을 동원하여 화랑고지, 일정골 고지, 귀골고지에 호를 파고 3개분대가 24시간 경계 근무하였는데 귀골고지 정상에서 북쪽으로 내려다보면 3·8이북에 있는 상광정리 검소골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이때 각 호의 초소에 근무하는 국군장병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가마솥에 밥을 해서 등짐으로 저 날라 식사를 해결해 주었다.

◆ 앞산 능선에 올라가는데 인민군이 새까맣게 늘어서 있었다.

당시 38°선 부근에서는 자주 충돌이 있었고 논에 벼가 익으면 북쪽에서 베어가니 농사를 짓지 않을 때도 있었다. 소금을 사려고 시장에 가려면 북쪽 땅을 막고 못 가게 하니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40분 넘게 돌아서 인구장에 다녀야 했다.

그러니 농산물로 자급자족하고 쌀과 곡식이 귀하니 주로 나물을 뜯어서 곡식과 섞어먹고 찹과 봉양을 파먹으면서 연명을 하였다. 그리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말려서 떡을 해먹기도 하였으며 그때 찹 떡은 아주 고급이었다.

인민군들은 주로 밤이 되면 가끔씩 3·8이남인 남쪽으로 기습하여 오자 남쪽에서도 해방 전에 월남한 청년들의 단체인 주문진에서 들어왔던 개병대라고 부르던 부대가 보복을 하였다.

6·25전쟁이 나던 날이다. 그날도 38°선 근방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침에 가끔 총소리가 나는 것은 보통이지만 그날은 부친께서 나를 보고 “밖에 나가 보니 앞산으로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올라간다.” 하신다.

그날도 우리 식구들은 평상시와 같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경찰이 피란가라고 했다. 우리 식구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짐을 싸가지고 피란을 나갔다.

당시 피란을 빨리 떠난 사람들은 멀리 현재 레이더 부대가 있는 336고지가 있는 산까지 앞서나갔고 우리는 이제 막 마을 앞산 능선에 올라가는데 인

민군이 새까맣게 늘어섰다. 그때 피란민들과 마주친 인민군들은 마을 사람들 앉으라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 하고 꼼짝도 못하게 주위에 둘러 섰다.

◆ 전봇대에 올라가 교신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빨리 숨으라고 했다.

피란민 중에는 인민군이 내려 온지도 모르고 주민들에게 피란가라고 알렸던 경찰도 그 뒤에 처져있었다. 그때 마침 뒤에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황동구 할머니가 인민군을 보고 “우리 며느리가 애기를 낳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내가 집에 가야 하겠다고” 인민군에 바지를 잡고 사정했다.

다행히 인민군들이 보내주어 다급하게 내려오니 그때 본부에 알리려고 전봇대에 올라가 교신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인민군이 산위에 꼭 찼으니 빨리 숨어라.” 고 하여 순경 둘은 경찰 옷을 벗어 던지고 피신할 수 있었다.

약 한 시간 후 대장으로 보이는 인민군이 나서더니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인민군이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자 마을 사람들은 더 가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 내려오다가 국군 한명이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술밭에 있는 것을 보고 “절대 산 쪽으로 가지 마라. 거기에는 인민군이 꼭 찼다” 고라 알려주기도 했다.



〈면담중인 김희곤씨〉

나중에 들었는데 그날 여성전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군병력은 오전까지 버티다가 오후에 후퇴하여 가마소를 지나 전우재를 넘어 사천까지 갔었는데 그때 8사단 본대는 이미 대관령을 넘었을 때여서 인민군 대병력과 맞닥뜨려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국군은 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람들은 겉으로만 마지못해 그들을 따랐지 속으로 완전히 달랐다.

이제부터 멀리 피란을 나가지 못한 대치리 동네 사람들은 인민군이 점령한 공산주의정치가 시작되어 그들에게 지배를 받아야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때 나는 14살인데 소년단에 들라고 했고 안 들면 반동분자로 몰려 혼난다.

밤이면 홍윤보 씨 집의 넓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이라고 하여 가면 어성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와서 김일성을 선전하고 북한 정치는 좋은 거라고 선전하는데 아주 말을 잘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야코가 죽어서 그런지 반항하는 사람은 없었다. 잘못 하면 비판을 받는데 반항하면 반동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고 농담 삼아 얘기해도 3명씩 조를 짜서 누가 뭐 했는지 신고하고 알고도 신고 안하면 혼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만 마지못해 그들을 따랐지 속으론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인민위원장과 농민위원장도 마을에서 단합하여 선임했다. 그래서 이쪽 저쪽 패가 없으니 국군이 들어와서도 다른 마을처럼 처벌 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때 이웃마을인 상광정리는 못 다니게 하여 멀리 돌아 현남 인구로 가서 일을 보았다.

◆ 조와 옥수수를 섞어 주먹밥이 되지 못하고 푸석푸석하고 흠어졌다.

그해 추석 전날 마을 동쪽 바닷가 쪽에서 팡 하고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들렸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놀라 바닷가 쪽 하늘을 바라보니 공중에서 검은색 비행기가 쌍 하고 아래로 내리 쫓으니 폭음이 들리고 검은 연기가 나면서 불꽃이 솟는다.

나중에 들으니 현재 현북면사무소 자리에 있었던 현북중학교 앞 산꼭대기초소에서 인민군이 정찰기에 총을 쏘았다. 그리고 나더니 잠시 후에 폭격기가 나타나 현북중학교를 폭격을 했고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다.

음력 8월 21일 인구에 국군이 들어 왔다고 하여 먼 길을 달려 구경 나갔

다. 걸어오는 군인도 있고 차를 타고 오는 군인도 있었다. 우리는 친구들과 좋아서 만세를 계속 부르고 환영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51년 1월 초가 되자 국군이 또 피란가라고 하고 마을사람들은 후퇴를 하는 국군을 따라 이부자리와 먹을 것을 챙겨서 피란을 떠났다. 첫날은 현남면 남애리에서 자고 다음날 북평에 도착하였으나 거처할 집이 없어 애를 먹다가 어떤 집에 찾아가 사정사정하여 방을 얻어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16세인데 선달 그믐날 국군 2명이 와서 문을 열고 나를 나오라고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그 군인은 협조 좀 해달라고 하여 어머니가 못 가게 하니 군인은 일 조금만 하고 돌려보낸다고 하며 나를 데리고 갔다.

군인들은 나를 북평에서 철조망 설치하는 일을 시키고 난 다음 식량을 지는 짐꾼을 하라고 하여 짐을 지고 백봉령을 넘어가니 날이 흰하게 됐다. 다시 삼당령을 넘어가는데 어제 전투를 했다는데 인민군 시체가 드문드문 널려 있었다.

그리고 다시 왕산에 가니 밥을 주는데 조와 옥수수를 섞은 밥이어서 주먹밥이 되지 못하고 푸석푸석 흩어졌다. 강릉 성산에 가서 지뢰 제거 작업도 해보고 다시 횡계리로 갔다. 나는 거기서 이제 일을 웬만큼 했으니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하니 국군이 통행증을 만들어주며 대관령에서 차를 태워 성산에서 내려준다.

성산에서부터 도보로 강릉 시내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우리 마을사람들을 만나 강동에 가족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부모님을 만나 다음해 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대치리는 큰길에서 동떨어진 곳으로 피란처로는 그만이다. 다행히 2차 피란인 1.4후퇴 때 다른 마을은 전소되었으나 대치리는 불에 타지 않아 전쟁이 끝난 후에 다른 동네보다는 고생을 훨씬 덜했다.



- 윤춘애 (여, 82세, 현북면 명지리)
- 면담일 : 2017. 12. 1



◆ 천 조각으로 인민군견장과 실로 마후라를 떠서 마을 책임자에게 내야했다.

현북면 말곡리에 살았었는데 이북청치 때는 인민군이 먹을 미숫가루를 만들어 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없는 쌀을 구해서 미숫가루를 만들어 반장에게 낸다. 그리고 사람들은 천 조각으로 인민군 견장을 만들었고 실로 마후라를 떠서 마을 책임자에게 내야했다. 어느 날 오빠가 비판 받으러 나가며 웃었다고 그들이 가죽 허리띠를 가지고 막 때려서 우리는 무서워 얼굴도 내놓지 못하고 엎드려 떨었다.

중학교 2학년 때인 1950년 음력 추석 무렵 학교에 있던 인민군들이 비행기에 대고 총질을 했다. 잠시 후 미국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여 학교 뒤편 방공호로 뛰어가 숨었다. 그러다 화약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 제방둑 넘어 있는 남에 집으로 들어가 큰 가마솥 안에 들어가 숨었고 어떤 아이들은 부엌 아궁이로 들어갔다.

한참 후 나와서 증광정으로 오는데 오줌을 저리고 논인지 밭인지 구분도 못하고 정신없이 집에 들어가 일 년 전에 돌아가셔서 대청에 차려놓은 아버지 상청(喪廳)을 잡고 살았다는 감격에 영영 울었다. 한반에 47명 정도 되었는데 타서 죽고 무슨 냄새로도 죽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무서워 학교에 가지 못했다.

◆ 넷째 오빠는 의용군에 갔다가 포로가 되어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다.

국군이 들어온다고 방공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농민위원장, 세포 위원장이 와서 국군이 오면 모두 죽인다고 하여 오빠들 셋이 같이 들어갔는데 그 후 아무 소식도 없었고, 그러나 넷째 오빠는 의용군에 갔다가 포로가 되어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우리는 남조선 군인들이 오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북조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조선 사람들은 개미처럼 굶고 살며 못 먹어서 뼈만 앙상한 사람으로 알고 우리처럼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다.

방공호에 계속 있는데 국군이 와서 나오라고 하며 총을 들이 댔다. 국군들은 사람들을 산위에 죽~ 세워놓고는 죽인다고 하여 겁을 먹고 서 있었는데 짱~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엎드렸다가 고개를 드니 총에 맞은 사람은 없고 공중에 쏘고 겁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 국군들은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짐을 지켜서 데리고 갔다고 했다. 그때 우리는 설마 ‘남조선 사람들도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겠나?’ 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 **북한 교육은 세상에서 제일 좋고 남조선은 다 거지로 사는 줄 알았다.**

당시는 전쟁 통이라 전염병이 돌아 동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그때 김기홍 집에 올케 셋, 언니 둘이 있었는데 국군이 오면 나이가 제일 어린 학생이던 내가 마루를 세 번 쳐서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방에서는 올케들과 언니가 병에 걸렸다고 헛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하고 누워 정말 병에 걸린 것처럼 앓고 있는 척했다가 끌려가지 않아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었다.

나는 국군이 막 들어올 무렵 처음에는 학교가 문을 안 열어 중광정 한 기월 집 등 과 동네 이곳저곳을 옮겨가며 김준영, 김홍기 선생님에게 공부 배웠다. 나중에 학교에서 나는 학교 연극반, 무용반, 음악반에 들어 활동했는데 군부대에 위문을 가서 공연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었다.

그리고 공연 후에는 군인들이 주는 선물과 깡통에 든 음식들 집에 부모님께 드리면 아주 좋아하셨다. 그렇게 좋은 걸 모르고 북한 교육은 세상에서 제일 좋고 남조선은 다 거지로 사는 줄로만 알았다.



- 박상목 (남, 85세, 현북면 원일전리)
- 면담일 : 2017. 11. 21



◆ **비료와 오징어 껍감을 사러 경비병 몰래 38° 선을 넘니들었다.**

원일전리는 38° 선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이다.

6·25전쟁 전에는 여성전 지서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순경 2명과 마을 청년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그때 총은 순경들이 소지하고 있는 2자루 밖에 없었다.

해방이 되고 38° 선이 갈려 있어도 초기에는 우리 동네와 여성전 주민들을 포함한 남쪽 지역 사람들은 농사를 질 때 쓰는 비료와 그리고 주로 꺾꽂이 감과 오징어 등을 사러 경계병들의 경계가 허술할 때에는 남북으로 쉽게 넘어 다녔다.

그러다가 간혹 산발적으로 우리 쪽을 향하여 총을 쏘며 위협사격을 하는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인민군들이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직접 지서를 습격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이웃마을로 피란을 가고 마을을 지키는 순경과 청년들은 도수로를 교통호로 삼아 인원이 많은 것처럼 좌측과 우측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총으로 대응사격을 하자 그들은 북으로 도주했다. 당시 여성전에는 국군 중대병력이 지원을 나와 주둔하고 있었다.

◆ **낙오병 무전기를 날라주고 돌아오다 국군에 잡혀 포탄을 지고 전쟁터로 갔다.**

6·25전쟁이 발발하던 날 아침 일찍 모내기를 끝냈는데 산에서 총소리가 나서 그저 일상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구경했는데 오늘은 총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대규모 인민군들이 쳐내려오자 38° 선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군군이 남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은 다 급히 보따리를 싸들고 피란에 나섰다.

우리는 여성전을 지나 부연동 가마소로 갔다가 연곡에서 2일을 묵고

‘피란중’ 도 받지 못한 채 큰덕과 함께 떠났다. 강릉 안인을 가니 국군과 인민군들이 안인 천을 사이에 두고 교전이 벌어졌고, 정동진을 나가자 비행기의 폭격으로 사람과 소들의 사체(死體)들이 즐비했다.

당시 이 비행기가 민간인들에게 공격을 퍼부은 것은 피란민 대열 속에 인민군들이 섞여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들었다.

이때 식구들은 풍비박산이 되었는데 나는 국군 무전병 한명이 부대에서 낙오되어 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자기가 쫓던 무전기를 나보고 지고 가자고 하여 군인을 따라 갔다.



〈면담중인 박상목씨〉

요행이 그 군인은 소속부대를 만나 합류하게 되었고 나는 혼자 떨어져 남쪽으로 얼마를 걸어서 내려오다가 친척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척은 ‘피란중’ 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종이 없어서 친척집 아들 행세를 하면서 네 식구가 이튼 날 새벽에 이불 보따리를 지고 따라 가다가 이번에도 또 국군에게 잡혀 포탄을 지고 북쪽 전쟁터로 갔다.

◆ 허기가지니 빈집에 들어가 아무나 먹을 만한 것을 무조건 찾아먹었다.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이판사판이라 생각하고 여기저기를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보니 다시 정동진에서 큰덕을 만나 밤재를 넘어 옥계로 갔다. 거기는 빈집이 많이 있었다.

이때 나는 허기가 들어있는 터라 보는 사람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이것저것 먹을 만한 것은 무조건 찾아 먹었다. 발에 가서 감자도 파먹고 무도 뽑아 먹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도둑질을 한 것인데 전쟁 통인데 어찌란 말인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리쌀을 받고 나의 집 품도 팔아보았다.

그 사이에 인민군이 우리보다 더 남쪽으로 진격해 가고 있어 우리는 더 피란을 갈 수가 없게 되었고 마주치는 인민군들이 집에 돌아가서 농사나

지으라고 했다. 집으로 걸어서 8월 초순경에 원일전으로 돌아오니 아직 벼가 피지 않았다. 남의 집 옥수수는 수염이 나왔는데 우리 밭은 묵었다.

가을이 되어 가니 공산당들이 생산고 조사를 한다고 논의 벼도 이삭을 세고 조이삭도 세어서 현물세를 매긴다고 했다. 그러나 추수를 하기 전에 국군이 들어온다고 하자 인민군들이 북으로 쫓겨나게 되자 현물세는 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국군은 이미 북진을 하고 있었는데 더 남쪽에서 국군에게 밀려 미처 북으로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 패잔병들이 동해안 큰길을 피해 산줄기를 타고 어성전에서 원일전, 장리, 도리로 이어지는 행렬이 끈이지 않고 이어졌다.

사람들은 길이 딱 차게 들어가는 인민군 패잔병들이 무서워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다. 그때 국군은 벌써 동해안 큰길을 따라 차로 북쪽으로 멀리 진격했는데 인민군은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산길로 접어든 것이다.

◆ 동생에게 ‘나는 간다.’ 라고 감나무에 칼로 글씨를 새겨놓았다.

인민군들이 완전히 북으로 들어가자 다시 대한민국 정치를 받게 되었다. 추수를 끝내고 겨울맞이 준비를 하는데 국군이 또 후퇴를 한다면서 동네마다 불을 놓는다고 빨리 피하라고 하여 온 식구가 곡식들을 땅에 묻고 쌀도 많이 못 가져가고 돌담 밑과 지저분한 거름 밭 속에 묻고 피란을 떠났다.

그리고 감나무에다 칼로 동생에게 글을 새겼다. ‘나는 간다.’ 라고 칼로 파놓고 우리가 피란을 갔으니 찾아오라는 표시였다. 그러나 나는 멀리 피란을 가지 않고 대치리까지 나갔다가 집이 궁금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불에 타 없어졌다. 국군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인민군들이 사용할까 봐 동네마다 집집마다 태워버린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이 먼저 나간 피란민들은 멀리 삼척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하여 동생과 함께 강릉에서 삼척 방면으로 나가려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국군이 길을 막고 대관령 방면으로 가라고하여 삼당령을 넘어 정선으로 갔다.

영월에서 피란생활을 잠시 하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 귀가하여 피란을

나가기 전에 집 주위에 묻어두었던 곡식을 파내어 먹으면서 전소한 집 자리에 토막집을 꾸리고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시 같은 민족이 전쟁이 없는 사회가 되었음은 한다.



- 박상우 (남, 82세, 현북면 원일전리)
- 면담일 : 2017. 11. 21



◆ 1950년 할아버지 예언대로 6·25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1945년 해방되고 당시 원일전은 38° 선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 늘 총소리가 나니 어린 지식들이 전쟁이 나도 안전하게 기르기 위해서 우리 식구는 전쟁이 나기 전인 1947년 횡성 둔내로 이주하였다.

처음 횡성으로 이사를 하려고 살 집을 보러 여성전에서 명주사 쪽 망령재를 넘어 주문진으로 가는데 아는 경찰이 나와서 우리할아버지는 운전석 옆에 태우고 장리 박홍순 아저씨는 집 위에 태워 주었다.

대관령 반쟁이 주막에 내려 쉬었다가 진부를 지나 원주에 장조카가 머슴을 살고 있어 그 집에서 새벽에 화로 불을 쬐다가 식사를 하고 38° 선을 넘어 횡성 둔내가 곡창지대니 여기서 살라고 장조카가 권유하였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솔깃하여 둔내에서 살기로 결정을 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재산을 처분하고 둔내에 논밭전지를 구입하고, 이삿짐을 챙겨서 둔내면 현천리로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고난 다음 3년 만인 1950년 할아버지 예언대로 6·25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 풍기 인삼밭에서 일을 하며 살다가 원주에 오니 재 바다가 되어있었다.

해가 바뀌어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인민군들이 다시 남하하자 1·4후퇴가 시작되어 피란을 나가는데 우리 집 옆에 방앗간을 미군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고 휘발유를 뿌려 화재가 나서 전소 당하는 것을 보며 피란을 나셨다. 당시 미군기들은 인민군의 대공세를 저지하기 그들이 사용할만한 요소들은 모조리 태워버리는 전략을 썼다.

우리가족은 종이재를 넘어 풍기 전구동으로 피란을 하여 김성중씨가 주인으로 있는 젊은 부부 집에서 일을 해주고, 나는 부역을 대신 나가기도 했는데 하루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 부역을 나가 물통에 물을 길러 산위로 들고 올라가서 미군들이 등목을 하는 물을 공급해주는 일을 해보기도 했었다.

풍기 인삼밭에서 일을 하며살다가 원주에 오니 재 바다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영을 넘어 고향 쪽으로 간다고 삼척으로 가서 나는 장성 탄광지역의 화광동 시장에 있는 중국집 식당에서 배달 일을 했다. 짬신장사도 했는데 당시 짬신은 하루만 신어도 잘 떨어져서 잘 팔렸다.

마침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둔대로 피란을 와 우리와 같이 피란생활을 하시던 아버지 친구이신 이기선씨는 가마니를 풀어 짬신을 삼아 팔아 피란생활을 하다가, 집안 대부이신 박용우씨가 장성경찰서 경비 과장으로 있을 때 지인의 덕으로 이기선씨를 장성광업소 화약창고에 취직시켜 주었다. 그 후 정세가 안정 되자 우리 식구는 고향으로 들어와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다.



- 김규인 (남, 80세, 현남면 동산리)
- 면담일 : 2017. 11. 16



◆ 초소병들 모르게 38° 선을 넘어 큰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다.

내가 13살 때 중광정에 사는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8° 선을 넘어 가서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그 당시 38° 선 이북에는 로스케가 지키는 초소가 있어 거기를 지나야만 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나 주로 보파리장사꾼들이 38° 선을 자주 넘어 다니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주로 새벽 4시에 초소병들이 교대하는 것을 알고는 그 틈을 타서 제집을 드나들 듯이 넘어 다녔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리쿠사쿠(배낭보파리)에 국수를 지고 새벽 4시에 38° 선을 넘어가려고 하니 아직도 교대를 안 했는지 다발총을 맨 사람이 지키고 있어 되 내려와서 지서 순경에게 말하니 동이 틀 무렵에 넘어가라고 가르쳐주어 넘어갔다가 큰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 6월 25일 새벽 광 하고 대포소리가 나더니 집 앞 기둥에 파편이 박혔다.

당시 38° 선에는 국군 8사단 5중대가 태비골에 주둔하고 있었고 중대장 숙소가 우리 마을에 있었다. 군인들은 소대병력 밖에 안 되었고 차량은 스리코다 1대와 중화기는 박격포 1문 밖에 없었다. 우리 마을에서 38° 선은 약 3km정도 거리이고 북한과 마주 보는 경계 초소에서 소리 지르면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해변에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초소가 있고 북한은 시멘트 콘크리트 방카가 있었지만 국군은 각 호마다 나무를 걸치고 지키는 군인이 그나마 2명밖에 없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교통호로 눈을 치러 나갔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지서가 있었고 우리 동네사람인 윤상을 순경이 거기서 근무를 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아버지는 눈에 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팡 하고 대포 소리가 나더니 앞집 기둥에 파편이 박혔다.

◆ “동무들, 집으로 돌아가라!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왜 피란을 가는개!”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난리가 났다고 하여 언덕에 가보니 북분리 쪽에서 인민군들이 줄을 서서 나오고 있었다. 차는 없고 탱크를 앞세우고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피란 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짐도 제대로 못 싸고 냅비와 이불 등을 지고 피란을 나섰다. 국군은 쓰리코다를 타고 먼저 나갔고 뒤에 처져 있다가 미처 나가지 못한 군인과 순경들은 민간 옷을 갈아입고 우리와 같이 피란민에 섞여서 나갔다.

주문진을 지나 강릉 성산으로 해서 삼당령을 넘어 갔다. 길도 모르는 초행길이지만 그저 앞 사람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갔다. 비는 오는데 정선에 가니 여기저기에 피란민이 짝 찼다. 길거리에는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잃어버렸는지 한 아이가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며 울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 볼 수밖에 없었다.

피란민 모두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칠 때로 지쳐 있었는데 그때 다발 총을 맨 인민군이 길을 가로 막으며 “동무들, 집으로 돌아가라! 좋은 세상

이 되었는데 왜 피란을 가는가!” 라고 한다. 하긴 인민군들이 앞서 나갔으니 그보다 더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밥을 얻어먹으며 피란을 나간 지 4일 만인 6월 28일 집으로 돌아왔다.

◆ 그들이 하는 말만 잘 듣고 살아야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다.

집으로 들어와 농사일 하며 사는데 완전히 인민군 세상이 되었다. 북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은 소년단에 들라고 하고 어른들은 농지위원회를 만들고 농지위원장을 뽑고, 맨날 해가지면 모이라 해서 노래 부르고 학습을 한다. 위대한 공산당이 어찌고저찌고 하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교육을 시켰다.

아버지는 남에 집일을 하며 살다가 외가에 장가가서 글을 몰랐지만 말은 잘했다. 그들은 밤에 아버지를 나오라고 하여 나가니 권총을 찬 놈이 아버지를 담에 세워놓고 위원장을 하라고 엽포를 놓으면서 위협을 가하였지만 아버지는 글을 몰라서 못하겠다고 버티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웠다고 했다.

그 후 뱃사람 그물바리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소년단과 청년단을 뽑고자 저녁마다 신상과악하고 날치고 다녔다. 모든 마을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잘 듣고 살아야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다. 또 공산당원들은 의용군에 나가라고 누구누구를 지명하면 아무도 말도 못하고 끌려 가야했고 동네에서 3명 중 1명만 살아서 돌아오고 2명은 소식이 없다.

◆ 인민군 패진병을 피해 배를 타고 중 바다에 나가 머물러 있다가 들어왔다.

그들은 매일 부산만 해방시키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고 하더니 10월이 되어 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도망가고 마을에서 설치던 사람들은 모두 북으로 따라 들어갔고 이어서 국군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군들 뒤에 인민군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국군은 원산까지 북진했는데 미처 북으로 도망가지 못한 인민군 대부대가 패잔

병이 되어 밀려들어 온 것이다. 패잔병들은 총은 가졌어도 총알이 없고 옷도 누르고 다쳤는지 어깨동무를 하고, 끌고 가다시피 했고, 거지같은 행세여서 불쌍하게도 보였으나 그래도 패잔병 숫자가 워낙 많으니 무서웠다.

사람들은 남쪽에서 밀려오는 인민군들에게 쫓겨 오히려 북쪽으로 피란을 갔다. 그때 아버지는 형들을 보고 저 바닷가 바위 돌 뒤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여 바닷가로 나갔고 나는 뒤따라가서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따라가니 태워주었다.

배는 목선인데 할아버지들 몇 명이 같이 타고 남쪽으로 나가면서 밤새 비 맞고 날이 밝아지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먼 중 바다에 머물러 있다가 남해항 솔봉밀에 내렸다. 어머니와 형들은 바닷가로 나가 숨는 바람에 무사히 지낼 수 있었고, 우리가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와 형들은 이미 집에 와 있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회상해보면 당시 아버지는 혹시 예측할 수 없는 변고를 대비해 고심 끝에 나와 형님을 의도적으로 갈라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고성까지 피란을 갔다 왔다고 했다.

◆ 불에 타고 남은 탄 냄새나는 쌀로 밥을 해 먹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다 겨울에 인민군이 다시 밀고나와 1·4후퇴가 시작되니 집에서는 귀중한 물건과 쌀을 묻어놓고 배를 타고 피란을 나갔다. 주문진 영진에 가서 우리 마을 쪽을 바라보니 별정계 불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중에 물어보니 우리 집에 수색대가 주둔하다가 나가면서 태웠다고 했다. 그때 만해도 대부분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한집만 불이 붙으면 옆집으로 순식간에 불이 붙어 온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하였다. 다행히 함석을 이은 흙 담으로 지은 8칸 집과 산 밑에 흥복만씨의 기와집 그리고 해변가 전복레씨 집은 운 좋게 타지 않았다.

우리 식구는 이튿날 삼척 정라진에 가서 피란생활을 했다. 두 번째 피란도 미처 준비를 못해 대부분 피란민들은 밥을 얻어먹으며 구차한 생활을

하다가 국군을 따라 집에 돌아와 보니 집터도 못 찾을 정도로 온 마을이 폐허로 변해있었다.

아버지는 방향과 지형을 보더니 집터를 용케 찾아 재를 퍼내고 묻어 놓은 물건을 찾았으나 누가 다 파내갔는지 알 수 없었고, 묻고 간 쌀은 윗부분은 다 타고 아래 부분만 조금 남아 있어 탄 냄새가 나는 쌀로 밥을 해 먹었다.

보란 듯이 마을을 지키며 딱하니 버티고 서있던 큰 아름드리 소나무가 폭설에 부러져 그 나무를 베어다 구들장위에 초막을 쳤다.

통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올리고 짚으로 이엉을 만들어 엮었다. 연장도 없이 식구들이 힘을 합쳐 토담집을 지어 1975년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주어 집을 다시 지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다.



- 박도인 (남, 83세, 현남면 광진리)
- 면담일 : 2017. 11. 17



◆ 38° 선에 인접한 잔교리에 교통호를 파러 1년 동안 부역을 나갔었다.

일제 강점기 때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건불리 조석행 훈장이 가르치는 서당에서 학교처럼 체조도하고 일본글도 배웠다. 서당에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어 3학년을 마치면 시험을 보고 성적이 좋으면 인구초등학교 4학년에 넣어주었다.

나는 1학년에 들어갔다가 시험을 보아 3학년에 월반해 올라갔다. 그리고 얼마 후 훈장님은 현남면 사무소에 들어가고 서당은 없어졌다.

그 후 해방이 되면서 38° 선이 그어지면서 현남 사람들이 부역을 나가 38° 선에 인접한 잔교리 남쪽 산에 교통호를 파는데 그때 현남 사람들이 한차에 30여 명씩 6대가 동원되어 약 1년 동안 다니면서 교통호 작업을

했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 내가 대신 부역으로 나갔다. 교통호는 산 능선 남쪽 바로 밑에 가로로 한줄 씩, 그리고 능선 넘어 북쪽방향도 바로 밑에 가로로 두 줄씩 교통호를 파는데 간혹 작업도중 이 북 쪽에서 따콩 하고 총소리가 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숲에서 작업을 감독 하던 소대장이 인민군에게 노출되어 재수 없이 총에 맞았다고 했다.

◆ 모를 심는데 파당 탕 하더니 매호에 대포알이 떨어졌다.

나는 13세살 어린 나이였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다리를 못 써서 농사는 못하고 시멘트 바르는 일을 했다. 당시 나는 학교에 갔다 오면 책보를 던져놓고 점심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

아버지는 시멘트 바르는 일로 힘들게 번 돈으로 논 4마지기인 약 600평을 쌀 3가마니를 주고 샀지만 아버지가 농사일을 못해서 동네 아저씨들이 논갈이를 해주면 다른 일은 어린 내가 도맡아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학교를 3월에 졸업하고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그해 가을어서 다락 논에 모를 못 심다가 6월 23일과 24일에 비가 와서 25일 곶불리에 모내기를 하러 가서 모를 찢 다음 모를 막 심으려는데 갑자기 파당 탕! 하고 소리가 나서 38°선에 무슨 사고가 난가보다 했는데 쑹~하더니 집 앞 매호에 대포알이 떨어졌다.

그때 광나루 어떤 집은 굴뚝이 포탄에 날아갔다고 했다. 이어서 사람들이 북쪽에서 피란을 나오기 시작했다. 6·25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부리나케 집에 오니 부모님은 벌써 피란가실 보따리를 싸고 있었다.

◆ 달래에 사는 아저씨가 부인이 포격을 맞아 죽자 그 옆에서 울고 있었다.

쌀은 화장실 옆에 잿더미를 파고 묻고 논에서 흙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쌀 1말을 어머니가 이고 황소 한 마리를 몰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피란길을 나쳤다. 사천까지 갔는데도 아직까지 인민군은 보이지 않았다.

철독길로 걷다가 사천진리 다리를 건너려는 그때 비행기가 폭격을 했

다. 어떤 아저씨가 강가에서서 울고 있었는데 그는 달래 사람으로 부인이 폭격에 맞아 죽어서 운다고 했다.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더 못가겠다고 해서 사천 산대월리 숨께 라는 외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최종철 이라는 아저씨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집 아저씨는 피란민인 우리 가족을 편하게 대하며 들어오라고 한다.

나는 소를 그 집 마구에 매어놓고 방으로 들어가니 그 집 아저씨 네는 아들이 6살 딸은 9살인데 그 아들은 홍역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 아저씨는 무슨 주문을 소리를 내면서 외우고 있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 피란 중 한술밥을 먹고 살아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소문에 그날 밤 인민군들이 강릉으로 나갔다고 한다. 낮에는 감자 굴을 수리하여 굴속에 들어가 살았다. 그 집 아이들은 나보다 나이가 적어 오빠 형으로 불렀다.

해가 저서 어두워지면 불을 때고 밥을 했다. 문들도 이불로 가려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비행기가 정찰 후에는 파 당 당 파 당 당 폭격 소리가 났다. 그래서 정찰기만 뜨면 굴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어야 한다.

우리는 숨께에 있는 연못에 가서 통살(고기를 잡는 기구)을 눌러 고기도 잡아왔다. 어느 날 옆 동네 아주머니가 와서 불에 댄대 약이 없느냐고 물으러 왔는데 폭격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집 그 아저씨는 아주머니가 왔다간 후 부정이 들어 홍역이 걸렸던 6살인 최석중이 얼굴을 긁어 후에 곱보가 되었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최종철 아저씨 집에서 편하게 여름을 냈다. 하루는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 “인민군이 사람 안 잡아 간다더라” 하시면서 아침에 집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셨다.

집으로 들어갈 때 철길과 소나무 밭에 지뢰를 묻었다하여 못 간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해서 갔다가 밤에 오는 중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서 산대월리로 가는 길을 확인하고 가만히 있으니 그냥

지나갔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그 집에 같이 사는 동안 그 집 쌀을 먹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두 번째 집으로 들어갔다 오시더니 집에 가서 물어 두었던 쌀을 꺼내왔다. 주인집은 살벌한 전쟁 중에 생판 모르는 피란민인데도 한 솥밥을 먹고 살았으니 너무 고마워서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그 집 딸 최순덕이도 나를 잘 따랐고 폭격이 없으면 그 집 딸과 아들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놀았다. 우리는 그 집 덕분에 피란살이에도 고생 없이 살게 한 은인으로 서로 사돈을 맺을 정도로 얼마동안 서로 왕래하며 살았다.

그리고 피란 기간 동안 우리가 사는 집은 동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의 오막살이 집이어서 다른 피란민은 오지 않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 소나무 껍질을 벗겨 쌀을 조금 넣고 송기떡과 나물죽을 끓여먹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밖에 갔다 오더니 국군이 복진했으니 집에 가도 된다고 했다.

국군을 따라 들어왔지만 먹을 게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했는데 가을 껍질은 먹기 어려웠다. 봄이 되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쌀을 조금 섞어 송기떡을 해먹기도 하고 나물죽도 많이 끓여 먹었다.

마을은 그전처럼 살았는데 국군이 또 후퇴를 한다면서 반장이 와서 피란을 나가라고 하여 1.4후퇴가 시작되었다. 우리 식구는 이번에도 또 쌀서너 말을 지고 피란을 떠나면서 집 동네 쪽을 보니 연기가 자욱하다.

나중에 알았는데 국군이 집을 태우고 후퇴했다고 한다. 우리 식구는 또 숨겨서 최씨 아저씨 집에 가서 전처럼 같은 식구처럼 살았다.

한때 사천 앞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해서 태백산맥 주위까지 포탄이 떨어지는데 눈이 하얗게 쌓여있어도 불이 붙어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했었고, 또 하늘에서 비행기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팡~하고 포탄이 터지면 불이 났다. 나는 그것을 구경하러 그 집 아이들과 매일 구경을 나갔다.

1951년 3월 수복이 되었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길가에 민간인들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온 동네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도 불에 타 없어졌지만 집들이 없어져서 목수인 아버지의 일감은 많아졌다.

그때 나는 아버지와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23살에 영장을 받고 국군에 입대하였다.



- 김주호 (남, 78세, 현남면 인구2리)
- 면담일 : 2017. 11. 16



◆ 6월 25일 새벽 대포소리가 나더니 폭탄 파편이 집 앞마당에 떨어졌다.

해방 후 미군들이 인구 시변리 현 해수욕장 부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권총까지 차고 우리 동네로 술을 마시러 오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부대 주변에 가서 미군들에게 말을 배워서 헬로! 초코렛 기브미! 라고 하면 초코렛, 과자, 껌 등이 들어있는 깡통을 던져 주었는데 참 맛있어서 자주 갔다.

처음 보는 서양인의 코가 크고 얼굴색이 빨개도 무섭지 않았다. 당시 주둔했던 미군들은 면사무소를 통하여 마을에 누런 설탕이 배급하여 달다한 설탕을 그때 처음 먹어 보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관총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대포 소리도 들려 전쟁이 난 것을 알았다. 그때 북쪽에서 날아온 폭탄 파편이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졌고 이어서 요란한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 우리는 우선 다급하게 굴속에 들어가 숨었다. 이 굴들은 그전서부터 전쟁이 나면 숨으려고 미리 파놓은 굴이었다.

◆ 피란민 보다 인민군들이 앞서가니 다시 집으로 돌아와 농사일을 했다.

얼마 후 북쪽에서 피란민들이 밀려 나오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도 남쪽으로 가야 산다고 하여 우리도 피란을 떠났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사람들은 미처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쌀과 이불 그리고 그릇과 옷 몇 가지를 챙겨서 지고 갔다.



〈면담중인 김주호씨〉

강릉 사천에 나가니 벌써 눈에 모가 조금 심어져 있었다. 사방에서 모여든 피란민들과 농촌 길에 들어서니 국군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인민군이 우리 보다 먼저 앞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 가족은 우선 강릉 학산에서 1박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집들은 성산을 거쳐 삼당령을 넘어 정선으로 간다고 하였지만, 아버지가 이미 인민군이 먼저 나갔는데 나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여러 가족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 북한의 100일 정치를 할 때 청년들이 강제로 인민군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북쪽에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 이름 하여 100일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인구국민학교 4학년이었는데 선생님들은 피란을 못가서 학교에 나가면 그전처럼 공부를 했지만 학교에선 북한 노래를 가르쳤고 소년단을 조직하고 매일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다.

그때 북에서 온 내무서 사람들에 의하여 17~19세인 청년들을 강제로 인민군으로 끌려갔는데, 우리 마을도 6명이 끌려갔고 아마 현남면 전체로 보자면 꽤 많은 청년들이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고 35~40세 정도의 사람들은 짐꾼으로 끌려갔다.

국군이 들어 왔을 때도 포탄을 지고 전쟁터에 더러 나갔는데 박○○는 밤에 심한 폭격으로 부대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때 산으로 뛰어 살아 돌아왔다. 미군들이 참전하고 인민군들이 북으로 후퇴하면서 소

를 끌고 가서 짐을 싣고 갔는데 나중에 소는 돌려 보내주었다고 했다.

◆ 어머니와 누나는 길쌈을 삼아주고, 나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았다.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12월 말경에 국군이 후퇴를 하자 이불과 쌀을 짊어지고 2차 피란을 떠났다. 그때 나중에 나온 사람들 말을 들으니 온 마을이 다 탔다고 했다.

옥계까지 갔는데 군인들이 소를 잡아 다 먹지 못하고 피란민인 우리에게 주어서 그 쇠고기를 먹고 1박을 하였다. 다음날 피란길을 재촉하며 길을 나서자 날은 춥고 짐은 무겁고 나는 울면서 부모님을 따라 호산을 거쳐 울진 매화리까지 나갔다.

그러나 먹을 것이 제일 문제였다. 어머니와 누나는 남의 집 길쌈을 삼아주고 쌀을 조금 받아오고 나는 밥 얻으러 갔는데 한집은 주는데 어떤 집은 주지 않았다. 많은 피란민들이 밥 얻으러 다니다보니 그러려니 했지만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했고 야속하기도 했다. 그때 나에게 밥을 준 집은 지금도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평해에 피란 나가서는 매일 밥만 얻어다 먹을 수 없어 툭과 도끼를 사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갔다. 그 당시 우리뿐만 아니라 피란을 나온 사람들은 약 2km 정도 멀리 떨어져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꺾고 말려서 후리포(후포)에 지고 가면 잘 팔렸다. 나무를 팔아 그 돈으로 식량을 사다 먹었다.

◆ 어머니가 준비한 비상금으로 죽변에서 배를 타고 묵호항에 내렸다.

평해에서 피란살이를 할 때였다. 양양이 수복 되었다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났다. 그때 물론 라디오는 없었지만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알았다. 당시 어머니는 언제 준비하셨는지 비상금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우리는 그 돈으로 고향으로 가기위해 울진 죽변에서 고향으로 가는 배삯을 내고 돛단배에 올랐다. 배는 목선인데 노를 저어가는 배로 약 50여

명이 탔다.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여러 척의 배로 죽변을 떠났다.

배에서는 쌀도 없고 불도 피지 못하고 굶으며 왔고 배 멀미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고향을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다. 배가 닿은 곳은 묵호항이다. 걸어서 고향 인구 2리에 오니 너무 살 것 같았다. 총소리도 없으니 전쟁이 끝이 났는지 모두 학교에도 나갔다.

◆ 상운 아줌마가 우리 집을 불 태우려 온 사람의 다리를 잡고 사정하여 안냈다.

1·4후퇴 당시 우리 동네 모든 집들이 불에 탔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집은 불에 타지 않았다. 당시 다리가 아파서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우리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밥을 많이 해놓고 할머니를 집에 남겨둔 채 피란길을 나섰다.

그때 마침 우리 집으로 피란 온 손양면 상운리 아줌마가 불태우려 온 사람에게 다리를 잡고 “우리 어머니가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니는 판인데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 어머니라고 속이면서 애원하자 불을 태우려 온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는지 그냥 가는 바람에 집이 타지 않았다.

그 후 우리 할머니는 집 앞 밭에 쌓아놓았던 콩깍지가리가 불에 타자 놀라면서 불이 집으로 옮겨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불을 안고 눈으로 기어 나가 주무시다가 엄동설한에 그만 얼어서 돌아가셨다고 전해주시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1·4후퇴 때 우리 마을 60호중에서 불에 타고 남은 집은 우리 집과 박원봉, 덕봉이네 집으로 3채만 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에 국군 대령이 살고 있어 우리는 뒷방에 살았는데 국군이 자가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켜다. 후에 인구 현남지서가 불에 타서 우리 집이 지서가 되었다.

그때 우리 집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장기영이 강릉에 발령을 받아 갔다가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고 다시 인구 지서에 발령을 받아 우리 집에 또 와 있었다. 나이가 80세가 넘는 지금도 그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



- 이기진 (남, 84세, 현남면 인구2리)
- 면담일 : 2017. 12. 16



◆ 당시 학교에서는 낫그릇과 소나무 관솔을 걷어갔다.

해방이 되어서도 잠시 동안 일본인인 미시가와 곤조가 교장으로 우리를 가르쳤고, 한국인 선생들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인 아라이, 기무라, 기모노 선생이 쫓겨나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들은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일본인 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학교에서 조선말 하다 들키면 5전(현재 5,000원 정도)을 벌금으로 내야 되었고 못 내면 대신 벌을 받아야 했었다. 당시 학교에는 각 가정에 낫그릇과 소나무 관솔가지 등을 걷어갔으며 나는 지금까지도 일본 국가를 외우고 있다.

당시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 공출량을 내지 못하면 책임자가 와서 어른들을 때리기도 했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쌀을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두기도 했다. 이렇게 압박을 받다가 일본 놈들이 쫓겨 갔다니 앓던 이가 속 빠진 기분이었다.

◆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피란을 가지 말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6·25전쟁 전에 인구는 남한인데 인구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학교에 해당하는 임호 공민과에 들어갔다. 그때 학생들의 나이 차이도 많았고 장기간 아이 아범도 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학교 다닐 때는 고무신도 없어 짚신이나, 게다(나막신)나, 쪼리(짚신 슬리퍼)라는 신을 신고 다녔다.

당시 미군부대가 들어와 시변리에 주둔하였는데 미군들이 맛있는 과자를 주니 아이들이 자주 갔다. 미군은 신사적이고 물품이 풍족하여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잘 주어 매일 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련군은 흘레

브란 빵을 먹고 늦요강에다 밥을 해 먹기도 하여 미개인이라 했다.

6·25전쟁이 나서 국군이 후퇴하니 우리는 남으로 피란을 나가기 시작했다. 사천을 지날 때까지 피란을 가면서도 인민군은 보지도 못하다가 강릉에 가서 대관령을 넘어가다가 인민군을 만났는데 그 인민군들이 왜 피란을 가느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북에서 피란 나온 사람들에게 북한 사정을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피란민들은 인민군들이 보이지 않자 평창을 지나 제천에 가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는데 피란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모두들 울산으로 갔다.

◆ 피란민 증을 발급받아 쌀을 1인당 한 홉씩 배급을 받았다.

울산에 가서 면사무소에서 피란민 증을 발급받아 면사무소나 지서에 가면 쌀을 한 홉씩 배급을 주었다.

경상도 사람들은 참 인심이 좋았다. 그러나 안동에 갔을 때 런닝 차림으로 밥 얻으러 갔더니 호로 새끼라고 내 쫓겼다. 그래서 부근 학생들에게 물으니 옷을 다 입고 가라고 일러주어 옷을 입고 다시 가니 배가 고프겠다며 밥을 많이 주었다.

남으로는 배급을 준다고 오라하면 자루를 들고 쌀을 얻으러 갔다. 그러나 대구방면인 낙동강에서 전투가 심해지면서 군인을 뽑아 가는데 한 대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 보고 가겠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고 데려갔다.

양산에 가니 피란민이 너무 많아 다시 올라와 울산 정자리에 가서 동사에 있으니 거기도 피란민이 꼭 차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지만 어쩔 수가 없이 쪼그려 자고 안남미 쌀을 배급받아 저장해놓고 밥은 얻어먹으러 다녔다.

쌀은 1인당 한 홉씩 주는데 우리는 아버지와 나 그리고 동생과 함께 셋이 면사무소에도 가셔도 배급받고 지서에도 가셔도 배급을 받아와 밥을 해놓고 반찬은 얻어먹었다.

피란민 수용소인 동사무소에서 뉴스를 들으니 수복 명령이 났다. 사령관

이 그 지역 똑딱선 배를 동원한다고 해서 포항까지 피란민들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어떤 배는 사람을 너무 많이 실어 배가 가라앉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배를 타고 삼척 정라진에 와서 인구까지는 걸어서 왔다.

◆ 거지가 왔다고 돌팔매질에 동생 발에 맞아 피란민에 설움을 삼켜야했다.

1·4후퇴 때는 두 번째 피란을 옮긴 매화리 까지 피란을 갔다. 그러나 먼저 피란 때인 경상도와 달리 여기에는 피란민중도 안 해주고 배급도 없으니 밥을 얻어먹어야 했다. 그래도 몇 번씩 밥 얻으러 가도 주니 이 동네도 인심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동네 어떤 아이들은 거지 왔다고 돌팔매질을 하여 동생이 발에 맞아 피가 나도 말도 못하고 피란민의 설움을 삼켜야 했다. 하긴 피란민이 하도 많이 넘쳐 나다보니 지역 본토박이들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소문에 고향에 가도 된다고 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국군을 따라 왔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남에 집에 가서 사정하여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글 바글하니 누워서 잘 수 없고 쪼그려 앉아 지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피란민 모두가 몸이 고되니 금방 잠이 든다.

피란살이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오니 집이 모두 불에 타고 없었다. 하지만 전쟁 통이라 그 누구도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없어 모두들 불에 탄 집 구들장위에 초막 같은 집을 짓고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생활이 조금 안정되자 나는 현남중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김○○훈장 집 서당을 12년간 다녔다.



- 임명식 (남, 78세, 현남면 임호정리)
전 현남농업협동조합장
- 면담일 : 2017. 11. 25



◆ **철없는 나는 책 보따리를 등에 매고 황소를 끌고 피란을 나갔다.**

6·25전쟁 때 인민군들이 쳐 나오고 피란민들이 나온다고 하여 그때는 어린나이라 멧모르고 남애리까지 뛰어가서 구경하였다. 피란민 속에는 국군도 드문드문 섞여 있었다. 그날은 흐린 날씨였지만 6·25가 나기 전에 물이 차지 않아 모를 못 심고 있다가 6·25당일 논에 물이 차자 주민들이 늦모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사람들은 짐을 이고 지고 나오는 걸 보고 집에 오니 아버지가 피란가야 한다고 했다. 집 어른들은 증조할머니를 보고 집 지키라고 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먹을 것을 지고 어머니는 이불을 머리에 이고 철이 없던 그 시절 나는 책 보따리를 등에 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 황소를 나보고 끌고 가라고하였다.

우리 집 식구들은 먼저 강릉 주문진 장덕리로 시집간 고모네 집으로 가려고 하치랑골 위를 경유해서 바리봉을 넘고 향골을 지나 향호리 문방재를 넘어 장덕리 고모네 집에 가서 1박을 하고 또 10여리를 가서 으스스한 오리골로 들어가서 산위에서 내려다보니 멀리 7번 국도에 말을 타고 가는 인민군도 보이고 마차를 짐을 싣고 가는 인민군도 보였다. 그 산속에서 4일을 머무르고 있는 동안 국군은 남쪽으로 다 후퇴해 가고 주위에 인민군들만 눈에 보이니 할 수없이 집으로 돌아오니 그들의 세상이 되었다.

◆ **어린학생들도 밤마다 잠도 못자고 모기에 물리며 학교를 지켰다.**

이제부터는 북한정치가 시작 되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하여 7월 초 소년단을 조직했는데 그 전에도 마을에 공산주의자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잘 배우지 못한 이에게 자위대 대장을 시켜 훈련을 했다.

밤에는 목총을 만들어 원포리와 임호정리 애들이 전쟁놀이를 했다. 학교에서는 당번을 정하여 학교를 지키라고 하여 밤마다 학교에 가서 지키는데 모기 때의 극성으로 가려워 고생을 많이 했다.

당시 임호정리, 하월천리, 상월천리, 인구 학생들이 약 300~400여명이 임호정리국민학교에 모여 공부를 했고 선생님은 6·25전 북에서 월남한

분이 가르치다 그분은 피란을 가고, 머리 좋기로 소문난 ○○○ 선생님은 하월천에 살았는데 고학년만 가르쳤다. 그 선생님은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국군이 들어와서 공산주의자라고 화를 당하였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공출을 한다고 쌀과 좁쌀 수확량을 조사한다. 이삭을 뽑아다 세어보고 벼도 낱알을 세는 것을 보았다.

우리들은 밤마다 모이라고 해서 가면 학습을 한다. 노래도 배우고 “대한민국 때려 부수자!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다!” 등 지금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난다. 그리고 어른들은 밤에 동네 앞 바리봉에 교통호를 파는 일에 동원되었다.

◆ 아버지는 의용군에 잡혀갔다가 거제도에서 반공포로로 석방되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인민군이 도망가고 얼마를 지났는데 국군이 온다고 소문이 돌았다. 나는 약 1.5km를 뛰어서 나무다리까지 갔다. 그런데 여태 보지 못하던 자동차에 국군들이 타고 도로를 매우고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다. 나는 만세를 불렀고 다른 사람들도 만세를 부르고 야단이 났다.



〈면담중인 임명식씨〉

당시 아버지는 36세였는데 추석전날 동네 여러 사람들과 의용군에 잡혀 안변까지 갔는데 비행기 폭격으로 굴속에 숨어 있다가 국군에게 잡혀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3년간 수용되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할 때 돌아 오셨다.

◆ 눈(雪)물이 배어 든 쌀도 감지덕지하며 밥을 지어 먹었다.

1·4후퇴가 시작되는 겨울에는 증조할머니가 연로하셔서 피란을 갈 수가 없었다. 당시 국군이 집을 태우고 나가는데 기와집은 금방 불이 붙자 할아버지가 깎지가리 밑에 굴을 파서 짚 가마니를 넣어 쌀을 묻어 놓았다. 그러나 집이 타자 벼를 묻어 놓은 것들이 위에 겹은 타고 그나마 아래에

있던 것들은 눈이 녹아 물이 배어서 뜬 쌀이 되었지만 그것도 감지덕지하며 밥을 지어먹었다.

그때 중광정리 집안사람들도 나와서 같이 지냈다. 할아버지가 얼럭(조그만 소나무석가래)으로 바람을 막아 하늘 위는 별이 보이고 밥은 짚가리에서 먹으며 지내다가 다행히 불에 타지 않았던 장영수씨 집과 조씨 아저씨 집이 남아있었는데 그 집 주인들은 피란을 가서 그 집에서 겨울을 날 수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남과 북은 화상천을 사이에 두고 인민군이 화상천 개울을 따라 달래마을까지 화상천 북쪽 둔덕에 호를 파고 경계를 하였고 국군도 그 남쪽에 진을 치고 임호정리 제방에 총을 쏘며 대치를 하였다. 그러다 국군의 세가 증강되고 전 전선에서 북한 인민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북으로 퇴각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인민군들은 우리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고 도망가고 3월이 되어 국군이 북진하여 왔다.

◆ 피란길 옛 얘기 밤재가 궁금하고 그리워 어른이 되어서 다녀왔다.

그러나 그때는 작년 여름 피란 때처럼 완장차고 설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사람들이 장질부사에 걸려 많이 죽었는데, 우리 증조모와 할머니도 병에 걸려 고생을 하셨다. 인민군이 완전히 도망가고 피란 나간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때 큰댁은 움막에서 살면서 마당에 빨래를 널어놓았는데 구라만 전투기가 공습을 하면서 휘발유를 뿌려서 그 집도 타버렸다.

나는 방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와 나가 보니 세모꼴로 지은 움막들도 다 타버렸다. 그때 8촌 동생은 손에 총에 맞았었고 다른 사람들은 미리 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전쟁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비행기가 뜨면 사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미리 다 알고 대피하여 위기를 넘겼다.

후에 피란을 나갔다 돌아온 동네 사람들이 우차에 짐을 싣고 밤재를 넘어 피란살이를 한 이야기를 하니 밤재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부럽기까지 한 철없는 아이였다. 세월이 지나 나라가 안정되고 어른이 되어서야 얘기

로만 듣던 한 많은 피란길이었던 밤재를 직접 다녀오니 마음이 후련하고 감회가 새로웠다.



- 전경찬 (남, 84세, 현남면 북분리)
- 면담일 : 2017. 11. 25



◆ “동무들! 잘 살게 해 줄 테니 집으로 들어가시오.”

아버지가 14살 때 사망하시어 가정형편으로 잔교리 현북 중앙학원을 4학년까지만 다니고 농사일을 해야 했다.

1950년 당시에는 38°선 부근에서는 가끔 총소리가 났다. 6·25전쟁이 나는 당일도 총소리가 나서 또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총소리가 잦고 국군이 남으로 후퇴해 나갔다.

동네 사람들은 평소와 다르게 38°선을 지키던 국군이 다급하게 남으로 퇴각을 하는 것을 보고 뭔가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아채고 모두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란을 떠났다.

우리 식구는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2명 그리고 형남내외와 조카와 함께 8식구가 피란을 떠났다. 피란을 나가는 도중 비도 많이 오고 큰 길인 철독길로 나가다가 혹시 북한 인민군을 만나면 잘못 될 것 같아 바닷가로 떨어져 남쪽으로 숨어서 나가다가 사천 친척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 강릉으로 해서 삼척으로 바로 나갈려는데 무슨 일인지 국군이 막아서 정선 쪽으로 가라고해 삼당령으로 갔다. 먼저 떠난 사람은 삼척으로 이미 나갔고 늦은 피란민은 막혀서 삼당령으로 간 것이다. 임계까지 가서 1박하고 예당이라는 어느 학교에서 1박을 하였다.

피란민들은 다시 정선으로 들어가려는데 벌써 인민군이 앞을 막았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고 물었다. 국방군에게 내 밀려서 나왔다

고 하니 “동무들! 잘 살게 해 줄 테니 집으로 들어가시오.” 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 연극은 공화국 선전 내용이고 인민군에 가면 가족들이 대우받다고 했다.

집으로 들어와서 눈에 물이 없어서 모를 못 심었던 눈에 모내기를 해 놓고 보리를 베고 농사일을 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에게 소년단에 가입 하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안 들어갈 수가 없었고, 18세 이상은 민청에 가입하라고 하였다.

그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동네 책임자로 ○○○씨를 시켰다. 당시 그는 일정 때 학교를 나온 사람이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이었고, 면 위원장은 포매리 사람들이 맡았다. 그리고 1달이 지나자 의용군을 뽑는다고 했다.



〈면담중인 전경찬씨〉

1차 대상은 이북에서 나온 책임자들이 번들번들하게 일도 안하는 사람을 지원자라고 하여 뽑았고, 그리고 2차는 반장이나 또는 무슨 일을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하는 책임자를 강제로 지원하는 것처럼 하고 언제든지 가야만하니 먼저 가서 배우고 오라고 했다.

그래도 지원을 잘 안 하니 오늘저녁에 연극과 오락회를 하니 모이라고 했고, 안 나가면 뒷조사를 하여 끌어다 참석시켰다. 연극은 공화국 선전 내용이고 인민군에 가면 가족들이 대우받고 안가면 해가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나중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자 현남면 죽리로 모두 모이라고 하고 안가는 사람은 달래다가 다음엔 완력을 행사하여 참석시켰다. 죽리에 가니 마을별로 만들고 의용군 갈 사람을 지원하라고 한다. 강제로 뽑는 판인데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넘기고 나니 인구 인민학교에 모두 모이게 했다.

◆ 만약 도망가면 가족을 몰살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렇게 의용군에 징집된 청년들을 교실에 뿔뿔하게 모여 놓고 40명 단위로 소대를 정하는데 나는 4소대에 편성되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인민군 책임자가 남쪽으로 인솔하여 가면서 만약 도망가면 가족을 몰살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의용군 행렬이 남애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썩썩기 4대가 와서 한 바퀴 돌더니 공습을 한다.

그때 1.2소대는 이미 고개를 다 넘었고 3.4소대가 뒤따라 넘어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기관총 사격을 하니 숨을 곳이 없어 신작로 옆 가시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축대를 쌓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넓적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그때 총을 맞거나 다친 사람은 12명이었다.

나는 낙오자가 되어 다친 다리를 절룩거리며 다른 의용군에 부축을 받으며 다음 집결지인 경포대로 향하다가 주문진에 들어서 솔밭 옆길로 가는데 또 비행기가 돌아치면서 공습을 하자 나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재빨리 담을 잡고 뛰어넘어 구렁이처럼 구석진 곳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비행기 공습이 끝난 후 해안 길로 나가니 인민군들이 바닷가 옆에 있는 산에다 포를 걸어놓고 포사격을 하고 있었고 강릉 경포까지 가는 동안 인민군들을 마주치니 도망을 간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다. 그때 마침 인솔자가 조금만나가면 너희들은 빼줄 터이니 강릉 경포초등학교 까지 가자고 하였다.

◆ 심사관 처녀들이 남자들에게 넓적다리를 보이며 인민군에 입대를 유혹한다.

의용군들은 그 학교에서 1주일을 묵으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몇 백 명이 모였다. 인민군들은 소도 훔쳐오고 명태도 훔쳐다 잘 먹였다. 나는 밤에 자지 않고 접질린 다리를 핑계 삼아 엄살을 부리니 누군가가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이면 다시 군대 심사를 보는데 저녁으로는 노래와 특기자랑 그리고 북한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선전하는데 나는 아프다고 안 나갔다. 나와 같이 의용군에 잡혀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일은 인민군으로

간다고 수군수군 했다.

경포로 오기 전 땃골(죽리)에서 작성한 신상명세서를 가지고 심사를 받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처녀들이 나와 심사를 하였다. 그때 처녀 5명과 심사를 받는 의용군들과 마주 앉았는데 처녀들이 넓적다리가 다 보이고 삼각팬티도 보이게 하여 남자들에 마음을 움직여 인민군에 입대시키려고 유혹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대하면 우리들이 가서 가족들을 다 잘 해준다고 하면서 입대하라고 하며 싫다는 말을 하기 곤란하게 만들었다. 심사를 받는 사람들은 16세부터 60세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다친 다리를 아주 못쓰겠다고 심사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자 “동무는 나이도 어리고 다리도 아프니 다음에 오도록 하라.” 고 했다. 그때 심사를 받던 사람들은 몇 백 명 중에 11명이 불합격을 맞았다.

◆ **국군들이 탄 자동차가 사람숫자만큼 들어오니 모두 나와 구경을 하였다.**

나는 인민군에 입대를 못하고 동네에 돌아와서도 민청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는 다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안 나가고 방에만 있었다.

어느 날 국군이 들어온다고 수군 거렸다. 그 무렵 북에서 내려온 동네 책임자들은 벌써 북으로 들어가고 남은 사람은 노인과 아이들만 남았다. 국군 수색대가 먼저 들어오다가 인민군 이 쏜 기관총에 맞아 1명이 사망하여 지역인부들이 매고 북분리 주막거리에 나왔다. 그때 국군 수색대 1개 소대가 먼저 들어오자 주민들이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

북분리에서 다리만 넘으면 38°선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당시 인민군들은 고산봉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지키고 있었다.

나중에 국군 대부대가 들어오니 국군 수색대는 앞서 북진했다. 그때 북분리 사람들은 자동차를 잘 못 보았는데 국군들이 탄 자동차가 사람숫자만큼 들어오니 모두 나와 구경을 하였다.

1·4후퇴 후 인민군이 북으로 후퇴해갈 무렵이다. 하루는 국군이 들어오면서 나를 짐꾼으로 데리고 갔다. 그때는 북으로 도망을 가지 못한 인민군

들은 북분리 뒷산에 진을 치고 숨어 있다가 주로 밤이 되면 총질을 하며 행패를 부릴 때였다.

그러다가 낮이 되면 국군 수색대가 북분리 마을에 들어와 인민군과 교전을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찾아 나섰다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국군과 인민군이 교전을 하는 바람에 마을사람들 2명과 함께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누나와 동생이 찾아 나서니 인구 시변리 비석거리 근방에 시신을 거적매기로 씌워놓았다. 그때 피란을 나가지 않았던 남은 사람들이 고맙게 도와주어 장례를 지내 주었다.



■ 이연주 (여, 79세, 현남면 북분리)

■ 면담일 : 2017. 11. 15



◆ **옆집 언니는 비행기 폭격으로 사망하고 애기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강현면 강선리에 살았는데 5살 때부터 강선리 서당에 다니면서 한글도 배우고 일본글도 배웠다.

당시 원산에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셋째 동생을 외갓집에 데려다 주었고, 어머니는 가끔 기차를 타고 원산에 다니셨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나오셔서 “곧 전쟁이 난단다! 애가 보고 싶을 테니 데리고 왔다” 하시고는 저녁 마지막기차로 가셨는데 이튿날 바로 전쟁이 났다.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학교 전 반으로 미숫가루를 만들어 받치라는 명령이 나왔다. 그러나 미숫가루 만들자면 쌀이 귀해 눈에 피를 훑어다 뺏아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양이 모자라면 반장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때 우리는 먹을 건 없고 죽을 뜯어다 곡식에 섞어 풀을 쑤어먹는 날이 태반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어느 날 인민군대 둘이 우리 집에 왔다. 그들은 우리보고 양말을 달라고 하자 어머니가 양말이 없다고 하니 이불을 달라고 하더니 이불을 찢어서 발에 감고 갔다.

전쟁 중에 아랫집 김 씨네 언니가 애기를 낳았는데 언니는 죽고 애기는 할머니가 키우게 되었는데, 얼마 전 애 엄마였던 그 언니는 비행기 공습을 피하려고 아이를 안고 방공호로 대피하려다가 비행기 폭격으로 사망하고 안고 있던 애기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할머니가 애기를 키우게 되었던 것이다.

◆ “쌀은 농사지으면 되지만 족보는 한번 타면 아주 없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가 또 폭격을 하자 할머니가 그 아이를 업고 정신없이 방공호로 피신을 하려고 뛰어가다가 애기가 그만 빠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 할머니는 애기가 빠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자기만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고, 할머니는 방공호에 들어간 다음에 애기가 빠져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때 할머니는 방공호에 대피해있던 동네사람들에게 애를 놓고 왔다고 하며 욕을 많이 먹었다고 했다. 나중에 할머니가 오던 길로 허겁지겁 달려가니 다행히 애기는 울고 있었다. 그러던 지금은 손녀가 잘 커서 할머니에게 효도를 한다고 했다.

6·25전쟁이 나고 국군이 들어오면서 인민군이 북으로 쫓겨 들어간 후 12월 중순쯤에 강선리에 국군 야전병원에 군인 차에 열십자를 그린 국군 병원차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강선리 고란골짜기 옆 밭으로 싣고 가서 화장을 하였는데 12살 어린나이에 멧모르고 구경을 했었다.

중던 세상도 잠시 인민군들이 다시 쳐내려와 후퇴가 시작되어 겨울에 피란을 떠나려는데 아버지가 땅을 파고는 족보를 묻고 있어 내가 왜 쌀은 안 묻고 족보를 묻어요. 하니 “쌀은 농사지으면 되지만 족보는 한번 타면 아주 없어진다.” 고 하셨다. 지금도 그때 그 족보는 친정에 보관되어 있다.

◆ 피란민들이 좁은 교실 문을 서로 빠져나오려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리는 큰집과 작은집이 함께 집을 떠나 낙산 조산에 갔는데 국군들이 지키며 학교로 들어가라고 한다. 그러나 교실마다 피란민이 꽉 차서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지만 복도를 지나 끝 교실에 빼 집고 들어가 막 자리를 잡는데 빠지직 빠지직 하며 불이 붙는 소리가 나며 교실에 불이 붙자 피란민들이 보따리도 미처 못가지고 사람만 겨우 빠져나와 살아났다.

그때 수많은 피란민들이 좁은 교실 문을 서로 빠져나오려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동생을 업고 나오다가 가족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하는 피란민 속에서 가족을 부르는 소리는 밤하늘에 퍼져나갔다. 나도 그때 “아버지! 아버지!” 하고 소리쳐 불러도 찾지 못하여 어딘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따라 걸어가니 바다가 나왔다.

거기서도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오니 그때 아버지도 “연주야, 연주야!” 하고 소리치며 불러서 가족을 비롯해서 큰집과 작은집 식구를 모두 만났다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를 만난장소가 조산리 솔밭 옆 신작로로 기억된다.

당시 조산학교 건물 속에 수많은 피란민들이 그 교실 안에서 피란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들은 아무리 작전상 불가피하게 학교를 태워야한다 할지라도 피란민들을 대피하라는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불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잘되지 않았다. 내가 그때를 돌이켜 회상해보면 불이 나고 피란민들이 좁은 교실 문을 미처 못 빠져나와 사상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 얼음 짱 같은 남대천 물에 아이들을 몇 번씩이나 업어 건너야 했었다.

후에 3가족이 만나 피란 집을 확인하는데 그때 우리식구들은 교실 끝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다른 피란민보다 먼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큰집 오빠는 원산에서 사 입은 비싼 옷가지가 들어있었던 트렁크(가방)를 미처 못 가지고나왔다고 했으니 교실 안 깊숙이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

은 최악에 상황을 맞았을 것이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던 큰집과 작은집 식구들이 모두 만나 얼음 짱 같은 남대천 물을 빠져 건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몇 번씩이나 업어 건너야 했다. 가족들은 가까운 오산리에 가서 어떤 집의 소 사료창고 같은 깎지거리에서 그날 밤을 보낸 후 약 보름동안 오산리에서 피란을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다.

강선리의 살던 집에 들어오니 다행히 우리 집과 또 다른 2집이 불에 타지 않아 남보다 험 썩 고생을 덜했지만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가 썩 등주리를 주며 썩을 캐 오라 하셨다.

그 당시 피란을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썩을 뜯으러 나서니 들에 썩이 없어 한 등주리를 채우지 못하면 집에서 “니는 썩도 제대로 못 캐니 굶어야 한다.”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 그래서 20살도 안 돼 북분리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



- 전찬오 (남, 84세, 현남면 상월천리)
- 면담일 : 2017. 12. 3



◆ 한 인민군이 웃으며 “피란가지 마시오. 잘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일정 때는 짚신을 신고 인구까지 6km를 걸어서 인구국민학교에 다녔다. 당시 잔교리와 대치리에 파출소가 있었고 336고지에는 국군이 경계를 서고 있고 주문진에 있는 서북청년단은 상월천리 뒷동산을 지켰다.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이 상월천 뒷산인 망월산(현북에서는 망령재로 부름) 산등을 넘어 새까맣게 밀고 나왔다. 총과 옷차림새 그리고 말씨를 들어보니 동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인민군인줄 알았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피신하였고 경찰도 미처 피란을 못 갔

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개중에 사람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아저씨, 왜 피란을 가시오?” 하니 한 인민군이 웃으며 “피란가지 마시오. 잘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난 걸 빨리 안 사람들은 멀리 인민군을 앞질러 갔는데 그 뒤에 늦게 알고 피란을 떠난 사람은 인민군의 뒤를 따라가는 형편이니 가다가 돌아왔다. 그날 우리 마을 김주옥씨는 논에서 늦모내기를 하다가 늦게 알고 나가려니 인민군이 이미 나간 것을 알고 피란을 나가보지도 못했다.

◆ **그 사람들의 말이 곧 법이니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란을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동네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얼마 후 북한 청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17세 이상은 의용군을 뽑아 간다고 했다.

그들은 어렵게 살던 동네 세 사람을 어떻게 포섭하였는지 책임을 맡아서 강제로 의용군에 보내려고 사람들을 찾아 설치고 다녔다.



〈면담중인 전찬오씨〉

그때 젊은 사람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굴을 파고 숨어 살았다. 그들은 은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찾아다니자 배기다 못한 청년 16명이 끌려갔으니 가는 도중에 3명은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돌아왔고 나머지 13명은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

당시 우리 할아버지는 닥나무로 한지를 뜨는 분인데 세포위원장보고 “너 이놈아, 왜 이 동네 청년들을 의용군에 보내느냐?” 하고 호통을 쳐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아침마다 동사에 모이라하여 김일성 노래를 가르쳤다. 그리고 대나무로 죽창을 길게 만들어 국군을 만나면 죽여야 한다고 까지 했다.

그들이 나오라고 할 때 만약 나가지 않으면 반동분자라 하여 재산을 몰

수한다고 하고 사람을 찾아내라고 졸라대고 협박하였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게 법이니까 사람들은 겁을 먹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김일성 노래를 가르쳤던 사람은 그 후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갔었는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때 나왔었다.

◆ **만식이 된 인민군 여군은 어성전에 가서 애를 순산 했다고 한다.**

약 3개월만인 10월쯤 인민군들이 국군에 쫓겨 가면서 1개 대대가 서림 지서를 습격하여 근무하던 경찰을 끌고 가서 때려 죽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에서 소도 끌고 가서 잡아먹었다고 했다.

그때 인민군 중에는 배가 만식이 된 몸으로 카빈총을 맨 여군도 있었는데 그 여군은 어성전에 가서 애를 순산 했다고 한다.

수북도 잠시 겨울이 되자 1·4후퇴가 시작되어 마을에 소개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6·25때 1차 피란을 못나가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들에게 곤혹을 치렀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이번에는 동네사람 모두가 서둘러 피란을 나갔다.

그때 우리 식구는 할머니와 부모 그리고 큰어머니와 8남매와 함께 12명인 대 가족이 새끼소가 딸린 어미 소까지 끌고 강릉 안인 노간리의 아는 집으로 갔는데 동짓달이라 눈이 많이 내려 날씨는 몹시 추웠다.

큰길은 비행기가 심하게 폭격을 했고 주민들은 모두들 피란을 나가고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 그 빈집들에서 잠을 자며 나갔다. 어느 날 나는 나보다 두 살이 위인 작은댁 아저씨와 밖으로 나가 피란민들 중에 우리 마을사람들이 있는지 살피러 나왔다가 시커먼 비행기에 공격을 받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 집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쿵 하는 폭음이 들리더니 집 벽이 무너져 내려 큰 사고를 당할 뻔했었다.

◆ **폭격으로 죽어있는 엄마 등에서 애가 울고 있었다.**

눈은 쌓이고 매서운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더 남쪽으로 피란을 나가는데 또 비행기가 폭격을 하니 여기 저기 길 바닥에 있는 시체가 눈에 덮여있었다.

그 시체 중에는 폭격으로 죽어있는 엄마 등에서 애가 울고 있었는데 잠시 후 굴다리에서 그 아빠는 뒤에서 애기가 울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 뒤돌아가 애기를 보더니 애기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가는 매정한 애비를 보았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 아버지가 설사 애기를 안고 가더라도 누구에게 짓을 물려야 될 것이며 또 이 매서운 엄동설한에 애를 키울 자신이 없어 냉정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조금 동정이 갔으나 인륜을 저버린 천인공노할 짓에 대해 안타깝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피란길에 눈이 갈려 유혈이 낭자한 시체의 모습이 잘 보이니 가슴이 더욱 아팠다. 정동진에서 밤재로 못 간다고 하여 산길로 해서 옥계로 가서 차고 목호 용정리 골짜기에 무슨 회사의 사택이 있어 거기서 피란을 했다.

◆ 옥수수 광밥 터트리고 남은 노란 껍질에 붙어있는 살로 죽을 쑤어먹었다.

그러나 피란을 나가면서 지고나갔던 식량이 떨어지자 바다에 나가서 철사로 갈고리를 만들어 파도에 굴러 나오는 싱통이(도치)를 갈고리로 찍어 끌어내서 잡았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병에 무엇을 넣었는지 그 병속에 든 것을 바다에 뿌리니 싱통이가 모여들어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작은댁 아저씨와 LST가 정박하고 있는 목호 항구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군인이 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니 LST에서 부딪가로 하역해놓은 폭탄 상자를 나르고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던 중에 내 손가락이 상자 사이에 끼어 피가 많이 나서 일을 더 할 수가 없게 되자 국군은 반창고를 붙여주고 우리에게 쌀을 한말을 주면서 돌아가라고 하여 아저씨와 고맙게 받은 쌀을 반씩 나누어가지고 왔다.

그리고 피란 중 어느 농촌 지역을 가니 썩은 감자를 버린 것을 발견하고 푸대에 담아 가져와서 썩은 감자를 말려 빵아 가루로 만들어 떡을 만드니 새까만 감자떡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옥수수 광밥 터트리고 남은 노란 껍질에 조금 살이 붙어 있는 것을 몇 자루 얻어다 광밥 껍질과 살을 분리하여 쌀과 섞어 죽을 쑤어 먹으면 그것도

맛있게 먹었다.

◆ 12명 식구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끌고 갔던 소를 쌀 5말을 받고 팔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를 목호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엄동설한에 소먹이가 없으니 방앗간 짚을 뜯어 소에게 먹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이 소를 빼앗아 가려고 해서 산골짜기에 소를 끌고 가 숨겨 키웠다.

나중에 수복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소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남과 달리 우리는 대식구라 식량도 쉽게 떨어지고 얻어먹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주문진에서 농사짓는 집에 쌀 5말과 새끼 딸린 소를 바꾸었다. 그 쌀로 그간에 굶주렸던 한이라도 풀려고 쌀밥을 많이 해서 실컷 먹었다.

다음해 봄에 고향에 돌아오니 마을에 집은 한 채도 없었다.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어다 짚이 없으니 소나무 잎을 썬워 하늘을 가리고 벽은 통나무로 쌓아 토막집을 지어 비가 오면 토막집 안으로 굶은 비가 들어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농사를 지으면서 새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다.



- 조진구 (남, 83세, 현남면 상월천리)
- 면담일 : 2017. 12. 3



◆ 인민군이 “내일 모래면 통일이 되는데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6·25전쟁이 나자 마을 청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쟁 났다고 가르쳐 주어 주위에 있는 동네 대여섯 가구가 남보다 먼저 피란을 나갔다.

첫날은 주문진 장덕리에 있는 절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절의

스님이 이런 일이 두 번 더 있어야 평화가 온다고 말하였다. 이튿날 다시 남으로 피란길을 재촉하는데 인민군들이 피란길을 막아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남으로 피란을 나갈 수 없게 되어 주문진 삼교리를 지나 하월천 마을에 접어들니 발두렁에 인민군이 새까맣게 늘어서 있었다.

그때 인민군들이 “어디 갔다 오느냐?” 고 묻자 피란을 갔다 옵니다. 라고 말을 하니 그들이 “내일 모래면 통일이 되는데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한다. 집에 돌아오니 인민군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돌아다닌 발자국이 사방에 나 있었다.

1·4후퇴 때는 강릉 모전리까지 피란을 나가 빈 집에서 자는데 바다에 떠있던 군함이 함포사격을 하여 우리가 자던 집 굴뚝 쪽 벽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다.

◆ 피란생활에 소를 팔아 농사철에 소 대신 사람이 연장을 끌었다.

그래도 그 집에서 용케 살아났는데 인민군이 후퇴할 무렵에 고향으로 들어오다가 날이 저물어 빈집에서 목계 되었는데 그때 인민군 한명이 총을 메고 들어오는데 장총이 땅에 끌릴 정도인 어린군인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총을 빼앗고 잡아서 신고를 하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쌍하여 그냥 돌려 보내주었다.

다음해 봄이 되어 다시 국군이 들어오게 되자 우리도 따라 들어왔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려니 피란을 나가 식량을 해결하지 못해 끌고 갔던 소를 쌀 5말에 팔아먹었으니 소가 하여야 할 일을 사람이 대신 그 일을 해야 했다.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가대기나 논갈이 때 쓰는 연장이나 씨레를 사람이 앞에서 소 대신 끌었다.

그 당시 우리 마을의 김성열 할아버지는 그 험난했던 피란생활과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소를 아무 탈 없이 데리고 돌아왔다.

농사철이 되자 전 마을에 그 황소가 한 마리뿐이니 인기가 대단하여 그 소를 부리려면 줄을 서 기다려야 했고 소를 하루 부리면 사람 두푼에 값을 쳐주어야 했다. 그 때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피란살이에 한 식구처럼

지내 정이 들었던 소를 가족들의 배고픔 때문에 견디다 못해 쌀 다섯 말에 소를 넘겨주고 고향에 돌아오니 일할 때마다 그 소가 많이 생각이 났다.



- 조병제 (남, 79세, 현남면 견볼리)
- 면담일 : 2017. 11. 25



◆ **패잔병에게 잡혀 죽었다가 되살아나 오래도록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

국군이 진격했을 때 북으로 미처 들어가지 못한 인민군패잔병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밤으로 마을로 내려와 먹을 것도 훔쳐가고 원한이 있는 주민을 잡아 꿰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때 죽었다고 버린 사람이 살아나 얼마 전까지 오래 도록 산 사람도 있다.

그때 한청사람들은 숨어있는 패잔병들을 잡으러 보초도 썼지만 야간을 틈타 패잔병들이 내려와 식량을 빼앗고 주민들에게 짐까지 지켜서 산속으로 가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밖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공비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공비가 나를 보고 “야 이놈아 들어가! 너 누구야! 너 안 들어가!” 하니 13살밖에 안된 어린나이에 너무 무서워 공포에 떨었다.

또 그 공비들이 마을 구장도 잡아 죽이려는 기미를 마을에서 사전에 알아채고 대피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 **양재기와 보자기를 들고 처량한 모습으로 밥을 얻으러 다녔다.**

1·4후퇴가 시작되며 국군이 퇴각하면서 무조건 피란을 나가라고 했다. 그때 나는 우리 집이 불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아랫동네 1.2반은 불에 타고 윗동네 3.4반은 집이 안탤는데 인민군이 그 곳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군 폭격기가 거기에도 휘발유를 뿌려 몇 집이 불에 탔다.

우리 식구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눈 맞으면서 강릉을 지나 피란민 발걸음이 조금 드문 삼척까지 가서 잠은 빈 집에서 자고 끌고 가던 암소가 삼척에서 새끼를 낳아 쌀 6말과 바꾸어 12명의 식구가 먹고 살았다.


식구가 많다보니 얼마 후 쌀이 떨어져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해 주고 곡식을 얻어다 먹었다. 먹을 게 없으니 때로는 장질부사 병을 앓는 환자가 먹던 밥도 먹어도 병이 걸리지 않았고, 양재기와 또는 보자기를 들고 남의 집 문턱에 가서 처량한 모습으로 “밥 좀 주세요!” 하며 구걸을 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밥을 얻어먹으며 추위도 보내고 어느덧 3월이 되어 집에 들어오니 집은 타고 없고 구들장은 남아 있어 콩 가리를 만들듯이 나뭇가지나 갈대를 베어 지붕을 만들고 짐승처럼 초막에서 살았다. 피란을 나가기 전에 묻어 두었던 곡식을 파내어 먹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 김충래 (남, 75세, 강현면 정암리)
전 강현면우체국장

■ 면담일 : 2017. 11. 19



◆ **쌀밥 구경은 명절 때나 제사 때만**

아버지(김남한)께서 살아계신다면 현재 나이로 107세이다. 당시 양양 철광산에서 광차 레일 점검반에 근무하셨는데 8·15해방이 되면서 처가가 있는 강현면 정암리로 이주하였다. 우리 속담에 길보리 서 말 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한 것이다.

해방 후 북한 공산당은 지주들의 논밭을 몰수하여 땅이 없는 농민에게 분배를 하는데 아버지는 광산에 다녀 농민이 아니므로 어머니가 친정에 다니며 농사일을 도운 것이 참작이 되어 논 서마지기인 약 600여 평을 분배 받았다.

그때는 비료가 없으니 짚이나 풀 등을 쌓아놓은 두엄 밭에서 흘러나온 오장물이나 소똥 등으로 썩혀 퇴비를 만들어 논 거름으로 사용했고, 밭에는 짚에 인분과 불을 때고 남은 재를 섞어 재거름을 만들어 농사를 짓다 보니 지금의 절반정도 밖에 수확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11식구가 농사를 지어보았자 현물세로 수확량의 반을 공출로 내고 나면 1년을 살아

가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물세 계산은 분배 받은 전체면적에서 논둑과 도랑을 포함하여 600평에서 벼가 잘 된 곳을 골라 사방 6자를 측정해서 1평 정도에서 나온 수확량에 600을 곱한 다음 그중 절반을 계산하여 공출로 걷어가고 남는 쌀 2.5가마 정도가 1년 식량이어서 쌀밥은 명절이나 제사 때만 맛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날에는 나물과 잡곡에 쌀을 조금 넣고 죽을 쑤어 먹으며 11식구가 살아야 하니 그 곤궁함이란 상상을 하기도 싫다. 그러나 다행히 형님이 글씨를 잘 써서 현 양양농협중앙회자리에 있었던 양양소비조합에 다녀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 인민군에 간 형님은 낙동강 전투 후 지금껏 감감 무소식

그때는 형님이 걸어서 양양을 다녔는데 하루는 형이 땀에 흠뻑 젖어 집에 들어와서는 바로 쓰러지셨다. 이유인즉 낙산 눈 고개를 넘는데 호랑이가 모래를 끼었어 돌아보지 않고 뛰어 오다보니 진땀이 났다고 한다.

그 후 형님은 결혼하여 양양에 살았다. 그러던 형님이 전쟁이 나면서 젊은 청년들과 인민군에 징집되어 낙동강 전투에 참전했다고 하는데 지금껏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망한 것 같다.

아버지는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당에 들었는데 마을에서는 민주당 사람들은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고 했다. 다행이 우리 아버지는 형님이 마을에서 서기를 보다가 소비조합에 다니는 바람에 끌려가지는 않았다.

동네 청년들은 저녁마다 마을에 모여서 학습을 하는데 안 나가면 큰일이 난다. 저녁밥은 못 먹어도 저녁 학습에 나가서 사상교육을 받고 비협조적이면 끌려다 매질을 하고 비판을 받는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은 인민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이 하는데 대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을 담당한다.

카드백이(애꾸눈)라고 하는 김○○ 민청위원장은 동네에서 예쁘게 생긴 이○○ 아가씨가 같은 마을에 사는 마○○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민청

위원장인 자기가 가로채려고 마○○을 물푸레나무로 만든 도끼 자루로 어께고 머리고 때렸다.

그때 이○○ 아가씨가 민청위원장을 가로막아 그 사이에 마○○총각이 도망을 치는 사랑싸움도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나이는 대부분 18~19세였다.

◆ 인민재판이 심해 공포생활

또 김○○ 아저씨는 공산당에 안 들었다고 어떤 핑계를 만들어 복골에 있는 방공호 속으로 끌고 가서 박달방망이로 때려서 죽어서 돌아왔다. 당시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잘 하면 땅을 많이 분배받을 수 있었고, 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분배 토지도 적게 주고 자기네 마음대로 데려다 일을 시키는 등 공산당원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농민 인민위원장 이었던 김○○은 농사를 잘 지어 공을 세우려고 밭에 육산 모 못자리를 만들었다. 지금처럼 비닐도 없이 뽕씨를 뿌리니 냉해를 입어 실패하여 문책성으로 인민재판을 받았다.

그는 후에 처벌이 두려워 바지 끈으로 목을 매어 죽었는데 그때 나이 30세였고 아이들도 3명이나 있었다. 이렇듯 북한사회에서는 인정사정도 없이 무지막지한 인민재판으로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만했다.

1950년 어느 날 부터인가 동네 사람들에게 마초를 베어오라고 했다. 마초는 그 집 식구 대로 목표량이 할당되면 풀을 베어 말려서 지게로 지고 현 코레일 연수원 자리에 있었던 낙산역에 가져가면 검사원이 속까지 파헤쳐보며 썩은 것과 덜 말린 것 등을 검사하고는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다.

이는 소련군이 타고 다니려는 말에게 먹일 사료로 사용하려고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여 모은 것이다. 그러나 전쟁 초 미국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그 마초 가리 더미가 불이 붙어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때 우리는 비행기에서 폭격을 하여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마초가리가 불타는 것을 구경하려고 언덕에 올라갔을 때였다. 비행기의 기총사격으로 총알이 근처에 수십 발 박히는 상황에서도 겁 없이 구

경을 하였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철부지 한 짓들이다.

◆ 큰 누나를 남의 집 민며느리로 보낸 사연은

당시 이북에서는 미군 비행기들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집집마다 방공호를 파라고 했다. 나는 그때 어린 나이로 6·25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몰랐다. 마을 뒷산위에 나무 4개를 박아 전망대를 만들고 비행기 소리가 날 때 마다 종을 치면 방공호로 들어갔다.

바다에서는 미군이 설악산을 향해 함포사격을 하였는데 포탄이 집 위로 날아 다녔기 때문에 외조부가 돌아가셨음에도 문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야간에는 석유 남포등이 없어서 고작 명태 애 기름으로 뼈뺌이 불을 켜놓거나 소쟁이(관솔:소나무 옹이)불을 켜고 어두운 밤을 지새웠다.

외조부님이 돌아가시자 부모님 두 분과 우리 삼남매 그리고 형수와 조카이다. 당시 부모님은 16살 큰 누나를 보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서면 황이리에 민며느리로 보내려는데 안가겠다는 것을 “거기 가면 밥은 실컷 먹을 수 있으니 아주머니 따라 가거라” 하여 용호리 친척 아주머니를 따라 민며느리 시집을 보냈다.

◆ 소동 냄새가나도 마구간이 있어 참 다행

국군이 후퇴할 때 우리 집 7식구는 먹을 식량과 이불 등을 나누어지고 삼척까지 갔다. 피란길은 대체적으로 구 철길로 과거 동해북부선으로 폐허가 된 철길에 바닥은 자갈밭이다. 기차 길 위에는 레일이 없는 곳이 있었으며 받침목만 남아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수, 누님, 그리고 동생은 어머니가 업고, 형수는 우선 필요한 필수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조카까지 업고 걸었다.

피란길은 괴롭고 힘들었으며 신발이 없어 변변한 고무신 한 켤레도 없으니 인민군이 버리고 간 통다비(통일화)를 주서 신고 출발했으나 어린 신발이라 아홉 살인 내발에는 맞을 리가 없다. 끈으로 묶고 그도 없으면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발을 묶고 걸어다니 얼마 못가서 끈이 끊어져 가족

들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었다.

부모님들은 빨리 안 따라온다고 야단이지니 울고불고 피란길은 참으로 고생스러웠다. 피란행렬은 길고도 길어 한번 떨어지면 부모님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산인해인 피란민행렬 속으로 계속 걷고 또 걸어야만 했고, 발이 부르터 피가 나고 물집이 생기는 고행 길을 걷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과연 6·25전쟁은 누가 저질은 전쟁이며, 미국인가? 소련인가? 어린 나에겐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모진 고생과 험난한 피란길을 걷다보니 삼척 남양동에 장동환 이라는 친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 갔으나 목을 집은 없고 잘 곳도 없어 소가 없는 마구간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다.

소는 전쟁 중에 없어졌는지 알 수 없었고 소가 마구간 벽에 설사 똥을 싸 놓아 말라붙은 그 소똥 냄새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나마 잠 잘 수 있는 곳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

◆ 밥을 더 얻으려고 아버지와 따로 따로 동냥

그러나 무엇보다 가지고 간 쌀이 다 떨어지니 배고픈 설움이 당장 눈앞에 닥쳤다. 할 수 없이 마을에 이집 저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동냥해 와야 했다. 아버지와 함께 가면 한 몫만 주니 한몫을 더 얻기 위해서는 따로 따로 다니자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여 얻은 밥으로 가족들의 허기를 면하기도 하였다.

전쟁 중에는 집에 아무리 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농사꾼이라 한들 피란살이 도중에는 거지가 되었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쌀을 쌓아두고 사는 것을 보고 기술이 제일이라 생각했다. 그 기술자들은 미군이 쓰다버린 빈 깡통이 많은데 가위로 잘라 밥그릇도 만들고 쓰레받기와 양동이도 만들고 그 깡통으로 지붕도 덮으니 그 기술을 밀천삼아 쌀이나 좁쌀을 바꾸어 잘 사는 집을 보았다.

고향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피란살이를 하는 지역에 와서도 아이

들을 가르치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무도 보고 하는데 기술이 없으니 밥 동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람은 꼭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모질게 피란생활을 이어가던 중 반가운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젠 고향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던가? 이젠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 모판이 없어 논 두렁에 버린 모를 주어다 심다.

손양면 도화리 굴다리에 왔을 때 웬 군인 차가 오더니 “짐 내려놔!” 라고 하더니 아버지를 차에 태워 어디론지 갔다. 남은 식구들은 항의도 못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지고 가던 짐을 나누어지고 중간 지점 또는 멀리 보이는 곳까지 지고 가서 땅에 내려놓고 다시 와서 또 이어지고 왔던 자리를 다시 되돌아가 왔다가 갔다가를 반복하여 짐을 겨우 옮기며 집에까지 왔다.

결국은 같은 길을 두 번씩 반복해서 짐을 지고 운반한 셈인데, 이를 “전체짐” 이라고 불리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정암리 집 마을 앞 논에는 모내기가 끝났다. 피란을 나가지 않았던 이웃 노인들이 가까운 논에 못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먼저 들어오자 모내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도 안계시고 논도 없고 하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주인 없는 논을 일구어 남의 논 두렁을 다니며 모내기 하고 남은 모를 주어다 모내기를 하였다. 논은 아버지가 안계시고 소도 없으니 갈 수도 없어 작년에 모를 심고 벼를 베고 난 벼 글거리 옆에 모을 심었다.

그리고 집에서는 10살인 내가 장정 역할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논 거름도 못하였으니 심은 벼가 잘 자랄 수가 없었다. 수확을 해야 많지 않으니 곤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 제사 때에 축도 쓰고 읽어아하니 너는 서당에 나가라

다행이 아버지는 9개월 만에 돌아오셨는데 많이 수척해 있고 발바닥이 굳은살 딱지가 많아 잘 걷지도 못하고 일도 할 수 없으셨다. 적지에 가

서 주먹밥을 싸가지고 다니며 호도 파고 탄알을 저 나르기도 하고 보급품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고 하셨다.

군인은 참호 속에서 전쟁을 하는데 짐꾼들은 보급품을 나르다보니 군인보다 짐꾼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보급품을 차단하려는 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많이 죽었다고 한다.

또 후퇴하는 사람은 헌병들이 뒤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도망 갈 수도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1년이 지난 후 건강이 겨우 회복되어 학교에 보내주니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강현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김동욱 담임선생님께서 아버지를 찾으시고 “총래는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중학교에 보냅시다.” 라고 말씀 하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놈을 학교에 보내면 내가 농사를 다 못 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여 나는 중학교에 못가고 “너는 커서 제사 때 축이라도 쓰고 읽어야하니 서당에나 다녀라.” 하셨다.

그 후 나는 벼루와 붓을 지고 논골 최성길 훈장님께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석 달 만에 천자문을 띠고 무제시, 동몽선습, 명심보감을 배워나갔다.

◆ 해산물을 영 넘어 사람들과 곡식과 바꾸미로 연명

전쟁 전과 휴전 후부터 바꾸미라는 것이 있어서 정암리 염전거리에서 만든 소금과 바다에서 나는 미역과 그리고 쫄치와 고등어 등을 소금에 절여 지게에 지고 구룡령, 조침령, 북암령, 박달령, 오색령 등을 넘어 홍천과 인제를 다니며 영 넘어 에서 많이 나는 굴암(도토리), 옥수수, 콩, 감자 등을 바꾸미다 식량으로 사용하니 많은 사람들이 바꾸미에 나섰다.

이 바꾸미는 해방 전후에도 행해졌고 인공치하 때도 국군초소와 인민군초소를 피해 다녀야 했는데 특히 인민군 초소 인근지역을 통과 할 때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기척 없이 피해 남북을 오가면서 물물교환을 할 수 있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웃 용호리는 전쟁으로 다 타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우리가 사는 징 바위는 아직도 옛날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징 바위는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어귀가 좁아 도로에서는 잘 안보여서 국군이 후퇴 때도 다른 동네는 다 탔는데 징 바위는 타지 않아 피란 곳이라 불렸다. 나중에 국군이 반격을 할 때 마을 인민위원장 집 문이 열려있어서 가서 살펴보니 집이 비어 있었는데 누구 말로는 북으로 피란을 갔다고 했다.



- 손인호 (남, 79세, 강현면 강선리)
- 면담일 : 2017. 11. 15



◆ 독립군가를 가르쳐주시던 여선생님은 월남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 고꾸민각꼬(국민학교) 1학년울 5개월 다니다가 해방이 되고 바로 인민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오신 남○○라는 여선생님은 독립군이 부르던 노래라면서 우리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최후에 결전을 맞으러 가자 생사가 운명에 반 거리다.

나아가자! 나아가자! 굳게 뭉치어 승리는 우리를 재촉한다.

총칼매고 혈전의 길로 다 앞으로 동지들이 승리의 길은 우리 앞에 날린다.

다 앞으로 동지들이.

병정들이 나팔을 불며 발을 맞추어 나간다.

하나 둘 셋 넷 나팔 불며 나아간다.

그 후 남○○ 여선생님은 몇 달을 근무하고는 38° 선을 월남하셨다. 당

시 교과서는 없었고 자음(ㄱ, ㄴ, ㄷ, ㄹ...)과 모음(ㅏ, ㅑ, ㅓ, ㅕ...)을 칠판에 써서 배웠다. 2학년 때는 감장 열갱이란 별명을 가진 여선생님은 구구법을 가르치셨고 그날 배운 것을 외우지 못하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다. 그 선생님도 역시 나중에 월남을 하셨다.

◆ **천주교 신자들은 야밤에 남몰래 세배를 다녔다.**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천주교를 믿었는데 이광재 신부가 오셔서 기도를 했다. 아버지가 속초읍 도문까지 걸어가서 대부(후견자)인 오재근 남님께 남들이 모르게 밤에 세배를 드리려 다녔다.

일제강점기 때는 천주교를 믿는 것이 자유스러웠지만 북한 정권에서는 1947년까지는 교회 믿는 걸 막지 않았는데 48년부터는 천주교를 믿지 못하게 하였지만 숨어서 기도를 하였다.

1947년쯤 강현 중학교가 생기면서 아래 3칸은 인민학교, 위층은 중학생이 배웠는데 교실이 부족하니 강선리와 장산리 동사에 가서 공부하였다. 교과서는 2학년부터 있었다. 5학년 때 부 통학반장이 되었는데 우리 집이 외딴집에 살아서 구호 부르러 나오라하데 잘 나갈 수가 없었다.

물чи 장날은 맨발로 자갈밭을 걸으면서 부르니 발이 많이 아프고 밤에도 구호를 부르러 가야 하는데 통학반장이 “현물세를 바치자! 문맹을 퇴치하자! 김구, 이승만, 조만식을 타도하자!” 하고 선창하면 다른 학생들이 줄을 서서 행진하며 따라 외치는 행사인데 나는 잘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부 통학반장 완장을 박탈당했다.

◆ **이놈의 세상 한탄 하다가 내무서 명단에 이름이 올랐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중학교에 다녔는데 마을마다 세포위원장이 지도를 붙여 놓고 오늘은 대전, 그리고 다음에는 대구를 포시하며 인민군이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있다고 선전했고, 학교에도 그렇게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허구한 날 인민회의에 매일 회의에 불러 다니니까 “이놈의 세상 언제까지 가려고 사람 못살게 구는지!” 라고 꾸밈을 하였

는데 그때 마침 뒤에 따라오던 처녀들이 내가 한 소리를 듣고 내무서에 고발 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것은 얼마 후 국군이 들어와서 강현면 내무서 서류에서 우리 아버지가 사상이 불순한자의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만약 국군이 조금만 늦게 들어왔더라면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인민재판을 받고 최악에 경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천만 다행으로 하느님이 보호해주셨는지 국군이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살아날 수 있었다.

하루는 학교에 갔다 오는데 쌍가달 비행기가 정암리 낙산 기차정거장에 폭탄을 떨어뜨려 불이 났다. 거기에는 말에게 먹일 마초가리와 전쟁 물자들이 쌓여있었다.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놀라고 무서워 친구와 가시나무 숲에 들어가 숨었는데 집에 와보니 얼굴에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 방공호로 대피하니 빗물이 가슴까지 차 올랐다.

강현중학교에는 복도를 나서면 바로 방공호와 이어지게 교통호를 파 놓았는데 비행기 소리가 나자 사이렌이 울려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 대피하는데 비가 와서 물을 미처 퍼내지 못해서 빗물이 가슴까지 찼다.

어느 여름날 B29 폭격기가 양양철광산을 폭격하는데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산이 울렸다. 그때도 학생들은 방공호에 들어가 가슴을 조이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밤이면 대나무 죽창을 만들어 들고 중학교 1학년인 나는 3학년 백상집 형과 한조가 되어 보초를 섰다. 밤마다 그러다보니 공부는 할 수가 없었다.

다행한 것은 경상도 일부와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과 미군이 밀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맥아더 장군의 지휘아래 연합군이 인천상륙에 성공하자 보급선이 끊기며 전세가 불리해진 인민군은 북으로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

◆ 불속에서 건진 예수십자가와 시계가 가보가 되었다.

전세가 반전된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 겨울에 남으로 후퇴를 하게 되었다. 이 때 남하하는 중공군과 인민군들이 임시라도 거쳐할 수 없도록 민간인 들이 피란 간 빈집에 국군과 치안대가 쫓아 불을 붙여 초가집에 들이대니 불길의 순식간에 집에 불이 났다.

전 동네의 집을 태우는데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여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강선리가 150호인데 100호는 타고 50호 정도는 안탤다고 남아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때 물치와 정암리 역전도 탔는데 큰 신작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용호리, 정암리, 복골 등은 골짜기에 있어서 태울 때는 면할 수 있었으나 그마저 일부는 나중에 폭격으로 탔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

우리 집도 그때 불에 탔는데 어머니가 불속에 들어가 시계와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도 우리 집 가보로 보관하고 있다.



〈 불속에서 꺼내온 시계와 예수 십자가 〉

◆ 현물세를 받으러 왔다가 불탄 쌀 먹는 걸 보고 그냥 갔다.

전쟁이 한창이다 보니 군인이 모자라게 되자 그때 동네 형인 이상익과 전상집 등은 인민군에 징집되어 나갔는데 이상돈도 인민군에 징집되어 나가려고 하였으나 체중이 모자라 뽑아가지 않아 다행이었고 나는 어려서 아주 제외되었다.

당시 인민군이 다발총을 매고 어깨에 별 같은걸 4개 붙인 인민군이 현물세를 내라고 했지만 우리는 집이 없어 움막에서 불에 타다 남은 쌀로 밥을 해 먹는데 그걸 보고는 그냥 갔다. 그해에는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눈에 나무가 많이 부러졌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 김남성 집과 황현주네와 우리 식구는 위골에 방

공호를 파고 동발을 세우고 굴을 팠는데 입구는 하나이고 들어가서는 세 갈래로 내서 세 집이 사용하게 팠는데 김○○세포위원장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쓴다고 빼앗았다.

그래서 다시 뼈꼭산에 황돈태 네와 대충 굴을 파고 숨어 있다가 밤에는 내려와 불이 타지 않은 몇 집에 같이 비좁게 살아야 했다. 그때 인민군들이 식사하는 걸보니 쌀밥에 고등어 줄인 것을 반찬으로 먹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피란을 못가고 집이 탄 방 고래위에 나무를 걸치고 이엉을 덮어 집으로 쓰고 살다가 2년 후에 토막집을 지었다.

◆ 국군 배낭을 지고 원암을 갔더니 또 가자고하여 막 울었더니 보내줬다.

우세한 미군의 공격무기인 비행기와 군함들을 앞세워 아군의 반격으로 인민군들이 쫓겨서 북으로 들어가는데 긴 줄이 이어졌다. 이들은 큰 신작로로 후퇴해 들어가면 비행기에 노출되어 공습이 두려워 신작로를 피해 화일리에서 물갑리와 회룡리를 거쳐 북골 소금재를 넘어 북쪽으로 갔다.

나는 그때 13살 때 인데 마을 앞에 국군이 행군하는 걸 구경나갔다가 군인 배낭을 지고 가자고 하여 중도문리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쌍천을 지날 때는 하천에 지뢰를 묻어놔서 한 줄로 서서 잘 살피며 건넜다. 그런데 고성 원암까지 더 가야 한다기에 가지 않으려고 막 울었더니 돌아가라고 보내주었다.

그 후 국군이 들어와서 인공정치가 끝이 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일 할 사람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다가 1952년도에 늦은 나이에 국민학교 6학년이 입학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속초중학교에 입학하였지만 그나마 2학년을 마치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려야 했다.



- 김근수 (남, 85세, 강현면 정암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양양군지회장
- 면담일 : 2017. 10. 7



◆ **맞선을 본 아가씨와 38° 선을 넘어 월남을 했다.**

양양 영덕에 살았었는데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38이북은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몰수당해서 불만이 가득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 밤마다 주민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는데 불려가서 비판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싫어서 1949년 5월 월남을 결심했다.

그때 용호리에 사는 장씨 아주머니가 정암리에 18세의 암전한 처녀가 있다고 중신을 서서 몇 번 만나 양가에서 결혼하기로 승낙을 받았지만 혼례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영덕으로 데리고 왔다가 칠혹같이 캄캄한 밤에 그 아가씨와 함께 38° 선을 넘어 홍천에서 부자로 살고계시는 큰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때 나는 집을 떠나면서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영덕의 38° 선은 인민군과 로스케가 지키고 있는데 도로가에만 지키고 숲속은 철조망도 없고 지키지 않아 월남이 수월했다.

◆ **우리부대가 주둔한 중청봉 건너에 인민군과 대치했다.**

홍천에 가서 나는 마침 나의 형님인 김재수가 서립 호림부대 유격대대장이어서 호림부대에 지원하여 훈련을 처음 받았는데 총을 쏘는 법과 수류탄 던지는 법을 배웠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백골부대인 3사단 23연대 8중대 포대에 군번도 없



〈면담중인 김근수씨〉

이 배속 받고, 1950년 설악산에 침투하였다가 화채봉 전투에서 실패하고 후퇴하여 부대를 정비하여 오색 약수터 근처에 최○○하사와 함께 전방에 보급품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맡았다.

카빈소총을 지급 받고 인부 20명을 인솔하여 설악산을 하루 2번씩 보급품을 지고 올라갔다. 그때 우리 부대는 중청봉에 주둔해 있었고 인민군인적은 바로 건너편에 대치하고 있었다.

◆ 중공군은 10명중 1명만 소총을 가지고 있고 수류탄을 2개씩 달고 있었다.

그 후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군이 반격하며 북진을 할 때 우리가 철원까지 갔을 때가 12월쯤인데,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암록강변 초산까지 진출했던 미군과 국군이 밀리면서 후퇴명령이 내려졌다.

부대가 인제군 귀둔리에 주둔해 있는데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 헬리콥터에서 보급품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우리가 그 보급품을 수거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인민군들이 습격하여 왔다.

우리는 놀라 보급품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후퇴해야 했다. 그때 보급품은 전투식량인 미국제 씨레이션으로 고기가 든 캔과 과자, 커피, 담배, 껌과 그리고 쌀과 부식재료들이었다.

다시 후퇴가 계속되는데 보급품이 떨어지니 굶으면서 걸었는데 헬리콥터에서 공수했던 씨레이션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강물만 마시고 사흘을 굶었는데 어지럽고 비틀거리며 앞사람을 잡고 걸을 지경이었다.

홍천 남면까지 갔는데 또 중공군들이 북을 치고 팽가리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멀리 중공군이 보였다. 중공군은 10명중 1명만 소총을 가지고 있고 수류탄은 2개씩 달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중공군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니 너무 무서워 공포에 떨었다.

◆ 보트를 타고 2명씩 조를 짜서 북 고성 통천 앞 알섬으로 침투했다.

우리 대원들은 밀고 들어오는 중공군들의 공세에 쫓겨 대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어찌할 바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23연대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이 혼자가 되어 주문진까지 걸어서 후퇴하다가 마침 현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8240부대에 배속되었다. 이 부대 이름이 켈로 부대라고 했고 한국군과 미군이 훈련을 시켰다. 훈련을 마치고 보트로 북 고성 통천 앞 알섬으로 침투하기로 명령이 내렸다.

소지품은 권총과 실탄 9발, 단도 1개 주먹밥 2개다. 권총은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니면 쏘지 말고 단도는 사살용이나 자살용으로 사용하라고 한다. 어두운 밤 고속 보트에 7명이 타고 알섬에 닿았다.



〈현역시절〉

우리끼리도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여기서 부터는 2명씩 짝을 지어 조장은 고성 지리를 아는 사람이 맡아 허름한 농부차림으로 부대에 접근하여 적의 부대를 탐지하고 내일 날이 밝기 전인 새벽4시에 배로 돌아와야 하고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보트는 떠난다고 한다.

우리가 어둠을 뚫고 들어가니 적의 부대가 여단 이상의 부대로 병력이 대단히 많았고 주위 경계가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제시간에 도착해 보니 다른 조는 보이지 않고 우리만 돌아온 것 같았다. 다른 대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주문진 부대에 무사히 도착하니 1주일간은 푹 쉬라고 한다.

◆ 헌병대에서 귀향증을 써주고 미군이 안남미를 한 자루씩 준다.

1주일 후 다시 집합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속초 지역으로 침투한다는 것이다. 속초 지역은 내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터라 내가 조장이 되어, 장사동 바닷가 갯벌에 내려 밤에 고성 운봉산 뒤로 잠복해 들어갔다. 이번에도 인민군 주둔지를 정찰하고 제 시간에 2개조 모두 찾아 돌아왔다. 그 다음은 우리 대원들에게 낙하산 훈련을 시킨다.

정암리 해변에서 미군이 훈련을 시켰고 한국군은 통역을 하였다.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출발하기 전날 밤 회식을 시켜주었다. 그때 한 소령이 들어와 내일 적지에 낙하산으로 투입되면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오늘밤 도

망가라고 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었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현지 입대나, 아니면 집으로 가거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현지 입대하면 우리가 달고 다닌 중사나 상사의 계급장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했다.

전쟁에 시달리던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헌병대에서 ‘귀환증’을 해 주며 미군이 안남미 20kg들이 한 자루씩 주는 것을 가지고 왔다. 영덕으로 갔는데 아내는 내가 밖에 나갔다가 고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하여 처가가 있는 정암리로 가 살고 있었다.



〈김근수씨 현역시절〉

당시 호림유격대원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공산주의정권의 인민군과 싸워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나는 속초 설악산 비선대로 가는 길옆 적지에서 싸우다 산화한 군번도 없는 전우들의 호림유격대 위령비와, 또 고성군 통일 전망대 전적비에도 매년 9월 27일이면 찾아가 추모의 예를 올리고 돌아오곤 한다.



- 장용진 (남, 86세, 강현면 정암리)
- 면담일 : 2017. 10. 7



◆ 원산 앞바다에 큰 배 한척에서 비행기가 날아와 맹폭격을 감행
공산치하에서 초급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2년을 배우고, 바로 양양고

급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여 로어를 배우고 다니던 중에 6·25전쟁이 났다. 그 때 양양고급중학교는 1회가 이미 졸업을 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학생들은 입대시키지 않고 평양 화학 공장 등에 배치되어 성냥과 탄알 등을 만들었는데 월급은 받지 않고 무보수로 노력봉사에 동원되었다.

1950년 한 여름이 되자 평양에 미군 비행기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그때 여러 공장이 폭격을 맞아 불에 타자 공장근로자들은 우왕좌왕 갈 길을 헤매다가 이 공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 다시 원산으로 와서 인민군 지원 사업을 하였다. 거기서 하는 일은 매일같이 주먹밥을 만들어 전방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저녁때와 새벽이 되자 원산 석유공장도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하였는데 원산 앞바다를 내다보니 학교만한 배가 나타나 배에서 비행기가 떨어져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날아오더니 폭탄을 비 오듯이 퍼 부니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

◆ 원산은 미군기가 맹폭을 하는데 낙동강에서는 인민군의 승전보를 홍보

원산에서는 비행기와 배에서 함포사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민군은 낙동강에서 계속 이기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주먹밥을 뭉치고 있는데 제1중학교에 폭탄이 떨어졌고, 이웃 공장들도 폭격에 맞아 불타고 있으니, 책임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그때 내려오다 보니 속초도 폭격을 맞은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기차 길도 끊어지고 차도 없고 걸어서 집으로 오면서 소비조합 식당에 들러 국밥을 사먹었다.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셨는데, 그때 밥값은 10원~20원씩 했고 3일 동안 걸어서 집에 왔다. 집에 온지 3~4일은 되었을까? 군인 모집을 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모집을 하였다.

군인 모집 장소인 낙산사에 가니 전쟁식량인 배급용 미숫가루가 당일

분량이 다 떨어졌다고 내일 미숫가루가 오니 내일 오라고 한다.

그때 아버지가 국군이 현북면 말곡리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군인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란을 가자고 하여 소를 끌고 상복골로 피란을 갔는데 상복골은 산 밑이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택했다.

◆ 미 8군 커크랜드 부대원으로 입대

피란처인 상복골에서 오래 있을 수 없어 정암리 집에 오니 국군 수색대가 이미 들어왔는데 이튿날 만세 부르러 나오라고 하여 구경 겸 국도에 나가서 만세를 연호하며 국군을 환영했다.

그 때 국군들은 지금의 강현면 정암리 해수욕장에 있는 에바다 호텔 자리인 염전거리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건빵과 화랑담배를 나누어 주어 담배는 아버지에게 드렸다. 그때 건빵을 처음 맛보았으며, 국군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인상이 좋아 보였다.



〈면담하는 장용진씨〉

국군이 들어와 수복이 되자 6·25전쟁 전에 월남했던 사람들이 들어와 치안대를 모집하자 나는 동네친구인 최식록, 김봉달, 박만식과 같이 현 지서자리인 강현면 치안대에 가입활동 하였다.

그때 나는 외근과에 근무했는데 대장은 용호리 사람으로 왜정 때 월남했다 돌아온 장복환 이었으며 대다수 대원들은 본적지가 이 고장 출신들로 월남해서 학도호국단으로 이미 가입된 대원들 이었다.

내 임무는 빨갱이들을 잡는 일이었다. 각 동네에 북한 공산당에 가입하여 마을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잡아 군 정보대에 넘기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치안대 일을 하고 있는데 미 8군에서 커크랜드 부대원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알아보니 그 부대는 보급품이 넉넉하다는 것이다.

마침 그 부대가 양양 정손리 마을에 주둔하면서 장병들을 모집했는데 신체가 건강하면 무조건 합격이다. 지원병 대부분이 예전에 월남을 해서

남한에서 학도호국단에 가입해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 50여 명이 침투하였는데 살아온 대원은 3명뿐

모집된 훈련병들은 목호에 가서 미군에게 훈련을 받는데 개인화기 사격훈련과 박격포 쏘는 법을 배웠는데 훈련병들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때 연대인원은 고작 50여명으로 12연대와 13연대가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12연대 2중대 1소대에 배속되었다.

내무반이 없어 1개 분대 6~7씩 개인 빈집에서 자면서 1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식사는 안남미 밥에 건빵과 C레이션 등이 고작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13연대가 고성 통천 알섬에 50여명이나 침투하였는데 살아서 돌아온 대원은 3명뿐이었다.

다음은 우리 부대가 침투할 차례인데 저녁때 술과 음식을 잘 차려놓고 회식을 시켜주면서 식사중인 대원들에게 연대장인 소령이 들어와서 “너희들 도망가라! 침투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는 또 다시 내일이라도 당장 “비행기로 백두산지역으로 공수되어 침투를 할 각오가 되어있는 대원들은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 고 한다.

연대장 말이 떨어지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을 했던 학도호국단 아이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그래도 남겠다고 하는 대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북에서 나와 대원으로 들어왔던 아이들이었다.

◆ 헌병에게 차를 태워 달라고 하니 묻지도 않고 태워줘

그러나 부대에서는 가만히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7일 동안 먹을 식량을 주어서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로 입대 하러 걸어서 내려갔다가 삼척 지서에 가서 밥을 달라고 하니 무조건 준다. 당시 우리대원들은 상사 계급을 한 인민군복장을 한터라 북한으로 침투하는 HID소속으로 알고는 잘 대해 주었다.

그런데 마침 삼척에서 아군의 패잔병들과 함께 신병들을 모집하는데 막상 거기를 들어가면 상사계급을 달고 바로 전투마당으로 가게 되니 그

털 바에는 차라리 육본이 있는 대구 가서 정식으로 입대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대구로 내려갔다.

첫날은 묵호에서 차고 울진을 지나 대구를 못미처 경주역전에 가니 국군이 복진을 한다는 방송을 듣고 에이 도로 집으로 가자. 하고 마음을 먹고는 헌병한테 부탁해서 차를 타고 강릉까지 들어왔다.

당시 우리들은 인민군 복장에 상사 계급을 달고 다발총도 휴대하고 부대에 있다가 나왔으니 그때는 무법천지라 헌병들도 꼼짝 못하고 차를 태워달라고 하니 묻지도 않고 태워주었다.

강릉에서 고향집을 찾아 양양으로 들어오는 도중 예전에 피란을 나오면서 잠자던 집을 찾게 되었다. 그 때 묻어둔 쌀과 감자 김치 등이 생각이나서 찾아보니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밥을 해 먹고는 다시 고향 집으로 들어오는 도중 접근처에 있는 조산리의 다리 밑에 다발총을 버리고 친구인 4명과 함께 정암리 마을로 들어오니 피란을 나갔던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군 공병대와 포병부대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 우리는 대구에서부터 헌병에게 부탁해 차를 타고 들어 왔고, 피란민들이야 밤에는 겨우 눈을 붙이고 낮이 되어야 걸어야 하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6·25전쟁이 터지면서 국군들은 복진과 후퇴를 반복하다보니 국군 선발대는 인민군복장, 인민군선발대는 국군복장을 하며 행세를 하였고, 급변하는 전쟁 상황에 처해지면서 국군 선발대가 인민군 옷을 입고 마을을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인민군 복장을 한 국군을 환영을 하는데, 만약 그들이 민간인복장을 하고 민간인으로 가장한 인민군들이나 적색분자로 확인되면 처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집집마다 줄을 연결하고 M1탄창을 매달고 공비 출몰시 흔들어 딸랑딸랑 신호**

수복이 되고 공비 토벌대로 처음에는 HID소속으로 입대하였다가 후에 양양치안대 설악대 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치안대가 속초시 상도문에서 모집을 하였는데 임무는 설악산에 은거하고 있는 공비를 토벌하는 것

이었다.

모집된 대원들을 치안대로 개편하게 되면서 월급도 주었다. 치안대 본부는 상도문리에 두고 5명이 1개분대로 조직했는데 나는 화일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그때 양양남쪽 수사대와 상도문은 설악대라고 했다.

그때 공비들은 밤에 민가에 내려와 쌀, 소, 장 등을 훔쳐가자 자주 훔쳐가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집마다 줄을 연결하여 M1총의 탄창을 매달아 놓고 공비가 출현하면 잡아당겨 딸랑 딸랑 소리가 나게 해 연락체계를 갖춰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비들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와서 치안대원이 쫓아와 포위를 하고 이들과 30분간 교전 하였는데 영혈사 쪽으로 도망을 가 놓치고 말았다.

그 다음날 공비들이 도망 간 쪽을 수색하면서 살피던 중 연기가 나는 곳을 살금살금 가보니 밥을 해 먹고 잠을 자고 있는 공비들에게 총을 쏘아 5명중 1명을 사살하고, 옆드리고 있던 공비 1명은 생포하여 헌병대에 인계하였지만 나머지 3명은 도주하여 놓치고 말았다.

당시 생포한 공비가 소지한 망원경을 압수하여 집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HID 부대에 반납하고 포상금을 받아 대원들과 회식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한창때라 몸이 날래서 설악산을 잘 타고 다녔으며 공비를 사살한 적도 있었다. 그 외에도 상도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원들과 함께 정찰수색을 나가 잠복근무중 공비들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군을 생포해 HID에 인계한 적이 있다.

◆ 날은 춥고 땀감이 없어서 부처님의 좌대를 뜯어 불을 지폈다.

우리 상도문 설악대원들은 조산에서 창설된 ○○사단과 함께 백담사에서 약 10여리정도 들어가서 암자(영시암) 인근 지역으로 공비 토벌작전을 들어갔는데 암자 주변의 집은 불타고 드넓은 빈터에 논과 밭 그리고 감나무 등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이 지역에서 얼마나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지 나중에 보니 시체가 즐비

해 있었다. 그때 어떤 군인은 언제 준비해 왔는지 펜치 같은 연장으로 시체의 금니를 뽑아서 주머니에 넣는 대담한 군인도 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뻔뻔한 태도였다.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때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 불을 지피려고 땀감을 찾았으나 구하지 못하자 일부군인들이 절의 부처님을 발로차서 넘어뜨렸는데 부처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부처님에 도금을 한 것 같았다.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있던 자리도 나무였는데 그 나무들도 뜯어 땀감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 마루 밑에서는 책과 수저, 식기그릇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많은 책들은 다 태웠다.

그러나 희생된 아군들은 물론 인민군도 어느 집의 귀한 자식일 텐데 산골에서 이름 없이 죽어 쉬파리가 대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 후 설악산지구 공비토벌이 끝나자 나는 낙산과견대에 다시 돌아와 근무를 했었다.

설악대에서 2~3년 근무하다가 경찰시험을 보려고 하였으나 연령 미달로 응시를 못하였다. 휴전 후 수복이 되고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이 되자 징집1기로 논산 훈련소 입대 601999 군번을 받고 김해 공병학교 갔다가 인제에 있는 3사단 군수과에서 근무하고 제대를 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내는 예전에 설악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중대 결혼을 하였는데 그 때 내 나이는 23세였고 아내는 20세 아가씨 이었다. 당시에는 얼굴도 마주 못보고 중신으로 결혼하여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려줄 사항은 왜정 때 면사무소는 강현초등학교 밑에 있었고, 주재소는 현재 물치 이동영씨 부근의 약국 위쪽으로 예전에 손철영씨 집터이며 지금은 공터로 남아있다.

◆ 장용진 씨 부인이 전하는 남편의 짧은 이야기

장용진씨의 부인은 남편이 젊은 시절 “설악대에 근무할 때 우리 남편

은 몸도 날씬하여 설악산을 번개같이 잘 다녀서 주위에서는 장용진이 나서면 설악산이 벌벌 떨고 있었다.” 라고 남편 이야기를 전했다.



- 김금녀 (여, 83세, 강현면 정암리)
- 면담일 : 2017. 11. 4



◆ 나는 소년단 분단장과 교실 벽보 주임을 하였다.

친정은 속초 논산리이다. 어렸을 때에는 대포공립국민학교 논산 분교를 3학년까지 다녔다. 12살 때 해방이 되고 대포인민학교에 들어가니 곱셈 뺄셈 등은 배울게 없었지만 그러나 한글은 잘 몰랐다.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잘하니까 월반을 시켜서 5학년까지 올라갔다.

나는 소년단 분단장도 하고 벽보담당을 하였는데 하는 일은 교실 뒤에 있는 벽에다 “김일성 환영하자, 이승만 타도하자, 스탈린 대원수 환영하자” 등을 써 붙이는 일이다. 그때 나는 그림을 잘 그려서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서 붙였다.

그렇지만 나는 반역자 가족이라고 하여 높은 자리는 주지 않았다. 오빠가 월남을 하여 우리를 반동분자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수풀에 앉은 새처럼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줄을 서서 가는데 5학년 동네 반장이 인솔해 갔다.

신발은 짚으로 만든 짚신과 천이 없어 옷도 제대로 입지 못 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길쌈 솜씨가 좋아서 옷 입는 게 나왔지만 다른 아이들은 옷이 형편이 없었다.

◆ 청대산 샘에서 물동이로 20~30분 걸어서 물을 여 날랐다.

공책은 벽지를 바르기 전 먼저 벽에 붙일 때 쓰는 마분지 같은 초지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글씨를 쓰다가 잘못되어 지우개로 지우면 종이가 잘 찢어져 애를 먹었고, 책은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녔다. 교과서는 국어, 산수, 리과(과학), 음악, 미술책 등이 있었다.

겨울에는 학교에서 주는 나무가 모자라 땀감이 없어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어다 피우는데 솔방울을 학급마다 주어가니 산에는 마른 나뭇가지나 솔방울이 남아나지 않았다.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물동이를 이고 한번에 20~30분 걸리는 청대산 밑에 있는 샘물에 가서 물을 5~7번 길러다 물두멍(물독)에 부어 두고 썼다. 그때 청초호는 물이 맑아서 그물을 놓으면 고기가 잘 잡혀 생선도 잘 먹었다.

◆ 기차에 말, 탱크, 대포 그리고 소련 사람들까지 싣고 나갔다.

내가 5학년인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다. 우리는 전쟁이 났는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철길에 나가면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에 말, 탱크, 대포, 그리고 소련사람까지 싣고 남쪽으로 나간다.

그때 나는 저 탱크를 왜 싣고 갈까? 하고 생각했고, 얼굴이 시뻘건 소련 사람들이 무섭게 생겼었다. 그들이 말 타고 마을에 오면 무서워 도망 다녔다. 당시 동네 오빠들은 인민군대로 들어갔다.

어른들이 인민군이 남반부를 해방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8월이 되면서 비행기가 폭격을 하기 시작했다. 길을 가다가도 비행기가 보이면 비행기가 안 보일 때까지 어디든지 숨어야 했다. 아버지가 산에다 굴을 파고 문은 거적으로 만들어 가리고 낮에는 그 굴속에서 숨어 있다가 밤이면 나와서 밥을 해 굴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먹었다.

비행기 폭격이 무서웠고 먹을 것이 없으니 더 고통이었다. 머저리 비행기(정찰기)가 지나가고 난 후 조금 있으니 썩썩이 폭격기가 폭격을 해 댄다.

◆ 서북청년단 청년이 나를 군인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다.

경상도까지 내려갔다던 인민군이 갑자기 북으로 후퇴를 할 때 나는 친구들과 밖으로 나가보니 조발에 팔에 완장을 찬 서북청년단이란 청년이

몸에서 피가 꿀럭 꿀럭 흘러는데 그는 “나를 군인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였다. 우리는 무서워 도망가서 어른들께 알렸다.

동네 어른들이 올라가니 이미 죽어있어서 산에 묻어주었는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나중에 주문진에서 왔다는 그의 가족인 부모가 찾아와 시신을 파내가며 동네사람들에게 2만원을 주며 막걸리를 사 먹으라 했다고 했다.

9월이 되어 국군이 들어와 마을 앞 소야 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국군은 논산리 마을 앞에 있었고 인민군은 건너 만천동에서 건너다보고 총을 쏘아 대는데 콩 볶는 것처럼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난다.

그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굴속에 숨어서 소리만 들었다. ‘드르륵 드르륵’ 하고 나는 소리는 인민군 총소리고, ‘따콩 따콩’ 하는 소리는 국군의 총소리라 했다. 여기서 인민군과 국군도 많이 죽었다.

◆ ‘가가 거거’ 만 알고도 사상만 새빨가면 승승장구 출세했다.

이북 정치는 ‘가가 거거’ 만 알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사상만 새빨가면 승승장구 출세하고 형제간에도 3인조, 5인조 감시 조가 있어 신고하면 자유비판, 호상비판으로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비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못했으니 비판하시오, 하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니, 가족끼리도 마음 터놓고 말을 할 수 없는 사회다.

저녁마다 학습하는데 저녁이 늦으면 설거지도 못하고 간다. 우리 어머니는 호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며느리가 저녁학습에 늦을까봐 신경을 써서 나가라고 하였고 나는 어머니 대신 나갔다.

학습내용은 소련이 어떻고, 김일성의 업적을 배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을 받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났다. 만약 안 나가면 지서에 까지나가서 비판을 받는 큰일이 생기기전에 누구도 나가야 한다.

◆ 자아비판에는 집안 어른도 필요 없고 친구도 소용이 없이 두드려 팬다.

행사 때도 마찬가지다. 해방 행사(광복절)때는 동네를 지키려고 순행을

도는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 현재 속초 시청 앞 운동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모이는데 여기를 안 나갔다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궤기대회가 자주 있었는데 벽돌공장 김○○조부는 잘못한다고 총 개머리판으로 입을 맞아 이가 몽땅 다 빠지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매질을 한 놈이 그 집안 놈이라 했다. 오죽하면 주위사람들이 집안 어른을 매질을 한 그놈을 통일이 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정도로 찾아가 때려죽인다고까지 했을까.

증바우(정암리)에 있는 ○○○는 동사에서 궤기대회를 하는데 김일성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써 달라고 하는 것을 인민위원장도 있고 세포위원장도 있는데 왜 나를 쓰라고 하는가. 라고 말하다 잡혀가서 얼마나 맛있는지 정신을 잃자 찬물을 뿌리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문초를 받으러 나가니 매를 때리는 놈이 다른 놈도 아닌 학교 친구였다. 그래서 “야! 너 누구자니?” 하자 그래도 그 친구는 물푸레 작대기로 인정사정도 안 봐주고 때렸다.

용호리 장복한씨는 굴속에 숨어 지내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초를 받으러 나오게 되었는데 마침 친척 할머니가 공수전으로 재가하여 낳은 아들이 인민군 장교가 되어 왕별을 달고 나왔다.

그때 그 장교가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묻자 나는 “왜 왔는지 저도 몰라요?” 라고 했더니 나가라고 해서 “나 허리띠가 없어 못가요.” 하니 줄병을 시켜 허리띠를 구해주어 매고 나왔다고 하면서 공산당사회도 백이 있으니 좋더라고 말했다.

◆ 언니는 길게 뺨은 머리를 뒤로 올리고 남편이 군인을 갔다고 했다.

우리 오빠는 나보다 2살 많은데 강습 간다고 집을 떠났다. 어느 날 오빠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봉투가 없어 공책을 뜯어 풀로 만들어 붙인 것인데 뜯어보니 연필을 가늘게 갈아서 쓴 글씨로 내가 속아서 왔다고 써져 있었다. 강습을 갔다는 오빠는 인민군에 간 것인데 그 후로 소식이 없었다.

인민군이 북으로 밀리고 있을 때 우리 동네에 무슨 국군부대가 주둔했

는데 우리 큰집이 부대장 숙소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지 사병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해 단련을 덜 받았다. 그때 언니는 길게 땀을 머리를 뒤로 올리고 남편이 군인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조카딸은 군인들의 밤을 잠깐 동안 해주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될 무렵인 20세 때 남편 얼굴도 못보고 증바우로 시집을 왔다. 그때 남편은 23세로 치안대원으로 상도문에 주둔하고 설악산 공비토벌을 다녔고 이따금씩 집에 왔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시어머니가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남편은 치안대에서 나오고 바로 징집기로 국군에 입대하였다.



- 이계영(남, 83세, 강현면 정암리)
- 면담일 : 2017. 10. 8



◆ 비행기가 나타나 방공호에 들어가니 물이 허리에까지 찼다.

강현 인민학교 5학년을 졸업하고 장산리에 있는 강현중학교 1학년 때 6·25전쟁이 났다. 7월 들어 비행기 공습을 피하기 위해 지하 통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3학년은 2명씩 전망대에 올라가 땅을 보고 있다가 비행기나 군함이 보이면 종을 치면 학생들은 통로를 통해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는 데 방공호 굴 한 곳에는 10명에서 15명씩 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방공호 굴 지붕은 나무로 걸치고 흙을 덮고 풀을 심어 위장하였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해제!’ 하고 소리치며 종을 치면 다시 교실로 들어가 공부를 하였는데 항상 불안하였다. 여름에 비가 오면 방공호에 물이 허리까지 찼다.

비행기가 나타났다고 종소리가 나면 옷이 다 젖어도 방공호로 뛰어가야 했다. 학생들은 학교를 지킨다고 목총을 지급받아 4~5명씩 짝을 지어

총검술, 총을 쏘는 연습을 하였다.

◆ **낙산역에 말먹이용 마초가리가 폭격으로 다 타버렸다.**

그러다 3학년은 군에 입대하였다. 철길에는 기차로 말을 싣고 계속 나가는 것이 보였다. 마을마다 말을 먹일 풀을 베어 정암 2리에 있는 낙산역에 쌓아 놓았는데 폭격으로 다 타버렸다.

형이 두 분인데 모두 인민군에 입대하였다. 부모님은 형들이 돌아온다고 피란도 안 가고 기다렸다. 인민군들이 마을에 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도 형들이 인민군에 갔다고 건드리지 않았다.

1·4후퇴 시 정암 1리는 불에 타지 않아 우리 동네는 피란처라 하였다. 국군이 들어오기 전에 집집마다 방공호를 파고 숨어 살았는데 그때 비행기 폭격으로 몇 집만 불에 탔었다.

그리고 인민군이 나왔을 때 인민재판을 하는데 사람을 꿰어앉혀놓고 물푸레 작대기로 때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때 우리 아버지도 끌려갔는데 형들이 인민군에 갔다고 매를 안 맞고 살아 돌아왔다.

◆ **군함이 좌초되어 파도에 밀려 아주 귀한 아스피린도 밀려나왔다.**

군함이 폭파되었는지 좌초되어 바닷가에 나가면 옷, 깡통, 담요, 목재들이 파도에 밀려나와 주어다 모아 놓았는데 뒤에 따라 오던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했고 아주 귀한 아스피린도 있었다.

그때 바다에서 통이 밀려 나왔는데 누가 잘못 말해서 총이 나왔다고 신고를 하여 용호리 내무서에 잡혀 굴속에 데리고 가더니 총을 들이대고 싸 죽인다고 하며 어디다 숨겨놓았느냐고 대라고 했지만 모른다고 하니 솔직히 말하면 보내준다고 하였다.

몇 시간을 총을 철커덕 거리며 협박하였으나 나는 총을 본적이 없다고 하여 풀려나왔다. 바닷가에서 주어진 약품, 깡통들을 굴속에 숨겨놓았더니 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은 미국 놈의 군수품이니 몰수해 간다.’ 고 하면서 모두 빼앗아 갔다.

◆ 박격포탄을 지고 둔전리로 해서 설악산으로 올라갔다.

국군이 다시 들어와 강선리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이었다. 나를 오라고 하여 갔더니 군복을 입히고 걸방을 만들어 짐꾼이 되어 박격포탄을 지게하고 설악산으로 들어가 국군들과 같이 일주일을 다녔는데 때마침 후퇴명령이 내렸다.

총도 안 매고 밤새 걸어 강릉을 지나 삼당령 부근까지 가서 시골 학교에 들어가니 교실은 3개였다. 강릉서 며칠을 주둔했다가 다시 진격명령이 내렸다.

강릉에서 3~4일간 걸어서 손양에 왔다. 여기서 또 60mm 박격포탄을 지고 둔전리로 해서 설악산으로 올라갔다. 산에서 잠잘 때는 낙엽을 긁어 우의로 하늘을 가리고 잤다. 야간에 이동할 때는 앞사람을 잡고 가는데 졸다가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장교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몽둥이로 때리며 행군을 재촉했다.

군인들은 다시 신흥사로 이동하여 절 앞에서 1주일을 묵었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 민간인들이 묻어놓은 감자를 파내어 먹었다. 몇 끼를 굶다가 보급품을 수령하러 갔을 때 생고구마를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 군인들이 머물다 간 빈 마을에는 쌀, 감자, 김치는 남아나지 않았다.

그때 신흥사에는 아주머니 한분이 남아서 절을 지키고 있었다. 설악산에서 후퇴할 때 항고에 밥을 하는데 인민군이 뒤쫓아 온다고 하여 불을 끄고 이동하다가 또 인민군이 추격하여 몇 번을 이동하다가 밥을 하니 죽이 되었지만 너무 맛있었다.

집 생각은 할 겨를도 없이 쉬는 시간은 잠에 빠졌다. 부식 공급이 없어 밥을 지날 때면 밥에 남아나는 것이 없이 다 뽑아갔고 마을은 텅텅 비어 있었지만 군인들이 지나가면 쌀, 감자, 김치는 남아나지 않았다.

장산리에 가니 젊은 사람은 모두 노무자로 끌려갔거나 피란을 가고 노인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신흥사 앞에서 이틀을 지내는 동안 설사가 나고 토하기 시작하여 치료도 할 수 있는 약도 없어 병세가 심해지니 집으로 보내주었다.



- 노좌현 (남, 81세, 강현면 물치리)
전 양양군 유도회장
- 면담일 : 2015. 8. 26



◆ 이웃끼리 땅굴을 파고 짐승처럼 살았고 그 속에서 애기까지 낳았다.

1950년 12월 말에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후퇴하면서 마을의 집들을 적군의 손에 넘길 수 없어 온 마을을 불태워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집집마다 처마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전시의 작전이라는 위압감에 누구하나 불만 한마디 못하고 내 집이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피란가라고 했다.

그러나 추운겨울이고 비행기는 연신 폭격을 퍼 부으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마음대로 나 다닐 수도 없었다. 피신을 하려고 속소마련을 위해 소나무가 무성한 산골짜기를 찾아 이웃끼리 땅굴을 파고 집처럼 그 속에서 온 가족이 짐승처럼 살았으며, ○○집은 땅굴 속에서 애기를 낳기도 했다.

봄이 되면서 전쟁은 점차 소강상태로 들어가 한집 두 집 옛 터에 돌담이나 움집을 지었는데 재목은 타다 남은 목재로 기둥을 세워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삶에 터전을 넓혀왔다.

◆ 두 어른의 인자한 심성 덕으로 사상적 보복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51년 2월 두 번째 양양을 탈환하여 북한 치하에 2개월 동안 남한에 협조한 사람들을 지명만 하면 때려죽였다는 소식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들려왔다. 이웃 동네라도 마음대로 왕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빠르게 들을 수 없었다.

남과 북의 정치성 보복행위로 서로간의 인명살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교리는 두 어른신의 인자하신 성심 때문에 단 한건의 불상사도 없이 난을 잘 넘겼다. 두 어른은 공산치하의 인민위원장인 ○○○과 대한민국

정치하의 ○○○이장 어른으로 두 분은 죽마고우이시다.

두 어른은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누군가는 마을지킴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며,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그것은 전쟁 전에 남쪽의 호림부대 대원이 마을 외딴 기와집 다락에 숨어서 얼마를 보냈는데 후에 발각 되어 여럿이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 그때는 손가락질 만해도 상대방을 잔인한 앙갚음을 가하였다.

김창희씨는 정미소를 하었는데 내가 마을에서 야학을 할 때 병을 가져 가면 남포 불(등불)을 켜 석유를 넣어 주시곤 하시어 항상 고마워했다. 그리고 당시 우리 형 두 분은 최은규와 인민군에 입대하였다가 국군이 고성까지 진격했을 때 셋이 도망쳐 집으로 나오는데 큰형이 회룡리에 왔을 때 미처 철수하지 못한 인민군 패잔병에게 잡혀 죽을 정도로 맞아 쓰러진 것을 마을 사람들이 업고 와서 살았고 작은 형과 친구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적군이 마을의 소 2마리를 끌고 갈 때 김씨 어른이 인자하신 설득으로 그냥 돌려보내고 소를 찾아왔다. 또한 한 여성을 보고 여자 책임자라고 잡아 가려고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설득을 하여 무사했다. 그때는 손가락질 만해도 서로 때려죽이고 반죽음을 시켜 놓았다. 한쪽이 그런 것을 하면 반대편이 득세하면 마을 사람끼리 사정없이 패는 사건이 다반사였다.



- 문동재 (남, 84세, 강현면 물치리)
- 면담일 : 2015. 6. 12



◆ **총도 지급받지 못한 체 안동까지 따라갔다가 도망을 쳤다.**

나의 출생지는 강현면 정암1리 이며, 어려서는 양양읍 서문리 99번지에서 생활을 하며 자랐다. 1950년 6·25전쟁 때 고급중학교 2학년이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8월 25일 신체검사도 없이 인민군에 끌려갔다.

훈련도 없었고, 총 쏘는 연습도 없었으며, 수류탄 투척도 배우지 않았다. 총도 지급받지 못하고 인민군 바지만 입고 집에서 입고 간 흰색 상의만 입고 도보로 안동까지 따라갔다.

총을 가진 인민군은 중대장급만 권총을 차고 있었다. 먼 길을 걷다보니 신발도 떨어져 발이 몹시 아팠고 식사는 하루에 주먹밥 한 덩어리가 전부였다. 배가 고프니 밭에 들어가 무를 뽑아먹고 산에서 머루 다래 같은 열매를 따 먹었다.

낮에는 비행기 폭격이 심해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걸었다. 안동 부근까지 갔을 때 선발대가 폭격으로 해산되다 시피 와해되고 말았다. 나는 마침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도망쳐 산속으로 들어섰다.

◆ **무정장군이 이끄는 인민군 패잔병이 우리 뒤를 따라오다.**

안동 인근에서부터는 큰길을 마다하고 주로 산길을 따라 산봉우리과 영을 넘어 백담사까지 와서 어떤 영(마등령으로 추정)을 넘어 신흥사까지 오니 땀이 나고 너무 더워 냇가에서 목욕을 하는데 국군이 나타났다.

“야! 손들어!” 하고 국군이 총을 겨누고 나를 불렀다. 나는 옷도 벗었으니 대항할 것도 없이 국군에게 잡혀 막사까지 왔다.

“너, 무얼 했어!” 하여 나는 학교에 다니다 잡혀 안동까지 갔다가 도망쳐 설악산까지 온 경위를 말했다. 특히 형이 월남하여 8연대 누구라고 하니 군번을 대 보라했다. 마침 나는 그전에 형에게서 온 편지에 군번이 적혀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큰형은 강릉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하니 국군이 확인하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주먹밥을 주어서 먹으니 마음속으로 며칠 만에 먹어보는 밥이더냐고 생각하면서 밥을 다 먹고 나니 살 것 같았다. 안동에서부터 그

렇게 갖은 고생을 하면서 국군에게 잡힌 날이 1950년 10월 9일이었다.

그 후 나는 인민군 따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마음도 편하고 먹는 것도 좋았다. 국군을 따라 북쪽으로 들어가 원산에 도착했는데, 우리 뒤에서는 국군에게 쫓기는 북한 무정장군이 이끄는 패잔병들이 뒤쫓아 온다고 했다.

그때 어떤 포로들은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신원도 확실한 것 같고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하니 손도 묶지 않고 잘 대해주었다.

◆ 반공포로와 공산포로 간의 싸움에서 방망이로 때려죽이는 일이 있었다.

국군을 따라 다니고 얼마 후 나는 원산에서 LST군함에 태워졌다. 며칠 만에 도착한 곳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였다. 옷을 벗기고 가슴에 PW(전쟁 포로)라는 글씨가 박혀 있는 옷을 입혀주었다. 수용소 생활은 무서웠다. 반공포로와 공산포로 들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방망이로 때려죽이는 일도 있었다.

나는 어떤 편에도 들지 않고 조용히 지내다가 우리는 그 안에서 반공청년단을 결성하여 가입하였다. 규약도 목표도 정하고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을 정하는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후에 나는 광주포로수용소로 이전되어 포로 중에 글을 모르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국어, 수학을 가르쳤고, 외부에서는 민주주의나 기타 지식을 가르치는 인사가 와서 가르쳤다. 우리 반공 포로들은 미군들도 잘 봐주었다.

◆ 반공포로 출신들은 주문진을 넘지 못하게 막았다.

1953년 6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을 실시했다. 저녁에 한국 헌병이 와서 새벽에 철조망을 넘으라고 일러 주었다.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당시 원용덕 헌병사령관이 알려주었다. 우리는 옷에 포로를 표시한 모든 글자를 휘발유로 지우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3m 높이의 철조망을 순서대로 올라가 아래로 뛰어 내렸다.

그리고 뛰어 광주 옆 영광군 불갑면에 3명이 같이 아무 집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고생했다며 밥을 주었다. 며칠을 숨어 지내다 기차로 주문진에 왔다.

그러나 반공포로는 주문진을 넘지 못하게 했다. 마침 형님이 주문진 지서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형님 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를 가르치며 한 달을 지냈다. 얼마 후 형님의 주선으로 버스를 타고 38° 선을 넘어 4년 만에 양양 집에 오니 다행히 부모님들은 살아계셨다.

한 달 가량 집에 있다가 한국군에 입대하여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9383443군번을 받았다. 제3보충대로 와서 1군사령부 감찰참모부 검열과 소령 정기택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정소령은 부대 검열을 다니면서 시인서를 받아다가 나에게 주면 검열 검사보고서를 차트로 작성 1군사령관 백선엽 장군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차트 펜이 없어서 붓으로 차트를 썼다. 하사로 근무하다가 제대하여 경찰 전문학교에 입교하여 경찰이 되었다.



- 이덕모 (남, 81세, 강현면 회룡리)
- 면담일 : 2015. 6. 12



◆ **어머님이 객지서 폭격을 맞아 죽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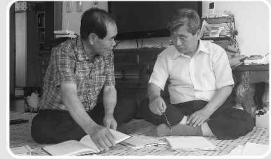
인공 때 회룡인민학교를 5년 졸업하고 강현초급중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 학교를 다니다 전쟁 때문에 중단하고 집에서 아버지 농사일을 도왔다. 아버지는 강현면 우체국 집배원이었는데 전쟁 때 어디로 가셨는지 행방을 알지 못했다.

인민군이 밀리면서 마을에서 국방군이 오면 모두 죽인다더라 하고 말이 돌아 마을 사람들과 북쪽으로 피란을 갔다. 나는 이불 붓짐을 지고 동생 3명과 속초 노학동 척산까지 갔는데 잠자리도, 식사도 모두 불편하였다.

피란을 가다가 폭격에 맞아 죽느니 어머니가 죽어도 집에 가서 죽자고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그길로 북쪽으로 갔는데 그 후 생사도 모른다. 이번에는 국군이 밀리면서 다시 피란을 가게 되었다. 양양까지 가서 3일을 지내다 먹는 거나 맘대로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살았다.



- 추종삼 (남, 81세, 강현면 둔전리)
호림부대 유족회 총무국장
- 면담일 : 2017. 11. 16



◆ **자동차가 없어 우차 십여 대로 대포와 포탄을 하광정으로 실어 냈다.**

1950년 초 간곡리 최중옥 아저씨가 우차를 몰고 부역을 갔다 와서 외삼촌과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머지않아 전쟁이 날 것 같다고 했다. 양양 연창역에 가니까 각 면에서 우차가 몇 십대씩 모여 왔는데 기차에서 내린 대포, 포탄, 등 전쟁 물자를 가득 실어 왔더라고 했다.

인민군들이 그 전쟁에 쓸 물자를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일주일 동안 하광정, 중광정에 실어냈다고 했는데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6세부터 서당에 다니다 늦게 인민학교 3학년에 들어갔다. 서당에서 천자문 띠고, 명심보감, 동몽선습, 조선역사 등등 기자 조선부터 한일 합방까지의 역사내용을 배우고 학교에 갔다.

학교 통학반장인 중학생은 구호를 부르며 학교에 간다. 구호는 김구, 이승만 타도하자! 미국 양코재비 몰아내자!를 끝내고 와서는 숙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낮선 사람을 만나면 학교나 인민위원회에 가서 신고를 해야 했다. 학교에선 “용감한 인민군이 남한 괴뢰군을 쳐부수고 대구까지 갔다”고 매일 선전에 열을 올렸다. 곧 낙동강을 건너 부산까지 진격하고 통일을

한다고 장담했다.

◆ 노인과 애들만 남기고 어른들 70%가 이북으로 들어간 사연

미군의 참전으로 비행기가 고무신짝 같은 모양을 하고 왔다는 미군 섹씩이 전투기가 와서는 폭격을 하고 갔다. 회룡학교 밤나무에서 종을 치면 방공호에 피신을 한다. 사람들이 낙동강에는 시체가 다리 놓고도 남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했다. 맥아더장군의 지휘 하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밀리니 손양, 서면의 세포위원장, 민청원 등이 피란가라고 다녔다.

사람들이 북으로 가지 않으려고 둔전리로 모였다. 낮에는 산에 가서 숨어있고 밤에는 마을로 내려와 모인 사람들로 바글바글 거렸다. 아버지 외 사촌이 교사인데 북으로 가려는 걸 아버지가 못 가게 하였다.

그러나 한집에 노인과 10세미만 애들만 남고 70%는 이북으로 들어갔다. 그 당시 선생님들도 속으로는 공산당을 싫어했다. 추교직은 교사로 민주당이었는데 상평 김해김씨에게 장가가서 부인을 찾으러 북으로 갔다가 일주일 만에 혼자 돌아오기도 했다.

◆ 호림부대 첩자를 했다고 한사람이 말하면 모두 작대기로 때렸다.

유엔군과 국군이 반격을 하자 인민군을 북으로 후퇴를 할 무렵 영철사에 주둔하고 있던 수도사단 기갑연대 정보과에서 간곡리 외삼촌 별 되는 최○○ 농민위원장을 체포하여 죽인다고 하니 엄마가 펄펄뛰며 사정사정하여 살려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인민군이 나왔을 때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회룡리 최○○부친, 박○○씨의 딸인 박○○을 붙잡아다 인민재판을 하고 물푸레 작대기로 집안친척을 포함한 동네사람들이 저 아무개는 호림부대 첩자를 했다고 하자 한사람이 때리면 모두 작대기로 때렸다.

그 인민위원장 부인은 피란을 가지 않았다가 정보과에서 잡아다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년들이 고발하여 영철사 정보과에 잡혀갔다 왔다고 분

풀이를 한 것이다.

◆ 어머니는 일주일동안 은신처를 바꾸어 다녀서 살았다.

당시 내무서 사람들은 면장 집 방공호를 내무서가 임시 사용하며 가두고 끈으로 묶어두고 사람들을 작대기로 때리기도 하였다. 그 방공호에 남편이 호림부대대원이라는 죄명으로 저의 어머니와 그리고 최○○ 부인이 감금되어 항구에 밥을 해서 엄마에게 밥을 주고 오다가 사교리 영광정 앞 논둑길을 오는데 기관총 소리가 정신없이 나서 논두렁에 엎드려서 탄피가 막 떨어지는걸 보며 갔다.

4일째 어머니가 감금되어있는 방공호 사립문 열고 밥을 드리려고 갔다가 인민군이 불 폭탄을 맞아 화상을 입어 온몸에 붕대 같은 것을 감아놓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국방군이 양양 월리까지 들어왔으니 내일 이면 여기로 들어온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침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보니 다행스럽게도 방공호를 지키는 놈은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 쪽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석교리 채마정 쪽으로 건너가 집으로 올라와서 둔전리 최○○ 집과 명성이 집 사이의 뒤 산비탈 고양이바위굴에 송아리 단을 막고 어머니를 숨겨드리고, 저녁 때 밥을 싸가지고 어머니에게 주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인민군이 내려오기에 웅덩이에 빠져 얼굴만 내놓고 숨어 있다가 나와 방공호를 찾아 엄마의 은신처를 변경시켰다.

다음날 밤 10시경 큰 솔 골과 작은골 지나 올라가 소리를 지르니 어머니가 응답을 하여 가까이 가보니 얼굴이 붓고 멍이 들어 한참동안 붙잡고 울었다. 그리고 이창국 왕고모부 방공호에 옮겨 숨겼다가 5일 지난 후 둔전리 폭포 밑에 덕을 매고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은신하고 있다가 국군이 들어오자 어머니는 통곡하였다.

어머니는 얼마 전 위급에 처한 최○○농민위원장을 살려 주었더니 서로가 서로를 살려준 셈이다. 당시 인민군들은 외할머니를 앞세우고 어머

니를 찾아내라고 다녔지만 1주일동안 은신처를 바꾸면서 숨어 다니는 노력 끝에 무사하셨지만, 우리 어머니와 같이 내무서 방공호에 감금되었던 최○○ 어머니는 그 이튿날로 끌고 갔다.

우리 어머니는 나이 30에 남편이 호림부대 대원이라고 혹독하게 지냈다. 그 후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하시다 목에 핏덩어리가 걸려 1962년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호림부대는 1949년 전국의 청년운동 동지들이 결성하여 동해지구에서 유격대 활동을 한 부대이다. 대원 209명중 생존자는 함병주 외 37명인데, 함병주는 나중에 갈 곳이 없어 상북리의 유가족들이 1개월씩 돌아가며 보살폈다.



- 이진원 (남, 81세, 강현면 전진리)
- 면담일 : 2015. 8. 25



◆ 남한에 일가친척이 있으면 소년단원 가입은 안 되었다.

6·25한국전쟁 2년 전 월남했다. 왜 월남했느냐하면 인민학교 학생들도 소년단이 있는데 아무나 단원을 못한다. 남한에 일가친척이나 월남가족은 가입이 제한되었다. 단원에 들지 못한 아이는 소년단원과는 같이 놀지도 못했다. 또 말을 잘못하면 고발하기 때문에, 또 비판을 받아야하니 같이 놀 수도 없었다.

나는 제일 큰형이 월남하여 소년단에 가입하지 못하여 불만이 많았다. 북한은 배급제도인데 형님은 세포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무엇이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배를 타고 38° 선을 넘어 현남면 동산리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1948년 1월 어느 날 새벽 3시 38경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자고

있는 듯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38°선 다리 밑 도랑을 따라 기어들어가니 마침 도랑물이 얼어 가기가 어렵지 않았다.

날이 새자 인구에 도착하여 살금살금 숨어서 다니다가 할아버지 한분을 만나서 동산리를 물으니 “너 북쪽에서 오는구나.” 하셨다. “저기 이북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가 볼래.” 하고 데려다 주어 형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노인은 전진리에서 월남한 정연호 집 자리에서 살던 할아버지였는데 “네가 어떻게 왔니 너의 형이 여기 있어” 하신다. 그때 내 나이가 17세였다.

◆ 미군인지 소련군인지 분간을 못해 숨어 다녔다.

인구 정거장에서 미군을 보았는데 북쪽에서 소련 사람은 보아서 그런지 미군인지 소련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여 겁이 나서 숨어 다녔다. 형님 집에서 1년간 놀다가 학교에 들어갔다. 북에서의 학교생활과는 엄청 편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잘못하면 비판을 하는 시간도 없다고 자유스러웠다.

나만 나이가 많고 다른 아이들은 3~4살이 적었다. 인구초등학교 26회로 졸업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아침에 팡! 팡! 하고 대포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내가 살던 곳과 38°선은 10리 정도 떨어져 있어 구경나갔다.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피란가라고 한다. 월남가족은 제일 먼저 죽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피란을 나가야만 했다.

강릉을 지나 삼당령을 넘어 정선으로 갔다. 바다 쪽은 인민군이 상륙하여 바닷가는 가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줄지어 피란길을 걷는다. 이고 지고 아이들까지 자기에 맞게 짐을 지고 간다. 피란을 나가다가 중간에 작은 형을 만났는데 형은 국군 8사단에 입대하여 30여명의 부대원들과 후퇴하는 중이라고 한다.

군인들도 산중으로만 걸어서 잘 견지 못했다. 엄마가 배보자기에 밥을 싸서 형 일행에게 먹였다. 형이 떠나고 엄마가 병이 났다. 그래도 앓아누울 수가 없다. 동서남북 방향도 모른다. 그저 다른 피란민들과 같이 걸어만 갔다.

밤이 되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고 일어나 걷고 배고프면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을 해서 먹었다. 길을 가다가 감자밭을 만나면 생감자를 파먹으며 가다가 강릉에서 왔다는 태민이와 태진이를 만나 나이가 같은 또래라 같이 밥을 얻어먹으며 친 형제처럼 다녔다.

부산 동래 피란민 수용소까지 가니 피란민들은 떼를 지어 다니고 있었다. 밥을 주는데 그릇도 없어 주먹밥이고 잠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포대기 하나 들고 다니다 잠을 잤다.

◆ 배에 풍(돛)을 달고 올진까지 피란을 갔다.

1950년 10월 국군이 38° 선을 수복하였다고 소문이 나니 사람들이 떼 지어 국군 뒤를 따라 고향으로 떠난다. 대포소리가 나면 멈추고 조용하면 고향을 향해 걷고 새벽이면 또 걷고 낮에는 배고프면 밥 얻어먹으러 나갔다.

강릉 아이들과 자루를 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달라고 하면 보리쌀을 조금씩 주었다. 강릉까지 와서 태민이 형제는 떨어지고 나는 동산까지 왔다. 서로 살기 바쁘니 태민이 형제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아쉽다.

동산에서 예전처럼 살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참전하여 1·4후퇴가 일어났다. 인민군이 겨울에 나오면 사용한다고 집을 모두 태우는데 우리 집을 태울 때 아버지가 나오시지 않으니 국군이 아버지를 끌어내고 불을 질렀다.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피란을 가지 않으면 또 죽인다고 하여 배에 풍(돛)을 달고 올진까지 갔다. 전쟁 중에 장질부사 전염병이 돌았는데 형수가 걸려 미군부대 아스피린이 직방이라고 해서 구해 먹고 낫다가 재발되어 사망하였다.

큰형이 강릉 지필[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의 옛 지명]에서 사천까지 1인당 500원씩 받고 피란민을 배에 태워 주었다. 아버지도 피란 중에 병을 얻어 낫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가매장했다가 후에 장례를 치러드렸다.



- 김주혁 (남, 87세, 강현면 석교리)
양양군노인회장
- 면담일 : 2015. 8. 27



◆ **간곡리 뒷산에 방공호를 파고 가족이 함께 피신했다.**

1950. 6·25전쟁 당시 18세였다. 해방되던 해에 회룡인민학교 5학년 2학기에 편입하여 동생과 같이 다녔다. 담임은 적은리 장홍란 선생님인데 나보다 2살이 많았다. 졸업시험은 답안지에 쓰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제비로 뽑아 그 문제를 구두로 대답하는 시험인데 나는 최우등을 했다.

그래서 강현중학교에 무시험 합격하여 다녔는데 나보다 2~3년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나는 팔에 4줄이 간 빨간 완장을 차고 급장 노릇을 했다. 그때 간부들은 벽보주필과 무슨 책임을 맡으면 줄이 있는 완장을 찼다.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인민군이 남조선을 해방시키려고 남조선으로 차내려갔다고 선전했다.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낙산역(洛山驛:강현면 정암리 현 코레일연수원 자리)에 말을 먹이는 마초가리가 쌓여 있었는데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화염에 쑤였다. 비행기 폭격이 점점 심하니 학교 가지 않고 간곡리 뒷산에 방공호를 파고 가족이 함께 피신했다.

◆ **나는 할아버지의 기막힌 지혜로 인민군대 입대를 모면하다.**

전쟁이 심해지니 인민군대를 가라고 독려를 했다. 하루는 증조부께서 할아버지를 부르시더니 “너 산에 가서 옷 나무를 베어오너라” 하신다. 그때 증조부는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매일 하얀 버선을 갈아 신으시고 책만 읽으시는 선비이시었고 산신령처럼 하고 위엄을 보이셨다.

증조부는 그 옷 나무를 낮으로 척척 베어 화롯불에 올려놓고 옷 나무에 진이 나오면 그것을 내 온몸에 발라주셨다. 옷이 많이 올라야 인민군에 못 가게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옷이 오르지 않았다. 증조부는 다시 사랑방으로 부르시더니 이불 꿰매는 돛바늘을 가지고 손등과 손가락사이 그리고

몸을 바늘로 침놓듯 찌르더니 옷 나무진을 발라주셨지만 그래도 옷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 뒤 묘 등지에 나는 할미꽃을 뿌리 채 캐어서 절구에 찼어 온몸에 바르고 광목천으로 처매 놓으니 아주 따가 왔다. 하루 밤을 지나니 살이 부풀어 올랐다. 그것을 바늘로 따니 진물이 나와 혼디[부스럼,상처딱지]가 되었다. 그리고 팔을 부러졌다고 끈으로 팔을 걸어 매고, 다리도 그렇게 해서 혼디를 만들었다.

얼마 후 인민군이 와서 군대에 나가라고 오자 증조부가 “이봐 증손자가 움에 올라 고생을 하고 있으니 데려갈 생각을 말어! 이리 와 봐.” 하며 담뱃대로 내 배를 치켜 올리니 인민군이 흉측한 내 몸을 보고는 바로 돌아가곤 했다.

옷이 다 나오니 이번에 나를 사랑방으로 불러 몸을 바늘로 찢러 피가 나오게 하고 양젓물 병에 짚 꼬갱이(고갱이)를 담기놓았다가 묻히면 따가 왔다. 한참 있으면 부풀어 오르고 혼디가 되어 흉측스러웠다.

◆ 인민군 이었던 당숙과 함께 여우 골 토굴에서 살아남았다.

5촌 당숙은 전쟁이 나자 인민군에 입대하여 낙동강까지 갔다가 용케 살아서 후퇴할 때 폐잔병으로 돌아와 간곡리 집에 와서는 숨어서 가지 않자, 증조부께서는 당숙을 불러 “너 주혁이 하고 여우 발골에 가서 숨어 지내라.” 고 하셨다. 여우발골은 간곡리 뒷산인데 앞에 도랑이 있고 물이 흐르는데 여우가 자주 나타나 울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사람들이 으스스하여 잘 가지 않는 골짜기이다.

연기를 피우고 밥은 해 먹을 수 없어 백설기를 찌서 망태에 지고 여우골에 가서 바위 밑에 굴을 파고 숨어 살았다. 밤에는 동네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집에 내려와 옷가지며 먹을 것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증조부의 기지로 나는 인민군과 국군의 노무자로 잡혀 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 **함포 파편에 맞아 등에 업힌 아이는 죽고 마구간 소 눈에 파편이 박히다.**

비행기가 연일 폭격을 심하게 하니 일상생활이 안 되고 굴속에 살수 밖에 없었다. 비행기가 비스듬히 날아가면 배 쪽은 안전하다고 뛰어다니다가 기고나면 포사격을 해도 용케도 맞지 않고 무사했고 특히 함포사격도 무서웠다.

1950년 가을 할아버지가 벧짚으로 이엉을 엮고 계셨는데 아랫집 순이가 조카를 업고 놀러와 구경했고 고성에서 고종사촌들이 와있었는데 역시 이엉 엮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마당 텃밭에 함포폭탄이 떨어져 모두 혼비백산이 되었다. 진정되고 보니 업힌 아기가 파편이 귀 부분을 관통하여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었고 또 마구간에 매어놓은 소의 눈에 정통으로 파편이 맞는 일도 있었다.

◆ **나를 아껴주시던 장흥란 담임선생님은 북으로 피란 후 돌아오지 않았다.**

국군의 반격으로 모두 북쪽으로 피란을 갈 때였다. 나를 아껴주시던 회룡인민학교 장흥란 담임선생님이 피란을 가자고 오셨는데 하얀 행주치마를 뒤집어쓰고 오셨다. 그 때는 비행기 공습이 심하였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조부께서 절대 못가게 말리셨다. 할 수없이 선생님만 북쪽으로 피란을 떠나셨는데 그 후 선생님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려고 소에 짐을 실었는데 새끼를 낳은 어미소가 가려고 하지 않고 울고 송아지도 나오지 않고 음매 ~음매~ 하며 울고 있으니 작은 할아버지가 마구에 들어가서 송아지를 쇠스랑으로 때려 죽이고 떠났다. 그러자 어미소가 젖이 뽀고 울어대니까 형짚으로 입을 싸매고 울지 못하게 하고 끌고 갔다.

소의 울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면 군인들이 달려와 잡아갈까봐 그렇게 한 것이다. 증조부께서는 “나는 죽어도 집에서 죽을 테니 너희들이나 가거라” 하시어 우리들만 떠나게 되었다.

피란길은 석교리에서 물갑리와 사교리를 지나서 금풍리 골짜기까지 왔

을 때 식구들이 회의를 했다. ‘증조부도 집에 계시고 이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멀리 가겠어.’ 가지 말고 금풍리 골짜기로 들어가자고 하셨다. 깊은 골짜기는 아인데 숲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었는데 그 골짜기를 흔 집 골이라 했다.

할아버지 삼형제가 형겅으로 움막을 치고 살았다. 할아버지는 매일 간곡리 집에 계시는 증조부에게 가서 밥을 해드리고 오셨다. 한 달 가량을 그렇게 지내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이 이미 돌아와 살고 있었다.

◆ 태극기를 걸었다가 인민군 패잔병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1950년 10월 국군이 양양을 지나 고성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인민군 패잔병들은 산악지대로 들어오고 있었다. 둔전리 추교춘 부친은 문종이에 양푼을 얹어놓고 태극기를 그려서 대나무 가지에 걸어 마당에 게양하여 놓았다.

그러자 산에 있던 인민군들이 내려와 그 아저씨를 나오라고 하여 데리고 간곡리 뒷산을 지나 회룡리로 갔다. 얼마 후 사람들이 찾아가니 인사불성이고 똥을 싸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어 업고 내려와 간호를 했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후 사망하였다.

◆ 인민군패잔병을 소탕하려고 둔전리에 백골부대가 주둔했었다.

백골부대 대원들이 둔전리에 주둔했다. 이는 둔전리가 설악산으로 통하는 길목이고 또한 인민군 패잔병들이 산속에 은거하며 빨갱이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동네 사람들을 동사로 모이라고 하고는 빨갱이들이 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는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온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온몸에 헌디가 아물지 않았고 팔도 부러졌다고 매고 있을 때라 증조부가 가지 못하게 했다.

얼마 후 대원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방문을 열어 젖혔다. 증조부는 산신령 같은 풍채로 앉아계셨다. 그들은 “저 아이는 무어요?” 하면서 통명스럽게 말을 하자, 증조부께서는 “좋은 약이 있으면 약을 좀 주시게! 들어오게.” 하자

그 군인이 군화를 신어 머뭇거리자 “신발 자국은 닳으면 되지, 어서 들어오시게” 하고는 담배 대로 내 옷을 들어 보이며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서 보게, 나아 옴이 오르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어쩌나. 물러서서 보고 좋은 약이 있으면 주게.” 하니 그 군인은 흥측한 내 몸을 보고는 그냥 도망가듯 갔다. 그날 그들은 부대 취사장 일이 바쁘다고 동네 아가씨 3명을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며칠 후에 돌려보내주었다.

◆ **적색분자를 마을에 주둔한 부대에 밀고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이 전개될 때 ○○○씨는 마을을 다니며 “피란가지 말고 기다려라! 조금만 참으면 이북에서 사람이 나와 좋은 세상이 된다” 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사람이 간곡리 최은실 집에 와 있던 국군 백골부대 정보과에 알렸다.

정보과 대원들이 ○○○씨를 불러 말을 물어보더니 어디론지 데리고 갔다. 부대가 이동해 간 후 마을 청년이 나무하러 산에 갔더니 마른 솔가지가 있어 가까이 가니 솔가지 밑에 시신이 있어 마을에 알려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 장사를 지냈다.



- 김춘래 (여, 84세, 강현면 정암리)
- 면담일 : 2017. 11. 4



◆ **아버지가 동 장군으로 하루 종일 거름을 나르고 좁쌀 3되를 받아오셨다.**

왜정시대에는 아버지가 양양광산에 근무하여 우리 가족은 광산사택에서 살았고, 그때 나는 사택에서 지금 화일리에 있는 쉬일(화일)학교에 다녔다. 학교에 갈 때에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 서선리를 지나서 화일리에 학교가 있어 늘 뛰어 다녔고, 학교에서 일본말을 해야지 조선말을 하면 청소

를 시키고 늦게 보내주었다.

해방 후 외가가 있는 정암리로 이사 와서 강현 인민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산수는 일본학교 때와 같아서 쉬웠는데 한글로 배우는 국어는 어려웠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 했는데 이북정치에서는 외가 논밭을 몰수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아버지가 남의 밭에 똥 장군으로 거름을 하루 종일 저 날라 줍쌀 3되를 받아오시면 썩을 뜯어 줍쌀과 끓여 줍쌀 풀죽을 먹고 살았다.

아버지는 유교사상이 있어 상투를 틀고 계셨고 외출할 때는 갓을 쓰고 나가셨다.

동네에서는 낫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공산당 사상만 있으면 인민위원장이나 세포위원장을 시켜서 높은 자리를 주니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동네사람을 끌어다 막 때고 무서웠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살았다. 정암리 추○○가 월남했는데 그 집을 뜯어 고쳐서 마을 회관을 만들어 밤이면 회관에 모여서 사상교육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고 두드려 때고 하였다. 동네 김○○아버지도 맞아서 사망하였다. 그 놈들은 국군이 들어올 때 북으로 다 도망갔다.

◆ **그 집에 가면 밥은 굶지 않는다고 황이리 김씨네 집 민며느리로 들어갔다.**

16살 때 6·25전쟁이 났는데 아버지가 잘사는 집에 가서 살라고 하셨다. 나는 공부 더 하겠다고 하였지만 요때만 잘 넘기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 집에 가면 밥은 굶지 않는다.’ 고 하면서 서면 황이리 김씨네 집에 가라고 하셨다.

나는 동네 어른의 소개로 2월에 눈이 많이 쌓인 길을 빠지면서 김씨네 집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시는 집의 민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밤에 피란을 간다며 벽실령을 넘어 가는데 소가 새끼를 낳으려 하여 몽둥이로 막 때리며 현북면 법수치리 쇠나드리까지 갔다.

쇠나드리에는 시고모가 살고 있었는데 어미 소는 그 집 마구(외양간)에

들어가지마자 새끼를 낳았다. 그때 어미 소는 새끼를 낳으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하루 밤에 100여리나 되는 거리를 재촉하며 걸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달 후 진동리로 이사를 하여 시아버님이 산속에 움막을 만들어 주어 젊은 사람 들 몇 집과 숨어살았다. 그리고 얼마 후 중공군이 팽가리를 치며 몇 백 명이 쳐들어 왔다.

그들은 콩과 콩기름을 주로 먹고 지내는데, 먹을 게 모자라니 꼬챙이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주위를 찔러 묻어둔 쌀과 감자 옥수수 등 곡식을 찾아 꺼내 갔다. 중공군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손짓발짓으로 통했다.

◆ 얼굴도 보지 못한 남편이 될 사람을 3년 만에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어느 날 풀밭에서 바스락 거려서 가보니 국군이 숨어 있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 집에 데리고 와서 옥수수밥을 해 주었더니, 잘 먹고 간다며 살아서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하여, 꼭 살아야 한다고 위로에 말을 전해주었다.

어느 때인가 시숙님이 국군이 오자 수고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해방은 언제 됩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는데 그 놈이 국군이 아니고 인민군이 국군 옷을 입고 온 것을 알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불행한 일을 겪었다.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은 치안대에 들어가서 전쟁터를 다녔는데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고 남편 될 사람 얼굴도 못보고 시부모님과 셋이 피란을 다녔다.

나는 이렇게 3년 동안을 살다가 내 나이 19세에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는 군인으로 입대하자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정암리에 와서 살게 되었다.



■ 김광래 (남, 71세, 강현면 사교리)
전 경기도의회교육위원

■ 면담일 : 2017. 12. 5

이 글은 김광래씨가 유년시절 어머니에게 들은 내용(이야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공산주의에 반기를 들고 월남을 했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의 일이다.

당시 내가 사는 사교리는 38°선 이북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설정된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나라였다. 북조선은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됐고 공산주의에 반기를 들었던 많은 청년들은 자유주의를 신봉하며 38°선 이남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들이 주문진을 본거지로 호림부대를 편성하고 대 이북 유격전 및 첩보공작을 맹렬히 전개하게 된다. 이들 호림부대중 제5대대는 1949년 7월 1일 봉정암 근거지에서 철수하며 대청봉과 화채봉을 새로운 본거지로 하고 양양지구 반공청년과 연락을 맺고 ‘게릴라’ 공작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부대원 일부가 조부인 김철기와 10촌간인 김환기 집에 잠입하여 작전을 모의하게 된다. 이때 부대원이 위조군표로 양양읍에 나가서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아지트인 사교리 김환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군표가 위조임을 알고 가게주인이 내무서에 신고하게 된다.

이때 신고 받은 인민군들이 호림부대원의 뒤를 밟아 사교리까지 당도하여 김환기 집을 완전 포위하고 집중 사격을 가하자 호림부대원들은 전세가 불리함을 알고 부대원중 이계화는 현장에서 자폭하였고, 나의 아버지인 김남열과 8촌 관계였던 김남홍 부대원은 여러 곳에 총알을 맞았지만 목숨이 붙어있어 들것에 실려 잡혀가게 되면서 집주인 김환기도 함께 잡혀 끌려가게 되었다.

◆ 친척에게 밥을 차려주었다고 반동분자의 집으로 몰려 감시를 받았다.

나의 조부이신 김철기와 10촌간인 김환기는 당시 60이 넘는 노인 이였으며, 이 두 분은 이 사건이 발발하기 30년전 인 1919년 4월 물치만세운동

과 양양만세운동을 주도한 분들이다.

호림부대 위조군표 사건으로 수발의 따발총을 맞았으나 목숨이 붙어 있는 김남홍은 취조과정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호림부대의 행적을 털어 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이사건과 무관하게 대목수로 원산등지에서 건축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인민군에 의해 잡혀가게 된다. 8촌 동생인 김남홍이 고문 중 우리 할머니가 호림부대원들에게 저녁을 차려 주었다는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다.

호림부대원 친척에게 식사 한 끼 제공한 죄로 옥순 노모를 대신해서 끌려간 아버지는 과거에 본인의 부친이셨던 김철기 공이 3·1만세운동으로 술한 고문과 옥고를 겪었던 제2원산형무소에서 29세의 젊은 나이에 죄 없는 죄인으로 총살당하는 기막힌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도 나의 어머니는 이 뼈아픈 슬픈 상황을 가슴에 안고 죽지 못해 평생을 살았음을 자라면서 강도 높게 깨닫게 되고 강하게 성장하고자 수 만 번 가슴에 새기기도 했다.

우리 집과 김환기 집은 호림부대 사건으로 반동분자의 집으로 몰려 수많은 감시와 멸시를 받게 되면서 평화로운 마을에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피해와 즉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피치 못할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무수히 내재되기 시작했다.

◆ 4촌간에도 나쁘게 고하여 죽이고 죽는 상황이 많았다고 한다.

1950년 10월 어느 날 사교리에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 국군이 진격하며 특수요원들이 마을마다 빨갱이, 즉 공산주의 정치에 협조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들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서 많은 동네 분들은 우리 어머니와 이장에게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아버지는 죄 아닌 죄로 인민군에 끌려가 총살당하고, 그 아픈 상처가 조금도 아물지 않은 1년도 안된 시점에 이 마을에 자식이 인민군대에 가 있는 집들만 공산조직에 협조한 집으로 말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이북지역이었으므로 젊은이들은 당연히 인민군대에 갔고 똑똑한 사람들은 공무원을 하는 등 북한 정치 행정에 몸담을 수밖에 없는데 국군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 집안도 호림부대원에게 저녁을 차려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 집안 김○○는 교사를 하다 월북했고 김○○는 인민군대 빨치산에 가입, 수십 전투에서 총알에 맞고도 살아남은 전쟁 영웅이고 아버지는 비록 원산형무소에서 죄 없이 처형당했지만 그 전에는 건축기사였다.

이때 주변의 많은 다른 마을에서는 정세에 따라 4촌간에도 그 행적을 나쁘게 고하여 죽이고 죽는 상황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9.28수복이후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으셨다고 했다.

본래 나의 어머니는 성품이 강직하셔서 말 수가 적었고 남의 흠이나 약점은 입에 오르내리지 말라는 것이 내 어릴 때 중요한 어머니 훈육이었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리고 이때 이장을 보던 김창희 할아버지가 마을사람에게 하였던 일들을 나는 어머니로부터 여러 번 전해 듣게 된다.

◆ 끝까지 마을을 위하여 희생하신 두 분의 이장님들 덕분에 피해가 없었다.

당시 이장 김창희는 독립운동가인 김철기의 수제자로 마을 일을 오래보면서 집안 내력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국군이 들어오면서 마을회관에 이장을 끌어내고 이 동네 친북 빨갱이를 불러며 엄청난 매질을 했다고 한다.

그때 이장은 의식을 잃으면서도 이 동네는 빨갱이가 없다고 끝까지 숨겼다. 사실 이때 미처 피란 못간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등에 숨어 있기도 했다. 이때 얼마나 심하게 구타당했는지 5~6년이 지난 어느 날에 배 보자기에 찹쌀밥을 넣고 우리 화장실 변기통에 넣었다 며칠 후 꺼내 짜서 먹는, 똥 물약을 쓰는 것을 참 많이 보았다.

당시 사교리는 이북의 공산정권 치하 때나, 국군이 들어왔을 때에도 끝까지 마을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두 분의 이장님과 과묵 하셨던 우리 어머

님 때문에 국군이나 인민군들에 의한 보복 피해가 전무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1·4후퇴로 국군이 밀려났을 때 다른 여러 마을에서 복수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다. 그리고 다른 마을과 같이 사교리도 모든 집들이 불타버리는 비참한



〈사교리 표지석〉

현실 속에서도 끝내 이웃을 서로 도우면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남과 북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사교리의 역사와 같이 어려울수록 인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을 때 진정 행복한 살맛나는 평화의 마을이 존속된다는 교훈을 새기며 사교리 마을의 아름다운 인내의 역사가 끝없이 이루어 나아가길 소망하며 합장한다.



- 이철수 (남, 75세, 강현면 전진리)
낙산신용협동조합장
- 면담일 : 2017. 11. 19



◆ 어린 시절 참혹한 공산치하에 살면서 남은 기억

세월이 흐르다 보니 6·25를 겪은 세대들도 거의 죽어가고 그때의 참혹하고 어려웠던 일들을 글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당시 양양군 속초읍 중도문리에서 살았는데, 속초 시내에서 논미고개(논산리 뒤 고개)를 넘어 청대산 아래 작은 농촌 마을이다.

나는 어릴 적에 짚신을 신고 옷은 어머니가 무명실을 뽑아서 베틀에 앉아서 ‘ 째깍 째깍 ’ 하고 소리를 내며 짠 천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당시 누

에를 쳐서 실을 뽑아 짠 명주는 아주 고급 옷이었다.

밥은 하루에 세끼조차도 먹기 어려워 질경이나 쭉이 밥그릇을 차지했다. 어느 날 우리 뒷집 미우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 갔다 온 후 마루에 앉아 쭉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집에 가시더니 보리밥 반 그릇을 다져다 주셨는데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누나는 왜 그 아주머니가 오셨을 때 밥그릇을 감추지 않아 창피했다고 종종 나에게 야단을 치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곡식이 아주 귀할 때라 들에 나물이나 바다풀 밥도 자주 해 먹었다.

나는 어려서 해방의 감격을 알지 못 하지만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 후 부터 기억이 있다. 저녁이면 형 누나들이 모여 가면 나도 따라 가 보았다. 사람이 많이 모인 동사 방에 어떤 청년이 나와서 연설을 하다가 책상을 ‘탁’ 하고 힘껏 내려치면 박수를 친다. 나는 그때 의미도 모르고 책상만 치면 박수를 쳐야 되는 줄만 알았다. 그리고 어떤 누나도 나와서 연설을 하고나면 또 박수를 쳤다.

연설이 끝나면 줄을 서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멀리서 앞서가던 한사람이 구호를 외치면 줄을 서서 가는 청년들과 누나들이 구호를 따라 외친다.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구호를 외칠 때는 그 소리가 메아리쳐서 아주 멀리 울렸는데 나는 밤에는 어둡고 무서워 따라가지는 않았다.

우리 집은 강 건너말 이라고 하여 네 집이 떨어져 있어 건너말 아이들과는 놀지 않고 뒷집에 송자라는 여자아이와 눈만 뜨면 그 애와 놀았다.

사람들은 송자 네를 보고 흰 패라고 부르며 가끔 군인들이 와서 그 집을 옷장까지 다 쏟아놓고 간 후에 그 집안은 이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나는 영문은 모르지만 흰 패는 나쁜 것이라 생각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송자 오빠인 김찬우가 월남하여 흰 패라고 부른다고 했다.

나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어린나이로서 형이 가르쳐주는 노래와 높은 사람들에 이름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 노래는 김일성 장군 노래이고 스탈린은 대원수이며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은인이고 무슨 장군, 무슨 상 등 북한사회의 고위직 이름은 다 외웠다.

그때 어른들이 나를 만나면 높은 사람들 이름을 외워보라고 시켰다. 그

러면 나는 신이 나서 줄줄 외웠고, 노래도 시키면 멋지게 목청을 돋우어 불렀다. 그 당시에는 책도 라디오도 없는 세상이라 버릇이 되어 김일성 장군 노래만 부르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느 쪽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부다. 여름 한날 동사 앞에 술문이 생겼다. 아저씨들이 소나무로 문을 만들어 소나무 가지를 꽂아 아치를 만들고 국기를 쫓아 놓고 사람들이 모여 박수를 친다.

옆에 가 보니 앞에 목침 크기만 한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박수를 친 것이다. 그 소리는 인민군이 남쪽으로 가서 남조선 을 해방시키고 있는데 며칠만 있으면 통일이 된다는 것이다.

통일 된다고 선전을 하던 인민군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경 상도 대구까지 밀고 내려가며 승승장구하던 인민군들이 북쪽으로 후퇴를 거듭하더니 국군이 38° 선을 넘어 진격해오자 설악산에서 전투가 한창 벌어 졌는데 아버지를 데려가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고 울고 야단이 났다.

그때 동네 할머니들도 와서 위로해 주었고, 설악산에서는 계속 대포 터 지는 소리에 불안하기만 하고 가족들은 안타깝게 아버지만 기다렸다.

그리고 한 보름이 지나서야 밤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더니 겁에 질려 말 도 잘 못 하셨다. 그때 아버지는 짐을 지고 설악산을 몇 번 올라갔다 왔는데 그날은 짐을 지고 따라 가는데 어떤 인민군이 무슨 다른 심부름을 시 키는 바람에 짐을 내려놓고 가는 것처럼 하면서 틈을 엿보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며 산길로 도망쳐 산을 넘어 오셨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우리 집은 서둘러 피란을 떠났는데 아버지와 그리 고 누나와 형이 짐을 지고 어디론지 가셨다. 그때 전염병에 걸려 같이 못 가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 작은 누나와 나는 피란을 못가고 집을 지켰다. 온 동네가 피난을 나가서 동네가 비었는데 낮에도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 했다. 후에 아버지는 손양면 도화리에서 피란 생활을 하며 고생을 하였다고 했다.

◆ 뒷집 옷장 속에는 기관총 알이 박혀 있었다.

어느 날 폭격기가 날아와 폭격을 하고 대포 터지는 소리가 끈이지 않으

니 아버지는 집 뒷산에 방공호를 팠다.

동그런 굴 입구는 커서 앞에 거적으로 문을 만들고 식구들이 밥도 거기서 먹었다. 나는 동생과 닢에는 뒷산에 가서 굴을 팠는데 땅굴을 파는 것 자체가 그때는 놀이처럼 여겼을 때였다. 그러나 흙냄새가 싫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고막이 터지는 듯 소리와 함께 포탄이 마당 앞 눈에 떨어져 한참 후에 나가보니 큰 웅덩이가 파여 있었지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다.

초가을인가 소를 매기러 논길에 갔는데 물치리 바닷가 쪽으로 시커먼 전투기 두 대가 날아가는 걸 보았다. 나는 또 북쪽으로 날아가겠지 하고 소에 풀을 먹이는데 갑자기 청대산을 넘어 그 전투기가 내가 있는 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그때 내가 가던 길은 논둑이어서 어디 숨을 곳도 없어 정신없이 논둑길을 뛰어 우리 집으로 숨는다는 것이 뒷집 부엌으로 들어갔다. 팡! 소리와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나다가 사라진 후 나는 정신이 나간사람처럼 뛰어 마당으로 나갔다.

그날 개똥이네 집과 문천집이 탔고 아랫말도 몇 집이 탔다. 나중에 보니 뒷집 옷장 속에는 기관총 알이 박혀 있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굴속에서 내가 총알을 피해서 논둑을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죽는 줄 알고 애를 태웠다고 했다.

지금도 아찔한 순간이었고 더욱 궁금한 것은 그 비행기가 왜 나를 쏘았으며 맞출 수도 있었을 텐데 겁만 주었을까 하고 생각해보지만 비행기는 조금한 어린애 보다 집을 폭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였다.

그렇게 비행기 폭격이 있는 후 산에 가면 기관총 탄피를 주을 수 있었다. 노란색 탄피가 좋은 장난감이 되었고 탄알 연결 고리는 불에 달구어 두드려 펴서 칼을 만들어 썼고 나무 막대에 기관총 탄피를 고무줄로 묶고 M1실탄에서 빼낸 좁쌀 같은 화약을 넣고 불을 붙이면 불꽃이 멀리까지 나오는 좋은 장난감이 되었다.

그리고 박격포 뒷날개에는 노란색 종이 같은 화약이 있었는데 뒷집에 사는 김○○는 거기에 불을 붙이자 불꽃이 날아가면서 얼굴에 붙어 화상

을 입게 되자 군인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아직도 그때 입은 화상 상처가 남아 있다.

대포바다 쪽에서 함포를 쏘면 ‘짜~르르’ 하고 소리를 내며 설악산 쪽으로 날아가는데 한참 후에 ‘우르릉 팡~’ 하고 설악산이 울린다. 저녁때가 되면 더욱 자주 대포 날아가는 소리를 들어서 어린 마음에 늘 불안하다.

밤이 되면 밖이 환해서 나와 보면 하늘에서 대낮처럼 불빛이 내려온다. 그건 낙하산이라 했다. 사람이 타고 내려 올 때도 있고 전쟁을 하려고 밝게 비친다고 했다. 청년들은 그 낙하산 천이 좋다고 주으려고 불꽃이 떨어지는 곳을 찾아가는 청년도 있었다.

◆ **쌀독에 흙을 섞어 땅에 묻어 놓고 피란을 나가는 집도 있었다.**

인민군이 북으로 완전히 쫓겨 가고 국군이 들어왔다. 어린 나이던 그 시절 나는 이남 군인이 우리와 다르게 생긴 나쁜 사람인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국군이 우리 마을로 들어왔는데 총을 메고 양 어깨에 총알을 주렁주렁 메 달았다.

전에는 모자를 쓴 인민군대만 보아서 그런지 철모를 쓴 군인은 무섭게 보였다. 마을에 와서 나가보니 그 군인들이 건빵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었는데 그때 누나는 무섭다고 나오지도 않았지만 국군이 주던 건빵은 바삭 바삭 한 것이 아주 맛있었다.

건너말 경일이네는 피란 갈 때 뒤뜰에 쌀과 감자를 묻고 떠났는데 다른 집은 쌀을 비롯한 감자와 무를 모두 파내갔는데 경일이네 쌀은 무사하였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쌀독에 쌀을 넣을 때 위에 흙을 섞어 놓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흙과 짚을 덮었는데 인민군들이 봉양 꼬챙이로 산에 봉양을 찾아내듯이 집집마다 다니며 찔러 찾아냈지만 흙이 섞여 있는 쌀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피란에서 돌아온 경일이 어머니는 그 쌀을 쌀남박[이남박: 안쪽에 여러 줄로 고랑이 지게 돌려 파서 만든 함지박으로 강원도 방언]으로 쌀을 씻어 일 때에 돌과 흙을 골라내고 밥을 해 먹을 수 있어 동네 사람들은 경일이 할머니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의 말이 입에 오르내렸다.

전쟁 중에 고성에서 피란 나온 권영달 이네가 동네 사랑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는 어디 가서 예쁜 빈 깡통을 구해다가 가위로 잘라 그릇도 만들고 재떨이 등 여러 가지를 만들고 깡통을 펴서 이어 붙여 지붕을 덮어 알록달록한 양철집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깡통쟁이 집이란 택호를 지어 주었다.

그러나 그 집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동네사람들에게 ‘고성집’ 이라고 불러 달라고 음식도 해 먹였지만 깡통집이란 택호는 바뀌지 않았다.

◆ 미군 쓰레기장에 차가 오면 아이들이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야단이었다.

그 당시 그 집 권영달이 나이가 비슷하여 그 아이와 같이 아저씨를 따라 동네 아이들과 하도문에 가면 맛있는 게 있다고 가자고 했다. 무서워 혼자서는 못가고 여럿이 곁어서 하도문 제방 독에 가니 군인 트럭이 무엇을 내려놓고 간다.

가까이 가보니 여태껏 못 보던 사람들이 보였다. 하얀색 얼굴을 한 사람, 노란색 머리카락, 얼굴이 까만색 사람. 눈알도 파란사람도 있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다.

키는 엄청 컸고 코도 주먹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코재비 또는 코쟁이라 불렀다. 얼굴뿐만 아니고 손도 까만 군인을 잠둥이라 불렀다. 그런데 잠둥이가 더 무서웠다. 그리고 얼굴이 흰색 군인은 우리에게 과자를 던져 주었다.

그 과자는 동그란 모양인데 바늘구멍 같은 것이 있는데 아주 맛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 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과자를 더 얻으려고 무서웠지만 가까이 가보니 노란색 감 같은 것을 하나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미강(굴) 이라고 불렀는데 여태 보지도 먹어본 적도 없는 과일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과자를 얻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다른 동네 아이들도 있어 나는 형들 따라 다녔다. 다른 친구는 바둑알 같은 과자를 얻었는데 그건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씹는 것이라 했다. 친구가 나보고 씹어보라고 해서 입에 넣으니 찢덕찢덕 한 것이 이상했지만 달달한 맛이

났는데 그것을 껌(껌)이라 했다.

그곳은 미군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이다. 미군 차가 간 후 버린 곳에 가보니 냄새도 나고 파리들도 많았고 별 란 물건들이 많았다. 예쁜 색깔의 깡통과 병들이 많았고 깡통에는 먹다 남은 소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나는 예쁜 색깔의 깡통을 몇 개 주어서 왔다. 집에 오니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서 그 이야기를 하니 다시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또 가고 싶어 어머니 몰래 형들 따라 그 쓰레기장에 가곤했다. 미군 차가 오면 아이들이 달려가서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야단이고 나는 숫기가 없어서 뒤에서 좋은 것들은 남들이 다 주워가고 나머지가 되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미군을 보고 ‘헬로! 헬로!’ 하면서 손을 흔들면 과자를 던져 주는 데 쪼꼬레트(초콜릿)라고 하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거 하나만 얻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다. 쪼꼬레트를 얻은 아이보고 조금 띠어 달라고 하면 아주 조금 띠어서 주면 넘기지 않고 입에 오래 넣고 있다가 저절로 넘어갔다.

가끔 껌을 얻어서 씹었는데 몇 개씩 얻어서 씹다가 친구들에게 나누어 씹기도 하고 잠잘 때는 방 기둥에 붙여놓았다가 아침이면 떼어서 또 씹고 며칠씩 씹었다. 껌을 구하지 못할 때는 밀밭에 가서 밀알을 따서 오래 씹으면 껌처럼 되어 그것도 껌이라고 씹었다.

산에 미군이 주둔하다 떠난 자리는 여러 가지를 땅에 묻고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빨리 달려가서 구덩이를 파면 맛있는 과자며 고기, 깡통들이 나온다. 어떤 때는 따지 많은 깡통도 얻는다.

비닐에 들어있는 설탕도 나오고 껌도 있고 소금, 갈색 가루도 나오는데 맛이 쓰다. 어른들도 이 갈색 가루가 무엇에 쓰는지 몰랐다. ‘미군 놈들은 이상한 것도 먹는다.’ 했는데 나중에 커피인 것을 알았다.

◆ 대포학교는 군인들이 사용하고 우리들은 맨바닥에서 공부를 했다.

고성 쪽 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고 하였다. 대포학교는 군인들이 학교를 사용하여 학생들은 바닷가 조금 넓

은 맨바닥 방에서 공부를 하였다.

교과서가 없이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써 놓으면 공책에 베끼어 쓰고, 공책은 백노지 라고 하는 큰 종이를 잘라서 누나가 바늘로 매 주었고, 연필은 잘 안 써져서 침을 문히면 진하게 나오고 잘 못써서 지우려면 손가락에 침을 문혀 문지르면 종이가 찢어졌다.

필통에 연필을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책보에 써서 허리에 차고 다녀서 뛰어가면 ‘달그락 달그락’ 하고 소리가 났다. 연필을 꺾어보면 연필이 골아서 심이 부러져 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니 몇 년을 다녀도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

그래도 학교가 좋아 밥만 먹으면 더운 날 추운 날 바람이부는 날도 학교에 안가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십리가 넘고, 나무내 고개를 두 개 넘어야 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비 오는 날은 마대를 접어 고깔을 만들어 쓰고 비에 젖은 고무신은 미끈거리서 들고 다녔고 하천에 흙물이 불어나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 할 때 엮어 건너 주시던 아저씨는 구세주 같았다. 그래도 6년 개근상을 받았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 크레용은 본적이 6학년이 가서야 6개짜리 크레용을 처음 받아서 그것도 다 쓰지 못하고 졸업하여 그림 못 그리는 핑계를 댈다.

군인들이 전방으로 떠난 후 우리는 학교로 올라와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넓은 운동장도 있어 너무 좋았다.

그때도 학교에 점심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교실에서 밥을 먹는 학생은 없고 물 한바가지만 마시고 운동장에서 공차기를 하고, 여자들이 하는 고무줄놀이는 두 아이가 고무줄을 마주 잡고 발목에서 차츰 단을 올라가며 노래에 맞추어 고무줄을 넘는다. 고무줄넘기는 노래에 맞추어 춤추는 것처럼 신나게 놀았다.

공은 주먹한 정구공이었고 맨발로 차다보니 잘 못하여 땅을 차게 되어 발가락에서 피나니 일수여서 피나는 발가락에 마른 흙가루를 뿌리면 피가 멎었고, 오금팍(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도 하여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픈 것도 잊고 신이 나게 놀면서 배고픔을 잊고 점심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쯤은 점심때 우유를 배식했다. 학교 아저씨는 가마솥에 우유를 끓이고 학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 컵도 없이 선생님이 퍼주시는 한 바가지씩 마시게 했다. 그때는 그 맛이 메스꺼려 이상해서 안마시려 해도 선생님이 지키고 꼭 마시게 했다.

큰 드럼통에 우유가루가 나오면 봉지에 나누어주기도 했다. 그러면 집에 가지고 가서 밥할 때 솥에 넣어 두면 딱딱한 게 과자처럼 되는데 가지고 다니며 먹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동네 3,4학년 형들이 진달래꽃을 따먹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생긴 것을 주어왔다. 그것은 불발한 박격 포탄이었다. 그 형들은 길에 내려와 방망이 같은 포탄을 돌로 두드리다 터지면서 세 명이 논바닥으로 날아가 배가 갈라져 죽고 다른 형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형들이 폭탄이 터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른들이 내려갔고 아이들도 구경을 갔다. 나는 무서워 가지 못했고 학교 갈 때 그 곳을 지날 때면 소름이 끼쳤다. 그 후 부터는 학교에서도 집에서 절대로 산에 가지 말고 길로만 똑바로 오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 하였다.

◆ 가슴이 뭉클하게 느껴지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

북한 공산치하에 있을 당시에는 과도한 현물세를 내기도 힘들었고, 전쟁 중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처지여서 누나들은 놀지도 못하고 둥지리(바구니)를 들고 들에 나가서 쭉이나 배짱우(질경이)등 나물을 캐는 일이 일과였고, 둥지리를 채우지 못하면 어머니께 꾸중을 듣기도 했는데, 다른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예전부터 동네 형들과 자주 먹어 본적이 있는 송기를 먹으러 가끔 동생과 산에 올라갔다. 송기는 물이 오른 소나무 새순을 비틀어 속가지를 쭉 빼낸 다음 먼저 속가지에 단맛이 나는 얇은 막을 쪽 빨아먹고 난 후 소나무 껍질에 붙어있는 솔잎과 겉껍질 뜯어내고 하얀 송기줄기를 먹고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다.

또 봄이면 산으로 가 진달래꽃을 따먹으면 입이 새파래져 서로 쳐다 보며 웃어댄다. 그때 어른들은 꽃이 핀 곳에는 문둥이가 숨어있어 어린아이의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아간다고 하며 못 가게 했다.

하지만 진달래가 피어있는 산은 놀이터이기 전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장소였고,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냇가 언저리에서 주로 나는 짙레의 연한 새순은 어린아이들에게 또 다른 먹거리 이기도 하였다.

식사 때만 되면 나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밥은 시켜뭇고 나물밥이 아니면 죽이 다반사니 성에 차지 않고 반찬이라야 된장국에 김치가 전부였다. 밥상은 아버지만 차려드리고 우리는 방바닥에 구박이라는 큰 그릇에 퍼서 방에 들여오면 우리는 숟가락만 가지고 달려들어 먹으니 젓가락 필요 없었다.

그때는 우리는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도 없던 철없는 시절이었고 어머니는 밥을 먼저 들여보내고 나중에 들오셔서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아 밥을 퍼 먹는 모습을 바라만보고 계신 줄은 세월이 꽤 흐른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때는 조그만 배속에 왜 그리 밥을 많이 들어가는지 큰 밥그릇에 고봉으로 담아도 많게 보이지 않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배는 같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를 일이었으며, 먼저 육남매의 배를 채우느라 늘 배를 곯고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가슴 뭉클하게 느껴진다.

또한 나의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5월이 들어 제삿날이 돌아올 때가되면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려운 살림에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을 때이지만 그 날만큼은 이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제사는 꼭 밤중에 지내니까 나는 잠을 쫓으려고 눈을 비비고 찬물에 세수를 하고나서 잠시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날이 환하게 새었고 제사가 다 지나가자 나는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서 울기 시작했다.

나를 왜 안 깨웠냐고 어머니에게 생떼를 쓰면서 불평을 늘어놓았고,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하였지만 나는 그때 화풀이를 한답시고

책 돌아왔으며 밥을 먹지 않고 울다 돌아보니 모두 일하러 가시고 아무도 없었다.

나는 우는 것도 지쳐서 슬그머니 울음을 그치고 부엌에 가서 부뚜막에 올라가 무쇠 솥을 열어보니 이밥을 넣어두고 나가셨다. 당시 나는 철모르는 어린 아이였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양심이 있었는지 어머니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6·25한국전쟁 시기 양양군민이 겪은 이야기 Ⅱ

- | 발행인 |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 | 집필자 |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원 이철수, 김재환
 - | 편집인 |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소장 이규환, 고문 이종우
 - | 교정인 |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김양식, 김광영
 - | 감 수 | 양양문화원사무국장 김진하
 - | 발행처 | 양양문화원
 - | 인쇄처 | 한솔
 - | 발행일 | 2017년 12월
-



양양문화원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033-671-8762

www.yangyang.or.kr